

# 郷歌 <處容歌>와 高麗歌謠 <處容歌>의 比較 研究

- 構造와 性格을 中心으로

김진욱\*

<차례>

1. 서론
2. 郷歌 <處容歌>의 構造와 性格
3. 高麗歌謠 <處容歌>의 構造와 性格
4. 결론

## 1. 서론

문학의 일반적 속성에 의하면 새로운 장르의 출현은 항상 기존 장르의 영향 아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국문학사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반론을 도외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시가문학사에서 향가 장르와 고려가요 장르의 연결 고리를 찾는 작업은 요원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향가 <處容歌>와 고려가요 <處容歌>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찾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두 작품의 상관관계를 나아가 두 장르의 상관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향가 <處容歌>의 경우 그 동안의 연구 경향은 어석의 문제로부터 출발

---

\* 조선대학교

하여, 노래 성격에 관한 연구, 처용에 대한 연구, 무속과의 상관성 연구, 고려가요 <處容歌>와의 비교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었다. 성과물 역시 연구사를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축적 되었으니, 이제 어느 정도 향가 <處容歌>의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이에 반하여 고려가요 <處容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성과물이 이제는 새로운 작업을 가능하게 될 정도로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성과물을 기반으로 향가 <處容歌>와 고려가요 <處容歌>의 비교 연구는 두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며, 우리 시가문학사에서 향가 장르와 고려가요 장르의 연결고리를 찾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향가 <處容歌>와 고려가요 <處容歌>를 종적 측면이 아닌 횡적 측면의 대비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三國遺事』 소재 향가 14수의 작품 중 유일하게 <處容歌>는 동일한 제명으로 고려가요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더구나 고려가요 <處容歌>에 향가 <處容歌>의 일부가 삽입되어 있으니, 이 두 작품의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이 부분은 향가와 고려가요의 장르 관계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찍이 많이 연구되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구조와 성격을 중심으로 논의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시도되지 않았다. 향가 <處容歌>와 고려가요 <處容歌>의 구조와 성격을 중심으로 한 대비적 고찰을 통하여 두 작품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2. 鄉歌 <處容歌>의 構造와 性格

문학 연구에 있어서 비교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으나, 본 논의의 핵심 축이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상이성과 유사성의 규명

에 초점이 있으므로 각 작품의 구조적 측면과 성격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향가 <處容歌>의 작품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향가 <處容歌>의 작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을 싣고자 한다.

A: 문제의 발생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何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B-1: 문제의 인식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B-2: 문제의 해결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노래의 해독은 다음과 같다.

식불 불기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르리 네히어라  
돌흔 내해엇고  
돌흔 뉘해언고  
본디 내해다마른  
아사늘 엇디흐릿고<sup>1)</sup>



1) 양주동, 『古歌研究』.

살펴본 바와 같이 향가 <處容歌>는 전4구와 후4구로 나뉘는 2단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후4구는 다시 문제의 인식과 해결이라는 2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전 4구는 처용이 밤늦게 집에 귀가하였는데, 아내가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處容歌>의 창작 이유가 되는 문제의 발생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處容歌>는 창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2구는 문제의 인식이다. 네 개의 다리 중 두 개는 분명 아내의 다리인데, 나머지 두 개는 누구의 다리인가 라는 표현에서 처용은 아내의 외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마지막 2구에 나타난다. 본디 내 것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표현에서 체념과 용서라는 이중적 정서가 드러난다.

향가 <處容歌>는 이와 같이 중첩적 2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시가 작품의 구조 분석에 있어서 각 단락의 분량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작품의 균형미는 구조의 분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가 <處容歌>는 첫 단락이 4구로 가장 분량이 많고, 나머지 두 단락은 2구씩으로 분량이 같다. 이러한 중첩적 2단 구조는 시가 작품에 있어서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향가 <處容歌>는 균형이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향가 <處容歌>가 이러한 구조를 가진 이유를 각 단락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기초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락인 A는 노래 창작의 동기이다. 처용이 향가 <處容歌>를 부른 이유가 아내의 외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 외도의 상징적 의미는 정설로 알려진 역신의 침범으로 보고 별도로 상론하지 않겠다.<sup>2)</sup> 즉, 향가 <處容歌>는 역신의 침

2) 역신의 규명은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폭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설에 따른다. 다음 金承璨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朴魯堉, 趙東一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金承璨, 『鄉歌文學論』(서울: 새문사, 1986), 406쪽. 현강왕대의 사회 제반상과 『三國遺事』 처용랑 망해사조의 諸神出舞의 기재 의도가 娛遊에 있음이 아니고 國亡의 경계를 보이기 위한 것에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는 역신을 그 시대의 탐략과 방탕 풍조에 빠져있던 반도덕적 패륜아 아니면 나라를 위태

범, 역병의 발생이라는 상황이 차지하는 비중이 노래 전체에서 가장 크다고 하겠다.

역병의 발생이라는 상황이 향가 <處容歌>의 창작 동기이자, 존재 이유이다. 향가 <處容歌>의 효용적 측면인 역병의 퇴치는 그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 즉, 선학들의 연구 성과에서 밝혀졌듯이 이 노래는 역병 퇴치의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노래에 역신이 감복하여 처용에게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역병 퇴치의 기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향가 <處容歌>는 주술가가 아니다. 다만 주술적 성격을 역신과의 약속으로 획득하였던 것이다. 다시 상론 하겠지만 이 노래에는 주문이 드러나 있지 않다. 주술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명령법과 서술법의 대구도 보이지 않으며 노래 자체에는 전혀 주술의 흔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가 <處容歌>는 첫 단락이 가장 중요한 단락이 되는 것이고, 동일한 맥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B-1은 문제의 인식을 서술한 부분이고, B-2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부분이다. 역신이 침범했고, 처용은 체념하고, 용서하였던 것이다.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향가 <處容歌>의 주술적 성격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사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의의 이해를 위하여 서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역신이 모습을 드러내고 처용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내가 공의 아내를 흠모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은 노하지 않으니 그 미덕에 감복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공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맹세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말에 따라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문에 붙여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스런 일을 맞는다 하였다. 왕이 궁중에 돌아

---

롭게 하는 재앙의 상징으로 해석함이 온당할 듯 하다. 곧 역신이란 나라의 멸망을 최측한 환락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와 영취산 동쪽에 좋은 땅을 가려 절을 짓고 망해사 혹은 신방사라 했다. 이는 용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sup>3)</sup>

향가 <處容歌>가 수록된 『三國遺事』 망해사조를 보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고 향가 <處容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전반부임을 알 수 있다. 전반부는 다시 노래를 중심으로 처용의 등장과 관련된 서사문이 앞에 나오고, 노래의 뒷부분은 역신과의 약속을 통하여 향가 <處容歌>가 주술적 성격을 획득하게 되는 서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三國遺事』에 수록된 <處容歌>의 모습을 살펴보자.

東京明期月夜入伊遊行如何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羅二盼隱吾下於叱古二盼隱誰支下焉古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sup>4)</sup>

이처럼 『三國遺事』의 기록을 보면 유일하게 <處容歌>만이 한 줄로 구성되어 있어 서사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三國遺事』 <망해사조> 전반부는 처용의 등장, <處容歌>, <處容歌>의 주술 기능 획득이라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단락이다. 향가 <處容歌>는 일연의 삼국유사 기술 태도<sup>6)</sup>로 보아 주술적 기능

3) 『三國遺事』, 제2권 紀異 제2 處容郎 望海寺條. 時神現形 跪於前曰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 國人門帖處容之形 以辟邪進慶 王既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置寺 曰望海寺 亦名新房寺 乃爲籠而置也.

4) 『三國遺事』, 제2권 紀異 제2 處容郎 望海寺條.

5) 원문 기록에서 乃爲籠而置也 이하 다음 구절은 의미상 망해사 창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處容郎 望海寺條가 현강왕에 대한 기록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삽입되어 졌다고 판단한다. 설화의 습합은 설화의 기본적 성격이다.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神之名或曰祥審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審 或曰御舞山神 或云 既神出舞 審象其貌 命工摹刻 以示後代 故云象審 或云霜髯舞 此乃以其形稱之 又幸於金剛嶺時 北岳神呈舞 名玉刀鈴 又東禮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 語法集云 于時山神獻舞 唱歌云 智理多都波都波等者 盖言以智理國者 知而多逃 都邑將破云謂也 乃地神山神 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 國人不悟 謂爲現瑞 耽樂滋甚 故國終亡.

6) 拙稿, 『鄉歌文學論』(서울: 역락출판사, 2005).

의 획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해사 창건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사물의 전체 구조에서 부수적인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 제2권 기이편에 수록되어있는 <처용랑 망해사>조는 전반부가 처용의 등장, 후반부가 <處容歌>의 주술 획득 과정<sup>7)</sup>을 기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處容歌>가 수록되어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請神-娛神-送神이라는 주술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娛神에 해당하는 <處容歌>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바, 위의 지적처럼 2단 구성에 기초한 파격적인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습합되어 있는 부분인 <處容歌>를 하나의 구조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주석 5)에서 언급하였듯이 ‘又幸鮑石亭’ 이후 끝부분까지를 <처용랑 망해사> 연기설화로 인정하면 이 작품은 계속하여 중첩되어 있는 2단 구조로 볼 수 있다.

작품 <處容歌>의 성격 역시 이러한 구조에 기반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더라도 향가 <處容歌>가 우리의 민속에서 주술적 기능을 행한 예가 없다. 처용이, 더 정확히 말하면 처용의 모습이 주술적 기능을 행하였지, <處容歌>는 주술적 기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8)</sup> 향가 <處容歌>는 연회에 사용되어지기는 하였으나 <處容歌>를 불러 역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處容歌>가 주술적 기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주술적 능력을 가졌던 처용<sup>9)</sup>과 향가 <處容歌>를 혼동한 것은 오늘날의 문학자라는 것이다.

향가 <處容歌>는 살펴본 같이 삼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

7) 처용의 주술 획득 과정이기 보다는, 망해사 창건 동기라는 인식이 일연에게는 강하였을 것이지만 작품 해석의 편의상 처용의 주술획득 과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므로 작품 이해에 커다란 무리는 없다고 판단한다.

8) 金承燦, 『鄉歌文學論』(서울: 새문사, 1986), 43쪽. 이 서사물의 기록에 의하면 역신이 <處容歌>의 내용에 위압감을 느끼고 調伏한 것이 아니라, 처용의 ‘노하지 않음에 감복하고 아름답게 여겨 무릎을 꿇은 것이다. 따라서 노래에는 하등의 주력이 없었고, 있었다면 오히려 처용의 마음을 표출한 표정과 춤에 있었을 것이다.

9) 처용의 모습이 門柱神의 기능을 한 기록은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으나, 처용가가 주술적 기능을 행한 기록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나 향가 문학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연의 구분이 없는 비연시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작품 자체만으로는 주술성을 지니지 못하지만 배경설화와 결합하면서 주술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향가 작품과 배경설화의 결합문제는 중요하나 본 논제에서 벗어나므로 상론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향가 <處容歌>는 엄격한 의미에서 주술성보다 서정성이 더욱 강한 작품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 3. 高麗歌謠 <處容歌>의 構造와 性格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 <處容歌>는 非聯詩로써 희곡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향가 <處容歌>와는 달리 역신 구축과 벽사진경의 목적과 과정이 작품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주술성을 바탕으로 한 무가적인 특성이 지배적이라고 보는 데 별 이견이 없다. 작품의 전체 구조는 비연시이지만 4개에서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왔다.<sup>10)</sup> 먼저, 고려가요 <處容歌>의 전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A: 처용의 기원

(前腔)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太平 羅侯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에 相不語□<sub>후</sub>시란디

以是人生에 相不語□<sub>후</sub>시란디

(附葉) 三災八難이 一時消滅□<sub>후</sub>샷다

10) 고려가요 <處容歌> 작품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3단(김사엽, 윤영옥), 4단(양주동, 김형규, 박병재, 이명구, 서대석, 최철, 최미정), 5단(김상익, 최용수, 김수경), 6단(정병현), 8단(려중동)의 의견이 있으나, 6단 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는 처용의 기원과 처용이 당대에서 가졌던 신격을 노래하고 있다. 무가에서 굿의 처용이 초청하고자 하는 신의 유래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다. 주술에서 그 효용을 신격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식과 동일한 인식인 것이다. 즉, 고려가요 <處容歌>는 노래 자체만으로 구조에서부터 이처럼 주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11)</sup> A는 주술가에서 請神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B: 처용의 모습

- (中葉) 어와 아비 즈이여 處容아비 즈이여
- (附葉) 滿頭插花 계오샤 기울어신 머리에
- (小葉) 아으 壽命長願호샤 넘거신 니마해
- (後腔) 山象이슴 갱어신 눈섭에  
愛人相見호샤 오올어신 누네
- (附葉) 風入盈庭호샤 우글어신 귀에
- (中葉) 紅桃花마티 붉거신 모야해
- (附葉) 五香 마뜻샤 웅기어신 고해
- (小葉) 아으千金 머그샤 어위어신 이베
- (大葉) 白玉琉璃마티 희어신 닛바래  
人讚福盛호샤 미나거신 특애  
七寶 계우샤 숙거신 엇게예  
吉慶 계우샤 늘의어신 스맷길혜
- (附葉) 설미 모도와 有德호신 가스매
- (中葉) 福智俱足호샤 부르거신 비예  
紅靸 계우샤 굽거신 허리에
- (附葉) 同樂大平호샤 길어신 허뒤예
- (小葉) 아으 界面 도르샤 넘거신 바래

B는 처용, 처용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그려지고 있는 처용의 모습

11) 拙稿, 「무속의 정신 연구」, 『傳統文化研究』(광주: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參照.

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괴물로 노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신격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격은 그 외모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신격에 대한 찬송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처용의 실제 모습을 유추하는 작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고려가요에 와서 처용은 신라 향가에 등장하였던 處容과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제는 신격화된 처용인 것이다.

C: 처용의 당대 위상

(前腔) 누고 지어세니오 누고 지어세니오

바늘도 실도 어찌 바늘도 실도 어찌

(附葉) 處容아비를 누고 지어세니오

(中葉) 마아만 마아만<sub>ㄷ</sub>니여

(附葉) 十二諸國이 모다 지어세온

(小葉) 아으 處容아비를 마아만 마아만<sub>ㄷ</sub>니여

C는 찬양하고자 하는 처용신의 위세이다. 12 제국에서 처용신을 숭배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처용신을 숭배한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숭배하는 처용신이기엔 처용의 주술력은 이미 증명되어진 것이다. 무속에서는 신이 서열화 되어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는 신주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처용신은 인간 세상 모두에서 그 신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다시 커다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다. 처용신의 유래와 그 신주력에 대한 찬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곳의 절차로 본다면 여기까지는 모두 청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D: 주문

(後腔) 머자 외야자 綠李야

썰리 나 내 신고홀 미야라

(附葉) 아니웃 믹시면 나리어다 머즌 말

D는 고려가요 <處容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첫 두 구가 명령법에 의한 주관적 요소의 관철이고, 후 두 구는 첫 두 구에 종속되어 서술법에 의한 주관적 요소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열규는 한국 주술의 지배적인 양식이 명령법을 주축으로 하는 兩半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술법을 주축으로 하는 兩半이 대우가 되어 이루어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술의 구성 원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였다.<sup>12)</sup>

D를 한국 대표적인 주술가인 <구지가>와 비교하여 보자.

- a: 버찌아 오얏아 녹리야
- b: 빨리 나와 내 신코를 매어라
- c: 아니 곧 맨다면
- d: 굶은 말 떨어지리라

- a: 거북아 거북아
- b: 머리를 내어라
- c: 머리를 아니 내면
- d: 구워서 먹겠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주문의 모습이다. a에서는 주술의 대상을 불러내고 있다. 김열규는 여기서 ‘아’가 단순한 호명을 의미하는 호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세계를 영적인 공간으로 환기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b의 인간 의지가 주술을 획득한다고 본 것이다. c, d는 a, b에 종속되는 서술문으로써, a, b에서 발해진 명령의 수행을 이행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고려가요 <處容歌>는 노래 안에 이처럼 완벽한 주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문이 있기에 고려가요 <處容歌>는 주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주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향가 <處容歌>는 노래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주술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앞서 밝혔다. 그리고 그 중

12) 김열규, 『韓國詩歌와 呪歌』, 『鄉歌文學論』(서울: 새문사, 1986), 16쪽.

거로써 주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향가 <處容歌>가 불러진 것이 아니라 처용이라는 부적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가요 <處容歌>는 그 자체로 주술성을 획득하고 있기에 노래의 실현 자체만으로 축사와 벽사진경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곧, 고려가요 <處容歌>는 궁중의 나례와 결부되어 ‘처용희(處容戲)’, ‘처용무(處容舞)’로 발전되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제야에 구나례(驅難禮)를 행한 뒤 두 번 처용무를 연주하여, 그 가무와 노래가 질병을 몰아내는 주술적 양식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보더라도 고려가요 <處容歌>는 향가 <處容歌>와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E: 처용의 주술 획득

(中葉) 東京 불근 노래

새도록 노니다가

(附葉) 드러 내 자리를 보니

가랴리 네히로세라

(小葉) 아으 들흔 내해어니와

들흔 뉘해어니오

E는 향가 <處容歌>가 삽입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고려가요 <處容歌>의 가장 중요한 주술적 기능을 획득하는 사건이 앞서 살핀대로 향가 <處容歌>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향가 <處容歌>의 주술적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려가요 <處容歌>에서는 다음 ‘본디 내해다마른/아사늘 엇 디흐릿고’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두 작품의 습합에 있어서 일부가 생략되는 현상은 흔한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의 분량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아니면 생략이 더 자연스러울 때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 두 줄이 생략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결사부분으로서 그 의미가 다른 어떠한 구절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분량적 측면이나 구조적 측면에서도 이 부분의 생략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론해야 하겠지만 후일을 기약하고 간단한 추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려가요 <處容歌>에서 ‘본디 내해다마른/아사늘 엇디흐릿고’라는 구절이 빠진 이유는 여러 선학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정성이 지나치게 강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주술가는 서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sup>13)</sup> 그러므로 서정성이 강한 이 부분이 생략되어진 것으로 본다. 즉, 향가 <處容歌>의 주술적 성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F: 주술의 효능

(大葉) 이런 저기 處容아비웃 보시면

熱病神이아 膾스가시로다

千金을 주리여 處容아바

七寶를 주리여 處容아바

(附葉) 千金 七寶도 말오

熱病神를 날 자바 주쇼서

(中葉) 山이여 툄히여 千里外에

(附葉) 處容 아비를 어여려거저

(小葉)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이삿다

F에서는 고려가요 <處容歌>가 주술가로서 갖는 위상과 효능이 드러나 있다. 문맥에 드러나 있듯이 고려가요 <處容歌>는 열병신을 쫓기 위한 처용신의 降神을 노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병신의 발원을 통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미 발생한 사실처럼 언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문의 가장 기본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김열규는 이러한 주술적 성격을 驗으로 표현하였다.<sup>14)</sup>

13) 拙稿, 『鄉歌文學論』, 위의 책, 64쪽. 주술의 성격을 가진 우리 시가의 예를 보면 모두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시가가 만들어진 창작의 동기가 어디까지나 어려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고, -中略- 그래서 주술가는 그 성격이 서정적이라기보다 서사적 요소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14)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성격」, 『鄉歌文學論』(서울: 새문사, 1986), 27쪽. 驗이라고 한 것은 노래 내용이 현실화했다는 것을 일컬을 것이다. 노래가 곧 현실이라는 것, 바꾸어

고려가요 <處容歌>는 이상과 같이 6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고려가요 <處容歌>는 살펴본 바와 같이 A, B, C가 하나의 단락으로 굻의 절차에서 청배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D가 독립 단락으로서 주문이다. 그리고 E, F는 다시 <處容歌>의 위상과 효능을 부언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무속에 있어서 굻의 절차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고려가요 <處容歌>는 무속적 사고에 기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가요 <處容歌>는 중첩적 3단 구성을 가진 주술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 4. 결론

향가 <處容歌>와 고려가요 <處容歌>는 작품의 구조가 동일하게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삼단 구성의 일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향가 <處容歌>는 배경설화 자체가 커다란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향가 작품이 3단 구성을 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굻의 이중적 구성 원리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파격이 지대하므로 중첩적 2단 구성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고려가요 <處容歌>는 작품이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작품의 구조는 전 3단락이 하나의 의미망, 다음 단락이 하나의 의미망, 그리고 끝의 2단락이 하나의 의미망을 취하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즉, 두 작품은 3단 구성이라는 전체 작품 구조의 동일성과 하부구조의 상이성을 아울러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두 작품의 상호관계에 기인하기 보다는 주술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 갖는 일반성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작품의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 향가 <處容歌>는 고려가요 <處容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

말하면 말이 곧 현실이라는 주술의식의 확인, 이것이 곧, 驗인 것이다.

노래의 성격에서는 향가 <處容歌>는 노래의 문면에 주술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려가요 <處容歌>는 노래의 구조와 문면에서 이미 주술가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두 작품은 구조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모두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유사성을 보이고, 작품의 성격은 향가 <處容歌>는 주술 획득의 과정을 그린 서사물과 독립하여 논의한다면 서정성이 강한 작품이고, 고려가요 <處容歌>는 주술가로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그럼에도 두 작품 모두 주술이라는 특별한 문학 장치에 基盤하여 성립하고 있다는 유사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고려가요 <處容歌>가 향가 <處容歌>의 영향으로 창작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관계가 소재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두 작품의 성격이 다르고, 구조적 측면의 동일성은 영향관계보다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학들의 연구 결과로 향가 장르의 삼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향가의 새로운 형식을 삼구육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모든 연구자가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향가의 구성 원리가 삼단 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公論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려가요는 삼단 구성을 취하지 않는 작품의 수가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가 聯의 발생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연의 구분이 없는 다른 작품에서도 삼단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보다 폭넓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향가 <處容歌>는 일반적 3단 구성에 벗어나 있다. 반면에 고려가요 <處容歌>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두 작품의 주조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만큼은 그 상이성이 유사성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향가 <處容歌>와 고려가요 <處容歌>의 영향관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해왔다고 판단한다. 고찰한 바와 같이 두 작품은 제명이 동일하고 소재적 측면의 유사성이 확실하나, 구조와 성격의 차별성

을 인정하여 그 이상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著書

-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4.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출판부, 1979  
김선기, 『옛적노래의 새풀이』, 보성문화사, 1993.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정주, 『신라향가연구』,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3.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박노준,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양주동, 『古歌研究』, 박문서관, 1960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 2. 論文

- 김종규, 「韓國古代歌謠의 形式論的 研究 : 鄉歌形式의 後代의 展開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1993.  
김준영, 「삼구육명의 귀결」, 『국어문학』 26, 전북대, 1986.  
김진영, 「처용의 정체」,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김학성, 「삼구육명의 해석」,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한국학논집』 2, 계명대, 1975.  
윤경수, 「처용가의 현대적 고찰」, 『현대문학』 253, 현대문학사, 1975.  
정병현, 「처용가연구」, 『논문집』 2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2.  
정창일, 「처용가」, 『향가신연구』, 세종문화사, 1987.  
최선경, 「鄉歌의 祭儀歌的 性格 研究」, 연세대 박사논문, 2002.  
현용준, 「처용설화고」, 『민속문학연구』(국어국문학회 편), 정음사, 1981.

황폐강, 「처용가 연구의 사적 반성과 일고찰」, 이우출판사, 1985.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and <Choyongga> as a Goryeogayo

- Centering on their Structures and Nature -

**Kim, Jin-wook**

Both the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and <Choyongga> as a Goryeogayo have the same three-stage structures. However, they are out of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three stage structure. The background narrative of the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has a three-stage structure itself, and the folk song again has the three-stage structure. It shows that double structure principle of Gutt appears. However, as it is very exceptional, it is more valid that it has a double two-stage structure.

<Choyongga> as a Goryeogayo consists of six paragraphs, but the structure is presented as follows : the three paragraphs have one meaning ; the next paragraph is made of one meaning ; and the final two paragraphs has one meaning. That is, the two stories have the same structure, but are different in the sub-structure. It is more persuasive to consider that it is not because of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songs, but because of their generality. So, in respect to structural aspect of the songs, it is suggested that the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Choyongga> as a Goryeogayo.

For the nature of the song, this study found that the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does not show occult art in its content, but the <Choyongga> as a Goryeogayo shows occult art in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song.

Therefore, the two songs do not have the same structure, but similar in that they have the three-stage structure. In respect to the nature of the songs, the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is very lyrical when it is discussed independently of the epic song which describes the process of

occult art acquisition. The <Choyongga> as a Goryeogayo is different from the that as it is kind of an occult art song. However, it is not deniable that both the songs are similar in that they based on a special literary device such as occult art.

When it is judged that it is based on such simila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oyongga> as a Goryeogayo was influenced by the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However, this study emphasizes that such influence is confined to materials. First,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fact that the natures of the two songs are different and their compositions are similar may be derived from a different reason, not from the influence.

As a result of the previous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genre of folk songs has the three-stage composition. Though all the researchers do not agree that a new form of the folk song is Samguyukmyong, but the fact that the structure principle of the folk song is based on the three-stage composition is a public opinion now.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Goryeogayos do not have three-stage composition. It may be because of appearance of verses, but if the fact that other songs without verses do not have the three-stage composition is considered,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extensive research on it is needed.

However, both the songs are different rather than being similar in that the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is out of the normal three-stage composition while the <Choyongga> as a Goryeogayo has the three-stage composition.

So far, is has been judged that influences of the <Choyongga> as an old Korean folk song on the <Choyongga> as a Goryeogayo has been exaggerated. As examined above, both the songs have the same titles and are similar in materials, but their structures and natures are different.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insisting that both songs are much correlated is too much.

**Keywords** : Choyongga, occult art song, three-stage composition, Samguyukmyong, Samgukyusa, Ilyeon, Choyonghee, Choyongmoo, Gunarye

к с і

# 새로 발견된 小岳樓 李滌의 가사 몇 편에 대하여

- 작자 고증과 창작 연대 추정을 중심으로 -

김팔남\*

<차 례>

- I. 여는 말
- II.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의 서지와 小岳樓 李滌의 略傳
  - 1. 서지 사항
  - 2. 소악루 이유의 약전
- III. 주요 창작 공간, 작품 해석을 통한 작자와 창작 연대 찾기
  - 1. 장릉 참봉과 영월, 그리고 단종 단상
  - 2. 동북 현감, 송덕 찬양의 치인
  - 3. 양천의 소악루, 강산 주인으로서의 삶
- IV. 새로 발견된 가사의 시가문학사적 의의
- VI. 맺는 말

## I. 여는 말

고전 시가의 연구는 첨단 과학기법이 학문에 널리 활용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지나간 역사와 삶을 담고 있는 시가 작품은 때로는 작자가 유실되기도 하고, 잘못 유전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문학사의 흐름을 면면히 잇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품의 올바른 평가와 감상은 자료의 기초적

\* 목원대학교

인 사향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작품은 계속하여 발굴되고 이를 방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되며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필자는 몇 년 전, 고 강전섭 선생으로부터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sup>1)</sup>을 소개 받았다. 이 자료는 박규홍 교수가 처음으로 학계에 공개한 것이다.<sup>2)</sup> 여기에는 <玉屑歌>, <女僧歌>, <回心曲>, <勸勉行實歌 : 文參議 所作>, <春眠曲>, <湖南歌>, <想思別曲>, <南草歌>, <忠孝歌 : 李太守自作>, <老人歌>, <玉京夢遊歌 : 福川 李太守自作>, <四郡別曲>, <望美人歌 : 李太守自作> 등 13편의 가사와 “靑天에 우는 鶴아 春景을 願지 마라 // 春景이 도타흔들 雪景과 긋툐소냐 // 雪景이 도타흔들 月景과 긋툐손가”라는 시조 1수가 실려 있다. 이것들 중에서 <회심곡>·<춘면곡>·<상사곡>·<여승가>를 제외한 나머지 9편은 아직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었다. 필자는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먼저 수록 자료 중에서 작자를 ‘福川 李太守’라고 기록하고 있는 <충효가>, <옥경몽유가>, <망미인가>의 세 편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 결과, 이미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sup>3)</sup>

그러나 앞의 논문에서 필자가 미처 밝혀내지 못하였던 ‘복천 이태수’라는 작자를 계속하여 고민하고 탐구하던 중,<sup>4)</sup> 근자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

1) 이 명칭은 자료의 특성을 살려 고 강전섭 선생이 이름 붙인 것이다. 필자는 선행 연구의 업적을 받아 들여 이후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小岳樓 李 / 柔의 <子規三疊> 과 <四郡別曲>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1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1~15쪽 참조).

2) 박규홍, 「석하 소장 고시헌서철에 필사된 시가작품」, 『서지학보』 8(한국서지학회, 1992), 97~120쪽.

3) 김팔남, 「복천 이태수작 <망미인가>의 주제 형상화 고찰」, 『어문연구』 43(어문연구학회, 2003), 279~305쪽.

김팔남, 「<옥경몽유가>의 이상 세계 표출 방식」, 『어문연구』 49(어문연구학회, 2005), 67~94쪽.

4) 필자는 1992년에 발표한 앞의 논문(285, 294쪽)에서 <옥경몽유가>의 작자 모색의 단초가 되었던 ‘복천 이태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한 바 있다. 먼저 ‘福川’은 현재 함

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즉 <옥경몽유가>의 중요한 창작 배경이 되고 있는 ‘小岳樓’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이었다. 이 논문의 단서가 되었던 ‘소악루’에 대하여는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을 먼저 접하신 강전섭 선생의 선행 연구가 있다. 선생은 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四郡別曲>의 작자를 숙중 조에 생존하였으며, 시조 <子規三疊>을 지은 ‘소악루 李滌’과 동일 인물이라고 판명하였다.<sup>5)</sup>

다음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인 ‘소악루’는 현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실재하는 누정이며, 조선후기 실경화의 새로운 경지를 연 謙齋 鄭澈(1676~1759)의 주요한 창작 공간이었다. 그는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小岳候月>과 <小岳樓>라는 그림을 남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위의 논문에서 거론한 소악루 이유와 무관하지 않았다. 필자는 현장을 답사하고 소악루의 승경을 감상하기도 하면서 그 흔적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소악루 이유의 종손을 비롯한 후손 몇 분과의 대담, 그리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족보를 확인함으로써 위의 세 작품의 작자를 ‘소악루 이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 강전섭 선생께서 이미 작자 논의를 전개한 가사 <사군별곡>을 포함하여 <망미인가>, <옥경몽유가>, <충효가>의 작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주목하여 고증할 것이다. 먼저, 작자의 전기적인 사실을 간략하게나마 전하고 있는 족보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를 중심으로 삼고, 작자의 삶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는 『陽川郡邑誌』, 『同福縣邑

경남도 소재의 ‘端川’과 전라도 소재의 ‘同福’에 대한 옛 지명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따라서 필자는 <망미인가>가 함경남도 단천(고호는 복주, 복천)의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에 지어진 작품으로 파악하고, 오랜 외직 생활을 수행하는 동안에 자신이 군주에게로 부름 받지 못하는 심정을 버려진 여인에 비유하여 자신의 연군을 토로한 것으로 여겼다.

이후에 필자는 ‘소악루’를 탐색하던 과정에서 전주이씨 선성군파 <족보>를 확인한 결과 이유가 ‘동북 현감’을 지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의 논문에서 잘못 밝힌 사항들을 바로 고치고자 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문 III-2에서 살펴 볼 것이다.

5) 강전섭, 위의 논문(2003), 1~15쪽 참조.

誌』의 자료들을 차례로 비교하여 작자의 약전을 제시하려 한다. 다음으로 약전과 작품들의 가사 내용을 대교하고 해석함으로써, 이 작품들의 작자가 소악루 이유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사 4편에 대한 작품 평과 시가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려 한다. 이 논의 과정에서 필자가 이미 발표하였던 논문들이 수정·보완되기를 바란다.

## II.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의 서지와 小岳樓 李滌의 略傳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사 4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의 서지를 살펴보고,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 『陽川郡邑誌』, 『同福縣邑誌』를 중심으로 소악루 이유의 약전을 구성하여 보려고 한다.

### 1. 서지 사항

필자는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과 관련하여, 최근 박규홍 교수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자료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전달하였다. 박 교수는 이 자료가 본래 제 3자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연구를 위하여 권영철 교수가 잠시 지니고 계시다가 박 교수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권영철 교수가 돌아가신 지금에는 소장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을 처음으로 학계에 공개한 박 교수의 연구를 정리하여 그 서지를 제시하여 본다.<sup>6)</sup>

첫째, 권영철 교수로부터 넘겨받은 『時憲書』는 조선 후기 매년 사대부들에게 배포되었던 것으로, 거기에는 잡다한 글들이 필사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시헌서』의 뒷면에 가사 13편과 시조 1수가 필사되어 있었다.

6) 자세한 내용은 박규홍의 앞의 논문(1992) 참조.

둘째, 『時憲書』의 크기는 가로 16~17cm, 세로가 30~31cm 정도로 겉표지와 속표지를 제외하면 모두 15장(30면)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떨어져 나간 듯하다. 이 책은 총59권인데, 6권은 단권씩이고, 53책은 한데 묶여져 있는데, 해당 시가 작품은 차례로 이곳에 수록되어 있었다.

셋째, 6책은 그 기록 연대가 가장 오랜 것이 1796년(정조20)이고, 늦은 것은 1889년(고종26)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53책은 1709년(숙종 35)부터 1761년(영조37)까지 53년간의 시헌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차례도 어긋남 없이 한데 묶여 있었다.

넷째, 이 책을 모은 사람은 金始鑣이며 수령의 지위를 거친 인물로서 경남 거창인이고, 1680년(숙종6) 즈음에 출생하여 1779년(영조35)년에 스스로 80이 되었다고 시인하고 있어 아마도 영조대 인물일 것이다.

다섯째, 가사를 쓴 필치를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우나, 필사자와 김시빈과의 관계도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가가 필사되어 있는 글씨의 모양이나 상태로 보아 『시헌서』가 두껍게 묶이기 전으로 판단되는데, 김시빈의 사후 즉시이거나, 김시빈에 의하여 묶여 졌다면, 이 시가들은 영조 조에 이미 전파되어 있었거나, 창작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시헌서』의 연대와 그 이면에 필사되어 있는 시가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데, 필자가 표로 정리하고 학계에서 이미 창작 연대가 밝혀진 것은 \*로 표시하고 해당 연도를 적어 놓았다.

<표-1>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 수록 작품과 창작 연대

『시헌서』 해당 연도	이면 수록 시가 작품	창작 연대 추정
丙寅(1746;영조 22)	玉屑歌	
乙丑(1745;영조 21)	女僧歌*, 回心曲(부분 수록)*	* 1723년 <sup>7)</sup> * 1700년대 중반 <sup>8)</sup>
甲子(1744;영조 20)	勸勉行實歌(文參議所作) 春眠曲*, 湖南歌	* 1711년 이전 <sup>9)</sup>
癸亥(1743;영조 19)	想思別曲	* 1727년 이전 <sup>10)</sup>
戊午(1738;영조 14)	南草歌	
丙辰(1736;영조 12)	忠孝歌	
乙卯(1735;영조 11)	老人歌 玉京夢遊歌(福川李太守自作)	
甲寅(1734;영조 10)	玉京夢遊歌 계속 四郡別曲*	* 숙종조 <sup>11)</sup>
癸丑(1733;영조 9)	望美人歌(李太守自作) 忠孝歌(福川李太守自作) : 머리부분만 수록	
辛亥(1731;영조 7)	忠孝歌	
庚戌(1730;영조 6)	春眠曲(머리 부분만 수록)	
丙申(1716;숙종 42)	시조 1수	

7) 김팔남, 「연정가사 <승가>의 실상 고찰」, 『어문학』 81(한국어문학회, 2003), 221~243쪽 참조.

8) 김동국, 「<회심곡> 발생고」, 『우리어문연구』 21(우리어문학회, 2003), 205~230쪽 참조.

9) 김팔남, 「<춘면곡> 고찰」, 『어문연구』 26(어문연구학회, 1996), 447~463쪽 참조.

10) 김팔남, 「조선조 연정가사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9, 47~49쪽 참조.

11) 강전섭, 앞의 논문(2003), 1~15쪽 참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에 수록 되어 있는 여러 편의 작품들은 박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영조대에 창작 되었거나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18세기 시가 문학의 양상과 전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복천 이태수의 작품과 더불어 문참의 소작 <권면행실가>는 학계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로서 작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조 역시 기존의 시조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소약루 이유의 약전

이유의 일생을 적고 있거나 생전의 사실들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 『陽川郡邑誌』, 『同福縣邑誌』 등은 작품의 작자를 규명하여 내는 데에 중요한 증언이 된다.

### 1)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의 기록

字仲久 號笑窩

肅宗一乙卯一六七五年三月八日生 英祖二十九癸酉一七五三年九月二日卒

一九七八年戊午二月二十八日 坡州廣灘龍尾里惠陰嶺 設壇丁坐

甲午生員 連除洗馬衛率 皆不就 壬子 以伯氏溲命出 肅莊稜參奉 歷禁都監察 甲寅 拜同福縣監 丁巳 棄官 士民立石頌之

公文章鳴 尤邃性理學 與屏溪南塘相討論 有人物心性同異之辯所主 巴陵卽唐人所稱小岳陽 公模得岳樓制度而創建之 名曰小岳樓 以詩酒琴歌 逍遙其間 趙悔軒觀彬尹圃巖鳳朝李槎川秉淵 諸公往往來會酬唱 有文時調數首 및 小岳樓復元<sup>12)</sup>

12)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는 1807년(정묘보) 『璿源譜略』을 근거로 하여 초판이 발간되었고, 2001년(신사보) 마지막까지 총 7차례의 증보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

## 2) 『陽川郡邑誌』의 증언

### <樓亭>

岳陽樓舊址 有小岳樓 李縣監澐(字仲久 號笑窩 又號小岳樓)所構 英宗朝 以同福縣監棄官而歸 模得中國岳陽制度 創建之 名曰小岳樓 與趙梅軒觀彬尹圃巖鳳九<sup>13)</sup>李槎川秉淵 諸名士酬唱 風流勝槩 擅名一時 黃正卽嘏詩曰 斯樓高下渾相合 列岫如屏江作池(遺址 有鑿石盥濯處 時人謂之盥巖)

### <塚墓>

李縣監澐 墓銀杏亭里

### <鄉賢古蹟>

李縣監澐(字仲久全州人號笑窩) 肅廟甲午 舉司馬 連除洗衛率 皆不就 英廟壬子 以其伯氏澐(字仲遊 號養竹齋)之命 出莊陵參奉禁都監察 甲寅拜同福縣監 丁巳棄官而歸 士民立石頌之 作歸去來詞 公早文章著世 氣節卓犖 與屏溪南塘討論 人物心性 同異之辯 以詩酒風流 名于一世 世稱江山主人<sup>14)</sup>

## 3) 『同福縣邑誌』의 기술

### <郡名>

豆夫只 龜城 甕城 福川 蘿菴

### <先生案>

李澐 乙卯八月到任戊午六月貶遞<sup>15)</sup>

위의 기술물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이유의 생존 시기,

13) 圃巖 尹鳳朝의 오기임.

14) 1899년(광무 3)에 필사하여 작성된 『陽川郡邑誌』는 경기도 양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5) 필사본 『동북현읍지』는 1895년(고종 32)에 편찬된 지방지이다. <邑號>, <先生案> 조에는 동북의 지명 유래와 이유의 동북 현감 재임 기간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어 작품의 작자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리고 자·호, ② 관직 생활, ③ 소악루의 유래와 명칭, ④ 소악루에서의 삶의 모습, ⑤ 소악루의 풍경, ⑥ 교유 인물, ⑥ 저술과 총묘 등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여 간단하게 이유의 약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다음에서 이 약전과 작품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봄으로써 작품의 작자를 밝혀내고자 한다.

<표-2> 小岳樓 李滌 略傳

연도	간지	나이	비고
1675.3.8(숙종1년)	乙卯	출생	전주이씨. 정종의 제4왕자 宣城君 李茂生의 9세손. 세거지는 陽川(옛 이름은 巴陵,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궁산) 城山 동쪽 기슭임 <sup>16)</sup> . 자는 仲九, 호는 笑窩·小岳樓 <sup>17)</sup>
1714(숙종40)	甲午	39세	생원이 됨. 세마위수에 연달아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음.
1732(영조8)	壬子	57세	큰 형 漣(자는 仲遊, 호는 養竹齋) <sup>18)</sup> 의 말을 듣고 莊陵 參奉으로 나감. 금부도사·감찰을 역임. 이전에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 재건.
1735.8(영조9)~ 1738.6(영조14) <sup>19)</sup>	寅-丁巳 (乙卯-戊午)	59~62세	同福(옛 이름은 福川, 현 전남 화순군 동북면) 縣監 역임. 이곳 백성들이 비를 세워 칭송함. <sup>20)</sup>

16) 필자가 답사를 통하여 17대손 이흥신 씨와 18대손 이상길 씨를 만나서 들은 증언이다. 현재 이상길 씨는 양천향교를 관리하고 있다.

17) 『양천군읍지』, <樓亭>조 참조.

18) 『양천군읍지』, <鄉賢古蹟>조 참조.

19) 이것은 1895년(고종32)에 편찬된 『동북현읍지』, <선생안>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의 동북 현감 재임 기간이다. 『족보』나 『양천군읍지』(1899년 편찬)에는 1734(영조 10)~1737(영조13)라고 되어 있다.

20) 현전하지 않으나, 유실된 듯함.

1738.7(영조14) ~ 1753.9.2(영조29)	戊午-癸酉	63세~ 78세(卒)	양천 귀향, 歸去來詞를 지음. <sup>21)</sup> 소악루를 중심으로 학문과 창작활동. 돌아가실 때까지 소악루에서 당대의 시인묵객들과 詩會와 琴歌로 말년을 보냄. '강산주인'이라 부름 <sup>22)</sup> 병계 윤봉구, 남당 한원진, 회현 조관빈, 포암 윤봉조, 사천 이병연 등과 교류함. 묘는 銀杏亭里에 있음. <sup>23)</sup>
1978.2.28	戊午		과주시 광탄면 용미리 혜음령 남쪽에 제단을 세움. <sup>24)</sup>

### III. 주요 창작 공간, 작품 해석을 통한 작자와 창작 연대 찾기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한 약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李潏(1675.3.8;숙종 1~1753.9.2;영조 29)는 笑窩 또는 小岳樓라고 불렸으며, 소악루를 세거지로 생활하였고, 몇 차례 관직 생활을 거쳤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가 문학 창작의 주요한 공간으로 자신의 삶의 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악루 이유가 지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군별곡>, <충효가>, <옥경몽유가>, <망미인가>를 작자의 삶의 경로와 창작 공간, 그리고 작품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작자가 소악루 이유라는 것을 고증하여 보기로 한다. 이유에 관한 전기적인 사실들은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

21) 『양천군읍지』, <鄉賢古蹟>조 참조. 작품은 확인할 수 없었음.

22) 위의 책 참조.

23) 『양천군읍지』, <塚墓>조 참조.

24) 『족보』참조. 제 7차 재 증보(2001년) 과정에서 추가로 기록된 내용임.

를 근거로 삼고, 해석상 필요한 경우에는 『陽川郡邑誌』, 『同福縣邑誌』 등을 서로 비교하여 그 논거를 찾고자 한다.

### 1. 장릉 참봉과 영월, 그리고 단종 단상

‘소악루’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겠지만, 논의의 전개상 잠깐 언급한다면,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를 새로 지은 이유는 소악루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에게는 소와라는 호가 있었지만, 소악루라는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고 소악루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것을 이를 증거할 만하다. 다음의 자료는 그가 영월을 배경으로 <사군별곡>을 창작했을 가능성을 열고 있다.<sup>25)</sup>

- (1) 壬子 以伯氏濂命出 肅莊陵參奉
- (2) 英廟壬子 以其伯氏濂(字仲遊 號養竹齋)之命 出莊陵參奉
- (3) 李滌 號小岳樓 肅宗朝 縣監 昔我 端宗大王 在寧越梅竹樓 作子規詞 雖聞 巷婦幼聞來 莫不殞淚 矧且小臣 亦是王孫 叨守寢廟 泣過清冷浦 又聞子規於 地者乎 遂作歌而哀之 名曰子規三疊

(1)은 <죽보>의 일부이고 (2)는 『陽川郡邑誌』 <鄉賢古蹟>조이며, (3)은 『해동가요(주씨본)』에 수록된 것으로, 이유가 지은 시조 <자규삼첩>의 창작 배경이 되고 있다.

먼저, (1)과 (2)의 자료를 정리하면, 전주이씨 왕손으로서 현감을 지낸

25) 金壽長, 『海東歌謠』(金三不 校注本)(서울 : 正音社, 1950), 34쪽, 83쪽. <자규삼첩>은 다음과 같다.

- (1) 子規야 우지 말아 울어도 속절업다 // 울거든 너만 우지 날은 어이 울리는다 // 암아도 네 술의 들을쩌면 가슴 알파 흐노라.
- (2) 에엿분 네 님금을 생각하고 절로 운이 // 하늘이 식였거든 네 어이 울렷시리. // 날 업슨 霜天雪月에는 놀로 흐여 운이던다.
- (3) 不如歸 不如歸 혼이 돌아갈만 못흐거든 // 에엿분 우리 님금 므스 일로 못가신고 // 至今히 梅竹樓 달빛치 어제론 듯 흐여라.

소악루 이유는 임자년인 1732년(영조 8) 57세의 나이로, 큰형인 滌의 말을 듣고 장릉 참봉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물렀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필자가 18대 손인 이상길 씨의 증언을 빌리자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3)은 소악루 이유의 창작 공간이 되었던 장릉과 관련된 내용이다. 莊陵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묘소인데, 수양대군이 중심이 된 계유정란(1453년)으로 폐위가 된 단종의 유배지이며 이곳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하셨다. 그 후, 1698년(숙종 24) 노산묘를 장릉으로 추봉하고 1733년(영조 9)에 비각과 수복실, 정자각을 세워 이를 기념하였다.<sup>26)</sup> 그러므로 영월에는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단종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그 날을 기억하게 한다. 즉 유배지인 淸冷浦,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관풍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子規詞>라는 시를 남겼던 子規樓<sup>27)</sup>, 그리고 주검이 묻힌 장릉 등이다. 단종과 관련된 이러한 삶의 흔적들은 가사 <사군별곡>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사군별곡>은 총148구로 이루어진 중편 가사이다. 이 작품은, 巴江의 소악루 一漁翁이 장릉 참봉으로 부임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서사(1~18구)로 시작한다. 본사(19~118구)에서는 南漢城-三臣祠-開元寺-利川-忠州-吳甲-可興倉-堤川-木溪-羊淵驛-角斤關-寧越-淸冷浦-莊陵의 路程과 곳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사(119-148구)에서는 退溪先生이 지은 <遊山錄>(丹山山水記)을 소매 속에 携帶하고 아름다운

26) 동방미디어 제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莊陵” 참조.

27) 이 자규루는 세종 10년 당시, 군수로 있던 신원근(愼元近)이 창건하여 누명을 梅竹樓라 하였으나, 그 후 단종께서 자주 누에 올라 자규시까지 지었다 하여 후인이 子規樓라 불렀다는 것이다. 단종이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한 편의 ‘자규사(子規詞)’ 전편이 누각에 기록되어 있다.

月白夜蜀魂 // 含愁情依樓頭 // 爾悲我聞苦 // 無爾聲無我愁 // 寄語世上苦勞人 // 愼莫登春三月子規樓

(해석: 두견새 슬피 우는 달 밝은 밤에 // 수심을 안고 누각에 기대었노라. // 피나게 우는 네 소리 듣기 괴롭구나 // 네 울음 없으면 내 시름도 없을 것을 // 이 세상 괴로움 많은 사람들아 // 춘삼월 자규루엘랑 오르지 마소.)

곳마다 玩賞하였던 心境을 述懷하고 淸風 寒風樓를 거쳐서 莊陵에 도라와서 다시 보고 싶은 애뜻한 心情을 吐露하면서, “忽然이 느라가서 / 다시 보고 오고지고.” “明春에 쫓 피거든 / 다시 오면 아니 보랴.”라는 餘韻 있는 말로 매듭짓고 있다.<sup>28)</sup>

다음으로 <사군별곡>의 내용 중에 소악루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위의 증거로 삼으면서 작자를 찾아가 보기로 한다. 아래의 ①은 소악루 이유가 장릉 참봉으로 떠나기까지의 동기와 감회를 적고 있는 것으로 노래의 서사 부분이다.

① 巴江에 病든 主人 岳樓에 便이 누어 // 梅花를 벗을 삼고 거문고를 戲弄하니 // 압 江을 못건넌지 十年이 돌히로다. // 造化翁 식인 대로 왔다 가라더니 // 漁樵에 숨은 닐홈 뒤라셔 들어던지 // 白首 齋郎이 벼슬도 貴커니와 // 늘고 病든 몸이 못가기로 定히더니 // 一家 親戚들이 戲弄하며 勸흔 말이 // 抱關 擊坼을 넷사름도 ㅎ여시니 // 栗리에 陶處士도 彭澤令 지내얏고 // 桐江에 嚴子陵도 世上에 나왔거든 // 小岳樓 一漁翁이 그대도록 놉뎡던가 // ㅎ물며 寧越 짜히 山水로 有名히니 // 金剛山 느린 고덕 四郡이 껏히로다. // 江湖에 生長하야 네 性癖을 내 알거니 // 國內 名勝地를 다 보랴 願이로되 // 平生에 自便키로 게을너 가라더니 // 機會가 도하시니 어이 아니 가라는다.

(강전섭 교수 교정본 ; 1~18 / 148구)

①의 서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다.

첫째, ‘巴江’은 陽川의 옛 이름인데, 지금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을 지칭하며, ‘岳樓’는 그곳의 궁산에 있는 소악루를 일컫는다. 소악루 주변을 세거지로 살아 왔던 이유는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를 다시 지었다. 그는 그곳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벗하며 거문고 가락에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을 완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악루 이유는 5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장릉으로 제사를 모시

28) 강전섭, 위의 논문(2003), 1~15쪽 참조.

러 떠나는 자신을 ‘白首 齋郎’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장릉참봉으로 떠나게 된 동인으로 ‘一家親舊’들이 권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1)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듯이 큰 형 李愷을 비롯한 주변의 일가친척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파강에 묻혀서 소악루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초야의 一漁翁에 비유하면서, 자연에 나고 자란 성벽으로 국내의 명승지를 다 보기를 원했으니, 금강산이 곁에 있는 사군으로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② 仲秋 十四日에 비로소 江을 건너 (21/148구)

③ 羊淵驛 물을 먹여 角斤關 올라서니 // 莊陵이 咫尺이요 寧越이 여기로다 // 西江 비 누르듯고 淸冷浦로 내려가니 // 되빛춘 쟁기는 듯 물소리 슬피 운다. // 荒原 宿草에 夕陽이 빛짓는듯 // 냇 넘금 생각하니 自然이 목이 맨다. // ㅁ음이 錯忽하야 섰다가 도로 안자 // 눈물[을] 다시[짓]고 寢廟를 바라보니 // 蒼梧山 그름빛치 松柏樹에 저무렀다 // 한숨 지고 내려나서 다시금 바라보니 // 츠라리 못보던들 이대도록 슬플소냐. // 六臣祠 尋陵하고 拜鶴樓에 올라 안자 // 四面을 도라보니 觸目이 傷心하다 (31~43/148구)

④ 그 중에 늙은 峯이 몇길인동 어이 알니 // 兩劍을 빼쳐내야 碧空에 세워시니 // 楚霸王 吳江 ㅁ의 성내야 던진 칼이 // 憤氣를 못니기여 예와서 넓터선가. // 豊城 寶劍이 斗牛星을 쏘았는 듯 // 秦皇의 채를 비러 저돌을 몰아다가 // 小岳樓 압희 노코 一生을 보고지고. (81~85/148구)

②는 이유가 장릉 참봉으로 부임 받은 1732년 중추 14일에 비로소 한강을 건넜으며, ③에서는 영월에 이르자 단종의 슬픈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비련의 감회를 잘 적고 있다. 또한 노래의 후반부인 ④는 龜潭의 전경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곳의 기암괴석을 옮겨와 자신의 거처지인 소악루 앞에 놓고 일생동안 보고 싶다는 소망을 그려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논거와 서술을 요약하여 본다. 새로운 가사 <사군별곡>은

소약루 이유의 작품임이 분명하다. 그는 1732년, 57세 가을, 큰 형 이강의 권유가 동인이 되어 장릉참봉으로 부임 받는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세거지였던 양천의 소약루를 떠나 강원도 영월의 장릉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노래한 기행가사를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동북 현감, 송덕 찬양의 치인

지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빈치코드』의 암호처럼,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에 福川 李太守라고 기록한 필사자의 증언은 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작업은 암호를 풀어 가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천’은 어디이며 ‘이태수’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먼저 ‘복천’을 살펴보기로 하자. 1895년에 편찬된 『同福縣邑誌』 <郡名>조의 다음의 기록은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豆夫只 龜城 甕城 福川 蘿菴

즉 복천은 동북의 옛 이름 중의 하나인데, 현재는 전남 화순군에 편입되어 있는 동북면이 바로 그곳이다.<sup>29)</sup> 그런데 동일한 자료의 <先生案>조에는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기록이 함께 존재한다. <선생안>이란 관아에서 전임자의 성명·직위·생년월일·본적·재직 기간 등을 기록한 책이다.<sup>30)</sup> 바로 이곳에 다음과 같이 동북 현감을 지낸 이유의 재임 기간을 꼼꼼하게

29) 同福은 백제의 豆夫只縣을 신라 경덕왕 때에 고친 이름으로 1914년 화순군으로 편입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40, 全羅道, 同福 참조.)

『三國史記』 36, 地理志 : 龜城 甕城 福川 蘿菴

30) 『한국한자어사전』 권1(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391쪽.

『備溪隨錄』 9, <教選之制, 學校事目>, 諸學師長 置先生案 錄前後任人 并書任遞年月 使當任者 有所考閱而欽戒

적고 있다는 사실이다.

李滌乙卯八月到任戊午六月貶遞

위의 기록에 근거한다면, 이유는 1735(乙卯;영조 11)년 8월에 동복 현감으로 부임하였고, 어떤 까닭인지 알 수 없지만, 1738(戊午;영조 14)년 6월 강등되어 현감직을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sup>31)</sup> 한편, 이유의 개인사를 적고 있는 족보 『全州李氏宣城君派塔源續譜』와 『陽川郡邑誌』 두 자료의 기록은 이유의 동복 현감 재임 기간이 앞의 자료와 상이하다.

甲寅拜同福縣監 丁巳棄官 士民立石頌之

甲寅拜同福縣監 丁巳棄官而歸 士民立石頌之

위의 기록대로라면 이유가 동복에서 현감을 지낸 시기는 1734(甲寅;영조 10)년부터 1737(丁巳;영조 14)년으로 앞의 기록보다 1년씩 빠르게 기술되어 있고, 폼체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직위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임기간에 관하여 앞의 두 가지 상이한 기록 중에서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을까. 필자는 당연히 공식적인 기관에서 현지에서 있었던 사실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同福縣邑誌』의 <先生案>조의 기록이 더욱 믿을 만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편찬되는 족보에서는 숫자상의 이러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로 볼 때, 이태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태수는 군수를 일컫는 말로써,<sup>32)</sup> 1735(乙卯;영조

31) 貶遞란 治績이 좋지 못한 守令이 考課의 하등을 맞아 갈리는 것이다. 『한국한자어사전』 권4(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216쪽 참조. 이 외에도 <선생안>에는 벼슬을 그만두게 된 사유가 辭遞, 啓罷, 罷遞, 移遷, 身故, 遞歸, 瓜遞, 臺罷 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太守란 조선시대 郡守를 달리 이르던 말이다. (『與猶堂全書』, 雅言覺非 : 太守 使君 本皆尊稱 太守者 郡守也 而諸縣令長 咸爲所領其職 與今之監司不甚相遠 使君子 奉命之臣也.)

11)년 8월부터 1738(戊午;영조 14)년 6월까지 동북 현감을 지낸 소악루 이유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창작에 조예가 깊었던 소악루 이유는 장릉 참봉으로 부임 받아 가면서 시조 <자규삼첩>과 <사군별곡>을 짓기도 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필자는 소악루 이유의 가사 4작품 중, <충효가>는 동북 현감 재임 시절에 이곳 백성들을 교화하고 훈육할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론하여 본다. 이유가 이곳을 떠나고 난 뒤, 동북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송덕비를 세웠다는 점에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필자는 소악루 이유의 송덕비가 동북면에 실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도 화순군 문화재담당관과 면담하였으나, 아쉽게도 현 전하지 않는다는 답을 얻었다. 아마도 송덕비가 당대에는 있었을 터이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유실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악루 이유의 <충효가>는 총 47구의 짧은 가사인데, 당대 국가 윤리의 바탕이 되었던 ‘충’과 ‘효’의 덕목을 백성의 정서적 감응에 호소하는 필치로 서술하고 있다. 먼저 이 작품의 전반부(1~22구)에서는 가정 윤리를, 후반부(23~40)에서는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이 국가를 이루는 기반으로 그 우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1~21구)

슬프다 빅성드라 내말슴 드러스라 // 네몸이 뉘몸이니 부모의 몸아니다 // 열쫄빅 설워서 비알코 겨우나어 // 두손을 품의품고 두져줄 서러먹여 // 젓업스면 밥을십어 입다혀 머여내어 // 기저기에 쫘오좁을 밤낫즈로 겨두워서 ... (중략) ... 츱식이 불순흐 며 어진부모 모지느니 // 西山의 지는 희를 네어이 머여실다 // 부피 업순휘며 뉘게다 효도호리.

(후반부:22~47구)

슬푸다 빅성들아 내말슴 드러스라 // 네짜히 뉘짜히니 우리님군 짜아 니냐 // 마물은 밧 도훈논니 다님군의 짜히요 // 늘근이와 어리니가 다님

군의 百姓이라 // 즈식이 열리라도 扈父母의 즈식이요 // 百姓이 만이라  
도 扈님군의 百姓이라 …(중략)… 忠臣 이면 孝子되고 孝子면 忠臣된다  
// 忠臣 孝子が 扈가진줄 모을소냐 // 아마도 上下人民들이 忠孝을 힘써스  
라.

이 작품은 조선조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로 잡기 위하여 창작된 오륜가나 훈민가류에 속한다.<sup>33)</sup> 이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송강 정철이 지은 <훈민가>를 들 수 있다. <훈민가>는 송강이 강원도 관찰사 재임 시절에 그곳 백성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다.<sup>34)</sup> 이와 동일선상에서, 소악루 이유는 동복 현감 재임 시절에 그곳 사민들을 위하여 <충효가>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래로까지 백성들을 훈육하였기에, 그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았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지난 현감을 위하여 송덕비를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특히 이곳 동복을 포함한 화순군은 충절과 예향으로 이름난 곳이라는 점은 그것을 뒷받침한다.<sup>35)</sup>

### 3. 양천의 소악루, 강산 주인으로서의 삶

양천은 소악루 이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과 창작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몇 차례의 관직 생활을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재건하였던 소악루에서 자연을 벗하며, 假漁翁의 삶을 즐겼다. 옛 이름이 巴陵이었던 양천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인데, 바로 소악루는 이곳 궁산에 자리 잡고 있다.<sup>36)</sup> 필자가 현장 답사를 다녀왔던 5월 중순에는 활짝 핀 철쭉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정상을 향하여 한참을

33) 장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서울 : 한길사, 1999), 229~257쪽.

34) 권두환, 「목소리 낮추어 노래하기 -송강 정철의 <훈민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2』(서울 : 집문당, 1992), 533~539쪽.

35) 『同福縣邑誌』<人物> 조와 전남 화순군 군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참조.

36) 현재 궁산에는 양천향교가 남아있어 그 때의 옛 자취를 느끼게 한다.

올라가다 보니 언덕 중턱에는 소악루가 자리 잡고 있었고 누대 앞으로는 삼각산을 배경삼아 한강의 시원한 경치가 펼쳐져 있었다. 이러한 자연적 여건으로 볼 때, 예술과 문학 활동의 근거지로써 이곳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소악루를 중심으로 이유가 이곳에서 어떠한 생활을 영위했는지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岳陽樓舊址 有小岳樓 李縣監滌(字仲久 號笑窩 又號小岳樓)所構 英宗朝以同福縣監棄官而歸 模得中國岳陽制度 創建之 名曰小岳樓 與趙悔軒觀彬尹圃巖鳳朝<sup>37)</sup>李槎川秉淵 諸名士酬唱 風流勝槩 擅名一時 黃正卽嘖詩曰 斯樓高下渾相合 列岫如屏江作池(遺址 有鑿石盥濯處 時人謂之盥巖)

(2) 甲寅拜同福縣監 丁巳棄官而歸 士民立石頌之 作歸去來詞 公早文章著世 氣節卓犖 與屏溪南塘討論 人物心性 同異之辯 以詩酒風流 名于一世 世稱江山主人

(3) 巴陵 卽唐人所稱小岳陽 公模得岳樓制度而創建之 名曰 小岳樓 以詩酒琴歌 逍遙其間 趙悔軒觀彬尹圃巖鳳朝李槎川秉淵 諸公往往來會酬唱 有文集十卷時調數首 및 小岳樓復元見首卷<sup>38)</sup>

(1)은 『陽川郡邑誌』 <樓亭>조이며, (2)는 같은 책의 <鄉賢古蹟>조, (3)은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이다. 이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유가 소악루를 짓게 된 유래, 소악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학 활동과 교유 의 인물, 그리고 이유의 저술과 시가 창작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소악루를 짓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파릉은 중국인들이 작은 악양

37) 『양천군읍지』에는 圃巖 尹鳳九로 적혀 있는데, 이는 오기임.  
38) 이유가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를 재건할 당시에는 지금의 강서구 가양동 산4번지 성산 동쪽 기슭에 있었는데, 1994년 6월 25일 신축하면서 산8번지 성산(城山) 상봉 부근으로 옮겨 준공되었다. (정규승이 정리한 『소악루 현역기』와 후손 이흥신·이상길 씨가 추진 하고 강서구청이 주관한 소악루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참조하였다.)

루라고 불렀다.<sup>39)</sup> 왜냐하면 그곳의 경치가 악양루와 맞먹는다는 점에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곳에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악양루가 있었다 한다. 그러나 이유가 소악루를 짓기 전까지, 그곳에는 누대는 없고 그 터만이 남아 있었다. 이유는 중국 악양루의 제도·법식을 모방하여 이 자리에 소악루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악루를 지은 시점에 대하여 (1)과 (2)에서는 동북 현감을 버리고 양천으로 돌아온 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738년 6월 이후로 상정되나, (3)은 특별하게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사군별곡>은 작자 이유가 장릉 참봉으로 부임 받아, 고향인 양천의 소악루를 떠나 영월을 향하여 가던 감회를 적은 기행가사로써 1732년경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을 증거 삼는다면, 이유가 소악루를 지었던 시기는 동북현감을 그만 두고 양천으로 귀향한 1738년 6월 이후가 아니라, 장릉참봉으로 부임 받았던 1732년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악루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유는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남당 한 원진(1682~1751)과 인간과 사물의 심성에 대하여 논하는가 하면, 회현 조관빈(1691~1757), 포암 윤봉구(1680~1761), 사천 이병연(1671~1751) 등과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술 마시며 거문고에 노래를 부르고, 시문을 주고받기도 하였다.<sup>40)</sup> 이러한 그를 두고 세상에서는 ‘강산주인’이라고 불렀

39) 선조 39년 (1606. 4.11)에 사신으로 왔던 한림학사 朱之蕃이 이곳의 객관에 와서 노닐며 巴陵館이라 이름 짓고 차필 현관을 걸어 놓았다 한다. 그는 이곳 경치에 매료되어 李太白의 <登金陵鳳凰臺> 시의 시상을 빌어 이렇게 적고 있다.

三山半落青天外	삼산은 반이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지고
二水中分白鷺洲	이수는 가운데 백로주를 가른다.
天古謫仙先我得	하늘 속 옛 이적선이 나보다 먼저 얻었으니,
夕陽投筆下西樓	석양에 붓 던지고 서쪽 루를 내려오네.

강서문화원 편, 『강서 문화와 역사』, 2002, 298쪽 참조.

40) 조관빈의 『회현집』에는 <贈同福李使君涑>, 윤봉조의 『포암집』에는 <與衡宰訪小岳樓>, <小岳樓共賦>, <次李進士涑寄示韻>, <疊關毫兩韻謝李上舍涑 送酒>, <和李進士涑 寄別詩> 등 여러 편의 시가 있으며, <答李參奉涑>라는 책도 있어 이유와 이들과의 교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으며, 시문집 10권과 시조 여러 수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의 시문집의 실존 여부를 위하여 현전하는 고서 목록 등을 찾아 헤매었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이후에 이유의 후손들과의 면담에서 이유의 저서는 보존 과정에서 유실되어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가 몇 편이 남아 있어 그의 문학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sup>41)</sup>

이유는 동복현감을 그만두었던 1738년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던 1753년 9월 2일까지 줄곧 이곳 소악루에서 여생을 보냈다. 바로 이 시기에 조선 시대 진경산수화의 畫聖인 謙齋 鄭澈(1676~1759)이 양천 현감으로 부임하여 왔고, 이곳의 경치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소악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겸재는 소악루 이유와 시문을 주고받기도 하였던 사친 이병연과는 이상적인 예술의 동반자였다. 겸재가 양천현감으로 부임하던 1740년(영조 16)부터 이 두 사람은 양천의 명 승경을<sup>42)</sup> 배경으로 서로 ‘詩畫換相看(시와 그림을 서로 바꾸어 보기)’을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은 겸재가 양천 현감을 그만 두던 1745년(영조 21)년까지 계속된다. 겸재의 여러 편의 작품 중에서, 특히 <소악후월>과 <소악루>는 한강을 배경으로 소악루 주변의 경치를 사진처럼 그려낸 것이다. 이 두 작품 중에서 <소악후월>은 ‘시화환상간’을 약속했던 사친 이병연의 다음의 시를 보고 나서 그린 것이다.

巴陵明月出 파릉에 밝은 달뜨면  
先照此欄頭 이 난간 머리 먼저 비친다.  
杜甫無題句 두보 시에 제구 없는 것  
終爲小岳樓 필경 소악루 뿐이리.

41) 시조 <자규삼첩>과 필자가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가사 4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2) 파릉 팔경 ; 1. 楊江漁火 2. 木覓朝暾 3. 岳樓淸風 4. 桂陽落照 5. 杏洲歸帆 6. 開花夕烽 7. 寒山暮鐘 8. 二水驪眠 등인데, 세 번째에 ‘소악루의 쾌청한 바람’ 풍경이 들어 있다. 출전 『陽川郡邑誌』

사천의 시에 그림으로 화답하였던 겸재의 <소악후월>을 간송 최완수 선생의 해설로 감상하면서 소악루의 정취를 느껴보자.<sup>43)</sup>



이 그림은 소악루에서 달맞이 하는 것이다. 왼쪽 아래에 소악루가 있고 남산 너머로 보름달이 떠 있으며, 달 아래 切頭山이 있고 오른쪽엔 탑산, 두미암, 선유봉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양천현읍지』 <누정>조에서도 황진이 “斯樓高下渾相合 列岫如屏江作池(이 누각 아래 위가 서로 합치고, 여러 산은 병풍같이 연못을 만들었네.)”라고 그 풍경을 읊고 있다.

위의 그림과 시처럼 아름다운 경치에서 성장하고 노년을 이곳에서 보냈던 소악루 이유에게 소악루는 그의 문학과 창작의 공간이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玉京夢遊歌>는 이러한 예술적 분위기에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186구로 이루어진 <옥경몽유가>는 천상의 세계인 백옥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꿈 속 구조이다. 평생 이유가 소악루에서 꿈꾸었던 문학적 이상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몽유자인 소악루 이유는 최고의 시성인 이태백, 두보, 한

43)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서울 : 범우사, 1999), 128~131쪽.

유, 한고조 등과 힘들었던 일생을 차례로 대화와 토론으로 술회하기도 한다. 바로 이 대목이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논의하였던 소악루 이유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옥경몽유가>에는 이유가 자신의 일대기를 고백하는 부분이 29구부터 98구까지인데, 70구나 차지하는 다소 많은 분량이다. 화소별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은 동방 헌강대왕의 자손이며, 연 삼대 등용되었고 일세에 빛나고 빛났다.

② 그러나 자손이 불초하여 가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처지의 황손이 되어 노래를 벗하며 한량한 삶을 추구한다.

③ 13세에 자사와 경전을 모두 독파하고 성학에 힘써 공자를 만났으며, 왕손의 처지에서 요순과 임금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④ 또한 주역에 힘써 10년이 넘어서야 그 원리를 깨달았으며, 자신의 할 도리를 늘어서까지 힘썼다. 이렇게 경전의 말씀대로 사는 자신을 아이들까지 비웃는 것 같다.

⑤ 이에 <소악루>에 올라 풍경을 예찬하기도 하며, 물가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신의 어옹의 삶을 찬미하기도 한다. 자신이 타는 현금을 알아듣는 이 없음을 탄식하며, 인간 영육을 멀리하고 자연과 일체가 되어 사는 삶을 노래한다.<sup>44)</sup>

위의 일생 담을 각 항목에 맞추어 소악루 이유의 약전, 그리고 <소악루 현액기>와 비교하여 <옥경몽유가>가 소악루 이유의 걸작이라는 것을 증거 삼고자 한다.

① 소악루 이유는全州李氏로 정종의 제4왕자인 宣城君의 9세손이다.

② 그의 五代祖父인 대구부사 李遵道(1532~1584)는 栗谷 李珥(1536~1584)와 절친한 벗이었다. 이준도의 손자이자 이유의 曾祖父인 李命運은 광해군이 모후인 인목대비 연안김씨를 폐위하려 하자(1613) 홍문관 교리

44) 김팔남, 앞의 논문(2005), 81~82쪽 참조.

벼슬을 버리고 양천현 현내면 고양리 한강 기슭으로 물러 나와 살게 됐다.

③~④ 그의 집안은 율곡계의 조선 성리학통을 대대로 계승하고 있는 왕손 사대부 가문이라 생활 안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유 자신도 일찍이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고 벼슬에 뜻이 없어 오직 성리학의 연구와 詩와 風流로 一世에 이름을 떨치니 세상에서 江山主人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와 사귀던 인사들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이거나 최고의 풍류문사였다.

⑤ 본디 岳陽樓는 중국 호남성 湘江道 岳陽縣 縣城 西門의 門樓 이름이다. 이곳에 올라서면 동정호가 정면으로 보여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벌써 唐 玄宗 開元 4년에 뒷날 중서령(中書令:재상)을 지내는 張說이라는 이가 이곳 현령을 지내면서 이 지방 才士들로 하여금 악양루에 올라가 시를 지어 재주를 다투게 하니 이때부터 이곳은 천하의 명승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에 증조부인 天地 李命運(1588~?)때부터 이곳 城産 동쪽 기슭을 차지해 살아온 李滌는 그의 집 뒤 산기슭에 악양루와 똑같은 소악루를 지어 천하제일의 명승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옥경몽유가>는 소악루 이유가 동복 현감을 그만두고, 고향인 양천의 소악루로 돌아와, 가어웅을 자처하며, 강산주인이 되어 그곳의 삶을 즐겼던 이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소악루 이유가 지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사로 <망미인가>가 있다.<sup>45)</sup> 이 작품은 총 74구로, 정철의 양미인곡을 원류로 하는 사미인곡계 가사의 전통을 잇고 있다. 임은 군주로 표상되는 인물이며, 등장하는 여성화자는 임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임금을 향한 여성 화자의 정서는 크게 연모와 원모가 함께 교차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임을 그리워하고 이별을 한탄함, ② 늙음 탄식, ③ 기다림의 세월, ④ 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람, ⑤ 무정한 임을 원망함, ⑥ 정절과 헌신의 사랑, ⑦ 외로움, 그리고 꿈속 상봉을 기원함, ⑧ 고통의 세월, ⑨ 변

45) <망미인가>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앞의 논문(2003) 279~305쪽 참조.

치 않는 나의 지조 ⑩ 임과 후생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망미인가>의 노래 구절 중에는 ‘소악루’에서 풍류를 즐기며 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신선의 세계로 자랑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岳陽樓 기친터의 小岳樓 새로지어 // 地勢도 높거니와 風景도 도홀시고  
// 三山半落 青天外라 二水中分 白鷺洲를 // 넋글구라 들어더니 絶景인줄  
뉘알소니 (76~78/186구)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를 새로 지은 사실과, 소악루 주변의 풍경, 그리고 1606년에 중국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이 이곳의 객사에 머물면서 지었다는 시 중에서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의 두 구가<sup>46)</sup> 작품 속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거는 <망미인가>의 작자가 소악루 이유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게 한다. 이외에도 ‘소악루’에서 가어용의 한가로운 생활이 제88구의 “빈 낙대 들어 메고 岳樓로 도라 오니” 등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언제 지었을까. <망미인가>의 내용 중에서 창작 연대를 추론할 만한 특별한 단서가 보이지 않고, 또한 신뢰할 만한 다른 방증 자료가 현재로서는 구하여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소악루 이유의 개인적인 삶의 과정과 행적에 비추어 필자는 조심스럽게 그 시기를 추정하여 본다. 즉 그의 주요 생활과 창작의 공간이었던 소악루에서 지내던 그 어느 시기에, 신하로서 임금을 그리는 사모의 정을 정철의 <양미인곡> 빗대어 지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필자는 소악루 이유의 시문집이 하루 빨리 세상에 공개되어 소악루 이유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과 그의 문학세계가 총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 한다.

---

46) 위의 주31)번 참조.

#### IV. 새로 발견된 가사의 시가문학사적 의의

전 항에서 밝힌 것과 같이 소악루 이유가 창작한 새로운 가사 4편은 18세기 시가문학사의 구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유가 생존하였던 영조 대에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심화되어 두 번의 옥사를 빚었으며, 사회 변혁과 정치 안정을 위하여 경국대전이 편찬되었고, 탕평책과 균역법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영조는 문화진흥 사업에 앞장서서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였으며,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반포하여 일반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는 문학 창작으로 이어져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다양한 갈래에서 새로운 주제의식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다량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악루 이유는 왕손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고 시가 제작에 관심을 표명하여, 각기 다른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남겼다. 필자가 앞에서 추론한 창작 시기별로 작품의 가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장릉 참봉으로 부임 받아 가면서 지은 것으로 파악된 <사군별곡>은 기행가사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인다. 양천의 소악루를 출발하여 영월의 단종 묘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읊고 있는 이 작품은 작자의 본분에 작품의 비애적 정서가 맞추어져 있다. 또한 단종 애사를 주제로 삼고 있는 연시조 3수의 <자규삼첩>과 짝을 이루기도 하며, 단종의 7대손으로서의 동일체적 친족의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애절한 필치로 비운을 토로하기도 하며, 자신이 겪은 일처럼 비통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군별곡>을 연군가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군별곡>은 단종애사를 주제로 삼는 여타의 시가와 더불어<sup>47)</sup> 18세기 기행·연군가사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

47) 王邦衍(世宗-世祖代)의 <千萬里歌>가 있다. 金天澤, 『靑丘永言』 朝鮮珍書刊行會, 1948. 5. 5쪽에 收錄된 全文을 옮겨보면, 王邦衍, 世宗時人, 以金吾郎 押去魯山 及還彷徨 川邊 有感而作是歌 蓋卽此一曲 斯人愛君之誠可見矣 “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은 님 여회옵 고/ 내 마음 둘 되 업서 냇궂에 안자이다./ 저 물도 내안궂도다 우리밤길 네늦다.(千里遠

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소악루 이유가 동복 현감 재임시절에 지었음 것으로 여겨지는 <충효가>가 있다. 이 작품은 당시의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생각되는데, 지방관으로서 그곳 백성들의 국가와 가정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화와 훈육의 차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작품에서 소악루 이유는 교육 덕목이었던 ‘충과 효’를 백성들이 가슴으로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게 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용어와 감성에 호소하는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47구라는 다소 짧은 분량은 작자의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노래의 전반부에서 ‘효’를 후반부에서 ‘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의 윤리가 사회 국가의 윤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이 작품은 愛景堂 南極曄의 <충효가>와 함께 18세기 충효가의 지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즉 소악루 이유의 것이 동복이라는 지역의 향촌사회를 결속시키며, 그곳 백성들을 교화하는데에 목적이 있다면, 애경당 남극엽의 것은 자신의 가문을 결속하고 문중을 선양하는 데에 창작의 의도가 있다.<sup>48)</sup>

소악루는 이유에게는 삶의 터전이요 창작의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당대의 지식인들과 시와 문을 논하기도 하고, 금가를 즐기기도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는 천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옥경몽유가>를, 그리고 임금을 연모하는 <망미인가>를 창작하였다. 먼저, <옥경몽유가>는 꿈속 일이 액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몽유 구조인데, 작자는 소악루를 터전으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평범한 화자를 등장시켜, 화려한 천상의 삶을 영위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작자는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적선이 되어 천상의 세계를 형상화하려는 인물이었다. 소악루의 꿈같은 경치를 배경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작자는 당대의 지식인답게 유가적인 삶과, 풍류와 낭만을 위한 도가적인 공간을 공유하였던 인물이었다. 따라

遠道 美人離別秋 此心無所着 下馬臨川流. 川流亦如我 嗚咽去不休. 『莊陵誌』”

48) 국윤주, 「애경당 남극엽의 시가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2~37쪽 참조.

서 작자는 <옥경몽유가>에 자신의 이상향을 형상하기 위하여, 그 속에 옥망과 이념을 대화와 토론이라는 적절한 말하기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다.<sup>49)</sup> 이런 점에서 <옥경몽유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몽유가사의 계통을 잇고 있으며, 조선 후기 누정문학의 전개 양상과 영조 대를 살았던 당대 지식인의 삶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망미인가>는 연군을 노래하고 있는 정철의 <사미인곡>·<속미인곡>을 잇는 미인가계 가사라는 점이다. 작자는 사랑을 잃은 여성 화자에 자신을 빗대어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깊이와 그리움을 형상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의 설정과 표현법은 송강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 다만, 화법면에서 <망미인가>는 전반부와 중반부에서는 여성 화자의 독백이 쓰이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못 사람들의 의견을 자신의 고백적 진술에 끌어들이며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사건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또한 '두어라 백운향에 올라가서 피셔볼가 흐노라'라는 하나의 구로 결사를 맺는 급진적 결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망미인가>는 기존의 미인가계 가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표현 기법에서는 발전된 특성을 보이는 점에서 18세기 미인가계 가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여길 만하다.

이렇게 볼 때, 왕족의 후예로 영조대를 살다간 소약루 이유는 강호를 벗삼고, 시문과 사상을 논하였으니, 문인이자 사상가로서 18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특히 이 시기의 지식인으로서 각기 다양한 주제 의식을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여 가사 <사군별곡>·<망미인가>·<충효가>·<옥경몽유가>와 시조 <자규삼첩>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지었다는 점에서 한국시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고 믿는다.

---

49) 김팔남, 위의 논문(2005), 91쪽 참조.

## VI. 맺는 말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의 출현과 공개는 시가문학사에 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13편의 가사 작품들은 18세기를 풍미하였으며, 많은 향유층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사군별곡>·<충효가>·<옥경몽유가>·<망미인가>는 본 연구자에 의하여 처음으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 자료인 『고시헌서』에 거명되었던 작자에 대한 간단한 기록(福川 李太守 所作·自作)을 통하여 정확한 작자를 추론하여 내고, 창작 연대를 밝히는 일로부터 내밀한 작품의 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운 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에 대한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은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작자와 제작 연대 등이 제대로 판명되지 않고는 작품의 전체적인 해석과 감상, 그리고 분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위의 3작품의 경우에는 작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희망의 단서가 되었고, 필자가 새로 찾아 낸 방증자료를 증거로 위의 4 작품의 작자를 영조 대를 살았던 小岳樓 李滌(1675.3.8;숙종 1~1753.9.2;영조 29)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유는 장릉 참봉과 동북 현감을 지내면서 <사군별곡>과 <충효가>를 지었으며, 그의 대부분의 삶의 공간이었으며, 창작의 요새였던 소악루에서는 <옥경몽유가>와 <망미인가>를 남겼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재건한 소악루를 스스로의 호로 삼을 정도로 사랑하였고, 이곳에서 문학과 학문을 즐겼으므로, 주변의 시인묵객들이 몰려들었다. 이 중에서 겸재는 양천 현령으로 자처하여 이곳에 왔고, 날마다 소악루와 한강, 그리고 멀리 내다보이는 삼각산을 배경으로 눈에 보일 듯 그 경치를 그려냈다.

지금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궁산에 자리 잡고 있는 소악루는 겸재의 그림 <소악루(小岳樓)>와 <소악후월(小岳候月)>이 1993년 세상에 알려지자,

이것을 토대로 1994년 6월 25일에 준공하여 복원한 것이다.

소악루 이유평가 생산해 낸 시조와 가사 작품들이 18세기 한국시가사에서 기행·연군·교훈·몽유가사의 영역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 『時憲書裏寫本歌詞集』  
『全州李氏宣城君派瑤源續譜』  
『陽川郡邑誌』  
『同福縣邑誌』  
『槎川詩抄』  
『小岳樓縣額記』, 정규승 정리  
『悔軒集』  
『圃巖集』  
강서문화원 편, 『강서구 역사문화문화재』, 1999.  
강서문화원 편, 『강서 문화와 역사』, 2002.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서울 : 범우사, 1999.  
강전섭, 『한국고전시가연구』, 서울 : 경인문화사, 1995.  
강전섭, 「小岳樓 李滌의 <子規三疊>과 <四郡別曲>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1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1~15쪽.  
김팔남, 「복천 이태수작 <망미인가>의 주제 형상화 고찰」,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279~305쪽.  
김팔남, 「연정가사 <승가>의 실상 고찰」,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2003, 221~243쪽.  
김팔남, 「<옥경몽유가>의 이상 세계 표출 방식」, 『어문연구』 49, 어문연구학회, 2005, 67~94쪽.  
김팔남, 「<춘면곡> 고찰」,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학회, 1996. 447~463쪽.  
김동국, 「<회심곡> 발생고」, 『우리어문연구』 21, 우리어문학회, 2003, 205~230쪽.

권두환, 「목소리 낮추어 노래하기 -송강 정철의 <훈민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서울 : 집문당, 1992, 533~539쪽.

박규홍, 「석하 소장 고시헌서철에 필사된 시가작품」, 『서지학보』 8, 한국서지학회, 1992, 97~120쪽.

이태호, 「겸재 정선의 가계와 생애 -그의 가정과 행적에 대한 재검토」, 『이화사학 연구』 13·14 합집, 이화사학연구소, 1983, 83~92쪽.

장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울 : 한길사, 1999.

<투고일 : 2006. 6. 27.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 A Couple of <Ga-Sa> Recently Found

Written by Lee Yu, So-Ak-Ru

-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Author and Timing of Writing -

Kim, Pal-nam

This paper aims to re-investigate the author and the timing of the four songs, <Sa-Gun-Byeol-Gok>, <Mang-Mi-In-Ga>, <Chung-Hyo-Ga> and <Ok-Gyeong-Mong-Yu-Ga> in 『Go-Si-Heon-Seo-Yi-Sa-Bon-Ga-Sa-Gip』 which had been recently found and has many songs in the 18th century. Through this work, I am able to confirm that the author of four works above mentioned was Lee Yu who had lived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 in Jo-Seon Dynasty between 1675 and 1753. He wrote <Sa-Gun-Byeol-Gok> and <Chung-Hyo-Ga> in the timing of the Manager of Jang-Reung(the Tomb of King Dan-Jong) and Local Governor in <Dong-Bok> county, now Dong-Bok-Myeon, in Hwa-Soon, Jeon-Nam. In addition, it seems that he wrote other two Ga-Sas, <Mang-Mi-In-Ga> and <Ok-Gyeong-Mong-Yu-Ga> living at So-Ak-Ru, a viewpoint located in now Gung-San(Hill) at Hwa-Yang-Dong, Gang-Seo-Gu, Seoul.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four Ga-sas by Lee Yu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pioneers in Ga-Sa history in 18th century, in that those dealt with the multiple issues of traveling, moving king, teaching people and structure in dreaming.

**Keywords** : <Sa-Gun-Byeol-Gok>, <Mang-Mi-In-Ga>, <Chung-Hyo-Ga>, <Ok-Gyeong-Mong-Yu-Ga>, So-Ak-Ru, Lee Yu

# 새로 발굴한 金炳淵의 科體詩 검토

柳年錫(제1저자)\*, 梁東植\*\*

<차 례>

- I. 머리말
- II. 『時尙』의 형태와 내용
- III. 『金笠詩集』과 『時尙』의 과체시 비교
- IV. 『東詩』와 『時尙』의 과체시 비교
- V. 맺는말
- \* 부록 : 『時尙』에 수록된 김병연 과체시 탈초본

## I. 머리말

이 논문의 목적은 금번 2006년에 새로 발굴한 김병연의 과체시 12편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속칭 김삿갓으로 잘 알려진 金炳淵(1807~1863)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용수 『金笠詩集』의 「김립약보」<sup>1)</sup>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김병연은 당시 권문세가인 安東金氏 집안에서 태어났다. 1811년 홍경래난 때 그의 조부 金益淳은 宣川防禦使였으나 叛軍에게 투항한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김병연 일가는 폐족이 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강원도 영월에 숨어 살던 김병연은 20대 초반에 가출하여 전국을 방

\* 순천대학교

\*\* 순천대학교

1) 이용수, 『김립시집』(초판)(서울 : 학예사, 1939), 9~12쪽.

랑하며, 걸식하다가 전라남도 화순 同福에서 57세를 일기로 객사했다.

그동안 김병연의 시문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김립시집』의 역편자인 이응수는 김삿갓에 대하여 “東洋의 詩聖, 아니 世界文豪의 地位에 있다”<sup>2)</sup>고 했다. 혹자는 “김삿갓은 없다. 언필칭 그의 시로 일컬어지는 시들은 김삿갓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시를 지으랴 싶은 것을 주워 모아 놓은 것이라고 보면 거의 실상에 가깝다”<sup>3)</sup>라고 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金炳淵은 언제나 서민대중의 편에 서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모순된 제도와 잘못된 사회체제를 해학과 풍자로써 비판하며 백성들이 지향했던 바른 뜻을 기르는데 시로써 헌신했던 큰 시인이었다”<sup>4)</sup>라고도 했다.

실상 이러한 평가들은 대체로 김삿갓의 五言·七言의 律詩의 연구에 한정된 내용이다. 통상 여덟 句로 된 율시들을 一般漢詩로 호칭하여 科體詩 즉 功令詩와 차별화하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소홀했던 과체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응수는 “그의 科詩(과체시를 말함 : 필자 주)는 科客의 교과서가 되고 그의 律, 句는 서당 훈장 학동들의 繩尺이 되어 어느 서당에 가든지 김립의 律句 몇 수를 암송하고 있었다”<sup>5)</sup>고 했다. 이것은 이응수가 김삿갓의 한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소감의 일단이다.

김삿갓 연구에 큰 공헌을 끼친 정대구도 위의 소감에 부응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삿갓의 과체시에 대한 평가는 당시에 마치 교과서처럼, 모범 답안지같은 대우를 받았고, 후대에 김태준·조운제·이가원·문선규 등등 국문학자들도 그들의 저서에서 김삿갓의 과체시에 대하여 언급을 가하고 김삿갓의 희작시에 대해서 인식했던 사람들도 과체시만은 높게 인정해 주었다.<sup>6)</sup>

2)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서울 : 한성도서, 1941), 34쪽.

3) 정 민, 『한시미학산책』(서울 : 솔출판사, 1996), 346쪽.

4) 이진호, 『金炳淵詩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155쪽.

5) 이응수, 앞의책(증보판), 34쪽.

6) 정대구, 『김삿갓연구』(서울 : 문학아카데미, 1990), 71쪽.

정대구의 『김삿갓연구』가 발표된 지 어언 15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과체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과체시의 형식은 七言絶句를 한 짝으로 하여 모두 36 줄[行]로 이루어져 무려 252字에 달하는 長詩文이다. 더구나 과체시는 중국의 고사를 많이 인용하여 난해하며 내용의 파악이 까다롭다. 그런데 지난해 매우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구사회 교수가 김삿갓의 과체시 11편을 새로 발굴한 것이다. 또한 금년초에 필자가 김병연의 과체시 12편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 작품들은 申思奘이라는 분이 필사한 『時尙』에 실려 있다.

먼저 구사회가 발표한 과체시에 관한 개요를 들어보겠다.

이응수가 수행했던 일련의 작업 이후로 10수가 더해졌는데, 1983년도에 이르러 문예지 『문학사상』에서 김삿갓의 한시 13편을 발굴해 냈고, 영월에 사는 박영국이 수집한 김삿갓의 한시 중에서 3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정대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하는 김삿갓의 한시는 모두 456편(일반한시 248편, 과체시 208편)이다. 근래에 이건호는 김삿갓이 세상을 떠났던 곳으로 알려진 全南 和順郡 同福面에 살았던 정창진(丁昌鎭)의 후손가에서 새로운 한시 2편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번에 필자가 새로운 과체시 11수를 추가하면, 김삿갓의 한시는 모두 469편(일반한시 250편, 과체시 219편)으로 정리된다. 이번에 필자가 우연찮게 김삿갓의 한시를 발굴하면서 느낀 소감도 아직 어디엔가는 그의 한시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sup>7)</sup>

구사회는 ‘아직 어딘가에 그의 한시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응수는 “이 詩의 수집의 지역적 범위는 南鮮, 北鮮, 西鮮을 통틀어 포함되어 있는데 (중략) 남선, 강원도 지방에 직접 가지 못한 것은 나의 유감”<sup>8)</sup>이라고 했다. 이응수가 직접 가지 못한 ‘남선’ 즉 영호남 일대는 구사회가 말한 ‘어딘가’의 범위를 더욱 좁혀준다. 필자가 김병연 과체시를 새

7) 구사회, 「새로 발굴한 김삿갓의 한시 작품에 대한 문예적 검토」, 『문학과 문학연구』의 새로운 쟁점(국제어문학회, 2005), 2~3쪽.

8) 이응수, 앞의 책(초판), 7쪽.

로 발견한 『時尙』을 얻은 곳은 광주광역시 고서점이었다.

## II. 『時尙』의 형태와 내용

『時尙』의 크기는 17.5×19cm로서 方形이며, 앞뒤 표지를 합하여 모두 33장이다. 두꺼운 표지는 다섯 군데에 구멍을 뚫어 무명실을 꼬아 매었으며, 안쪽은 모두 창호지인데 두 겹으로 접혀 있다. 필사 재료는 먹[墨]이며 楷書로 내리 썼다.

표지에는 ‘丙申 八月’이라는 干支가 적혀 있다. 이것은 필사가 완성된 시기로 보이는데, 丙申年의 最近世는 1956년과 1896년에 해당한다. 만일 1956년이면 한국휴전협정 3년 후이며, 1896년은 김병연 사후 33년이 된다. 그러나 紙質의 상태나 製本한 숨씨 등으로 보아 이 필사본은 1896년에 완성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필사본 서책의 제목인 『時尙』의 뜻은 파악하지 못했다. 제목의 바로 아래쪽에는 약간 작은 글씨로 ‘單’이라고 적혀 있는데 ‘單卷’의 줄임말로 생각된다. 다시 그 아래 陽刻된 도장이 찍혀 있는데 판독하지 못했다. 또한 뒤표지 안쪽에는 ‘主 鵝洲 申思奭 識와 함께 ‘美南藏’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時尙』은 신사석이 당시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詩文을 모아 책의 제목으로 붙인 듯하다. 그러나 『시상』의 필사자 申思奭에 대한 인적사항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申씨 본관으로 高靈, 平山, 鵝洲 등 50여 본이 있는데, 그의 아호가 鵝洲인 점이 주목된다. 더러는 자신의 본관을 아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고을을 나타내는 주州를 擘[洲]의 뜻을 가진 글자로 바꾸어 ‘鵝洲’라고 自號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시상』에는 모두 95편의 과체시가

실려있다. 맨 처음 등장하는 <歸報滄海君>의 작자는 黃五다. 황오는 1845년에 鄭顯德(1810~1883)의 소개로 김삿갓을 만난 적이 있다. 이때는 김삿갓의 나이 39세였는데 공교롭게도 새로 발굴한 <止酒詩>를 지은 해와 동일하다. 황오가 김삿갓을 만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綠此集』<sup>9)</sup>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김삿갓에 관한 기록을 남긴 황오와 김삿갓의 과체시가 『시상』에 함께 실린 것도 흥미롭다.

『시상』에 실린 과체시의 저작자는 黃五(1), 鄭(4), 朴齋璣(2), 黃麟八(7), 禹庸(1), 金華中(1), 蔡澤(1), 玄涯(1), 郭子健(1), 柳光憶(1), 柳太容(1), 李宅東(2), 許塚(1), 申光洙(1), 金炳淵(18) 등으로 모두 15명, 총 42편이다. 이 가운데 『綠此集』의 저작자 황오와 과시에 능통했던 신광수(1712~1775)를 제외한 12명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柳光憶은 이옥(1760~1812)의 한문소설 <柳光憶傳>에서 科詩를 팔아서 먹고사는 作中人物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53편은 작자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屈原의 <楚辭>나 蘇軾의 <赤壁賦> 등과 관련된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다소 보인다.(괄호 속의 숫자는 작품의 수임)

이 논문에서 쟁점 하나로 떠오르는 것은 우용의 <責漂麥>이다. 구사회가 김삿갓의 과체시라고 발표한 <訕漂麥>과 아주 흡사한데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이상의 작자 가운데 단연 수위를 차지한 18편이 김삿갓의 과체시이다. 이 논문에서 이들을 김병연의 작품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제목 다음에 반드시 ‘金笠’이라고 표기를 했으며 그 외의 3편은 ‘上笠’으로 略稱했기 때문이다. 이하 김병연의 과체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黃五, 「金莎笠傳」2권, 『綠此集』, 한성도서, 소화 7년.

<표 1> 『時尙』에 수록된 김병연의 과체시

번호	제 목	비 고
1	止酒詩	
2	獨不憐公子妹耶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 405쪽
3	喜雨亭	" 305쪽
4	聶政後二百年秦有荊軻之事	" 247쪽
5	作詩乞酒	
6	代荊軻嘆滄海力士誤中副事	
7	秋七月既望	
8	少焉月出於東山之上	" 312쪽
9	項梁怒	
10	此則岳陽樓之大觀	
11	代范增將軍歸彭城別營壯士	
12	乃請荊軻曰秦兵朝暮渡易水	
13	而已夕陽	이응수 『김립시집』(초판) 211쪽
14	風蕭蕭	
15	歌風蕭蕭易水寒嘆壯士復還	
16	八千愧五百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 260쪽
17	朕始爲皇帝	
18	醉自播間歸驕其妻妾	

위의 <표1>을 통하여 살펴보면 2, 3, 4, 8, 13, 16은 이응수의 『김립시집』에 이미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그러나 『김립시집』에 실린 제목은 <獨不憐公子妹>인데 『시상』에는 맨 끝에 ‘耶’가 붙어 있으며, 첫 줄의 ‘圍急吾不憐家妻’와 ‘國亂吾不憐家妻’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등 다소의 출입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轉寫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일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몇 글자 또는 몇 줄의 상이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에는 대차가 없으므로 이상의 6편은 새로 발굴한 과체시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나머지 1, 5, 6, 7, 9, 10, 11, 12, 14, 15, 17, 18번 등 총 12편을 추가로 발굴된 김병연의 과체시로 인정한다.

위 12편의 과체시들 가운데 <止酒詩>와 <作詩乞酒>는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나, 시를 지어 술을 얻어먹는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또한 <秋七月既望>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인 ‘백중날’의 풍속에 관한 감회를 보여 준다. 기타 중국 ‘岳陽樓’의 경관과 더불어 楚나라 장수로서 秦軍에게 敗死한 ‘項陽’의 고사, 秦始皇을 죽이려다 실패한 ‘荊軻(?~227 B.C)’ 등 대체로 중국의 풍물과 역사적 사실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止酒詩>와 <作詩乞酒>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Ⅲ. 『金笠詩集』과 『時尙』의 과체시 비교

김병연이 타계한 지 76년이 지난 1939년에 이응수가 전국에 산재한 유작을 수집하여 『김립시집』 초판을 상재했다. 이 시집에는 130여 편의 일반한시와 50여 편의 과체시가 실려 있다. 그 후 1941년의 증보판에는 일반한시 200여 편, 과체시 30여 편이 증가되었다. 이응수는 8.15 이후 북으로 갔으며 그 곳에서 『풍자시인 김삿갓』<sup>10)</sup>을 마지막으로 출판하고 작고

10) 이응수, 『풍자시인 김삿갓』, 평양국립출판사, 1956.

했다. 이 시집에는 90편의 일반한시와 6편의 과체시가 실려 있다.

이응수가 북한으로 간 뒤부터 2006년 현재까지 박오양을 필두로 김일호, 권영한, 이명우 등 30여 종의 김삿갓 시집이 출판 되었으나 허문섭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저자들은 과체시를 대폭 삭감하였다. 그 까닭은 아마도 과체시의 내용에 중국의 古事가 많이 인용되어 번역이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문장이 길어 번거롭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정대구의 견해를 보겠다.

유명 출판사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김삿갓이라는 이름을 팔아 돈푼이나 벌겠다고 꾸며내고 찍어내고 팔아먹겠다는 인상이 짙다. 이들은 새로운 점을 보여 주지 못하고 대부분 김삿갓 연구의 선구자인 이응수가 펴낸 「김립시집」을 우려먹고 있음을 본다. (중략) 대부분의 김립시집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응수를 원전으로 하고 있고 내용·편집면에 있어서 별다른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와서 박용구 편이 번역에서 새로움을 보였고 정공채의 것이 성의와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과 색다른 편집을 한 것이 눈에 띈다.<sup>11)</sup>

정대구 이외에도 윤은근<sup>12)</sup>, 정응수<sup>13)</sup>, 박혜숙<sup>14)</sup>, 문제선<sup>15)</sup>, 이창식<sup>16)</sup>, 박대현<sup>17)</sup>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병연의 작품과 생애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나 과체시에 대한 연구자료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김립시집』과 필사본 『시상』을 비교 검토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시상』의 필사자 신사석 역시 김병연의 과체시를 18편이나 수록한

11) 정대구, 앞의책, 81~82쪽.

12) 윤은근, 「金笠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9.

13) 정응수, 「김삿갓시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2.

14) 박혜숙, 「金삿갓詩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15) 문제선, 「김삿갓 초분지에 대한 고찰」, 전라남도문화원, 1984.

16) 이창식, 「김삿갓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우리말글』21호, 우리말글학회, 2001.

17) 박대현, 「난고문학관 김병연 친필 관련 자료의 진위에 대하여」, 『고서연구』 21호, 고서연구회, 2003.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테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볼 때 이들의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새로 발견한 김병연의 과체시 가운데에는 <止酒詩> 및 <作詩乞酒>와 같이 술[酒]과 관련된 작품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진국시대의 ‘荊軻’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은 II장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에 필자는 김병연의 과체시 가운데 특징적 경향의 하나로 보이는 ‘김삿갓과 술’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병연의 작품세계와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의 별명이 김삿갓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咏笠><sup>18)</sup>에서 삿갓을 詩化했다. 삿갓이란 대오리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서 비나 별을 피하기 위하여 쓰는 물건이다. 40여 년간 방랑 걸식하던 그에게는 삿갓이 風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 그것만은 아니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喪主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喪人이 외출할 때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방갓을 쓰곤 했다. 상인에게 방갓은 신체적인 소용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김병연의 삿갓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祖父 때문에 폐족이 되어 출세의 꿈을 꺾이고, 숨을 곳도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群衆 속의 隱者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신분을 가리고 싶은 심리적 욕구 때문에 삿갓을 빈배[虛舟]삼아 그 속에 숨은 채 팔도강산을 방랑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김삿갓의 심리적 도피와 은둔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다. 김삿갓의 영혼의 도피처, 그것은 술[酒]이었다.

김삿갓이 금강산으로 들어갈 때에도 “痛飲”<sup>19)</sup>했으며, “술을 너무 마셔 대어 市中の 아녀자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도[亂飲多逢市女嘲]<sup>20)</sup>했다”. 돈벌이가 없던 그는 몇 푼의 엽전을 아껴가며 “주막을 만나 술값이 없으면 어찌 할 것인가[野店斜陽見酒何]<sup>21)</sup>”라고 태산같이 걱정을 했다. 술값도 모자라는 판에 안주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18) 이응수, 앞의 책(증보판), 44쪽.

19) 위의 책, 123쪽.

20) 위의 책, 150쪽.

21) 위의 책, 53쪽.

“주옥같은 詩文을 팔아야 했던 [瓊琚亦是黃金販]<sup>22)</sup>” 그의 심경이 여기저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김삿갓은 친구 趙雲卿과 헤어지면서 <與趙雲卿上樓><sup>23)</sup>를 짓는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은 이렇다. “나는 본래 狂藥인 술을 좋아하는 病이 있어 [酒誠狂藥常爲病]” 어쩔 수 없노라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김삿갓은 酒客만은 아니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러나 詩는 風流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詩亦風流可與酬]”라고 하며 석별의 끈을 놓지 못한다.

필자가 위의 김삿갓의 일반 한시 가운데 <여조운경상루>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김병연의 과체시에 <止酒詩>라는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술을 끊고 싶어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이 작품은 김삿갓의 나이 39세 경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깨달음을 배웠으니, 더구나 내 나이 서른아홉이 되지 않았는가[生來始學大知覺 況我時年三十九]<sup>24)</sup>”라는 구절에 의한다. 그의 나이 39세 때라면 가출한 지 15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방랑 결식은 그로 하여금 온갖 客苦와 辛酸에 시달리고 지치도록 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제는 방랑도 접고, 술도 끊고 귀향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는 “강산은 샅갓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폈거니와, 애초의 불평한 마음을 술에 맡겼었다[江山一笠亦達視 不平初心上於酒]<sup>25)</sup>”에 잘 나타난다. 김삿갓은 ‘이곳저곳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음식 대접도 잘 받았다’고 술회한다. 이러한 부분은 그의 末年作으로 인정되는 <蘭皋平生詩>의 “부잣집 아들과 만석꾼 富者들을 두루 만나 가풍의 후박함을 진실로 골고루 맛보았도다[千金之子萬石君 厚薄家風均詩嘗]<sup>26)</sup>”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先祖(조부 김익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 필자 주)의 일을 생각하면 五臟이 녹는다’고도 했다.

22) 위의 책, 146쪽.

23) 위의 책, 183쪽.

24) 신사석, 『시상』, 쪽수표기 없음.

25) 위의 책, 같은 쪽.

26) 이명우, 앞의 책, 27~28쪽.

새로 발굴한 <지주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술은 좋은 藥으로 病도 치료해주니, 無何有의 세계에 누워 지낸 지 얼마던가[酒誠狂藥雖醫病 幾日沈臥無何有]<sup>27)</sup>”일 것이다. 앞의 일반 한시에서는 ‘술은 광약이라 항시 병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체시에서는 ‘病도 되고 藥도 된다’고 변용된다. 기실 술을 끊겠다[止酒]고 하면서도 약이 되므로 끊을 수 없다는 반어법적인 토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김삿갓의 일반한시와 과체시에서 발견되는 作詩上의 유사성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모티브, 예컨대 ‘삿갓[笠]’, ‘술[酒]’ 그리고 폐족으로 전락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家事荒’과 ‘破家’, 그의 방랑을 비유하는 ‘浮萍’과 ‘水萍’, 신분을 감추어야 했던 처지를 형상화한 ‘掩口’와 ‘守口’ 등의 요소들은 모두 <지주시>가 김삿갓 所作이라는 증거의 편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詩想과 詩語 등의 비교를 통하여 <지주시>가 39세 때 방랑의 중간 결산으로 쓰여진 것이며, <난고평생시>는 그의 말년에 인생을 정리한 과체시의 대표작이라고 할만하다. <지주시>와 <난고평생시>의 상세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 IV. 『東詩』와 『時尙』의 과체시 비교

구사회는 『東詩』에 실린 일부의 과체시가 김삿갓의 소작이라고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김삿갓의 과체시는 마지막 부분에 14수가 필사되어 있었는데, 본래는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필자가 마지막 14수를 그의 작품으로 확신하는 것은 이들 중에는 김삿갓의 한시로 익히 알려진 <論鄭嘉山忠節歎金益淳降賊>과 <責索頭>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14수 중에서 맨 처음

27) 無何有之鄉의 줄임말로 어떤 作爲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세계를 말함. 『莊子』의 나옴.

작품인 <湖南詩> 밑에는 ‘金’이라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14수가 김 아무개의 작품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앞부분에서 새로운 작자의 작품이 시작되는 <圖窮>이나 <基友識之>와 같은 시제의 아래에는 申光洙나 金龍弼처럼 반드시 작자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호남시> 밑에는 ‘金’이라 글자가 김삿갓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sup>28)</sup>

위의 논문에 의하면 새로 발굴한 과체시들 가운데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김삿갓의 한시로 익히 알려진 <논정가산충절탄김익순항적>과 <책색두>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4수 중에서 맨 처음 작품인 <호남시> 밑에는 ‘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정황이 김삿갓의 작품으로 추측, 확신, 그리고 확정의 수순을 밟게 했다.

필자는 그러한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추가로 발굴된 『시상』에는 ‘金笠’이라는 표기가 확실하므로 이 과체시들 만큼은 김삿갓의 작품임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사회가 발표한 14수와 필자에 의해 발굴된 18수가 모두 달라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사회가 발굴한 과체시 가운데 6수는 <蘇秦>, <漢高祖> 등과 같이 인명이 곧 제목인데 반하여 필자의 경우는 인명이 곧 제목인 경우는 없으며, 모두 제목이 길어 최대 13字에 이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요한 비교 대상은 『동시』에서 구사회가 제시한 <訓漂麥>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겠다.

<訓漂麥>은 본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보이는데 뒷부분 6행이 망실되어 있다. 이 시는 조선후기 몰락 양반의 궁핍한 현실적 삶을 암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가렴주구에 시달리며 자신의 박복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힘든 춘궁기를 보내는 백성들의 생활상도 곁들이고 있다. 다른 과체시와는 달리,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는 상당한 문학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여겨진다.<sup>29)</sup>

---

28) 구사회, 앞의 논문, 4쪽.

위의 <산표맥>이 과연 김삿갓의 과체시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필자가 입수한 『시상』에 <責漂麥>이라는 과체시가 있는데 내용이 <산표맥>과 대체로 일치하며, 둘째 <책표맥>으로 기록된 제목 하단에 분명히 ‘禹庸’이라는 작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김삿갓으로 추정하는 <訕漂麥>과 우용의 작품으로 명기된 <責漂麥> 전문을 나란히 제시하여 비교해 보겠다.

偶人立隴駢鳥雀  
猶勝書生坐無聊  
隣鷄亂啄黃雲散  
夕春空對青山遙  
吾非薄命子疎濶  
泣訕空廚投短瓢  
平生不貴讀書郎  
食貧三年織我腰  
□忘峴田送歲月  
□借村春經暮朝  
南隣備織北隣縫  
僅得新年數斗饒  
青黃蒸出半破釜  
曝近書窓身採樵  
雷聲忽送白日雨  
野壑山溪生急潮  
空階有鳥勿啄粒  
破突多鼠無食苗  
禾收野畝老農喧  
衣捲江籬群婦招  
吾家有人麥何去  
坐對晴窓空首搖  
橫流小溪衆蛙戲

有偶立隴駢鳥隊  
隣鷄亂啄黃雲散  
吾非薄命子疎濶  
惟勝書生坐無聊  
夕春虛對蒼山遙  
泣訕中庭投短瓢  
人間不貴讀書郎  
機忘硯田送歲月  
南隣備織北隣縫  
食貧年來織我腰  
糠借村廚經暮朝  
僅得新年數斗饒  
青黃蒸出半破釜  
空階有鳥勿啄粒  
狂風忽送白日雨  
曝近書窓身負薪  
□突多鼯無食苗  
野壑山溪生急潮  
□收野圃老翁喧  
吾家有人麥何去  
橫流古巷亂蛙聚  
衣捲江籬群婦招  
坐對□窓空首搖

29) 위의 논문, 6쪽.

半雜秋泥群鳥踏  
 □□□□□□  
 □□□□□□  
 □□□□□□  
 □□□□□□  
 □□□□□成白  
 □□□□□□  
 書中有女媒可居  
 妾不君家同此宵

半雜新泥群鳥跳  
 人非蠹魚豈食字  
 無睥不見水滿地  
 看君頭□□生白  
 試看庭前糧盈□  
 有耳應□雷震宵  
 何日青雲浮洛橋  
 書中有女可新婚  
 妾不君家同此宵

<訕漂麥>(전문) 『東詩』    <責漂麥>(전문) 『時尙』

상기 두 작품의 제목에서 첫 글자인 ‘訕’이나 ‘責’은 모두 ‘나무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글자만 다를 뿐 의미는 같으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간주 해도 될 것이다. 또한 <산표맥>과 <책표맥>에서 사용된 어휘 가운데 ‘採樵’와 ‘負薪’이 ‘떨나무를 짊어진다’는 의미로 쓰인 바와같이 ‘人間 / 平生’ ‘衆蛙 / 亂蛙’ 등등이 모두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두 작품은 어휘상의 근소한 차이와, 몇 구절의 순서가 뒤바뀐 점 이외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도 아주 흡사하다. 그러므로 구사회가 발굴한 『동시』의 <산표맥>을 김삿갓 소작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시』 14수 가운데 한 작품의 작가가 다르다고 해서 전체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목아래 ‘金’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김삿갓의 작품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禹庸’이라는 성명이 명기된 쪽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

## V. 맺는말

신사석의 필사본 『時尙』에는 모두 95편의 과체시가 실려있다. 이 가운데

데 18편이 김삿갓 소작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6편은 이미 이응수 『김립시집』에 발표되었으므로 나머지 12편만이 추가로 발굴된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삿갓의 과체시는 이응수가 발표한 208편과 구사회가 새로 발굴한 11편 그리고 필자가 추가로 찾은 12편을 합하여 모두 231편이 된다.

이번에 발견된 과체시 18편을 김삿갓 소작으로 단정하는 이유는 작품 제목 아래 반드시 ‘金笠’ 또는 ‘上笠’이라는 표시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상』의 <지주시>는 이응수 『김립시집』의 일반 한시에서 보았던 김삿갓의 정서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아 저작자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예컨대 김병연이 폐족이 되어 삿갓을 쓰고 방랑했던 사정이나 그가 술에 탐닉했던 모습이 일반 한시와 과체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이 그것이다. 물론 조선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인 부패 속에서 폐족으로 전락되어 방랑했던 인물이 김삿갓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방랑자가 김병연처럼 방랑 결석하면서도 시를 지어 人口에 회자되지는 않았다.

김병연은 그의 생존 당시에 한 끼의 밥과 하룻밤의 잠자리를 빌며 천대와 수모를 받았다. 더구나 그의 詩文은 제도권 안에서 세도를 장악하고 있던 道學君子들로부터 非文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다. 훈민정음을 ‘개글’이니 ‘하룻글’이라고 했듯이 김삿갓의 시를 ‘물글’ 즉 비문이라고 매도했던 것이다.

정대구가 이미 피력했듯이 과체시는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것이어서 시인의 세계인식과는 매우 동떨어진다. 그러나 김삿갓의 과체시는 현실에 대한 비분강개한 심정이 들어 있어서 당시의 현실인식이나 사회상을 찾아낼 연구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05년 구사회가 새로 발굴한 과체시와 필자에 의해 발굴된 것에는 동일한 작품이 없어서 상호간의 비교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의 <산표맥>과 『시상』의 <책표맥>이 내용은 거의 일치하나 저작자가 각각 김삿갓과 우용으로 다르게 소개된 것은 비

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시상』의 <책표맥>을 포함하여 추가로 발굴된 김병연의 12편의 과체시가 이 방면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사회, 「새로 발굴한 김삿갓의 한시 작품에 대한 문예적 검토」, 『문학사와 문학 연구의 새로운 쟁점』, 국제어문학회, 2005.
- 문제선, 「김삿갓 초분지에 대한 고찰」, 전라남도 문화원, 1984.
- 박대현, 「난고문학관 김병연 친필 관련 자료의 진위에 대하여」, 『고서연구』 21호, 고서연구회, 2003.
- 박혜숙, 『金삿갓詩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신사석, 『時尙』, 丙申年.
- 윤은근, 『金笠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9.
- 이건호, 『金柄淵詩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용수, 『金笠詩集』(초판), 서울 : 학예사, 1939.
- 이용수, 『金笠詩集』(증보판), 서울 : 한성도서, 1941.
- 이용수, 『풍자시인 김삿갓』, 평양국립출판사, 1956.
- 이창식, 「김삿갓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우리말글』21호, 우리말글학회, 2001.
- 정대구, 『김삿갓 연구』, 서울 : 문학아카데미, 1990.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서울 : 솔출판사, 1996.
- 정응수, 「김삿갓시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2.
- 황 오, 「김사립전」 2권, 『녹차집』, 한성도서, 소화 7년.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A research in the newly discovered  
"Gwache-shi" of Kim, Byeong-yeon

Ryu, Yeon-seok / Yang, Dong-sik

In the newly discovered collected poetry, Shisang, 95 "Gwache-shi" are transcribed. Among them, 18 poems are known as the works of Kim, Byeong-yeon. Because 6 poem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in Kimripshijip, 12 poems could be regarded as newly discovered ones. Kim, Byeong-yeon's "Gwache-shi" are 231 in all: 208 of them were discovered by Lee, Eung-soo, 11 by Gu, Sahoe, and 12 by the researcher.

It is highly reliable that the newly discovered 12 "Gwache-shi" are the works of Kim, Byeong-yeon, on account of their similar atmosphere to general Chinese poems. In comparison to other "Gwache-shi", they can be useful materials to illuminate the philosophies and social conditions of his contemporaries.

**Keywords** : Kim, Byeng-yeon, Shisang, Gwache-shi, Kimripshijip,  
the newly discovered, Chinese poems.

■ 부록 : 『時尙』에 수록된 김병연 과체시 탈초본

( < > 작품명, □ 缺字 )

1. <止酒詩>

酒誠狂藥雖醫病	幾日沈臥无何有	一生自笑酩酊客	萬事遂絕荒茫友
洋洋楚江指爲誓	獨醒灵均猶在否	江山一笠亦達視	不平初心上於酒
愴柔小劫破家餘	水萍殘年爲客後	金龍花鳥放浪蹤	八域春長酒國壽
提鄉托視古并州	一夢三旬青眼久	層雲都市劍心論	明月樓垵詩債負
東誰西某好主人	鷄黍恩情非不厚	平生狂客太憂患	一病無端出儒首
爲先腸胃鐵石銷	畢竟形骸土木朽	平明新送麴秀才	遠別長歌詩數斗
銀杯卽日任化羽	玉瓶佗時戒守口	生來始學大知覺	況我時年三十九
寒鐘古寺誤道僧	孤獨深閨守節婦	床頭笑擲酒德頌	大人先生何許叟
流光勝水慚白髮	宿債如山恒赤手		

2. <獨不憐公子妹耶>

家全國敗我何論	弟存兄亡君所恥	國亂吾不憐家妻	明日編於行伍裡
隣邦時勢魯酒薄	同己私情秦秦視	揮垵春樹射鶴枕	鶴鶴寒聲應在耳
婚姻之故約意難	趙勝夫人公子姊	人情彼此一骨肉	國勢東南兩唇齒
中於四豪義是重	兩家通婚秦不喜	邯鄲急多禍未嫁	日望漳河冠盖使
秋垣徒以外人來	晉鄙胡然中道止	春申孟嘗幾列國	鷄狗隣盟難可恃
層雲一抹大梁天	激起公心何語以	隣吾勝敗勿說既	他國存亡姑舍是
危城風雨可憐花	問是誰家貴姊氏	朱陳共結是真情	楚越相看非道理
梁園芳草父母國	自憐恒言歸欲死	休公宋河遠葦航	試看周國常棣藹

3. <喜雨亭>

畫簾秋捲西山暮	賀語東風石燕舞	韓公詩做慰滿洽	歐老軒名豐樂取
因其沛然翼然成	百里烟花亭有主	東坡健筆善記事	不獨茲州亭喜雨
清虛垵亭雪迎秋	遠景樓遙風迓古	明時愧我乏霖姿	百滴風霜潮海苦
岐陽一雨際下車	旱餘新功厥施普	方春和氣本記沃	曰陽休徵洪範禹

男欣女悅太平象	四野桑麻涵太府	吾爲太守欲志喜	一亭何心起效土
長烟勝此岳陽登	落霞閑情際閣觀	登臨此樂摠雨賜	肇錫嘉名貽郡薄
無過霽月照畫樑	未了油雲繞繡戶	風調上瑞合大有	一州豐謠登八釜
先公後私祝田周	背陰臨陽瞻室魯	分明某年某月名	上樑都扁添一柱
商羊舞處至田疇	華鳥飛時成棟宇		

4. <聶政後二百年秦有荊軻之事>

上下千載龍門史	世間奇男種槿類	齊髡楚子滑稽傳	越蠡周圭殖貨誌
歸來俠窟以劍鳴	深井寒風易水至	人間何代不有俠	聶政千秋兩截事
名殉同日姊嫫烈	伴作其時舞陽釋	吳專曹沫好種子	年數山東劍次次
層雲一抹扶日市	而後風聲寂寞易	如干氣數戰場七	所謂豪傑公子四
三長過筆暫徘徊	燕趙斜陽漸漸墜	山河挾氣竟不死	秦代何男鳴以義
張椎博浪以上起	漸筳威揚其次置	空中飛出七首客	上党歸雲一面視
蒼鷹沃府杳茫影	白鳥燕天蕭瑟翅	乾坤動氣二百年	先後男兒一般志
屠門俠月缺圓天	史局文瀾斷續地	仇家二代亦併時	王坐阿房視俠累
千金愁諾漾陽去	一劍行裝督亢秘		

5. <作詩乞酒>

古人亦解文字飲	百篇豪情止一斗	北海常有樽中滿	東郭得無播間走
沈吟病骨冷皺眉	我既投爪君報玖	平生不作乞隣態	好沃風流詩與酒
千場宿債潤筆資	八域風踪荷鍾友	花朝月夕在在興	到處清狂人不負
三宵病臥硯簾室	獨醒悲歌長鈇叩	寒窗竹葉听雨初	小閣梅花經雪後
華堂春宴去來地	一飯恩情厚則厚	終朝做出別經綸	百計猶難濡我首
青錢未慚杜陵客	白衣無緣栗里叟	明公巨家問高價	滿腹瓊瑤鳴在手
呼童且進豈曰無	對客相酬宜所有	殷勤數日戒飲說	木居先生暫斂否
君山仙客竊飲難	茂陵驪人渴久消	陽關一萬亦不遠	沃地春風生色柳
樽前伏望卽千萬	紙上施行倘八九		

6. <代荊軻嘆滄海力士誤中副車>

靈風素驥慳皇睨 下界無處傳神匕 阿房宮畔呂兒坐 故人高生又浪死

青天霹靂九地來	百斤金椎何許氏	崢嶸俠窟一種子	滄海寒波連易水
吾非神劍愧猿美	君亦羸拳輕虎視	如何一代醉醇天	壘坐人間神勇士
雄圖不幸短七協	餘感猶堪一椎倚	三時鬼雄倚雲謠	天闢行塵海門俟
宮庭五步輦路復	把袖餘謀狙伏是	燕山圖裏未子事	博浪車過万万街
沙中消息大狼狙	天又今年貸秦妃	寒原翠花後影疑	碧落晴雷虛響起
誰知畫屏躍越人	更隔朱輪掄碎裏	人間尚旺白帝祚	臯下重添壯士恥
椎花洽逐劍月晦	殿柱寒騰怒虹紫	傷心虛著後憶汝	孤負重泉深望爾
蕭蕭風氣尚古渡	漠漠滄溟又万里	燕仇韓怨與共深	俠藪荒涼運再不

## 7. <秋七月既望>

際閣九月蘭亭三	故人未卜良宵遊	春花夢掃學士枕	夜桂光濃簫客舟
江山始秋月既望	下界蘇仙搔白頭	蘇翁半世月幾望	七分胸襟都是秋
盈虛世事翰院名	冷煖天時雷海陬	鑿坡烟燭月滿如	熱焰名揚无處休
紅塵世界赤壁高	先秋明湖山秋杯	春歸夏口岸花落	暑退黃岡漳霧收
薇垣金馬杳如夢	南斗青山蕭瑟浮	元豐九年月之七	極浦秋聲星火流
燈寒水府層中元	聲在廬陵悲九歐	盈虛一理指秋天	月爲游人良夜謀
應殊上絃下絃裏	且向生明生魄由	團圓三五是日也	翼夜清光分九州
前宵霧影滿玉蟾	今夕流輝斜斗牛	嫦娥似嫌太圓滿	微或銀宮仙桂稠
名區秋水得月多	勿負今宵清債酬		

## 8. <少焉月出於東山之上>

玉妃不負前宵約	留待桂花移時發	青蓮花下酒初熟	黃竹樓中烟乍歇
精神不遠望後夜	蘇子停盃問之曰	盈虛天地老百坡	只信良宵山上月
影滿鑿陵春夢忽	瓊雷秋水明月多	跨海清光用不竭	扁舟赤壁屬既望
暝色黃泥搔白髮	陶阜亭北暮烟深	武昌山西夕陽沒	清宵惜未趨三五
人影遲遲隔林樾	風清酒熟若無月	勝地仙遊亦磨竭	無聊洞簫立暝樹
未盡澄江滌塵骨	佳期欲滿二八夜	渺渺余懷隔蟾闕	丹崖半壁忽生白
始識東山千尺几	俄然亂雲破銀濤	倏爾平湖變瓊窟	天公爲我洗眸子
一瞬江山光恍惚	阿瞞古壁弔飛鳥	石鐘遙山驚睡鶴	

9. <項梁怒>

楚南之項名於世	父兄無不文魚武	霜寒古鞘射牛斗	燈漏陳簾有魚魯
名門父子一不肖	乃叔深憂添乃祖	初年我愛爾重瞳	書劍中間保門戶
天時方倒太阿柄	文籍應傳世將譜	螢燈一壁掛芙蓉	望汝成功時項拊
前隣忽扛九鼎來	劍何書何度外睹	翻投黃卷夜鼾曼	却解青萍春買酤
生平二十一未解	墜盡吾家世業古	韓惟乞兒帶劍好	平亦償貧讀書苦
家門虛負祝贏誠	搔首燈前乃叔父	傷心楚孤牧羊山	往負新薪腰爾斧
穿蛇古壁奈手疎	闕囊寒燈礙眼瞽	庸如楚括讀馬眼	癡似柳郎窺鬼姥
風塵消息听蠶起	重望吾家輕一羽	蓬桑幾拋四海志	暗數渠年非在乳
家聲忽欲墜箕裘	時事時看若風雨	終看阿侄學兵法	兵法伊歡却非怒

10. <此則岳陽樓之大觀>

可觀亦有爭雄詩	樓上夔翁坐騷垺	金陵二水咏謫仙	際閣三湘稱子安
森羅萬象滿日來	百尺飛欄人自嘆	巴陵勝狀設岳樓	何等風烟爲大觀
長坡城域孟句傳	落日登欄王賦看	重修消息處曆春	屬余際公文以干
高樓浮在洞庭南	昔聞其名今上欄	吳頭楚尾七百里	夕陰朝暉千萬端
東南天地月夜浮	四顧環樓觀則欄	名區風景盡在此	湖外江山爲物難
簾前巫峽冷千里	天上群山高一巒	無過草色入有術	此則高樓觀者歡
登臨墨客眼界闊	粧點騷人胸海寬	登斯樓也喜洋洋	故人風流爲好官
三秋荷桂地勝抗	萬里波濤人此韓	江南三十六樓台	等闌溪山風月殘
黃崗中樓号但竹	會稽秋亭名獨蘭		

11. <代范增將軍歸彭城別楚營壯士>

但願一借烏騅背	卽日西行歸故里	朝坤漠漠暮道窮	星月蒼蒼寸心是
鍾離在右周殷後	一老巋然百夫跪	平明廣陵暮營湯	隨處兵塵同一壘
荊王骨骸七十翁	楚幕爪牙八千土	山河欲封爾公候	宇宙將有吾天子
君王不拔九疑山	沃禽催人東渡水	轅門此別亦太晚	玉斗撞時可去矣
居巢日月幾喚人	暮年孤枕猶不已	天心猶助伯王否	白首謀臣老不死
吾行未早惡草前	幾渡荊江楓葉紫	秋風家在洞庭南	落木寒天孤雁起
吳姬枕上楚王睡	獨傍殘城啓行李	回天漢幕瑞雲興	楚金雖多無奈彼

殘骸將看斃沃土 天地無窮丈夫恥 親如亞夫尙見疑 楚幕安能久留爾  
腰間寶刀解相贈 歸臥田園焉用此 寒燈劍幕別後楚 落雁峯前秋雨裡

### 12. <乃請荊軻曰秦兵朝暮渡易水>

慶卿今若先渡渭 劍頭秦亦危朝暮 壯士十年西入裝 小戎千里東征路  
長城秋雨雁蕭蕭 隱然深憂小海吐 燕家大事誓易水 欲無秦兵早晚渡  
年深蘇門木鳥怨 日積函關金虎怒 青宮夙夜庶幾望 舞陽行裝今已具  
如何劍事緩急意 等閒燕南歲月度 金垠朝日啓行遲 碣石斜陽送客屢  
佳人之手好馬肝 無學三時顛則素 關西積吞不待人 六桑殘秦年益懼  
莊焚以後我狐疑 伐趙之餘彼浪顧 英雄前席主人夜 語及甘棠風雨樹  
儲宮劍危日月過 敵壘兵雷電聲起 朝如不渡暮當渡 隔水青峯生遠戍  
時危郢門胥胥鞭 歲晚柯坳曹沫步 臨流客馬若不肯 日恐中逢秦亦遇  
高生市上日已盡 鞠老村中水无注

### 13. <而已夕陽>

少焉復可迎素月 洞天寥落川雲關 菱溪風散竹裡仙 峴山春迷花下客  
頽然顏髮未了懷 暮景蒼茫生咫尺 人生幾何款流光 百年歐陽已而夕  
登山春服竟日忘 讀書秋燈方夜惜 須臾天地歲暮情 翰院三霜頭已白  
滌亭偶得半日閑 太守風流同射變 蘭亭曲水次第觴 竹樓晴烟良久席  
溪山百里我爲主 非不優遊餘日積 淋漓醉興尙未央 卽景惟何惟取適  
支離午陰草難茵 荏苒春光花落陌 於焉嘉客共指點 一髮西峰殘影迫  
咸池一面近醜泉 永叔光陰流水汐 俄然半山拖斜紅 條爾千溪濃靄碧  
時當燕客共泣時 景納堯宮寅餞宅 焚膏更欲繼殘晷 今我文章韓愈昔  
居然暮鐘促客路 智仙孤菴山四口 前山草爛下牛午 古壁林暝歸鳥亦

### 14. <風蕭蕭>

壯士中立燕秦界 劍心上透秋天虹 斜陽西下一千里 流水東悲十三童  
江城人坐水自吟 落木無過蕭颯中 荊卿一生最蕭瑟 鳴以屠門豪俠風  
田光席上暗暗來 曾句杯中点点通 烏頭函谷是雖怨 吹入前宵儲嗣宮

秦關去路此易水 天下男兒歌筑同 將軍函夢夕啼蟬 美人琴心秋送鴻  
 英雄行李曲中論 江水西流難復東 關西丹丹日影照 蘇北層層雲氣籠  
 如何風月又蕭然 怒氣衝天秋髮蓬 丹儲席過意更淒 漸離樽前歌不終  
 人間聶政後百年 擊殿蒼鷹飛執冲 宮燈落木片片語 終古悲歌男子雄  
 波多激列此極地 劍氣蕭蕭明月功 雲何薄薄日何慘 碣石寒山青不崇  
 淒淒劍仙信歎口 督亢青山落日紅 西風吹入百二秦 永巷秋聲青戰桐

15. <歌風蕭蕭易水寒嘆壯士不復還>

一曲二曲聲悲壯 天地男兒皆如何 何天日貫白虹起 古汀葉下丹楓柯  
 臨風我馬不平鳴 有去其歸淚滂沱 西關千里壯士行 易水秋風鳴劍歌  
 專諸匣裡曉霜霽 聶政村前夕陽多 高生一曲又何意 有時寒聲霜劍摩  
 東流秋水劍心寒 百感催人波似羅 風鳴俠藪寂寞雲 葉落寒汀蕭瑟波  
 秦京綠樹馬首翠 我歌維何非在他 圖中匕首入霜寒 匣裡樊頭秋血呵  
 寒波万里不復回 劍士悲歌如許那 知心俠子摠白衣 秋雨難筵悲淚拖  
 巴岑有意杜宇啼 碣石何心霜雁至 蕭蕭征馬倘解意 起謗虛汀影婆娑  
 他時故路此江山 無復男兒霜七磨 時時顧笑舞陽兒 慷慨樽前顏半酩  
 屠門一載擊節嘆 大俠人問一荊軻 三秋義氣劍虹紫 萬里悲懷鬢髮皤

16. <八千愧五百>

廿八騎亦羞二客 東城不及尸鄉至 億兆雄心商紂勢 數千親已田文事  
 青燈再引一太白 酌汝靈魂涇殘鱗 風塵若論衆寡勢 五百當爲八千愧  
 三吳大國日曰健 一齊殘桴伏以義 山河無愧兩家雄 圖伯稱王好排置  
 元切但讓沃十八 半洋垓城何地 將軍南出有餘運 主人西歸無所冀  
 江祠洛墳万古恨 竹枝悲歌起三四 從徒責重敗亡際 厥數當年多少異  
 稽山越甲士号倍 瀛海秦童客負備 千雄爲大不當日 向背之間輕重視  
 江東父老見何面 海上君臣同生死 荊南九郡愧一都 萬敵元戎無處寄  
 寒宵風送半夜步 義樹霜淒同日淚 溜東圓上魯連月 楚天疎星占占墜  
 千秋有光海洋白 萬事無顏穀城翠

### 17. <朕始爲皇帝>

殷始於湯周始文	只一王字傳千禩	鴻之肇判万年都	螭刻初成八字璽
吾之尊号我自号	德兼功過斯号美	咸陽天地朕以前	曰王稱公先祖始
基傳六世穆惠昭	位笑群邦侯伯子	嘉平初載旧天子	一榻江山亦膝跪
雄威栢醫國万乘	其業函關地千里	臣之議君子儀父	莫非英雄後世恥
崑崙功德欲揭号	太始山河誰可比	前乎堯舜帝子去	上而義農皇号是
吾能有功又有德	不可於今一字以	皇模帝典摠在朕	子葉孫枝皆自此
煌煌螭篆刻三字	名召庭前函相李	基垂一世二世葉	号得兼三過五旨
尊爲一人朕号朕	列國候王戶庭裡	邦基闊闊吞地蜀	王号承來聖姚姒

### 18. <醉自墦間歸驪其妻妾>

可憐人間兒女子	寒廚一生啼飢淚	丈夫自有資身策	四方無非糊口地
朱門何處酒肉矣	東郭荒山夢外翠	家人望我我望人	日出墦間多好事
殘盃不辭蹴台与	冷飯猶爲飢者易	他人叱罵只尋常	妻若知之吾可愧
千身掩護乞人迹	一過猶存跨大志	欣然顏色果然腹	緩步臨門先作意
如驚如喜婦女情	竟問郎君何所自	看吾風骨食福多	行處寧憂口腹累
南隣社友万鍾富	北里親朋上卿位	今朝珍饈某家飽	昨日金盤那處醉
華堂春宴不卜夜	暮鴉歸時吾亦至	今年寒食去年腹	尙記高盤時饌備
休云車轍不到門	念我家貧无客饋	於陵何必厭饋鵝	晏卿殊非誇策駟
班班身上白揚雨	道是名園花露漬		

# 存齋 魏伯珪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

박명희\*\*

## <차례>

1. 머리말
2.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3. 시적 형상화의 양상
  - 1) 궁핍한 삶의 觀照的 표현
  - 2) 빈궁한 현실의 迂廻的 표출
  - 3) 농경 현장의 寫實的 묘사
4.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과 의미
5. 맺음말

## 1. 머리말

存齋 魏伯珪(1727~1798)는 조선후기 호남의 대표 실학자로서 중앙과 멀리 떨어진 僻村 長興의 在地 士族으로 일생을 보냈다. 그러나 비록 벽촌에서 일생을 보냈다고는 하나 위백규의 현실을 보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안목과 현실을 구제하는 대안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는데, 그러한 내용은 저서 『政絃新譜』(33세), 『封事』(50세), 『萬言封事』(70세) 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위백규의 연구도 이러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2004-050-A00021).

\*\* 전북대학교

한 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실학적 면모를 들추어내려고 하였다.

시조 <農歌>로부터 시작된 위백규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다. 특히, 그동안에 이루어진 연구를 외적으로 넓혀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로서 위백규 문학의 실체를 조금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그러나 400여 수에 이르는 한시 작품과 그 무수한 한문 자료가 아직도 완전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遙遠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고는 우선 위백규의 한시문 중에서 현실인식이 바탕이 된 작품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작품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적 리얼리즘을 실천했는가? 하는 측면을 연구하였다. 여기에는 위백규 시문의 중심은 ‘현실시’라는 막연함이 은연중에 있다. 즉, 위백규는 30대 초반에 벌써 시폐를 논의할 정도로 대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쓴 시문도 거의 동체를 그리며 창작되었다. 따라서 이를 무수한 문인들과 대별되는 위백규 자신만의 시문 특징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는데, 이로써 연구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찾아진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위백규는 농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 2.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연보」의 내용에 의하면, 위백규는 일찍이 명민함을 보였지만, 뚜렷한 스승을 찾지 않고 家學으로서 叔祖인 春潭公에게서 육감과 천자문 등을

- 
- 1) 그동안 이루어진 위백규의 한문학적 주요 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존재 위백규의 문학연구』, 서울 : 이회문화사, 1995.  
윤은혜, 「위백규 시 연구」,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김준옥, 「존재 위백규의 문학적 기반」, 『고시가연구』 9,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228~256쪽.  
위홍환,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익히는가 하면, 스스로 독서하며 경학 뿐 아니라 여러 책을 두루 섭렵해나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공부에 한계를 느껴 25세가 되던 해에는 드디어 충청도 德山의 屏溪 尹鳳九를 찾아가 束修禮를 행하고 『대학』과 『중용』 등을 수학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는다. 당시 윤봉구는 국중에 알려진 성리학자였는데, 위백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장흥과 덕산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不遠千里하고 찾아갔던 것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백규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스승 곁에 오래 체류하지 못하고 잠시 머무르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였다. 이렇게 비록 오랜 체류는 하지 못하였지만, 위백규는 윤봉구를 스승으로 모신 이후 여러 방면에 두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본격 저술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31세 때에는 「時弊 10條」를 지어 스승에게 바치는가 하면, 32세 때에는 세계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 『寰瀛誌』를, 33세 때에는 경전 중에서 감명받은 章節을 엮은 『古琴』과 그리고 시패를 논한 『정현신보』 등을 저술한다.

한편, 22세 때 이미 長川齋에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 과정을 정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위백규는 윤봉구에게 나아간 후에도 마찬가지로 친척 자제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는데, 뿐만 아니라 養正塾이라는 학당을 설립하여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향촌 교화를 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위백규는 덕산과 고향 傍村을 왔다갔다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며 향촌을 교화하는 일까지 수행하지만, 아직은 생활 속 현장에 완전히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사족의 위치에 있었기에 향촌 사람들을 이끌며 조금은 군림하는 자세를 취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41세 때 스승 윤봉구가 세상을 뜨고, 덕산수학기가 끝나면서부터는 향촌에 머무르며 생활 속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躬耕讀書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생활 속 현장에 뛰어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보 내용이다.

이 해에 社約으로 인하여 드디어 궁경독서의 규약을 정하였다. 비웃과 삼태,

호미를 갖추고 또한 서책을 허리에 찼다. 직접 목화밭의 김을 매고 정오에 큰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각자에게 그날 공부할 내용을 가르쳤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都講을 설하고서 각자가 절구와 장를을 짓게 하고, 서기와 간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재질에 따라 품평하였다. 향약과 『소학』의 글들을 가려 뽑아서 익히고 해석하였다. 실행한지 수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2)</sup>

사약이란 ‘社講會’의 규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30세 미만의 청년을 중심으로 학문을 닦으며 농경에 임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삼태와 호미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다가 쉬는 틈을 이용하여 공부를 가르치는 등 전형적인 궁경독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절구와 장구를 짓게 하는가 하면, 서기와 간찰 등을 통하여 재질을 품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공부 수준을 점검하니 수년 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 궁경독서의 의미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그러는 가운데 당시 위백규의 향촌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嫉視하는 눈초리도 있었으나 ‘오허려 그만두지 않았다’<sup>3)</sup>라고 하여 소신 있는 자세를 견지하기도 하였다. 위백규가 생존한 18세기는 그 이전의 향촌에서 사족이 누렸던 경제적 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위백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신의 처지가 심각할 정도로 가난함을 여러 글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사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남의 질시까지 받아가며 궁경을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위백규는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농민과 직접 부대끼며 비참한 현장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

다음 두 글은 모두 ‘漕運의 폐단’을 논한 것 중의 일부분이다. ①은 33세 때에 지은 『정현신보』에 실린 내용이고, ②는 50세경에 지은 것으로

2) 『存齋全書』 年譜 42歲, 是歲因社約 遂爲躬耕讀書之規 具囊笠荷鋤 兼帶書冊 自耘綿田 而亭午休大樹下 各授課讀 每朔望設都講 各制絕句長律 以至序記簡札 隨其材而第之 釋讀 鄉約小學章抄 行之數年 著有成效.

3) 『存齋全書』 年譜 42歲, 雖猜忤者 百方嚇沮 猶不永廢.

당시 장흥군수로 와 있던 黃幹의 『봉사』를 대신 써준 글이다. 이 두 글을 비교해 보면, 농민들이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타내 보여준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① 이를 보는 병든 백성과 쇠잔한 농민은 밭을 구르며 바라다보고 머리를 굽적이면서 탄식하지만 감독관은 단지 구경만 하고 있을 뿐 백성의 고통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sup>4)</sup>

② 이미 倉所에 도달한즉 監官을 어린애로 여기고 농민을 버려지로 봐 버린 뒤 斛과 저울대를 마음대로 동독하여 호통을 쳐대며 濫捧게 하니 尸童 監色이 감히 누구냐고 대들지 못하고 애잔한 지 농민들은 밭을 구르며 소리를 삼키고 맙니다. 고혈을 다 짜내고 傾瓶倒軸의 지경인데 破船한 쌀이라 하여 다시 舂米네, 縮米네, 加米네 하여 旋復하기를 여름 유월 보릿고개 한없이 참혹한 때를 당하여 벼락치고 불난 듯이 재촉해대니 大民은 그 家庄을 전매하고 小民은 그 族隣을 분탕질하여 사방의 들판에 ‘農歌’가 문득 끊어져 버리고 열 집의 마을에 버려진 아이들이 다투어 울어 맙니다.<sup>5)</sup>

①과 ② 모두 지방에서 해운을 통하여 곡식을 운반한 후 서울에서 저울에 매달아 뜨는 광경을 나타낸 것으로 운반 도중 중간 관리자들이 부정을 저질러 정량이 되지 못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중간 운반자들은 이미 감독관에게 뇌물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관들 또한 농민을 버려지 취급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농민은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이라 하여 힘없는 계층의 서러움을 대변해주고 있다. ‘농가’는 농민들이 농사지를 때 흥겹게 부르는 노래일진대 더 이상 불러지지 않고 끊어졌다고 함은 흥의 대상과 명분 등이 사라졌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농촌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한다.

4) 『政絃新譜』 漕運之弊, 其槩病氓殘農 頓足旁觀搔首吞聲 其監色愬爾無愾.

5) 『封事』 漕運之弊, 既到倉所 則兒視監官 蟲視農民 自董斛槩喝令濫捧 尸童監色 莫敢誰何 殘彼農民 頓足吞聲 輸膏納血 傾瓶倒軸 而破船米 更舂米縮米加米 旋復星催火迫於夏六月 麥窘孔慘之際 大民典賣其家庄 小民焚蕩其族隣 四郊之農歌頓絕 十室之孤孩競號.

한 가지 더 위 두 글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점은 ①에 비할 때 ②의 상황 설명이 자세하다는 점이다. 즉, ①은 극히 피상적인 반면 ②는 구체적이어서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나타냈다. 이는 위백규가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정도를 다르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반증인데, 위 두 글을 썼던 자신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의 내용을 썼을 당시는 윤봉구에게 수학하고 있었던 때로 위백규 자신이 농민의 삶과 다소 간격이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②의 내용을 썼을 당시는 농촌의 현실에 이미 뛰어들어 농민과 함께 부대끼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目睹했던 때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농촌의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때는 궁경독서기에 접어들어서야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글 모두 상소문인지라 상투적이고 관념성에 그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보다 더 나은 글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인데, 시문을 통한 ‘현실 보여주기’는 이리하여 가능하였다.

### 3. 시적 형상화의 양상

#### 1) 궁핍한 삶의 觀照的 표현

위백규는 가난한 향촌 사족으로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晝耕夜讀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빈궁한 농촌의 삶의 양태를 볼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작품이다.

二月田家倒瓶甕	이월의 농촌은 쌀독을 기울이고
不堪時事苦營營	세시의 일 감당 못하니 괴로움만 빈번하다
花開古峽鳥鳴磻	꽃이 핀 옛 골짜기와 새 지저귀는 시냇가에는
惟有春風非世情 <sup>6)</sup>	오직 봄바람만이 있어 세상의 정과 어긋나네

위 시는 작자가 수학의 장소로 삼았던 天冠山의 장천재로 들어가면서 지은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2월에 해당한다. 2월의 농기는 지난해의 곡식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해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빈궁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러한 사실은 바로 기구의 ‘쌀독을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또한 가난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니 그 괴로움이야 비할 데가 없는 것이다. 승구까지는 이러한 가난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전해주고 있지만, 전구와 결구에서는 인간의 삶과는 다른 자연을 등장시켜 극명한 대조를 하였다. 지금 작자가 들어가는 장천재는 산 속에 있기에 주변에는 흐르는 물과 새, 꽃 등의 자연물들이 산재해 있고, 또한 때는 2월 인지라 봄바람도 불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로운 자연의 모습은 세속에 묻혀 사는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음을 들어 고난의 연속에 쌓인 농촌의 삶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작자가 어떤 태도로 농촌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작자는 농촌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입장에 놓여있다. 즉, 그저 멀리서 관조하면서 사실을 전해줄 뿐이지 어려움을 겪게 된 어떤 원인 제시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는 가난의 원인으로 자연재해를 들고는 있지만,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은 앞 시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稱爲梅霖古或然	매림이라 일컫는 때는 옛적에도 혹 그러했는데
翻盆浹旬祗今年	만 열흘 동이를 뒤집듯이 한 것은 다만 금년뿐이네
農民愁死其如歲	농민들이 시름에 죽을 지경이니 올해를 어찌 할 것인가
大陸橫侵莫問天	대륙이 마구 잠기니 하늘에 물을 수도 없네
賢聖有言吾自慰	성현의 말씀이 있어 내 스스로를 위로해보나
饑飢無計婦堪憐	밥 지을 계책 없으니 부인네가 가련하네

6) 『存齋全書』 卷1, <二月入長川洞>.

化翁戲劇應靡已    조화옹의 장난은 아마도 그침이 없으니  
且喚家僮看防川<sup>7)</sup>    우선 아이를 불러 방천을 보게 하네

수련에서 말한 梅霖은 보통 매실이 익을 무렵에 오는 긴 장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언제나 겪는 자연 현상이기에 체념한 듯한 어조로 시문을 열었다. 그러나 다른 해와 유달리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삶에 안겨주는 것은 곤궁함뿐임을 ‘열흘 동안 동이를 뒤집듯이 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니 이러한 농촌에서 사는 농민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작자의 愛民意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유를 하늘에 물을 수도 없다라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까지가 함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련에서는 ‘나’와 ‘부인’을 서로 대조시켜 ‘나는 성현이 남긴 책을 읽으며 위로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반대로 ‘부인’은 밥 지을 것조차 없으니 가련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하여 현실의 불행을 보고서도 어찌지 못하는 나약한 儒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나약함은 다음의 미련까지 이어지는데, 장맛비는 결국 조화옹의 소관이라고 돌리며 단지 작품 속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를 시켜 방천을 보게 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농촌에 닥친 불행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연 재해로 인한 것이기에 어찌할 수 없어서 작자는 나약한 자세로 세계를 관조만하고 있다.

다음 시도 위의 시와 거의 흡사한 작품으로 농촌 삶의 어려움의 시작이 또한 자연 재해로부터임을 제시하였다.

借陽纔去又陰霏	어그러진 양기 겨우 가고 또 음한 비가 오니
事事田家大半非	농촌 일일마다 절반 이상 그릇 되네
少暑過時秧已晚	적은 더위 지날 때는 모심는 일 이미 늦고
沴氛蒸處莠全肥	나쁜 기운 찌는 곳에 가라지 완전 살찌네
單婢愁爨無薪木	한 여자중 딸나무 없는 아궁이 불 때기 근심스럽고
稚子輕沾未澣衣	어린 아이 빨지 아니한 옷 적시기 손쉽네

7) 『存齋全書』 卷1, <疊韻送河義瑞單道別懷>.

幽人計活都安分    그윽한 곳의 사람 모두 편안히 살 계획만 세우니  
收拾園梅且詠歸<sup>8)</sup>    정원의 매화 거두어 모아 또 읊조리며 돌아가네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먹고 사는 농민에게 있어서 자연 재해는 어느 무엇보다도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리 시설이 그리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계속된 비는 당연히 많은 일을 그르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닥칠 때 모를 심자니 때는 이미 늦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심정을 함련에서 내비치었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單婢’와 ‘稚子’를 대조시키며, 전자는 뭍나무가 없기에 아궁이에 불을 뭍 수가 없고, 후자는 옷을 굳이 빨지 않아도 비에 적시기 쉽다라고 하였다. ‘단비’와 ‘치자’를 대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빈궁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비’는 하나밖에 없는 여자 종이라는 뜻으로 작자는 현재 겨우 班家の 체면을 유지해 나갈 정도의 家勢임을 드러내주는 관용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사족에게 있어서 토지 외에 물질 기반의 중요한 하나는 奴婢였다. 노비는 사족 경제에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것으로 士民들에게 있어서 생업의 기초가 되고 있었다.<sup>10)</sup> 작자도 향촌 사족이 분명한데, 한 명의 여종만을 거느리고 있으니 스스로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그렇지만 그 뿐일 뿐 더 이상의 비판이나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安分’을 꿈꾸며 정원의 매화를 시문으로 읊조릴 뿐임을 마지막 미련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비판 정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난한 삶을 관조하고 있기에 현실이 마치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

이상 현실을 빈궁한 삶으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현실을 주로 관조는 데에서 그친 시문들을 살폈다. 이러한 류의 현실시는 주로 관직에 있는 유학자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까지

8) 『存齋全書』 卷1, <晚霖>.

9) 김석희, 전계서, 39쪽 참조.

10) 김인걸, 전계 논문, 325쪽 참조.

는 인식하지만, 대개 더 이상의 진전은 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현실과 지나친 거리 조정을 한 결과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감정의 억제까지 했으니 관념적인 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감있는 감동을 안겨줄 수는 없다.<sup>11)</sup> 오히려 현실인식이 수반이 된 감동을 주는 시적 형상화는 다른 작품들에서 엿볼 수 있다.

## 2) 빈궁한 현실의 迂迴的 表출

위백규는 보리를 소재로 한 시문으로 모두 네 작품을 남겼는데, <罪麥>, <麥對>, <靑麥行>, <靑麥> 등이 그것들이다. 네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죄맥>은 5언 84구로 보리를 被告로 놓고서 그 죄를 논한 것이고, <맥대>는 5언 146구의 장편으로 <죄맥>을 이어서 보리 자신이 斷罪 당함에 대하여 주로 변명을 늘어놓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맥행>은 부정형 古詩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목의 ‘청맥’이 말해주듯 풋보리로 춘궁의 때를 면하는 농촌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마지막 ‘청맥’은 칠언율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贈河上舍>의 시제 중 첫 번째 작품으로 마치 앞의 <청맥행>의 내용을 다소 축소한 듯한 느낌도 주는데, 마찬가지로 춘궁기 농촌에서 보리를 타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죽을 쑤어 먹는 일 등을 묘사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의 성격상 <죄맥>과 <맥대>, 그리고 <청맥행>과 ‘청맥’ 등을 각각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청맥’을 제외한 <죄맥>과 <맥대>, <청맥행> 등의 수사적인 방법이다. <죄맥>과 <맥대>는 시문의 서술 양상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보리를 의인화시켜 寓話의으로 표현하였고, <청맥행>은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현실의 궁핍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청맥행>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1) 金坡五, 『詩論』(서울: 三知院, 1993), 252~254쪽 참조.

(省略)

門外乞兒來	문밖에 거렁뱅이 아이 왔으되
先來僅得沾一勺	먼저 온 놈만 가까스로 한 모금 얻어 마셨네
後至頓足	뒤에 온 놈 발만 동동 구르며
疾聲請活我	“나를 좀 살려 줘쇼!” 황급히 소리치지만
其奈無餘瀝	한 모금도 남은 것이 없으니 어찌리
臨門語乞兒	문에 나가 거렁뱅이 아이에게 이르기를
何不呼朋挈	“왜 친구를 불러
儔向紫陌朱門乞	나란히 큰 거리 부잣집에 함께 가서 빌질 않느냐?
犬彘厭粱肉	개와 돼지 기장밥과 고기에 물렸다는데
豈無活爾術 <sup>12)</sup>	어찌 너희들을 살릴 방책 없겠나?”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극적이다. 위 시의 앞은 풋보리를 빵아 죽을 쑤어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 安分自足하고 있을 때 문밖에는 거렁뱅이 아이들이 몰려와 풋보리죽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 애쓴다는 내용으로 위 시는 시작하였다. 풋보리죽이지만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으려는 모습이 다소 과장된 듯한 느낌도 주는데, 현실의 궁핍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나마 풋보리죽도 양이 많지 않아 나중에 온 아이는 얻어먹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다급함의 극적인 효과를 최대로 하면서 현실성을 더해준다. 그러나 풋보리죽은 남은 것이 없기에 거렁뱅이 아이에게 이르기를 “개와 돼지도 기장밥과 고기에 물릴 정도로 잘 먹고 산다는 큰 거리 부잣집에 가서 빌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를 통해 작중 화자는 겨우 풋보리죽이나 쑤어 먹는 자신의 집과 큰 거리 부잣집을 대비하여 잘 사는 집일수록 人情이 없음을 은연 중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인정의 대비를 통하여 부잣집을 간접적으로 비판할 뿐이지 빈궁한 현실을 이기어 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빈궁한 현실의 원인을 과해친다거나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비하여 비판의

12) 『存齋全書』卷1, <青麥行>.

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회적 문학 장치를 통한 빈궁한 현실의 표현은 <죄맥>과 <맥대>에서도 이어진다. <죄맥>은 보리의 부정적인 면을 낱알이 들어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맥대>는 보리를 의인화하여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항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리에게 죄를 묻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보리에게 수사적인 기법을 가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만하다.

먼저 <죄맥>은 크게 나누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뉜다. 서론(1~4구)에서는 피고의 신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였고, 본론(5~80구)에서는 보리 자체의 성질이나 생김새에 관한 설명적 묘사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보리를 어쩔 수없이 경작하고 수확하여 도정해내는 과정을 그렸으며, 보리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한 뒤에 보리의 무익함과 해악, 무가치함을 단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81~84구)에서는 보리에게 ‘유배형’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sup>13)</sup> 시문의 처음에 ‘곡식이라 불리는 것이 수 백 가지인데, 가장스러운 것은 오직 보리로다. 그릇되게도 못 나쁜 재질로, 궁핍함을 틈타 백성의 식량으로 참여하였네’<sup>14)</sup>라는 말부터 시작한 <죄맥>은 내용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보리를 논죄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있어서 눈에 보이니 비록 꼭 참고 먹긴 먹지만, 새거나 떨어져 나간대도 누구 하나 아까워하리. 때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어, 너를 버리지 못할 따름. 실로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백성들 생계는 응당 스스로 대비함이 있었으리라’<sup>15)</sup>라고 하여 먹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노라고 하며 보리를 싫어하는 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기까지 한다. 통상 보리밥이 가난의 대명사처럼 쓰임을 생각할 때 궁핍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노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와 같이 <죄맥>에서는 주로 보리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 보이려 애

13) 金碩會, 전계서, 112쪽 참조.

14) 『存齋全書』卷1, <罪麥>, 號穀數爲百 可憎者惟麥 謬以衆惡質 承乏參民食.

15) 『存齋全書』卷1, <罪麥>, 見在縱耐喫 漏落誰能惜 乘時沒奈何 遂未見棄擲 苟使初無有 民計當自屬.

쓰는데, <맥대>에서는 그 반대로 보리 스스로가 자신은 죄를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을 들어 항변한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入口已難耐      입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웠으나  
 下膈尤作惡      밥통을 지나고 나면 더욱 더 사투함을 드러내네  
 泄氣助溲蒸      설사 기운이 방구가 되어 악취를 뿜어내니  
 敗臭發面渥      썩은 냄새가 발하여 낮에 확 덮쳐우네  
 乖刺作痢泄      꼭꼭 찌르며 묽은 설사를 일으켜서  
 促迫驅溷廁      급히 쫓아 뒷간으로 내 모네  
 老人痿成痺      노인은 풍증에서 마비로 진행되어 가고  
 建兒瘦脫髓<sup>16)</sup>      튼튼하던 아이도 수척해져서 뼈만이 앙상하네
- ② 人皆腹不潔      사람은 모두다 배가 조출하지 못해서  
 蓄穢成疢痒      더러움을 쌓아두니 열병이 되고 중기가 되는 것뿐이라네  
 我豈小人如      내가 어찌 소인과 같이  
 厭然掩肺臟      염연히 폐장을 가리울 리 있겠는가  
 老痿與健瘦      노인이 풍이 들고 젊은이가 마르는 것은  
 都由暑溼戕      모두 찌는 더위에 상한 탓이라네  
 苟非泄內濕      실로 설사로 내장이 젖은 탓 아니니  
 多見病膏肓<sup>17)</sup>      대개의 경우 병은 이미 고향에 든 것이라네

①은 보리밥을 먹고 난 뒤에 소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먼저 보리밥을 먹게 되면, 쌀밥과 같은 부드러움이 없기에 씹기에도 불편함을 말한 뒤 삼켜서 내장을 지나면서는 더욱더 문제를 일으켜 생리 현상까지 유발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설사를 일으키니 결국 노인들은 마비를 일으키고, 어린 아이들은 수척해져서 뼈만 앙상히 남는다고 하였다. 보리밥의 부정적인 면을 사실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한시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생리적인 천근함까지 거침없이 내보였다. 이에 반하여 ②에서

16) 『存齋全書』卷1, <罪麥>.

17) 『存齋全書』卷1, <麥對>.

는 병이 생기는 원인은 배가 조출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보리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 또한 노인이 풍이 들고 아이들이 마르는 이유는 찌는 듯한 더위와 오래 전부터 있어온 병 때문이지 일시적인 생리 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리인지라 자신에게 모든 죄를 묻는 것이 서운하기만 하여 ‘진선하기란 예로부터 어려운 법, 작은 흠집을 들춰내서는 안된다네. (중략) 생각하건대 그대는 젊어서부터, 나를 기뻐하며 심장을 허했거니. 이제 어찌하여 끊어버림을 이리 깊이 하여, 털을 불며 흠집을 찾는단 말인가’<sup>18)</sup>라는 말을 하여 감정을 직접 드러낸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써 항변을 끝맺음한다.

豈不見古今	어찌 고금의 일을 보지 못하는가
奇禍生膏梁	뜻밖의 화는 고량진미에서 생겼다는 것을
殮玉非不美	풍성한 식사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馴侈立成殃	사치가 길들여지면 재앙을 이루고야 만다네
往轍有昭鑑	지나간 흔적 비추는 거울에 남았나니
豪門滿敗光	호사가의 문호는 부서진 수레만 그득하다네
窮餓資動忍	빈궁하여 주려 참는 법 쓰기를 배워
孟訓宜拜昌	맹자의 훈계 마땅히 절하여 받는다면
始信非食味	비로소 거친 음식의 맛 알 것이요
方垂盛名香	바야흐로 성한 이름 향기롭게 드리우리라
(中略)	
君無恥惡食	그대가 거친 밥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만
爲善彌自獲	선을 함에 더욱 힘쓸 수 있으리라
旣爲學聖徒	이미 성현을 배우는 무리가 되었으니
自處胡不量 <sup>19)</sup>	스스로의 처지를 어찌 헤아리지 않는가

보리는 먼저 고금의 재난은 고량진미에서 생겼고, 사치에 길들여지면 결

18) 『存齋全書』 卷1, <麥對>, 盡善自古難 小疵莫須揚 (中略) 念君自妙齡 悅我許心腸 今何見 絕深 吹毛覓疤痕.

19) 『存齋全書』 卷1, <麥對>.

국 재앙을 만나고야 말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의 많은 호사가들의 집에는 마지막에는 부수어진 수레만이 남기에 빈궁하여 굶주림의 미덕을 배울 것을 요청한다. 이럴 때에만 거친 음식이 비로소 맛있음을 알 것이고, 성현 이름은 향기를 더하여 전하리라고 한다. 따라서 거친 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지 진정 선에 힘쓸 수 있다라고 하며, 성현의 무리에 든 사람이 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죄를 준 것은 마땅히 잘못이라는 항변을 하였다. 이러한 보리의 항변이 끝난 후 “보리여! 진실로 너는 허물이 없나니, 내 말이 과연 부끄러운 바가 있구나. 도를 봄이 이미 참되지 못해서, 물을 책망하기에 감히 스스로 장황했도다”라는 말이 이어진다. 이는 마치 <죄맥>에서 보리에게 죄를 준 화자가 곁에서 보리가 하는 항변을 오랜 시간 듣고 다시 나타나 응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으로 시문의 입체감을 한층 높였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보리에 대한 작자의 생각이다. <죄맥>에 열거된 보리의 부정적인 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맥대>를 통해 나온 보리 자신에 대한 항변은 작자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빈궁한 작자는 보리밥을 즐겨 먹었을 것이고, 그것의 좋지 않은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직접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맥대>에 나오는 보리의 마지막 항변인 ‘이미 성현을 배우는 무리가 되었으니, 스스로의 처지를 어찌 헤아리지 않는가’라는 시문의 내용은 작자의 가난에 대한 생각을 전해준다. 즉, 작자는 성현의 무리를 좇는 사람으로서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安貧樂道해야함을 드러내었다. 때문에 뚝배기에 채소를 넣고 찌개를 끓여 배불리 먹으니 달기가 사탕 같았고,<sup>20)</sup> 풋보리죽을 배불리 먹고 방에 가득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sup>21)</sup>

이상과 같이 위백규는 빈궁한 현실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비판의식을

20) 『存齋全書』卷1, <麥對>, 宿火燃土鏗 新蔬潑窓湯 平明開竹牖 飽喫甘如糖.

21) 『存齋全書』卷1, <青麥行>, 稚子求飽喫 一室始吐氣 喧笑溢房屋.

가지고 현실을 직접 들추어내기보다는 문학적 장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였음을 보았다. 이는 그의 신분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자신도 가난했기에 이의 실태를 알고는 싶었지만, 사족으로서 그리고 유학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을 관조하고 마는 것보다는 현실에 다가선 듯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현실과의 거리는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농경 현장의 寫實的 묘사

위백규는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 현실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 이때 위백규가 본 농촌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제 위백규는 농사를 지으며 농민과 함께 부대끼는 나날을 보내면서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현실의 처참한 광경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시문으로 남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年年行 1>과 <年年行 2>이다. <년년행 1>은 7언 100구이고, <년년행 2>는 고시 잡체형식으로 대략 55구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년년행 1>의 처음 대목을 인용해본다.

晚秧豐歉較一午	늦은 모 풍흉은 한나절을 건주나니
覓雇呼傭相喧闐	품을 구해 일꾼 부르는 소리 시끄럽게 다투네
誰謂早餘仍作霖	누 일렀던가, 기뭄 끝에 곧 장마라고
蓑笠價倍腐穢穢	삿갓 값이 두 배인데, 비옷마저 썩어가네
傭直三十加點心	일꾼 샅이 삼십에 점심까지 없으니
浮氓鼓腹農含螫	떠돌이들 배 두드리나 농부는 독을 품네
居士社堂舍念佛	거사나 사당패들 염불은 제쳐두고
雇錢滿糶兼魚肉	웨미 가득 샅돈에 생선고기 곱했네
況是兩麥未全收	하물며 밀 보리도 다 거두지 못했으니
入者蒸黃田者黑 <sup>22)</sup>	들인 것은 누렇게 텃고 밭에 있는 것 검어지네

22) 『存齋全書』卷1, <年年行 一>.

시문의 처음부터 여유로움은 찾을 수 없다. 모내기를 해야 할 시기에 하필이면 가뭄이 들어 때를 놓쳐 모심기를 하지 못하였다. 겨우 늦게나마 일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장마가 들어 자칫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에 품을 빨리 구해 일을 마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장마가 들었기에 샷샷 값은 두 배인데다가 비옷은 찢어가고, 일꾼들의 품삯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나와 있다. 일꾼들의 품삯이 비싸다고 함은 바로 노동력의 부족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때를 틈타 거사나 사당패와 같은 ‘떠돌이들(浮氓)’이 한몫 챙겨가는 풍경도 보여주었다. 거사에 대하여 『정조실록』에서는 ‘거사는 승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호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부역도 하지 않는 流民 중에서 가장 이상한 자이다.’<sup>23)</sup>라고 하였다. 거사는 社長·社堂·乞士 등으로 불려 대개 行商·運命鑑定·演戲·行乞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에 오면 ‘流浪藝人集團’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거사패, 혹은 사당패로써 흥행처를 떠돌며 연회를 팔았다.<sup>24)</sup> 이렇듯 거사와 같은 떠돌이들이 하는 일이란 정처없이 여러 곳을 다니며 자신의 기예를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이들 떠돌이들의 일손을 빌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질 리는 없는데, 위 시의 ‘떠돌이들 배 두드릴 때 농부들은 독을 품고 있다’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더군다나 떠돌이들에게까지 비싼 품삯을 주어가며 일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밀과 보리조차도 완전히 수확하지 못하였으니 이미 거두어들이는 것은 누렇게 떠 있고, 아직 수확하지 못하여 밭에 남아있는 것은 검게 변하였다고 하여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의 농촌 모습을 다급한 어투로 전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품삯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음도 알 수 있는데, 같은 시 뒷부분의 ‘품꾼들 샀은 나날이 늘어나다’<sup>25)</sup>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23) 『正祖實錄』 正祖 10年 2月 丙申條, 我國所謂居士云者 非僧非俗 名漏編籍 身無役布 卽 流民之最殊常者.

24) 진재교, 「이조 후기 유민에 관한 시적 형상」,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서울 : 소명출판, 2001), 136쪽 참조.

고 하겠다.

농번기의 농촌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자들과 착취는 더더욱 심해만 가고, 더하여 전염병까지 기승을 부리니 그야말로 농촌의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다음 인용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牟還檢督正得時	보리 환자 감독관들, 때를 만난 듯
縛人秧田索錢食	못논에 사람 잡아두고 돈내라 밥내라 성화라네
倉監大言國穀重	창고 감독 기세 좋게 나랏 곡식 중하다라고 하며
猛打里胥髻皆圻	마을 일꾼 때려잡아 불기짜이 다 터지네
痘神乘時殺人兒	마마귀신 때를 틈타 어린애를 죽이니
餉婦畀男半啼哭 <sup>26)</sup>	밥내는 아낙네, 밭가는 남정네들 절반이 흐느껴 우네

위 시에는 중간 관리자로서 ‘보리 환자 감독관’과 ‘창고 감독’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농민들에게 반가울 리가 없는 사람들로 현재 농민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촌 사람들에게 ‘돈내라 밥내라’하며 성화를 부리고, 심하게는 불기짜도 때린다. 현실은 이러한데, 이러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염병은 창궐하여 어린애들을 죽이니 아낙네와 남정네들은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절반이 흐느껴 울었다’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이 섞인 듯하지만, 절박한 현실의 다름 아니다. 본래 환곡은 진휼책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에 붙는 이자, 즉 耗穀이 국가의 중요 재정수입으로 활용되면서 지방관청의 강제 분급 및 고율의 이자 적용 등으로 농민의 피해가 극심하여 고질적인 폐단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sup>27)</sup> 위 시는 이러한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환곡이 악용되는 현실을 볼 수 있는데도 작자는 의외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준다.

25) 『存齋全書』卷1, <年年行 一>, 雇客色價日日增.

26) 『存齋全書』卷1, <年年行 一>.

27)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壬癸歎)>, 『민족문화사연구』 22집(민족문화사학회, 2003), 47쪽.

가령, 위와 같은 시 뒷부분에서 ‘환자를 구하고 또 나눠준은 옛 규례로 돌아간다 하면서, 약정의 매기는 돈이 가지런히 한 책을 이루네’<sup>28)</sup>라고 한다거나 <년년행 2>에서 ‘환자도 해마다 더더욱 소모분이 불어만 가는데, 잡세마저 해마다 구실과 항목만 더해만 가네. 아전들 입은 해마다 넓어지고, 아전들 눈초리는 해마다 표독해 가네.’<sup>29)</sup>라고 하여 중간 관리자의 인상을 주관적으로 그리는 데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蟲災나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은 그 양적인 측면에서 단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은 총재와 관련된 내용이다.

豈謂滅高之毒蝗	어찌 멸구 벌레의 독함을 이룰 수 있으리
生似糠糜復作惡	겨 같이 생겨나서 자꾸만 사특함을 짓네
一旬之內滿四郊	열흘 안에 온 들뜰에 가득 차서
嫩青叢綠漸看赤	여릿하던 이삭순과 초록빛 줄기, 점점 붉어지네
此蟲爲災甚水旱	이 벌레가 재앙됨은 장마와 가뭄보다 더 심하여
壬癸乙丙人相食	임·계년, 을·병년엔 사람이 사람을 먹었네
旱歲晚稼恒敗斯	가문 해 늦모는 항상 이 때문에 꺾어나니
陌上相弔心膽落	밭두둑에서 서로 위로해 보나 심담이 떨어지는 듯
人人廢耘事捕捉	감매기 제쳐둔 사람들 멸구잡이 일삼으니
手持敗瓢擊水白	손에는 깨진 바가지 쥐고 물을 하얗게 쳐 대네
三三五五作團驅	삼삼오오 무리 이루어 모니
蝮沫跳漚雜黃黑	죽은 껍질 튀기는 거품, 황흑빛이 섞였네
披叢逐水勢自急	벼포기 부여잡고 물을 쳐대는 기세 스스로 급하니
手脚俱忙不敢息	손과 다리 모두 바빠 쉴 엄두를 못내네
面目浮腫背焦爛	눈과 얼굴엔 중기 부풀고 등짝은 타들어 가니
白汗赤淚相交滴 <sup>30)</sup>	비지땀 붉은 눈물 섞없이 적시네

<년년행 1> 시가 지어지기 몇 해 전인 영조 8년에 ‘전라도 만경·김제

28) 『存齋全書』卷1, <年年行 一>, 牟還分給還古規 約正喝錢修成冊.

29) 『存齋全書』卷1, <年年行 二>, 還上年年益敗耗 雜稅年年增色目 吏口年年益大張 吏目年年益射赤.

30) 『存齋全書』卷1, <年年行 一>.

· 구례 고을에 蝗災가 들다<sup>31)</sup>라고 하는 기록이 있음을 보면, 위 시의 충재에 대한 언급은 거의 맞아 떨어진다. 실록에는 전라도 몇 지역만 나와 있지만, 멸구는 원래 번식력이 강한 해충이기에 아마도 작자가 살고 있는 장흥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위 시는 처음 농사에 해를 주는 것 중에서 멸구벌레가 가장 독하다고 하며, 그 모양을 ‘겨 같다’라고 하였다. 벼멸구의 모습이 마치 쌀겨와 같은데, 이를 두고서 한 말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 해충은 번식력이 어찌나 빠르든지 열흘 안에 온 들판에 가득 차서 이삭순과 줄기 등을 점점 붙어지게 만든다고 하였다. 바로 벼를 고사시키는 과정을 말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따라서 그 해는 장마와 가뭄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벼멸구로 인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라고 하여 처참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영조 8년에 ‘전라도 강진현에서 굶주린 백성이 사람의 시체를 구워서 먹은 변고가 있었다. 감사 柳儼이 아뢰어 그 현감 任轍을 파직시켰다.’<sup>32)</sup>라는 기록이 엿보인다. 영조 8년은 곧 임자년에 해당하니, 따라서 임·계년에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라는 언급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이 극단에 처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됨을 말함으로서 당시 농촌 현실이 어떠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멸구벌레를 없애는 일이 절박하니 다음 내용은 이를 말하고 있다. 김매기를 제쳐주고 멸구잡이에만 몰입하는 현실을 볼 때 火急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손에는 깨진 바가지를 들고 멸구를 잡기 위해 물을 하얗게 쳐 대고, 삼삼오오 무리지어 물이에 나서는 모습 등의 형용은 실제로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세세한 부분까지 寫實性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자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결국 마지막에 ‘눈과 얼굴엔 종기 부풀고 등짝은 타들어 가니, 비지땀 붉은 눈물 씬없이 적시네’라고 하여 辛苦한 현실을 거듭 알려주고 있다.

31) 『조선왕조실록』 영조 8년 5월 26일.

32) 『조선왕조실록』 영조 8년 12월 10일.

다음 <년년행 2>에서는 멸구와 같은 충재를 포함하여 가뭄, 장마, 바람, 역병 등을 五災로 지칭하고,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年年旱	해마다 가뭄
晝夜夜檣肌肉圻	밤낮 붓도랑에 두레박질, 살이 터지고
年年雨	해마다 장맛비
畝草補堤腐穢襪	김매고 독 수리, 비옷이 썩어가네
年年蝗	해마다 멸구
擊水捕捉吞聲哭	물을 치며 잡아내기, 우는 소리 머금었고
年年風	해마다 바람
百穀偏敗無全穫	백곡이 쓰러져 썩어 온전한 수확 한번 못해보네
年年疫	해마다 역병
四時畏避如崩角	사철 두려워 피하기, 머리 둘 바를 알지 못하듯
一年一災尙云沓	한 해 한 재앙은 오히려 가하다 해도
五災兼備民安適	다섯 재앙 갖추어 오니 백성은 어딜 가야 하나
間年一災猶難活	한 해 걸러 한 재앙도 오히려 살아남기 어렵거든
年年五災胡此毒	해마다 다섯 재앙 어찌 이리 독할꼬
一年三百六十日	일 년 삼백 예순 날
晝晝夜夜嘔舌又頓足	밤낮으로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구르네
糲飯菜羹兩時僅不絕	찌꺼밥 나물 반찬 두 끼니도 겨우 이으니
五十六十髮盡白 <sup>33)</sup>	오십 육십에 머리 터럭 몽땅 희어지네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연재해에 대한 염려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전기까지의 直播法이 후기로 가면서 移秧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로서 농사가 자연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은 더 늘어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이양법은 노동력이 절약되고, 所出이 늘어나며, 稻·麥 二毛 作을 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失農할 수 있는 비율이 직파법보다 더 많았다.<sup>34)</sup> 위 시에 나오는 다섯

33) 『存齋全書』卷1, <年年行 二>.

34)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서울 : 지식산업사, 1995), 72쪽 참조.

재앙들 대부분이 자연재해임을 생각할 때 농사를 짓는데, 자연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시문 중의 ‘밤낮으로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구르네’라는 표현은 자연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현실의 안타까움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자연 앞에 선 인간이기에 나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위와 같은 시 뒷부분에서 ‘五侯의 肉食은 내 분수 아니오, 奸民의 頑富도 내 복 아니거니... 다만 바라기는 해마다 다섯 재앙 없게 하여, 밭 갈고 우물 파서 살게만 해주면 난 스스로 만족하리’<sup>35)</sup>라고 하였다. 즉, 작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은 자연 앞에서 나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다만 바라기는 다섯 재앙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극히 소박한 소망 표시라고 하겠다. 이러한 소박함은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하늘만 원망하고 마는 데에서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sup>36)</sup>

이상 처참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문을 <년년행 1>과 <년년행 2>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시문에서 위백규는 농촌이 처참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을 충재나 자연 재해 등으로 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으로 부조리한 사회 제도 등으로 인한 중간 관리자의 착취라고 보았다. 따라서 당연히 중간 관리자의 착취 부분이 다소 두드러지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는 농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5) 『存齋全書』 卷1, <年年行 二>, 五侯肉食吾不數 奸民頑富吾不福 但使年年無五灾 耕田鑿井吾自足.

36) 『存齋全書』 卷1, <年年行 二>, 我則知天 天公寧不忤 寧不忤兮彼天公 我不爲惡 胡令至此極. 다른 시문에도 작자가 하늘에 의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가령 <病中偶吟>에서 ‘身貧且賤服耕耘 憂憾欺人病又殷 海曲蒼生衆所厭 天何玉汝苦慙慙’이라고 한다거나 <苦旱辛卯>에서 ‘嗚何意也雨何心 嗚則旱兮雨則霖 應是天翁錯解事 兩間物盡太涔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4.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과 의미

리얼리즘은 보통 ‘사실주의’ 아니면, ‘현실주의’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전자는 주로 창작방법이 부각된 것이고, 후자는 세계관적 측면을 중요시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sup>37)</sup> 위백규는 시문을 통하여 현실주의와 함께 사실주의적인 측면도 드러내보였다. 따라서 현실주의나 사실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의 시문 전체를 아우르는 특성으로 논할 수 없기에 포괄적 의미를 가진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백규가 나타낸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 양태는 크게 소재와 표현방법, 그리고 표현미학 등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시적 소재의 현실성을 들 수 있다. 위백규는 7세에 별을 소재로 시를 읊은 이후 여행을 하면서 감흥이 일어 시를 지었는가 하면, 윤봉구를 스승으로 모신 후로는 그와 서로 酬答도 하고, 知人을 만나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시를 주고받았다. 이렇다고 한다면, 위백규가 선택한 시의 소재는 다른 한시 작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시의 소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위백규는 하던 공부를 중단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음을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삶을 잇기 위한 방편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시문을 창작하였다. 그 직접적인 예로 앞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문 중에 논의하였던 밀기울 개떡을 소재로 한 <가땃>과 보리를 읊은 <죄맥>, <맥대>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가난과 농촌을 나타내는 상징물들로 그동안 한시의 소재로는 흔하게 쓰이지 않았다. 또한 위백규는 가난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한 <茨菰>, <葛根>, <榆根>, <黃精> 등의 구황작물을 시문의 소재 겸 제목으로 써서 현실에 가까운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는 시적 소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찮은 것’에도 가치 부여를 했다는 점에 주목

37) 김명호, 「실학과의 문학과 근대 리얼리즘」, 『한국한문학연구』 19집(한국한문학회, 1996), 87쪽 각주1) 참조.

을 요한다.

둘째, 표현방법이 치밀하여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현방법에 있어서 사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예리하면서 투철한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위백규가 시문을 통하여 사물의 요소요소를 치밀하게 묘사한 흔적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의 예로써 앞 3장 3절에서 이미 나왔던 <년년행 1>중의 ‘김매기 제쳐둔 사람들 멸구잡이 일삼으니, 손에는 깨진 바가지 쥐고 물을 하얗게 쳐 대네. 삼삼오오 무리 이루어 모니, 죽은 껍질 튀기는 거품, 황흑빛이 섞였네. 벼포기 부여잡고 물을 쳐대는 기세 스스로 급하니, 손과 다리 모두 바빠 쉴 엄두를 못내네.’ 등과 같은 부분이다. 벼멸구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 해충을 잡는 방법을 치밀하게 그려 사실성을 획득한 작자의 시적 능력이 돋보이는 곳이다.

셋째, 표현미학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위백규는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진솔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시문을 진정 원하였다. 그러나 이의 실천적 측면이 중요한데, 앞 3장에서 논의했던 현실에 근거한 시문들이 이와 관련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표현미학의 세세한 부분까지 작품의 현실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앞 3장 3절에서 인용했던 시문 중에 나오는 ‘浮氓’, ‘社堂’, ‘居士’ 등의 시어에서 당시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으로 형성된 농민층의 계층분화 현상이라든가 농촌사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sup>38)</sup> 또한 생활어를 한시에 쓰면서 음이 비슷한 한자어를 빌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滅高’이다. ‘멸고’는 벼멸구를 말하는데, 한자어에는 없는 말을 고의로 만들어 현실감을 더해주었다. 이 외에도 <년년행1>에서 사용한 어휘인 ‘書員’, ‘書史’, ‘面任’, ‘松任’, ‘約正’, ‘牟還’, ‘甘結’, ‘換色’ 등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것들로 현실성을 바탕에 둔 표현미학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sup>39)</sup>

38) 진재교, 「이조 후기 현실주의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 전계서, 241쪽 참조.

39) 진재교, 「실학과와 한시」, 전계서, 303쪽 참조.

이상 위백규가 시적 리얼리즘을 실천한 양태를 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위백규는 거의 한 평생을 향촌에 머물며, 그곳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다. 즉, 관직에 있다가 거기에서 잠시 물러나와 향촌에 머물러 그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목격하는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진솔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었고, 또한 사족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향촌 사람들의 아픔을 상소문의 형태를 띠어 대변 해주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둔 시문의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 40대 초반의 <죄맥>을 비롯한 <맥대>, <청맥행>등의 보리를 소재로 한 시문과 50대 초반의 <년년행 1>과 <년년행 2> 등을 통하여 향촌민들의 애환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문에서 때로 자신이 사족 신분임을 내세우는 것을 의식의 한계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작품 전체가 리얼리즘을 실현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비하면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하겠다.

## 5. 맺음말

본 논고는 우선 위백규의 한시문 중에서 현실인식이 바탕이 된 작품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작품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적 리얼리즘을 실천했는가? 하는 측면을 연구하였다.

벽촌 장흥에서 태어난 위백규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 따라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러한 중에 농촌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특히, 농촌의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때는 궁경독서기에 접어들어서부터인데, 같은 시폐이지만 그 이전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폐를 논한 글은 상투적이고 관념성에 치우칠 소지가 다분한데, 시문을 통한 ‘현실 보여주기’는 이리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위백규는 궁핍하고 가난한 삶이 연속되지만, 그러한 현실을 관조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때로는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썼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까지 하였다. 이는 같은 상황의 연속이지만, 작자 자신이 현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었느냐와 관련되는데, 관조적으로 표현할 때보다는 우회적으로 표출할 때, 그리고 우회적으로 표출할 때보다는 사실적으로 묘사할 때 작자는 현실과 더 가깝게 있었다. 따라서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 가능성도 이런 맥락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리얼리즘은 보통 ‘사실주의’ 아니면, ‘현실주의’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데, 위백규는 시문을 통하여 현실주의와 함께 사실주의적인 측면도 드러내보였다. 따라서 현실주의나 사실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의 시문 전체를 아우르는 특성으로 논할 수 없기에 포괄적 의미를 가진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백규가 나타낸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 양태는 크게 소재와 표현방법, 그리고 표현미학 등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시적 소재가 다분히 현실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표현방법이 치밀하여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셋째 표현미학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세 가지는 위백규 자신이 내세웠던 시의 관점과도 관련되는데, 시의 진정성이란 결국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야 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영조조.

『조선왕조실록』 정조조.

『存齋全書』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서울 : 지식산업사, 1995.

金仁杰,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19, 서울대학교사학과, 1988.

- 金峻五, 『詩論』, 서울 : 三知院, 1993.
- 김명호, 「실학과와 문학론과 근대 리얼리즘」,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존재 위백규의 문학연구』, 서울 : 이회문화사, 1995.
- 김준옥, 「존재 위백규의 문학적 기반」, 『고시가연구』 9,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228~256쪽.
- 위홍환,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윤은혜, 「위백규 시 연구」,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壬癸歎)>」, 『민족문학사연구』 22집, 민족문학사학회, 2003.
- 진재교, 「실학과와 한시」,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서울 : 소명출판, 2001.
- \_\_\_\_\_, 「이조 후기 유민에 관한 시적 형상」,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서울 : 소명출판, 2001.
- \_\_\_\_\_, 「이조 후기 현실주의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서울 : 소명출판, 2001.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Recognition of Reality and Poetic Figuration by Jon  
Je(存齋) Wi, Baek Gyu (魏伯珪)

Park, Myoung-hui

This study analyzed the works which were based on a recognition of reality among Chinese poems by Wi, Baek Gyu and examined the aspect to what degree such works practiced a poetic realism.

Wi, Baek Gyu described the reality of needy and poor life in a contemplative manner. At times, he adopted an indirect method, not a straight one. Even he tried to show the feature of reality as it was. Although such difference is a continuity of the same circumstances, it is related to what degree of distance the author kept in respect of the reality. Accordingly, it was thought that the possibility of materializing a poetic realism was not irrelevant to such context. If it is reviewed in terms of such point, the mode of actualizing a poetic realism that Wi, Baek Gyu showed can b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First, a poetic subject matter greatly exhibits a nature of actuality. Second, since a method of expression is elaborate, a factual character is obtained. Third, the aesthetics in expression is based on a reality. Such three points are related with the point of view in poetry that Wi, Baek Gyu established. Thus, the significance of a genuine sentiment in poetry lies in the fact that it practically showed that the reality, after all, should be realistically described.

**Keywords** : JonJe, Wi Baek Gyu, Reality, a poetic realism

# 松江의 交遊詩 연구

박영주\*

## <차 례>

1. 머리말
2. 스승들의 감화와 교유시
3. 창평의 향리생활과 교유시
4. 정치무대 동반자들과의 교유시
5.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
6. 맺음말

## 1. 머리말

전통시대 선비사회에 있어서의 교유는 당대의 사회적 정황과 문화적 풍토 및 인간적 유대관계를 함축하고 있다는 면에서 나름의 각별한 의미가 있다. 넓게는 당대 지식인들 사이의 인간적인 교분과 정신적인 유대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좁게는 개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궤적을 살필 수 있는 관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유의 사전적 의미는 비슷한 연배 사이의 사귀음을 뜻하지만, 마음이나 감정이 통하는 사이에서의 교분 혹은 情誼까지를 두루 포괄하는 뜻을 지니기도 하기에, 나이나 신분을 초월한 인간관계의 사귀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통시대 문인들 사이의 교유에는 으레 한시나 서간을 주고받는

---

\* 강릉대학교

일이 뒤따랐는데, 이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교유의 내밀한 실상과 정신적 영향관계 및 정서적 교감양상을 살필 수 있다. 그리하여 해당 인물의 품성과 기질로부터 이념·가치관 등에 결부된 지향의식의 단면들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를 토대로 인물 됴됨이와 함께 작품세계의 특징적 면모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의 하나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交遊詩는 작가의 인간적 풍모와 감정적 형상을 두루 아우르고 있으며, 그가 헤쳐나간 삶의 역정에 관여했던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긴요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松江 鄭澈(1536~1593)의 한시는 그가 창작한 문학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이 전하면서도, 널리 주목을 받아 온 국문시가에 비해 여전히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그의 한시는 『松江全集』<sup>1)</sup>과 여러 문헌에 산견되는 작품들을 포함하여 모두 763수로 파악되고 있는데, 작품의 내용과 제재를 고려하여 이를 유형별로 나눈 연구에 따르면, 교유시가 307수로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sup>2)</sup> 따라서 그가 이루어 나간 교유의 폭과 깊이는 접어두더라도, 송강의 개성에 결부된 인물 됴됨이나 생애적 궤적 및 문학세계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어 그의 교유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송강의 교유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로 그의 전기적 배경을 살피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그가 교유한 인물과의 관계 혹은 교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유양상을 살피거나, 그의 한시 전반을 유형적으로 분류하면서

1) 『松江全集』(影印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4. 송강의 詩文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관본으로 된 『松江原集』·『松江續集』·『松江別集』과 필사본으로 된 『松江集拾遺』가 전해 오는데, 『松江全集』(影印本)은 이들 모두를 묶어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2) 최태호의 연구에 따르면 송강의 한시 작품은 위의 『松江全集』에 756수(이 가운데에는 중복 수록된 것 15수, 불완전한 작품 13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은 聯句 3수가 포함되어 있음), 여타 문헌에 7수가 전하여 도합 763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이 763수와 賦 4편을 대상으로 내용적 유형을 분류하여, 交遊詩 307수, 述懷詩 133수, 樓亭詩 120수, 景物詩 81수, 憂國詩 50수, 嗜酒詩 41수, 戀君詩 35수로 집계한 바 있다.(최태호,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 역락, 2000, 51~58쪽 참조)

교유시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의 특징적 단면들을 살피는 데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다만 유형분류와 함께 교유시에 속하는 작품들의 내용을 준거로 그 하위유형들을 설정하고 특징적 양상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예가 있으나<sup>4)</sup>, 송강의 교유시에 대한 작품론적 측면을 아우른 논의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송강이 동시대 인물들과 교유한 내용이 담긴 작품들에는 그의 성장 과정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들과의 인연과 감화,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벗들과의 情誼와 교감양상, 정치적 노선을 같이했던 이들과의 교분과 의리, 당대 저명한 문인들과의 왕래와 우의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본고는 송강이 교유했던 이같은 인물들의 층위와 성격을 고려하여 크게 네 갈래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의 품성과 기질에 바탕을 둔 인간적 풍모와 감정적 형상이 여실히 투영되어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가 헤쳐나간 삶의 역정을 살펴봄으로써, 송강이라는 조선중기 사대부 문인의 인물됨됨이와 작품세계의 특징적 면모를 규명하는 적절한 거점의 하나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스승들의 감화와 교유시

송강을 송강이게 만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배에서 풀려난 아버지를 따라 본래의 고향도 아닌 남도의 담양 창평에 갇들어 살게 된 인연과,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스승들로부터 감화를 받으면서 자신의 품성과 자질을 계발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그

3) 그 동안 이루어진 성과를 대표하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논저들을 들 수 있다. 김갑기, 『松江 鄭澈 研究』, 이우출판사, 1985 / 유예근, 『松江 鄭澈 文學 研究』,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정익섭, 『改稿 湖南歌壇 研究』, 민문고, 1989 / 이은봉, 『松江 文學의 傳記의 背景 研究』, 『松江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 박준규, 『松江 鄭澈의 樓亭題詠』, 『古詩歌研究』2·3합집, 한국고시기문학회, 1995 / 김진옥, 『松江 鄭澈 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4) 최태호, 앞의 『松江文學論考』, 58~72쪽 참조.

의 인생이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담양 창평과 스승들의 감화야말로 정신적 정서적 귀속처로서 그의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강의 새로운 인생은 沙村 金允愷(1501~1572)와의 만남과 교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의 만남과 교유를 통해 비로소 배움의 길이 열리고, 배필을 만나 성인의 예를 올리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송강에게 있어서 사촌은 첫 스승이자 은인이다.

사촌의 자세한 내력이나 생존 당시의 행적은 알려진 바 드물다. 따라서 송강이 그로부터 수학한 내용이나 영향의 실상 역시 구체적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그렇지만 사촌이라는 존재는 분명 송강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스승 가운데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청년시절 송강의 수학과 교유는 바로 사촌이 거처하던 環碧堂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次環碧堂韻><sup>5)</sup> <환벽당 운을 따서 짓다>

一道飛泉兩岸間	한 줄기 샘 두 언덕 사이로 날아 떨어지고,
採菱歌起蓼花灣	여뀌꽃 핀 물굽이엔 연 캐는 노래 한창일래.
山翁醉倒溪邊石	시냇가 반석 위에 산 늙은이 취해 누우니,
不管沙鷗自往還	모래밭 갈매기 소리 없이 오고 가네.

술술 우거진 두 언덕 사이로 날아 떨어지는 한 줄기 ‘샘물’, 시냇물 가장 자리로 붉게 핀 ‘여뀌꽃’, 연인을 부르는듯 때맞춰 들려오는 ‘연 캐는 노래’로부터, 선명한 색채감과 함께 아늑하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를 배경으로 시냇가 반석 위에 취해 누워 있는 ‘산 늙은이’. 느껴운 전원의 흥에 취하고, 더불어 기울인 몇 잔의 술에 취한 것이리라. 그 맑은 흥취를 깨뜨릴세라, 무시로 나니는 모래밭 갈매기조차 ‘소리 없이’ 오고 간다.

운치있는 환벽당 주변의 풍광과 초야에 묻혀 지내는 사촌의 유유자적한

5) 『松江原集』 卷1

삶을 노래한 시다. 맑고 한가로운 자연의 경물들을 묘사하면서, 이들을 벗삼아 생활하는 사촌이 그와 같은 자연의 심성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일깨우는 듯하다. 그 호젓하면서도 운치있는 정경은 탈속의 정서가 깃든 한 폭의 文人畫를 연상케 한다. 사촌의 삶을 기리는 송강의 정이 담담하게 녹아 있는 예라 할 것이다.

사촌과의 만남과 교류 이후 송강은 본격 수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의 생애에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자 품성 및 가치관이 틀잡히기 시작하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의 10년여를, 당대의 석학들과 뛰어난 문인들 사이에서 혹은 스승으로 혹은 벗으로 교류하며 대가의 풍모를 갖추는 것이다. 愼獨齋 金集(1574~1656)이 송강의 「行狀」에서, “공이 조금 자라자 김하서 인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기고봉 대승을 좇아 배웠으며, 이미 또한 우계 성선생과 율곡 이선생과 더불어 친교를 정하였으니, 그 마음 씩씩이의 바름과 행김의 고결함이 대개 연원이 있었던 것이다.”<sup>6)</sup>라고 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송강의 학문적 스승으로는 단연 河西 金麟厚(1510~1560)와 高峯 奇大升(1527~1572)을 꼽는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하서와 고봉은 당대의 석학들이다. 송강은 이들에게서 학문적 감화를 받은 것은 물론, 이들의 인품과 생활태도까지를 귀감으로 삼을 만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평생을 두고 이들을 존경하게 된다. 沙溪 金長生(1548~1631)이 송강의 「行錄」에서, “공이 좀 자란 뒤에 기고봉 대승을 좇아 『近思錄』 등 책을 배워 학문의 방향을 알았고, 또 김하서 인후의 문하에 출입하여 항상 그의 인품을 사모하고 큰 절개를 기리며, 그 출처의 바름이 근세의 어진 선비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sup>7)</sup>라고 한 데서 이러한 사실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청년시절의 성장기에 이들

6) 公稍長 束脩金河西仁厚之門 又從奇高峰大升問學 既又與牛溪成先生 栗谷李先生定交 其趨行之正 制行之高 蓋有淵源矣：「行狀」, 『松江別集』 卷5

7) 公稍長 從奇高峰大升學近思錄等書 以知向方 又出入金河西仁厚之門 常慕其爲人稱道大節 以爲出處之正 雖近世儒賢有所不及也：「行錄」, 『松江別集』 卷4

석학에게서 수학하게 된 것은 송강으로서는 큰 행운이기도 했다.

호남 유학의 祖宗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인 하서는 향리 장성에서 학문연구와 제자양성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는 詩文에 능하여 10여권의 시문집을 남겼으나, 학문과 관련된 저술은 많지 않다. 특히 仁宗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인해, 그는 매년 7월 인종의 忌日이 되면 술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 한 잔 마시고 한 번 곡하다가, 취하면 소리 내어 크게 울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하서는 후대 사람들에게 ‘학문과 절의와 문장에 있어서 이를 다 갖춘 사람은 김하서 뿐이다.’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송강은 이와 같은 하서로부터 선이 굵은 선비의 절개와 기품을 배운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에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송강 시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간절한 戀君의 정은, 아마도 하서가 인종에게 그랬던 것에 영향을 입어, 자신은 이를 선조에게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송강의 시문 가운데에는 하서를 사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글들이 적지 않다. 당시 하서가 기거하던 장성의 百花亭으로 찾아가 배움을 청하던 일을 회상하며 “마음깊이 사모하며 일생을 두고 배우려 했는데, 그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심은 아직도 배우지를 못하였다.”<sup>8)</sup>라는 그의 「日記」 가운데 한 편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서와 송강은 사제 간의 정분이 각별히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서가 일찍이 송강을 전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구를 즉흥적으로 지어 불렀다.

秋雲低薄暮   옅은 가을 구름 나직히 드리운 저녁,  
別意醉中生   취중에 더하누나 이별의 아쉬운 정.

그러자 송강은 다음의 두 구를 역시 즉석에서 지어 스승에게 화답하였다.

8) 心切慕之 一生願學 而若其不離繩墨之中 則未之學也 : 「日記」, 『松江別集』 卷1 雜著

前路崎嶇甚 험한 앞길 구불구불 아득도 한데,  
相留多少情 이리도 애달파라 서로 두고 머무는 정.

위 <聯句><sup>9)</sup>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고 받은 시면서도 참으로 아름답고 정감이 넘친다. 스승은 담담하면서도 품위 있게 제자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전하고, 제자는 또 겸손하게 그 사랑을 받들면서 스승을 향해 연연한 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이 절로 나올 듯하다.

송강은 하서에게서 특히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出處의 바른 도리를 배운다. 하서 자신이 이 방면의 귀감이었던 만큼, 송강의 마음 속에는 스승의 출처야말로 유가 사대부의 표본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깊숙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다음과 같은 5언절구에서 이를 실감할 수 있다.

<懷河西> <하서를 그리며>

東方無出處 동방에는 출처 잘한 이 없더니,  
獨有湛齋翁 홀로 담재옹만 그리하셨네.  
年年七月日 해마다 칠월이라 그날이 되면,  
痛哭萬山中 통곡 소리 온 산에 가득하였네.

역대 어떤 선비보다도 ‘담재옹’이 유독 ‘출처’의 귀감임을 말하면서, 이를 본받고자 하는 뜻을 행간에 담고 있다. 여기에서 ‘담재’는 하서의 또다른 호다. 그리고 ‘해마다 칠월이라 그날’은 하서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인종의 기일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하서는 이 날이 되면 술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 취하면 크게 소리내어 곡하였다고 하는데, 그 충정과 절의는 당시 유가 사대부의 이념에 비추어 하나의 표본일 시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송강은 하서의 「祭文」<sup>10)</sup>에서도 그 출처의 바름을 기리고 고결한 덕을 흠모해 마지 않는다.

송강은 이러한 하서의 학덕과 인품 외에,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을

9) 『松江原集』 卷1

10) 「祭金河西先生文」, 『松江續集』 卷2 참조.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서로 말하면 시문에 있어서도 당대에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역대 문인들이 시적 정서의 근원으로 삼아온 『詩經』을 수없이 독파하여, 그 시정신을 깊이 터득했다. 그런가 하면 「離騷」를 위시한 『楚辭』에 남다른 애착과 감동을 느껴, 이를 항상 애송하면서 憂國衷情의 정신에 철저하고자 했다. 우국충정에 입각한 연군의 정을 간절히 노래한 송강의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제목 뿐만 아니라 그 시상이나 정서 형상화 방식 면에서 <이소>의 영향을 입은 바 적지 않다.<sup>11)</sup> 이는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송강이 <이소> 등의 『초사』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스승 하서의 가르침이 깊은 영향을 끼쳤던 데 말미암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송강의 또 다른 학문적 스승인 高峯은 조선조를 빛낸 큰 학자로서, 철학은 물론 문학에도 이름을 떨친 선비다. 호남의 큰 유학자들을 찾아다니며 관심사를 논하던 젊은 시절, 고봉은 선학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바 많았다고 한다. 특히 스승뻘이 되는 退溪 李滉(1501~1570)과는 32살 때인 1558년 이후 12년에 걸쳐 학문적 대화를 담은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1559년에서 1566년까지 무려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람의 심성을 주제로 한 四端七情理氣論은 유학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논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강은 이러한 고봉을 스승으로 섬기며 예의 『근사록』 등을 배운다. 그리하여 스승의 탁월한 학덕과 고매한 인격을 본받고 익히면서, 점차 인생과 학문의 방향을 깨우친다. 고봉 또한 송강의 범상치 않은 자질과 맑은 품성을 일찍부터 간파하여, 자신의 문하에 들어와 수학하던 어느 날 산에 올라 水石이 특이하게 맑고 깨끗한 경지를 만났을 때, 어떤 이가 “세간 사람으로서 인품이 이에 비길 만한 이가 있을까요?”하고 물었을 때, “오직 정철이 여기에 견줄 만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sup>12)</sup> 다른 누구도 아닌 고봉과

11)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영주, 「西浦가 송강가사를 ‘我東之離騷’라고 한 것에 대하여」, 『泮橋語文研究』 창간호(반교어문학회, 1988)를 참조.

12) 高峯嘗遊山 遇一異境水石清絕處 或曰 世間人品 有可以比此者乎 高峯曰 惟鄭某可以當之

같은 스승으로부터 송강은 일찍이 이와 같은 품성과 자질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송강은 고봉으로부터 특히 선비가 평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의 바른 도리를 배운다. 그렇기에 고봉이 세상을 뒀을 때, 이를 가르치고 몸소 실행에 옮기던 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애통해 한다.<sup>13)</sup> 고봉이 세상을 뜬 해에 송강은 37살이었다. 그러니 이미 벼슬길에 나아가 유가 사대부가 지녀야 할 올바른 심성과 도리가 무엇인지 절감할 무렵이기도 했을 터다.

하서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송강은 고봉에게서 학문 뿐만 아니라 문학 방면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송강의 시편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인간 본연의 성품보다는 기질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향은 인간의 심성을 情과 氣로써 파악하고자 한 고봉의 영향이 컸던 데 말미암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봉 역시 일찍부터 시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일컬어졌음을 감안할 때, 송강 문학의 사상적 기반은 고봉에 의해 다져진 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고봉의 7언절구 한 수를 보기로 하겠다.

<偶題><sup>14)</sup>

<우연히 짓다>

庭前小草挾風薰	뜰 앞 작은 풀꽃 바람 향기를 머금으니,
殘夢初醒午酒醺	꿈결인듯 비로소 취한 낮술이 깨이네.
深院落花春晝永	깊은 정원에 꽃잎 날리고 봄날은 긴데,
隔簾蜂蝶晚紛紛	주렴 너머로 벌 나비 늦도록 분분하네.

봄시름에 겨워 낮술을 한 잔 하고 얼핏 잠이 들었나보다. 봄바람이 뜰 앞에 돌아난 풀꽃을 실랑거리며 스쳐 지나가자, 그 신선한 향기가 은은하게

: 「年譜」, 『松江別集』 卷2

13) 「祭奇高峯先生文」, 『松江續集』 卷2 참조.

14) 『高峯集』 卷1 詩

코끝에 스민다. 꿈결인가 싶어 살짝 눈을 뜨니, 비로소 낮술이 깨인다. 몸을 일으켜 트랙을 둘러본다. 화창한 봄날 오후, 해는 아직도 길다. 정원 깊숙한 곳에서는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주렴 너머 꽃들 사이에서는 벌·나비가 늦도록 어지럽게 춤춘다.

이 시는 아늑하고 정겨운 어느 봄날 오후의 정경을 눈에 선하게 그리고 있다. 봄의 정경은 으레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물상들로 인해 감정이 넘쳐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시는 그러한 물상들을 담담하게 형상화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 내재된 봄의 흥취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봄날 특유의 생기가 있다. ‘풀꽃 향기를 머금은 바람’으로 인해 ‘꿈결인듯 비로소 낮술에서 깨어난다.’라는 표현은 그 담담한 흥취와 생기를 대변한다. 또, ‘깊은 정원에 날리는 꽃잎’과 ‘주렴 너머로 늦도록 어지럽게 노니는 벌·나비’에서의 ‘깊은’과 ‘주렴 너머’는 격정적 정서에 휩쓸리지 않는 작자의 절제된 감성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화려하거나 야단스럽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조화로운 이법과 일상적 삶의 단면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인이며 탁월한 비평가의 한 사람인 玄黙子 洪萬宗 (1643~1725)은 그의 『詩評補遺』에서, “말을 짓는 솜씨가 참으로 자연스럽고, 각각의 표현들이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 性情의 바름을 시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5)</sup>라고 한 바 있다. 정곡을 찌른 평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송강의 작품을 보면, 그 표현 기법이나 시적 형상화 방식 면에서, 위에서 인용한 고봉의 시와 두루 상통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5언절구로 된 <息影亭雜詠十首> 가운데 한 수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白沙睡鴨><sup>16)</sup> <백사장에 즐고 있는 물오리>

15) 作語天然 各盡妙處 其性情之正得於詩者 於此可見矣：『詩評補遺』下篇

16) 『松江原集』卷1

風搖羽不整 바람 일자 사르르 깃이 너울거리고,  
 日照色增妍 햇빛에 어리는 색채 더욱 고와라.  
 纔罷水中浴 무자맥질 마치고 나오자 마자,  
 偶成沙上眠 백사장 파사로워 조숙조숙 즐고 있네.

그리 넓지 않은 백사장 가장자리로 푸릇푸릇 여뀌풀꽃이 돋아 있음직한 계절이다. 쉬엄쉬엄 강물이 흐른다. 그런 정경 사이로 무엇인가 가볍게 움직인다. 바람이 일자 사르르 깃이 너울거리고, 그 깃에 햇빛이 어리면서 더욱 고운 색채를 띠는 물오리. 이리저리 수면 위를 다니며 자맥질을 하더니만, 따스한 햇볕이 스민 백사장으로 나오자마자, 고개 웅크리고 꾸벅꾸벅 즐고 있다.

이 시 역시 어느 따스한 봄날의 정경을 눈에 선하게 그리고 있다. 화려한 물상이 등장하지도, 특별히 눈에 떨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의 생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를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거기에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생기가 있는가 하면 아늑함이 있다. 송강 특유의 감각적 묘사와 신선한 색채감이 그것을 복돋운다. 그리하여 주변 물상들과 더불어 물오리의 생태에서 봄의 흥취, 나아가 자연의 조화로우름을 저절로 느낄 수 있게 한다.

고봉은 당대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진 朱子의 <武夷權歌>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시는 “외부 사물로부터 촉발된 감정을 바탕으로 가슴 속의 흥취를 풀어내는”<sup>17)</sup>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편 바 있다.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으로부터 촉발된 감흥을 근간으로 내면의 사고 혹은 정서를 형상화함으로써, 단순한 흥취 이상의 감격과 정신이 활짝 열리어 퍼지는 暢神의 즐거움까지를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두 시편들이 곧 이러한 견해에 부합하는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송강은 고봉으로부터 학문의 깊이와 선비의 도리를 다진 것은 물론, 이 같은 예로 미루어 그의 시적 기반을 다지는 일에 있어서도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

17) 因物起興 以寫胸中之趣 : <別紙武夷權歌和韻>, 『高峯集』 高峯退溪往復書 卷1

으로 보인다.<sup>18)</sup>

한편, 하서·고봉과의 교유가 송강으로 하여금 학문과 사상의 기반을 다지면서 품성과 자질을 가다듬어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품격을 두루 갖추게 했다면, 그의 문학적 소양과 자질을 보다 직접적으로 길러 발현시키게 한 스승으로는 侁仰亭 宋純(1493~1583)과 石川 林億齡(1496~1568)을 들 수 있다. 물론 당대의 수학 풍토라는 것이 문학·역사·철학을 두루 포괄한 전인적 교양을 함께 익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학문적 스승이 문학에, 문학적 스승이 학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두 사람을 송강의 문학적 스승으로 꼽는 이유는, 그가 국문시가 뿐만 아니라 한시에도 탁월한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면양정으로부터는 국문시가를, 석천으로부터는 한시를 특히 세련되게 배워 익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양정은 조선시대 일대를 풍미했던 자연예찬의 詩風-江湖歌道の 선구자로서, 한시뿐만 아니라 국문시가에 능하여 호남시단의 큰 맥을 이룬 인물이다. 면양정은 당시로서 매우 드물게 60여 년 동안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원만한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스승의 높은 덕과 인품에 대한 송강의 흠모의 정은 그를 추모하는 「祭文」<sup>19)</sup>에 잘 나타나 있다. 나아가 면양정에서 벌어진 스승의 回榜宴에서 송강이 가마를 메지고 선도했던 일화<sup>20)</sup>는 대대로 미담이 되어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송강은 면양정으로부터 특히 시문을 수학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星山別曲>은 작품의 전반적 짜임새나 내용상의 상통점 외에, 시적 정조와 표현상의 특징 면에서 스승의 <侁仰亭歌>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더욱이 주변 경관을 묘사하는 수법과 사대부적 풍류와 흥취를 노래한 점에 있어

18) 물론 인용한 송강의 <白沙睡鴨>은 다음 장에서 살필 息影亭四仙들과의 교유시 가운데 한 수다. 그러나 작품론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따진다면 이와 같은 고봉과의 교유와 감화에 연원적으로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祭宋侁仰純文」, 『松江續集』卷2 참조.

20) 「行狀」, 『企村集』卷5 참조.

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송강의 <訓民歌> 또한 면양정의 <五倫歌>와 상통하는 점이 많고 보면, 송강의 세련된 우리말 감각이나 표현의 긴밀성이 녹아 있는 국문시가 작품들은 면양정에게서 익힌 우리말의 감성이 그 자양분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석천은 호남의 詞宗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로서, 고금 각 체의 시를 일생 동안 꾸준히 지었기에, 그의 시 전체가 곧 그의 인생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당나라 李白의 시풍에 조예가 깊었는데, 그의 문하생으로서 三唐詩人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玉峯 白光勳(1537~1582)이 “남도 땅 시문의 대가는 우리 석천 선생님 / 그 문채 그 풍류 이태백의 품모로 세.”<sup>21)</sup>라고 노래한 데 잘 나타나 있다.

송강은 석천이 담양 부사로 재임하게 된 그의 나이 23살 무렵부터 석천을 스승으로 섬기며 한시를 배운 것으로 보인다. 시에 어느 정도 눈을 뜰 무렵인 20대 초·중반의 송강에게는 이백의 품모를 지닌 석천의 화려한 시풍과 낭만적 정조가 특히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더욱이 송강 자신 풍류에 남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보면, 석천의 문채와 풍류는 그의 호방·활달한 기질을 시로써 형상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송강은 석천에게 수학하면서 특히 시인으로서의 품모와 시적 품격을 갖추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위에서 살핀 스승들 외에도 송강은 당대 학문과 시문으로 이름이 높던 이들에게 수학하며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 나간다. 그리하여 자신의 식견과 자질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다져나간다. 大司成을 역임한 당대의 큰 학자요 시문에 뛰어난 인물이기도 했던 松川 梁應鼎(1519~1583)을 스승으로 섬기고 교류하면서 인격적으로 큰 감화를 받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송강은 스승 송천으로부터 “임석천의 문장과 절조, 이청련의 간결함과

21) 江南詞宗吾石川 文彩風流今謫仙 : <金陵記懷贈栖霞主人>, 『玉峯集』 下

22) 송강의 석천과의 교류시와 그로부터 받은 문학적 감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창평의 향리생활과 교류시>에서 살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그렇게 한다.

고상함을 지금 세상에는 짝할 만한 이가 없고, 오직 정철만이 거기에 가깝다.”<sup>23)</sup>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송강의 송천에 대한 존경심과 사모의 정은 그를 추모하는 祭文에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지낼 적에, 군색하고 궁지에 빠질 때면 명량한 데로 인도하시고, 경박하고 급할 때면 서서히 완만한 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착한 것은 말씀하시되 악한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길한 것은 이르시되 흉한 것은 이르지 않으셨으니, 이는 천성으로 그러하셨습니다.”<sup>24)</sup>라고 한 데 잘 나타나 있다. 다소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던 송강의 기질을 다잡아 준 스승이 곧 송천이었다 하겠는데, 송강은 그에게서 특히 선한 품성과 원만한 인격의 표본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 송강이 스승으로 섬기면서 교유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쟁쟁한 학자요 문인들이다. 송강의 학문과 문학은 그의 타고난 자질 탓도 있었겠지만, 이렇듯 풍요로운 수학과 교유의 기반 위에서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열매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스승들과의 교유시 속에는, 송강 자신 그들로부터 입은 은덕과 감화가 연연한 정과 함께 잘 배어 있으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시적 풍격과 정조 또한 은은히 투영되어 있다 할 것이다.

### 3. 창평의 향리생활과 교유시

송강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유년시절에 궁중출입을 하며 지내거나 아버지의 유배지를 따라 함경도 정평과 경상도 영일에서 생활하기도 했으며, 출사 후에는 한때 경기도 고양에 깃들어 살기도 했다.<sup>25)</sup> 그러나 16살이던

23) 林石川文章氣節 李靑蓮簡九雅操 今世無可與儔 獨鄭澈近之：「言行錄」, 『松川集』 卷4

24) 余有奉而周旋 迫而陋可導而宣 佻而疾可久而綿 至如言善不言惡 道吉不道凶 性能而然：「祭梁松川應鼎文」, 『松江續集』 卷2

25) 송강의 생애적 궤적에 관한 자세한 사실은 박영주, 『송강 정철 평전』(중앙M&B, 1999)

10대 중반 이후 유배에서 풀려난 아버지를 따라 선조의 묘소가 있는 담양 창평으로 옮겨온 이후, 이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물러나 있을 때면 이곳에 머물면서 고뇌와 갈등을 치유하고 심신을 재충전했다. 그러면서 그의 문학 작품 대부분을 이곳에서 지었다. 그렇기에 송강에게 있어서 담양 창평은 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곳이자, 학문과 사상을 영글게 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담금질하던 텃밭이요, 수많은 절창들을 쏟아낸 창작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간 27살 이후, 송강은 크게 네 차례에 걸쳐 향리 창평으로 낙향한다.<sup>26)</sup> 당대 정치 현실의 풍파와 붕당 간의 역학관계로 말미암아, 경국제민의 사회 현실에서 벗어나 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창평의 향리생활 기간은 송강에게 매우 뜻 깊은 의미를 갖는다. 네 차례의 낙향 모두 그가 벼슬길에 나아간 후 비로소 긴장된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실의와 역경에 처했던 시기였을망정, 문학적으로는 실로 보람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작품들 가운데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송강의 향리생활은 주로 글을 읽고 사색하거나 시를 짓는 한편, 星山 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樓亭과 園林을 출입하며 거기에 모여든 당대의 쟁쟁한 문인·학자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시를 주고 받으며 풍류를 즐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성산 주변의 누정과 원림들 가운데서도 그가 특히 즐겨 찾은 곳은 息影亭과 棲霞堂이었다. 이 두 곳은 거의 나란히 붙어 있는데, 모두 그와 동문수학한 棲霞 金成遠(1525~1597)과 관계가 깊다. 식영정은 서하가 자

을 참조.

26) 네 차례의 낙향 기간을 『松江別集』 卷2·3의 「年譜」를 참조하여 정리·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차 : 40~42살(1575~1577년 · 선조 8년 10월~선조 10년 10월)
- 2차 : 44살 (1579년 · 선조 12년 8월~12월)
- 3차 : 46살 (1581년 · 선조 14년 6월~12월)
- 4차 : 50~54살(1585~1589년 · 선조 18년 8월~선조 22년 10월)

신의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어 드린 곳이고, 서하당은 바로 김성원이 사는 거처이기 때문이다. 송강과 서하가 둘도 없는知己라는 사실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식영정에 머물렀던 석천 역시 송강의 스승이기도 했던 점을 생각하면, 그가 이 두 곳을 특히 자주 찾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당대 사람들은 이들 세 사람과 霽峯 高敬命(1533~1592)을 일컬어 息影亭四仙이라 하였다. 물론 서로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다. 송강을 기준으로 할 때, 제봉은 다만 3년 위의 동년배였던 셈이지만, 서하와는 동문수학한 지기 사이이기는 해도 11살의 차이가 있었으며, 스승 석천과는 무려 40살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옛부터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은다[君子以文會友]’고 했다. 이른바 지식인들의 교류는 글로써 더욱 정분이 두터워짐을 뜻하는 이 말은 식영정 4선에게 꼭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들 네 사람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교류하며 시문으로써 두터운 교분을 쌓았기 때문이다.

송강 당대를 위시한 중세 문인들의 시적 교류는 특히 次韻詩에서 두드러졌다. 송강이 스승인 석천과 식영정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두고 酬唱한 여러 편의 차운시 가운데 한 수인<환벽당 용소[環碧龍湫]><sup>27)</sup>라는 동일한 제목의 5언절구를 옮겨보기로 하겠다.

澄湫平沙浪	맑은 소 반지러운 모래톱에 물결 이는데,
飛閣望如船	날아갈 듯 솟은 정자 바라보니 배이런 듯.
明月吹長笛	밝은 달빛 사이로 피리 소리 들리니,
潛蛟不得眠	물 아래 잠긴 용 잠 못 들어 하노라.

危亭俯凝湛	맑은 소 굽어보는 높다란 정자,
一上似登船	올라보니 배 위에 오른 듯하네.
未必有神物	영물이야 꼭 있는 것도 아니런마는,
肅然無夜眠	벌벌 떨려 밤이면 잠 못 이루네.

27) 『石川集』·『松江原集』 卷1

위쪽에 인용한 작품이 석천이 지은 것이고, 아래쪽의 작품이 송강이 지은 것이다. 두 작품은 같은韻을 쓰고 있기에 소재 면에서 다소 유사한 점은 있다. 그러나 그 시적 이미지의 세계는 상당히 다르다. 석천의 시는 ‘환벽당’과 ‘용소’를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달밤의 정경과 신선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반면, 송강의 시는 ‘환벽당’에 올라 아래로 ‘용소’를 굽어보면서, 사물을 직접 응시하면서 얻은 상념과 지극히 현실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석천의 시가 대상의 ‘관조’를 통해 그 정서를 형상화한 것이라면, 송강의 시는 직접적인 ‘체험’을 살려 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운시의 묘미는 상대방이韻으로 사용한 글자와 똑같은 글자를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일종의 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데 있다. 차운시를 지을 때면, 문인들은 좀더 새롭고 감탄할 만한 시상을 찾아낸 다음, 거기에다 정해진 운자를 넣어 재치있게 표현해 내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句와 句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연관성을 갖도록 자연스럽게 써야 했다. 시에 일가견이 있는 문인들은 이처럼 정해 놓은韻字를 가지고서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훌륭히 시를 지어냈는데, 그럴 때에는 보통 때 시를 지을 때보다 한층 더 기뻐했다고 한다. 아마도 일정한 제약이 전제된 상황에서도 스스로 뛰어난 재치와 능력을 발휘한 데 대한 만족감이 아니었을까 싶다. 인용한 송강의 차운시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석천을 위시한 식영정 4선들은 특히 ‘식영정’을 제재로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 20곳을 가려 읊었다. 연작의 형식을 취해 각기 20수씩 읊은 5언절구 <息影亭題詠>이 바로 그것이다. 위에서 살핀 석천과 송강의 <環碧龍湫>가 그 한 예다. 따라서 이들의 시는 20수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제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개별 풍광마다 붙인 작은 제목들 역시 거의 같다. 그러나 작품 제작 시기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와 함께 각기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시들이 이들 4선이 함께 어울려 노닐면서 지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차운시라고 해서 반드시 한 자리에서 직접 주고 받으

며 그 모두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송강의 경우는 『松江原集』에 <息影亭雜詠>이라는 제목으로 10수, 『松江別集』에 <息影亭雜詠次韻>이라는 제목으로 10수씩이 전한다. 이들 식영정 4선의 <息影亭題詠>은 요컨대 당대 사대부 문인들의 시적 교유를 대변하는 실레이자, 作詩 활동의 한 표본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송강의 창평 향리생활을 살필 수 있는 작품들은 아주 많다. 그 가운데서도 식영정 4선과 관련된 차운시들에는 송강의 시적 교유와 분방한 사유의 세계를 살필 수 있는 면면들이 풍부하다. 특히 그의 한시가 지닌 풍격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스승 석천과의 시적 교유는 각별한 것이었다.

송강은 석천에게서 특히 위대한 시인의 풍모를 본 듯하다. 그래서 스승을 마음으로 우러르고 받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천과 송강이 식영정의 오동나무를 두고 주고 받은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한다. 두 시의 제목은 모두 <벽오동나무에 걸린 서늘한 달[碧梧涼月]><sup>28)</sup>이며, 5언절구로 되어 있다.

秋山吐涼月	가을 산 서늘한 달 토해 내더니,
中夜掛庭梧	한 밤중 뜨락 오동나무에 걸렸네.
鳳凰何時至	봉황은 어느 때야 날아오려나,
吾今命矣夫	지금 내 생애야 보리오마는.

人懷五色羽	선생은 봉황의 문장 품으셨는데,
月掛一枝梧	오동나무 가지엔 달이 걸렸네.
白髮滿秋鏡	백발이 가을 달 속을 가득채우니,
衰容非壯夫	쇠한 모습 이제 장부는 아니로세.

위쪽의 시가 석천이 지은 것이고, 아래쪽의 시가 송강이 지은 것이다.

석천의 시에는 가을 산이 토해 낸 서늘한 달빛 이미지와 함께, 인생 황혼기의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다. 그래서 달빛이 무척이나 싸늘하게 느껴진다. 석천은 한 밤중 오동나무에 걸린 달을 보고 봉황을 생각한다. 오색의 아름

28) 『石川集』·『松江續集』 卷1

다운 날개를 하고 대나무 열매를 먹으며 벽오동나무에 깃을 드리운다는 그 상서로운 새는 어느 때나 날아 오려는지……. 그러나 아무런 기약이 없다. 그리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 고대하던 태평세월은 아마도 가망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속절없이 늙어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송강은 이런 스승의 심정을 헤아리듯 곧바로 화답한다. 어찌 속절없이 늙기만 하셨겠습니까. 선생님이야말로 그 오색의 아름다운 날개로 상징되는 봉황의 문장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동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과 어울린 선생님의 백발을 봅니다. 위대한 시인의 풍모를. 나이가 드셔서 이제 장부는 아니시지만, 저렇듯 맑게 비추는 달처럼 원숙하신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송강의 시에는 스승을 우리르고 사모하는 마음이 은근하고도 정겹게 담겨 있다.

이처럼 스승에 대한 정이 두텁고 각별했기에, 송강은 석천이 세상을 뜨자 그의 덕과 인품을 기리며 간절히 그리워한다. 예의 <息影亭雜詠> 10수 가운데 한 수인 <仙遊洞>에서, “끼치신 유풍을 어루만지며 / 머리 허연 제자가 슬퍼합니다.”<sup>29)</sup>라고 한 데 잘 나타나 있듯, 그 자신 ‘머리 허연’ 나이에 이르도록 석천의 감화를 기리면서, 세월의 두께 만큼이나 겹겹이 쌓인 간절하고도 애뜻한 정을 노래하기도 했다.

요컨대 송강은 석천에게서 특히 한시의 다양한 시풍과 화려하고도 낭만적인 정서를 많이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강의 우리말 시가는 그 중심 시상이나 시적 이미지가 그가 지은 한시와도 상통하는 점이 많은데, 이 점에 있어서도 석천은 송강의 시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서하 김성원과의 교유는 송강의 창평 향리생활은 물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도 유다른 의미를 지닌다. 따지고 보면 서하는 송강의 처기쪽 어

29) 招俵無遺蹤 白頭門下士 : <仙遊洞>, 『松江原集』 卷1 ※이 작품에서 기리는 인물이 『松江原集』 해당 부분에 부기되어 있는 ‘하서’가 아니라 ‘석천’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박준규, 앞의 「松江 鄭澈의 樓亭題詠攷」, 206쪽을 참조.

른이요, 나이가 송강보다 11살이나 위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흥금을 털어 놓고 사귀는 사이였다. 훗날 송강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향리 창평으로 내려 올 때마다, 그를 가장 반겨 맞아주었던 이도 바로 서하다. 여러 사정을 떠나, 젊은 시절에 만나 동문수학한 사이라는 사실이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던 게 아닌가 싶다.

<遙寄霞堂主人><sup>30)</sup> <멀리 하당 주인에게 부치다>

霞老平生友	서하 당신은 평생의 벗이라,
難忘夢寐間	꿈결에도 잊지를 못한다오.
吾方走塵世	나는 지금 속세를 헤매지마는,
君獨臥雲山	그대는 홀로 먼 산에 누웠구려.

위 작품에서 보듯, 송강은 서하를 ‘평생의 벗’으로 여겼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리워한다. 그 우정의 깊이를 둘째 구 ‘꿈결에도 잊지를 못한다오.’에서 넉넉히 헤아릴 수 있다. 나아가 벼슬아치로서 ‘속세를 헤매는’ 자신의 삶과 ‘먼 산에 누워’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는 서하의 삶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데서는, 서하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송강의 애뜻한 심사를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서하와 떨어져 있을 때면, 송강은 그와 어울려 지내던 시절의 추억이나 성산 주변의 정경들을 눈에 아련히 떠올리곤 한다. 이런 심경과 재회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는 7언절구를 한 수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與霞堂丈步屨芳草洲還于霞堂小酌><sup>31)</sup>

하당장과 풀꽃 핀 물가를 거닐다가 서하당에 돌아와 조촐히 잔을 들다

散策芳洲倦却廻 풀꽃 핀 물가 거닐다 지쳐 돌아와,

30) 『松江續集』 卷1

31) 『松江原集』 卷1

殘花影裏更傳杯	꽃 그림자 속에서 술을 나누네.
年年南北相思夢	해마다 남쪽 북쪽에서 그리는 꿈은
幾度松臺夜半來	몇 번이나 밤중에 이곳에 왔던가.

실로 오랜만이라 할 이야기도 많다. 그래서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과 지난 날 함께 쌓았던 추억들을 되새기며, 풀꽃이 흐드러지게 핀 물가를 함께 거닌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피로가 몰려온다. 서하당으로 다시 돌아와 주인과 조촐하게 술잔을 기울인다. 깊어가는 봄날, 꽃 그늘을 배경삼아 앉은 자리에 하나 둘 꽃잎이 진다. 아아, 얼마나 이런 일을 그리었던가! 고즈넉한 밤이면, 꿈길에서도 몇 번이나 이곳으로 달려왔던가! 마치 꿈만 같다.

이 시는 어느 해 송강이 낙향한 직후에 지은 듯하다. 제목 자체에서 작품을 짓게 된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몇 년을 두고 서하와 남북으로 떨어져 그리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만나 정담을 나누게 된 후련함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다.

송강은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이처럼 서하가 있는 성산을 무척이나 그리워했다. 그와의 재회는 언제나 반갑고 즐겁다. 힘들고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 아늑하고 정겨운 곳에 머무는 것은 또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가. 여기에서 ‘풀꽃 핀 물가’는 성산 앞을 흐르는 紫薇灘 일 시 분명하다. 자미탄은 바로 서하당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다. 요컨대 이 시에는 그가 ‘霞翁’ 혹은 ‘霞堂丈’이라고 존칭하여 부른 서하와의 각별한 교분이 잘 나타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송강은 그의 <성산별곡>에서 서하의 세속에 초연한 삶과 풍류생활을 의미 있게 기리기도 했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거나 추구했던 삶과는 아주 다른 삶일 수 있지만, 아마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늘 서하당·식영정 주인으로 대변되는 유유자적한 전원생활에 동경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와 동문수학하던 시절이나 낙향하여 지내던 시절을 제외하면, 송강과 서하는 떨어져 지내는 시절이 많았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시들을 주고받은 일이 적지 않았다. 이는

나이가 지긋해서도 마찬가지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음의 두 시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聞鄰友會棲霞堂以詩先寄><sup>32)</sup>

이웃 친구들이 서하당에 모인다는 말을 듣고 시를 지어 먼저 부치다

羣仙聯袂訪仙居	뭇 신선 줄을 지어 신선의 집 찾아 드니,
花發碧桃山雨餘	복사꽃 활짝 피어 산빗방울 맺혀 있네.
勝事於吾已無分	그처럼 좋은 이야기 내 분에는 없는 일,
白頭回處意何如	흰 머리 돌리면서 그윽한 정 생각하네.

<次松翁韻><sup>33)</sup>      <송강이 지은 시의 운을 따서 짓다>

春去星山野老居	성산 늙은이 사는 곳에 봄날 다하니,
碧桃花落已無餘	복사꽃도 시들어 꽃잎마저 다 졌네.
相思脉脉水南北	그리운 사람일랑 남북으로 멀고 멀어,
咫尺方知千里如	지척이 천 리란 말 이제사 알겠네.

위쪽에 인용한 시가 송강의 작품이고, 아래쪽의 것이 서하의 작품이다.

먼저 송강은 서하의 거처를 신선이 사는 곳으로 일컬으면서 그곳을 찾아 드는 신선 친구들을 더없이 부러워한다. 그곳은 지금쯤 산비가 스쳐 지나가면서 복사꽃을 활짝 피웠으리라. 한바탕 웃음이 돌고 서로들 술잔을 기울이겠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딱하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그처럼 즐거운 일은 내 분수에는 없는 일이려니 하면서 체념한다. 다만 ‘흰 머리 돌리면서’ 서하당 쪽을 향해 그윽한 정을 담은 눈길을 보낼 따름이다.

이 같은 송강의 생각에 서하는 답한다. 그것은 그대의 상상일 뿐이라고. 그처럼 꽃 피고 새 울던 봄날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꽃잎 지듯 허전하고 쓸

32) 『松江原集』 卷1

33) 『棲霞堂遺稿』 詩

쓸한 풍경만이 주변에 가득하다고. 그래서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그대. 많이 보고 싶다네. 마음 같아서는 부르면 금방이라도 얼굴 내밀 듯 싶은데,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지척이 천리란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네.

사실, 송강과 서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반갑게 만나 정다운 얘기들을 나누었다. 비록 걷는 길은 각기 달랐을지라도, 마음 속에서는 늘 서로를 생각하며 아껴주었다. 기질이 정히 같았던 것도 아닌 듯한데, 두 사람은 시원스럽게 통했다. 송강에게는 ‘그곳에 가면 그가 있다’라는 든든함이 항상 그를 푸근하게 해주었고, 서하는 송강과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가 싶다. 벼슬길에 나아가 있을 때든, 낙향해 함께 지낼 때든, 서하는 한결같이 송강에게 큰 위안이었다. 그래서인지 서하와의 교유시에서는 유다른 정감이 배어난다.

송강의 창평 향리생활을 배경으로 한 교유시는 이상에서 살핀 석천·서하와의 경우 외에도 아주 많다. 그러나 송강에게 있어서 담양 창평이 창평일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성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던 식영정·서하당과 그 두 누정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석천과 서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의 문학은 특히 창평에 깃을 드리우고 지내던 시절에 더욱 비옥해지고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한 교유시 작품들에는 특히 송강 평생의 정신과 정서가 깃든 마음의 고향인 사실이 잘 투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4. 정치무대 동반자들과의 교유시

사람의 일생에서 성장기의 스승은 정신적인 틀을 갖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회생활의 동반자들이다. 송강은 그와 뜻이 맞는 이들과 두루 사귀었으면서도, 특히 栗谷 李珣(1536~1584)·牛溪 成渾(1535~1598)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이

들과는 서로 비슷한 연배에 놓여 있었으며, 비교적 일찍부터 교분을 쌓았던 터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나이는 훨씬 위지만 思菴 朴淳(1523~1589)과도 더없이 막역하게 지냈다. 그래서 복잡다단한 일들로 바람 잘 날 없는 정치무대에서나, 정치현실의 자장권에서 벗어나 앞 일을 모색하며 생활하던 때에도, 이들과 당면 문제를 의논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이로 지냈다. 이른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 주면서 평생의 지기로 지냈던 것이다.

율곡은 송강과 태어난 날이 불과 20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동갑내기였다. 송강의 「연보」에 따르면, 21살 때 그를 처음 만나 교우의 도를 정했다고 한다. 또 송강이 지은 「율곡 제문[祭栗谷文]」에 따르면, 재야의 선비라는 것 외에 그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李希參이라는 이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때 율곡은 금강산에서 불교 공부를 한 후 처음 서울에 왔었다고 한다. 이후 송강은 율곡이 49살로 세상을 뜰 때까지 평생의 지기로 지낸다.

송강은 벼슬길에 나아가 율곡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면서 밝은 治世를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그러나 東西朋黨의 분쟁이 격화되자, 때로 서로의 입장이 달라 불화하기도 한다. 송강이 명철한 사태 판단과 강직한 품성으로 상대 세력인 東人에 적극적인 공세로 임하려는 데 비해, 율곡은 항상 조정의 화합을 위하여 蕩平을 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우의는 다시없이 돈독해서, 송강이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품성으로 인해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 율곡은 매번 앞장서서 그를 변호하였다. 당시 격화되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강이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율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sup>34)</sup>

동서붕당 간의 알력과 대립으로 조정에 불화가 생겨났을 때, 송강은 때때로 율곡에게 자신의 뜻을 내비치는 시를 지어 보인다. 송강이 司諫 벼슬에 있던 시절, 조정의 못마땅한 처사를 율곡에게 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34)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松江別集』 卷2·3의 「年譜」를 참조.

문제의 인물을 탄핵할 것을 주장하는데, 율곡은 그렇게 되면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만류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듯 의견이 서로 엇갈리자 송강은 마침내 동서봉당 간의 화합을 율곡에게 부탁하고 향리 창평으로 내려가면서 다음과 같은 7언절구를 지어 자신의 뜻을 보이는 것이 그 한 예다.

<贈別栗谷><sup>35)</sup>

<율곡에게 이별하며 주다>

君意似山終不動	그대 뜻은 산 같아 종내 움직이지 않는데,
我行如水幾時廻	내 걸음은 물 같아 어느 때나 돌아오려나.
如水似山皆是命	물 같고 산 같은 것 모두 다 운명인가,
白頭秋日思難裁	이리 생각 저리 생각 헤아리기 어렵구려.

서로간의 의견 차이에 말미암은 송강의 착잡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물 같고 산 같은 것 모두 다 운명인가.’라는 대목에서는, 체념보다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담담하게 배어 있다. 그렇기에 마지막 구에서 도무지 어떻게 생각을 추스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리 생각 저리 생각 헤아리기 어렵구려.’라는 탄식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송강이 사귄 벗 가운데서도 율곡은 특히 정치무대의 동반자였다. 그와 진지한 학문적 대화를 주고 받은 일 역시 적지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경국제민의 사회현실에서 제기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동고동락했다. 위의 예에서처럼 현실에 대처하는 태도나 행동방식이 서로 달라 때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입장에는 차이가 없었다.

35) 『松江原集』 卷1

<過花石亭><sup>36)</sup>

<화석정을 지나면서>

山形背立本同根  
江水分流亦一源  
花石古亭人不見  
夕陽歸路重銷魂

산이 서로 등졌지만 맥은 본래 한 가지요,  
물이 따로 흐르지만 근원이야 하나로세.  
화석이라 옛 정자 사람 볼 수 없나니,  
돌아가는 석양길에 혼이 거듭 녹아나네.

‘화석정’은 율곡과 인연이 깊은 경기도 파주 율곡에 있는 정자다. 율곡의 자취가 남아 있는 정자를 지나면서, 유명을 달리한 그를 간절히 그리워한 시다. 다만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 율곡과는 ‘맥’도 ‘근원’도 함께했던 사이였기에, 그를 생각할 때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 애끓는 심정을 마지막 구 ‘돌아가는 석양길에 혼이 거듭 녹아나네.’에서 실감할 수 있다.

둘 사이의 교분과 우의가 이리했기에, 율곡 또한 송강에 대해서는 각별한 情誼를 가지고 있었다. 송강이 副校理의 직책을 맡고 있던 시절, 사명을 받들고 호남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가 떠날 때 율곡 또한 자신의 향리 강릉으로 향하는데,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며 송별한다.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상황 자체를 제목으로 하여 율곡이 송강에게 지어준 5언율시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鄭季涵微奉使湖南余有關東之行臨別賦贈><sup>37)</sup>

계함 정철은 사명을 받들고 호남으로 가고 나는 관동으로 가는 이별의 자리에서 지어 주다

石友分千里  
幽懷付一嗟  
東關迷雪路  
南國渺星槎

굳게 사귄 벗 천리 길 헤어지나니,  
가슴 속 쌓인 정회 한숨에 부친다오.  
동으로 대관령 눈길처럼 어지럽고,  
남으로 뻗은 길 뱃길처럼 아스라하네.

36) 『松江原集』 卷1

37) 『栗谷全書』 卷1

芳草佳期闊	꽃다운 풀 좋은 기약 멀기만 한데,
寒梅晚影斜	차가운 매화에 저녁 그림자 어리는구려.
堪憐今夜月	가엾어라 오늘 밤 솟은 달이여,
相送到天涯	서로 떨어져 하늘 끝에 이르게 하네.

‘굳게 사귄 벗’과 서로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기만 하다. 그래서 대관령 너머 강릉과 머나먼 남녘 땅 사이의 ‘천리 길’이 참으로 멀고 애달게 느껴진다. 꽃 피는 봄이 오면 하마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이 별이기에, ‘차가운 매화에 저녁 그림자 어리는’ 계절에 헤어지는 아쉬움을 더욱 간절하다. 그 아쉬움을 달래주려 ‘솟은 달’마저 가엾고 쓸쓸하다. 이제 서로 헤어지면, 다만 ‘하늘 끝’에서 저 달을 쳐다보며 서로 그리워하리라.

마음을 나눈 벗과 헤어지는 안타까운 심정이 구절 사이사이에 흥건히 배어 있다. 그 정 의 간절함에서 두 사람의 우정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진실한 벗 사이의 이별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시다. 이 때 송강이 율곡에게 화답한 시는 아쉽게도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율곡이었기에 그가 49살(1584 · 선조 17년)이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지기를 잃은 송강의 비통함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었다. 21살 때 만나 이후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을 주고 받은 사이였으니,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빈 자리가 두고두고 송강을 눈물짓게 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더욱이 당쟁의 소용돌이는 당시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벗이 많지 않았던 송강으로서는, 율곡의 죽음이 그야말로 참담하기조차 했을 것이다.

송강은 율곡을 두고 지은 한시 10여 수와 祭文, 輓詩 등을 남겼다. 함께 벼슬살이할 무렵 율곡에게 자신의 뜻을 내보이며 지은 몇 편의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먼저 떠난 율곡을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담은 내용들이다. 다음과 같은 7언절구가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다.

<挽友><sup>38)</sup>

<친구의 만시>

人說人間勝地下	남들은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지만,
我言地下勝人間	나는야 저승이 이승보다 나을레라.
左携栗谷右君望	울곡이랑 군망을 좌우에 손잡고,
半夜松風臥碧山	한밤중 솔바람 푸른 산에 누우리니.

죽어 ‘울곡’과 ‘군망’<sup>39)</sup>을 좌우에 두고 ‘솔바람 푸른 산’에 누울 수 있기에 차라리 ‘저승이 이승보다 나을레라.’라는 말에서, 벗의 죽음을 애도하는 송강의 간곡한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정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인간적 유대와 슬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애도의 정이 몇 마디의 말 속에 절절이 배어 있다. 송강은 울곡이 세상을 뜨고 난 후 10년을 더 산다. 그러나 울곡이 곁에 없기에 그만큼 힘든 일이 적지 않았다. 송강의 벼슬살이는 울곡이 있었기에 큰 힘이자 위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울곡이 정치무대의 동반자였다면, 牛溪는 송강이 보다 폭넓게 자문을 구한 사회생활의 동반자였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계는 일찍이 경국제민의 뜻을 접어두고 학문과 교육에 힘쓴 성리학의 대가요 재야 선비다. 19살 때부터 울곡과 사귀게 되면서 그와 평생의 지기가 되었고, 32살 때 퇴계를 만나고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우계는 재야에 있으면서도 학덕과 인망이 높아, 선조 임금으로부터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임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다만, 임금이 사임을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관직에 머물러 있었던 적은 몇 차례 있었다.

송강은 우계와도 일찍부터 교우의 도를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이는 우계가 송강보다 한 살 위다. 송강이 진사 시험에 합격한 해(26살·1561년) 우계가 송강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대를 사모하여 잊을 수 없는 것이,

38) 『松江原集』 卷1

39) 울곡과 함께 애도한 ‘君望’은 송강의 또다른 벗 辛應時(1532~1585)의 字다. “신군망 교리 적의 내 마침 수찬으로...”로 시작되는 송강의 시조에 나오는 바로 그 인물이다.

어찌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무리들이 서로 마음이나 기개가 맞아 사귀면서 사사로이 감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리오. 다만 분발하시고 기운을 가다듬어 게을리 않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또 나는 질병을 빌미로 장차 안일 방랑으로 세월을 보낼 염려가 있으므로, 봉우와 더불어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을 생각하나 그럴 수도 없는 처지이니, 바람을 향하여 멀리 있는 그대 생각을 그칠 수가 없구려.”<sup>40)</sup>라고 한 것을 보면, 일찍부터 교분을 쌓은 두 사람 사이의 우정과 의리가 실로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송강과 우계가 시를 주고 받으며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던 시절, 우계가 송강에게 지어 보낸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5언절구가 있다.

<次鄭松江徹韻<sup>41)</sup>> <정송강이 지은 시의 운을 따서 짓다>

彼美松江水	저 아름다운 송강의 물,
秋來徹底清	가을 다가오니 바닥까지 맑구나.
湯盤供日沐	날로 새로워라 함께 목욕하노니,
方寸有餘醒	마음에 넘치는 깨달음 있네.

‘바닥까지 맑은 송강의 물’을 아름답게 그리면서, 그와 교유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다. 특히, 맑은 물과 같은 심성을 가진 이와 생각을 주고받노라니 ‘마음에 넘치는 깨달음’이 생겨난다고 한 데서, 둘 사이에 오간 더할 나위 없는 우정의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우계는 송강의 공부를 격려하는 글 가운데에서, “우계의 물과 송강의 물이 다 같은 맑은 물입니다. 어찌 멀리서 한 모금의 물을 떠와 나누어 넣음으로써 나머지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리오. 그러나 우계의 물은 항상 맑지 못할까 두려우니, 어찌 감히 스스로 그 맑음을 믿고서 더 맑게 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리오. 바라건대 송강의 맑고 차가운 물도, 탕 임금이 목욕하는

40) 僕慕君不可忘者 豈如豪俠輩許人 以意氣出於激昂之私也 但願奮勵不怠耳 且僕托於疾病 將有安肆日偷之患 思與朋友同處 而不可得 則嚮風遐想不可已也 : 『年譜』, 『松江別集』 卷2

41) 『年譜』, 『松江別集』 卷2

그릇에 새긴 것과 같이 날로 새로워서, 마음 밖의 탁한 사물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흐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sup>42)</sup>라고 하였다. 송강의 공부를 격려하는 말과 함께 학문하는 방법을 논한 글이다. 본래 가지고 있는 맑은 심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을 가다듬고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자기다짐이자 당부다. 진정으로 벗을 경계하고 아끼는 마음을 담으면서, 송강의 두드러진 품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

송강과 우계는 실로 다방면으로 교류한다. 젊은 시절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부딪히는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면 으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국가의 대소사에 우계를 찾아가 자주 禮를 묻기도 하고, 자신의 만아들을 그에게 보내어 배우게도 한다. 자신의 품성이나 행동 방식 혹은 처세에 대해 누구보다도 이해의 폭이 넓었던 우계였기에, 송강은 그를 믿고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물론 우계 역시 송강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다.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면 송강은 우계에게 시를 지어 보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은 7언절구가 그 한 예다.

<寄示牛溪><sup>43)</sup>

<우계에게 부쳐 보인다>

禁掖何年捧玉音  
白頭三宿小岳心  
平生欲止陶公酒  
每到愁時淺淺斟

대궐에서 어느 해에 임의 말씀 받들었던가,  
백발에도 못잊어 그리워하는 소신의 마음.  
평생을 끊고자 한 도연명의 술이지만,  
수심이 어릴 때면 조금조금 마신다오.

낙향의 처지에 놓여 있던 어느 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첫 구 ‘대궐에서

42) 牛溪之水與松江之水 同一清也 亦何待於遠挹一勺 而分餘清第 懼牛溪之水無常清 豈敢自恃其清 而不加澄之功 亦願松江清冷之水 與湯盤而日新 無使外物之漏 少有滓於其間也 : 「年譜」, 『松江別集』 卷2

43) 『松江原集』 卷1

어느 해에 임의 말씀 받들었던가'라는 표현으로 보아, 낙향한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난 듯하다. 또 '백발에도 못잊어 그리워하는 소신'이라고 했으니, 나 이도 지긋해진 무렵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에, 고질적인 병통인 줄 알면서도 '수심이 어릴 때면 조금조금 마신다.'고 하면서,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평생을 끊고자 한 도연명의 술', 즉 덧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어느 것에도 마음 기댈 수 없는데 오로지 술만이 자신을 잠시나마 흐뭇하게 한다고 했던 '도연명의 술'은, 우계를 향한 허물없는 고백이자 자기위안이라 할 수 있다. 뜻과 같지 않은 세상살이의 시름을 우계에게 친근하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러 국정에 자문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우계로 말하면 대부분 현실의 자장권 밖에서 생활했던 이다. 그래서 송강은 때로 그의 심경에 가탁한 시를 지어 보내기도 한다. 바로 위에서 인용한 작품과 동일한 제목의 다음과 같은 7언절구 한 수를 들어보기로 한다.

<寄示牛溪><sup>44)</sup>      <우계에게 부쳐 보이다>

苦調難諧衆楚音	피로운 곡조 예사 노래와 어울리기 어려워,
病夫於世已無心	병든 몸 세상과는 이미 마음이 없네.
遙知湖外松林下	아마도 강호의 술숲 아래서,
歲暮寒醪滿意斟	세모라 찬 술을 마음껏 마시리.

뜻하는 바 마음을 달리 두어서인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인지, 이런저런 풍파에 시달리는 벼슬길에서 이미 마음을 접었네. 한해가 저무는 겨울,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연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찬 술을 마음껏 기울이며 지내리.

현실의 자장권에서 벗어나 있는 우계의 심경과 생활의 단면을 읊은 듯하

44) 『松江續集』 卷1

다. 그러나 달리 보면, 송강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다는 것을 옳고 있는 듯도 하다. 그래서 이 시는 우계에 관한 이야기면서 송강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고 보면,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마음까지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돈독한 우정은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생겨난다 하겠는데, 위의 교유시편들에서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둘 사이가 이와 같았기에, 송강과 우계가 받은 시문·편지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특히 송강이 우계에게 보낸 14통에 달하는 편지에는, 그가 벼슬 길에 나아가 있을 때든 낙향의 처지 혹은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든, 일상에서 겪는 다단한 문제들을 상의하고 진정으로 충고를 구하는 내용들이 많다. 송강과 우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교유 내용들로부터, ‘평생의 지기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송강은 우계보다 5년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한편, 송강의 사회생활 혹은 정치무대 동반자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서 또한 思菴 朴淳(1523~1589)이 있다. 사암은 당대 호남시단의 師宗으로 일컬어진 訥齋 朴祥(1474~1530)의 조카로서, 학문·시문은 물론이요, 정치적 역량도 남달랐던 인물이다. 일찍이 花潭 徐敬德(1489~1546)에게서 학문을 배워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문장·글씨 뿐만 아니라, 시에 특히 뛰어났다. 당시 삼당시인으로 일컬어진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즉 玉峯 白光勳(1537~1582)과 孤竹 崔慶昌(1539~1583)을 그의 문하에서 배출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사암은 특히 송강·율곡·우계와 교분이 두터웠다. 이들보다는 나이가 10년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역한 선배이자 지기로서 어울려 지냈다. 그래서 당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는 동인들로부터 서인의 실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송강 등 세 사람이 동인들로부터 탄핵을 입었을 때, 이들을 옹호하다가 도리어 탄핵을 입고 마침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sup>45)</sup>

송강은 일찍이 사암의 종사관이 되면서 돈독한 교분을 쌓게 된다. 그의 나이 33살 때였다. 물론 사암이 놀재의 조카인 데다,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향리 나주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 아직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이었던 송강이 가까이에서 사는 그와 이미 교분을 쌓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송강으로서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알아주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부터 마련해 준 인물이 바로 사암이었다. 나아가 송강은 당쟁의 풍파가 몰아치는 험난한 정계에서 복잡다단할 일들로 난관에 봉착할 때면, 그와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의지하는 바 적지 않았다. 송강에게 있어서 사암은 단순히 노선을 같이하는 정계 선배로서보다는, 서로 우애하며 가시덤불을 헤쳐나간 형제와도 같이 지냈다.

사암이 송강에게 지어 준 시와 송강이 사암을 그리워하는 시 수 편이 전한다. 그 시편들에는 두 사람 사이의 도타운 교분만큼이나 다사로운 정이 잔잔하게 배어 있다. 차운시의 형식을 취한 다음과 같은 7언율시는 그 한 예다.

<次思菴韻><sup>46)</sup> <사암의 운을 따서 짓다>

身如病鶴未歸山	몸은 병든 학이건만 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溪老松筠谷老蘭	시내와 골짜기엔 송죽 난초 늙었다오.
漢水秋風愁裏度	한강이라 가을 바람 시름 속에 지나가고,
楚雲鄉路夢中漫	아득한 고향 길 꿈 속에도 멀더이다.
人情閱盡頭全白	세간 인심 겪고 나니 머리 모두 희어지고,
世味嘗來齒更寒	세상 맛 씹어 보니 이가 다시 시리구려.
遙憶松江舊釣侶	먼 추억 송강에서 낚시하던 옛 친구들,
月明搖櫓下前灘	밝은 달에 노 저으며 앞 여울로 내려가네.

본시 ‘학’의 심성을 지녔지만, ‘송죽 난초’ 우거진 산에 깃들지 못한 채 세

45)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은 『松江別集』 卷2·3의 「年譜」를 참조.

46) 『松江原集』 卷1

간에서 늙고 병든 몸이 되었다. 어느 때나 편안히 깃 드리울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길은 아득하고 시름만 쌓인다. 세파에 시달리노라니 머리는 이미 백발이요, 여전히 차가운 인심에 이조차 시리다. 그리운 것은 지난 날 ‘송강에서 낚시하며’ 놀던 친구들. 그 세속에 물들기 전 아련한 추억들만 문득문득 떠오른다.

벼슬살이의 고달픈 심정을 노래하면서, 세파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아늑히 감싸줄 고향의 품을 그린다. 이런 자신의 심사를 마치 사암에게 하소연하듯, 나아가 사암 역시 이런 심사일 시 분명한 감정적 동화상태를 확인하듯 노래하고 있다. 특히 ‘송강에서 낚시하며 놀던 친구들’에 대한 추억은, 아마도 그와 사암이 공유하는 옛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암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가운 정감이 깃들여 있다.

각박하고 모진 벼슬살이에서 사암은 너른 일새들로 거친 비바람을 막아 주기도 하고 때로 한 숨 돌릴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했던 나무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에 사암을 생각하는 송강의 정은 각별하다. 그와의 교분을 아련한 듯 담담하게 떠올리는 7언절구 한 수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湖亭憶朴思菴><sup>47)</sup> <호정에서 박사암을 추억하다>

江上高臺春草深	강 가 높은 누대에 봄 풀이 깊었는데,
仙遊往跡杳難尋	신선되어 놀던 자취 찾을 길 아득하네.
若非跨鶴清都去	만약에 학을 타고 선경으로 아니 갔다면,
正是騎星故國臨	정녕히 별을 타고 고국을 내려다보리.

봄이 되자 강 가에 선 높다란 누대 주위에 자욱히 풀이 돌아난다. 지난 날 이 곳에서 사암과 어울려 즐기던 풍류, 그 시절 추억이 다시 돌아나는 풀처럼 자욱히 떠오른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사암, 그가 남긴 이승의 자취는 흔적조차 찾을 길 없다. 아마도 학을 타고 신선의 나라에 가 있거나

47) 『松江續集』 卷1

않은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필시 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이 곳, 진진한 추억과 정이 서린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으리라. 남기고 간 사람들 차마 잊지 못해 곱어 살피면서…….

세상을 떠난 사암을 그리워하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항상 자신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추억을 기린 시다. 사암은 67살을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는데, 그 때 송강의 나이는 54살이었다. 20여 년 동안 쌓아 온 정분을 어찌 한 두 줄의 말로 드러낼 수 있겠는가마는, 사암이 없는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이처럼 답답하게 달래는 송강의 심사에서, 오히려 시공을 초월한 끈끈한 유대의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3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암은 송강을 막역한 벗이자 형제처럼 위해주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4년 뒤에 송강 역시 유명을 달리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히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벗을 만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런저런 풍파가 휘몰아치는 정치무대에서 서로 의기투합하며 동반자의 길을 걷는 벗을 구하기란 아주 드물다. 송강의 경우는 율곡·우계와 같은 벗이자 동반자들이 있었기에, 당쟁이라는 당대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나름의 길을 헤쳐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암과 같은 이와는 나이까지를 떠나 더없이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송강의 품성이나 기질은 원만하기보다는 강직하고 거침이 없는 편이었기에 적지 않은 고난이 따랐는데, 이들 지기들과 교유한 시편들 속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고 평생을 통해 쌓아간 情誼와 유대감이 행간에 잘 배어 있다고 하겠다.

## 5.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

송강은 지금까지 살핀 스승과 벗들 혹은 정치무대의 동반자들 외에, 당대 이름높은 학자·문인들과도 돈독한 유대를 맺으며 교유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학문적 식견과 문학적 자질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다져나간다. 龜峯 宋翼弼, 玉峯 白光勳, 孤竹 崔慶昌, 霽峯 高敬命, 白湖 林悌와 같은 이들과의 격

의 없는 교유가 그것이며, 동시대에 벼슬살이를 했던 退溪 李滉과의 교유를 제재로 한 시편 또한 전한다. 이들 역시 모두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쟁쟁한 학자요 문인들이다.

龜峯 宋翼弼(1534~1599)은 庶出로서 신분 자체는 미미하였지만, 아버지가 당상관에 올라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았던 터에,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일찍부터 글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율곡·우계와 함께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논하였고, 특히 禮學에 밝아 조선조 예학의 태두로 일컬어지는 沙溪 金長生(1548~1631)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서인의 막후실력자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지위나 벼슬을 갖지 못했고, 당대 유력한 인사들과 교유하며 지냈을 뿐, 대체로 평생을 불우하게 살았다.

구봉은 자신의 학문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선조대 8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으며, 그의 문하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경기도 고양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학문을 연마했는데, 송강은 그에게 여러 차례 예를 묻은 것은 물론, 그와 빈번히 왕래하며 조정의 일들을 의논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변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송강은 그와 비슷한 연배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특히 율곡, 우계, 구봉과 우의가 두터웠다. 이들 네 사람이 서울 남산에 올라 각 구를 이어 지은 다음의 시는, 그 유례가 흔치 않은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5언율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遊南嶽聯句><sup>48)</sup> <남악에 노닐 적에 이어 지은 시>

衣草人三四	초의 입은 서너 사람	
於塵世外遊	세상 밖에 나와 노닌다네.	[구봉]
洞深花意懶	굴짜기 깊으니 산꽃은 필동말동	

48) 『松江別集』 卷1

山疊水聲幽	산이 첩첩하니 물소리 그윽하여라.	[율곡]
斷嶽盃中畫	깎아지른 뒤편은 잔 가운데 그림이요	
長風袖裏秋	불어 예는 바람은 소매 속의 가을이로세.	[송강]
白雲巖下起	흰 구름 바위 아래서 피어 오르니	
歸路駕靑牛	돌아가는 길에는 푸른 소를 타리라.	[우계]

먼저 운을 뗀 구봉의 입에서는, 거침없이 탈속의 경지가 노래되고 있다.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든 양 ‘초의’를 입고 ‘세상 밖에서 노니는’ 존재들로 자신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호기가 넘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서너 사람’이라는 표현이 묘한 맛을 풍긴다. 자신을 포함하면 분명 네 사람인데, 그렇게 못박아 말하지 않고 ‘서너’라고 말한 데에 오히려 멋과 여유가 있다.

이어지는 율곡의 시구에는, 그윽하고 담담한 빛깔과 소리가 있다. 깊은 ‘골짜기’와 필동말동한 ‘산꽃’, 첩첩한 ‘산’과 그윽한 ‘물소리’에는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작자의 사색적이고 절제된 감각이 은은하게 배어 있다. 그래서 그가 그리고 있는 풍광으로부터 참으로 멋진 대조감과 조화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고요한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느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송강의 시구는 호쾌한 낭만과 섬세한 감각이 넘쳐 흐른다. ‘깎아지른 뒤편’을 술잔 속에 ‘그림’으로 담아 내는 솜씨가 실로 일품이며, 불현듯 ‘소매 속’으로 스미는 ‘바람’을 서늘하게 느끼는 예민함에서 또한 그가 탁월한 감성의 소유자임을 확인케 한다. 이러한 호쾌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드러내기란 쉽지 않을 터인데, 송강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마지막을 이은 우계는, 구봉이 펼쳐 놓은 탈속의 세계를 되받아 운치 있게 마무리한다. 산 허리께 바위 아래서 피어 오르는 ‘흰 구름’을 배경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푸른 소’를 타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발상에서 작품 전체를 꿰뚫는 너른 시선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기백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 네 사람의 풍류를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담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그림 속으로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聯句詩에는 네 사람의 우의와 낭만, 개성과 기백이 잘 담겨 있다.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어느 국면에서는 자유로이 교감하는 정감의 세계가 드러나 있다. 이는 마음으로 통하는 벗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멋진 유대감의 결과라 할 것이다.

玉峯 白光勳(1537~1582)은 당대 손꼽히는 호남 시인의 한 사람이다. 사암 박순의 문인으로서, <관서별곡>을 지은 岐峯 白光弘(1522~1556)의 아우이기도 하다. 시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벼슬살이에 큰 뜻을 두지 않고 詩書에 전념한 인물이다. 옥봉은 주지하는 것처럼 고죽 최경창·蓀谷 李達(1561~1618)과 더불어 三唐詩人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송강과 옥봉은 일찍부터 교분이 두터워, 서로 주고 받은 한시 여러 편이 『송강집』과 『옥봉집』에 남아 전한다. 옥봉의 시는 대개 호방한 풍류 기질과 낭만적 정취가 두드러지는데, 이 점은 송강의 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바여서, 두 사람이 기질적인 면에서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아 더욱 절친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무르녹아 있는 시로서, 먼저 송강이 옥봉에게 준 5언절구 한 수를 옮겨보기로 하겠다.

<與白玉峯光勳遊邊山><sup>49)</sup> <옥봉 백광훈과 더불어 변산에서 노닐다>

水淺窺龍窟	물이 얇아 용의 굴을 엿보겠고,
松疎露鶴巢	솔이 성기어 학의 둥지 드러나네.
欲知仙在處	신선이 있다는 곳 알고 싶어서,
須入白雲高	흰 구름 높은 데로 들어간다네.

용이 깃들어 살 듯한 계곡의 물웅덩이를 지나자, 오랜 세월의 흔적을 안은 채 기이하게 구불어진 소나무 사이로 학의 둥지가 내비친다. 아마도 저

49) 『松江續集』 卷1

너머 구름 서린 산봉우리가 신선이 사는 곳이 아닐는지. 때마침 벗과 손잡고 선경으로 들어간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변산의 풍광을 완상하면서, 서로가 신선의 경지에 든 양 그윽한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마음이 통하는 벗과 함께하는 경지요 정취이기에, 그 맑은 흥에 정겨움이 더한다. 벗 사이의 친분이라든가 우정을 겉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둘 사이의 긴밀한 유대와 도타운 정을 담담하게 느낄 수 있는 시다.

역시 이와 같은 정감이 짙게 배어 있는 시로서, 옥봉이 송강에게 준 5언 절구 한 수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寄季涵直省><sup>50)</sup> <계함에게 부치노니 바로 살피소서>

古屋照殘燈	옛 집에는 가물가물 등잔불 비치고,
空庭病葉下	빈 뜰에는 병든 이파리 떨어지네.
遙知故人懷	멀리서 그대 마음 알 듯도 하네,
風雨西宮夜	비 바람 몰아치는 서궁 이 한밤에.

초목 이우는 계절, 삶을 재촉하듯 등잔불이 가물거린다. 내게 남아 있는 날들이란 얼마나 될까? 문득 멀리 떨어져 있는 벗의 얼굴이 떠오른다. 하루 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의 정열과 의기를 이해할 듯싶다. 비 바람 몰아치는 한밤중, 그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분주할 터다. 보고 싶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서 벗에게 전하는 인삿말 같다. 그래서 시의 제목을 <계함에게 부치노니 바로 살피소서>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외롭고 쓸쓸한 방에서 벗을 그리는 정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그 애뜻한 그리움이 슬프고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옥봉은 송강보다 한 살 아래였다. 그런데도 46살(1582년)의 한창 나이에

50) 『玉峯集』 卷上

옥봉이 먼저 세상을 뜨자, 송강은 깊은 슬픔에 잠긴다. 하늘은 남다른 재주를 가진 이를 세속에 오래 붙들어 두지 않는 법인지, 이승에 남아 있는 이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한다. 그를 곡하며 지은 「옥봉 백광훈 제문[祭玉峯白彰卿文]」에서, 송강은 “기산의 빼어남과 예수의 맑음은 그대의 기개였고, 시가의 청신함과 필법의 오묘함은 그대의 재주였다. 술단지 앞에서 글을 논할 때는, 유서깊은 칼날처럼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sup>51)</sup>라고 그의 빼어난 자질과 문학적 재능을 함축하면서, 그로부터 입은 감화가 적지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서깊은 칼날처럼 간담을 서늘하게’ 한 옥봉의 논평은 곧바로 송강의 문학에 신선한 핏기가 돌게 한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孤竹 崔慶昌(1539~1583) 역시 삼당시인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탁월한 문인이다. 사암 박순의 제자이며, 송강이 스승으로 모신 송천 양응정에게서도 수학했다. 그의 시는 더없이 맑고 담백하다는 평을 얻었다. 그는 문장에도 뛰어나 당시 8문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으며, 書畵로도 명성을 날렸다. 당대 예술 전반에 걸쳐 뛰어난 자질을 가진 팔방미인이었던 셈이다.

고죽의 나이 17살 때(1555년·명종 10년) 을묘왜란이 일어났는데, 왜구를 만나자 통소를 어찌나 구슬피 붙었던지 왜구들을 향수에 젖게 하여 물리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의 예술적 재능이 실로 다방면에 걸쳐 두드러졌기에 이런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송강은 고죽보다 3살 위였으며, 서로 형제처럼 지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두터운 교분을 세간에서는 흔히 ‘松竹之交’라 일컬었다고 한다. 나이가 이와 같은 교분은 대를 두고 이어져, 그 후손들 사이에서도 여전했다고 한다. 고죽에 대한 송강의 우정은 특히 고죽이 세상을 뜨기 전후에 얽힌 일화와, 그를 곡하며 지은 輓詩 속에 잘 담겨 있다.

송강은 고죽이 외직에서 내직인 성균관 直講의 명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

---

51) 岐山秀 泗水明 惟子之氣 詩歌清 筆法妙 惟子之才 樽酒論文 肝膽古劍 : 「祭玉峯白彰卿文」, 『松江續集』 卷2

는 도중, 객사에서 병들어 누웠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곧바로 역마를 빌려 타고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고죽이 이미 죽으니, 송강은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한다.<sup>52)</sup> 그가 지은 다음과 같은 만시에 고죽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挽崔嘉運慶昌><sup>53)</sup> <최경창 만시>

匹馬入雲中	한 필의 말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東風何處嘶	봄 바람에 어디선가 울부짖는다.
將軍臥細柳	장군은 군영에 누워만 있고,
不復上雲梯	다시는 구름사다리 올르지 않네.

말은 능력 있는 장군을 만날 때 제빛이 난다. 마치 높은 구름을 타고 천군 만마를 다스리는 위용을 발휘하듯이. 그런데 말 혼자만이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구슬피 울부짖는 소리를 바람결에 전한다. 장군은 이제 군영에 누워, 다시는 구름사다리를 오르지 못한다. 능력 있는 장군이건만, 아아! 구슬픈 말 울음 소리만 들리는구나.

문장·학문·서화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자질을 가졌던 고죽이 그의 재능을 다 펴보지도 못한 채 45살이라는 한창 나이에 죽어 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그의 죽음을 군영에 누워 죽어 간 장군에 비유한 것도, 그리하여 다시는 구름사다리처럼 높고 빛나는 위치에 오를 수 없는 것도, 참으로 많은 재주와 능력을 지닌 그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한 것을 애통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봉과의 교유사에서 볼 수 있었듯, 이 만시에도 역시 벗을 아끼고 존중하는 우정이 간곡하게 배어 있다.

霽峯 高敬命(1533~1592)은 시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문인이자, 의병장으로 이름높은 인물이다. 일찍이 벼슬길에 나아가 校理의 자리에까지 올랐

52) 『孤竹詩集後序』, 『孤竹集』 참조.

53) 『松江續集』 卷1

지만, 당쟁이 격화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지내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한 인물이다.

제봉은 주로 담양 창평의 성산을 활동무대로 하여 시를 짓고 풍류생활을 즐겼다. 그가 <식영정제영> 20수씩을 지어 교유한 식영정 4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인구에 회자된 무등산 기행문 <遊瑞石錄>의 지은이가 바로 제봉이기도 하다. 한가롭게 만년을 보내던 제봉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의 金千鑑 등과 함께 6천여 명의 의병을 모아 왜구에 대항하다가, 금산의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송강과는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친하게 어울려 지냈다. 앞서 <남악에 노닐 적에 이어 지은 시[遊南嶽聯句]>에서 보았듯, 한시에서 구를 서로 나누어 지어 한 편의 시를 이루는 것을 聯句詩라고 하는데, 송강과 함께 지은 다음의 연구시에서 둘 사이의 막역한 교분을 헤아릴 수 있다. 제목은 <죽루연구(竹樓聯句)><sup>54)</sup>이며, 5언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卜夜開情飲    밤을 가려 벌이네 정겨운 술자리,  
靑燈映竹樓    죽루라 청사초롱 어리 비추네.

醉歌如有助    취중 노랫소리 흥겹기도 하여라,  
高處碧雲留    하늘이라 푸르른 구름조차 머무네.

위쪽의 두 구가 제봉이 지은 것이고, 아래쪽의 두 구가 송강이 지은 것이다. 제봉의 1·2구가 풍류 마당이 벌어진 정황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송강의 3·4구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발산되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차분한 정경과 흥겨운 분위기,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대를 이루면서, 정답이 오가고 한바탕 풍류가 펼쳐지는 어느 청명한 밤의 낭만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정경과 좌석의 분위기로부터 정감의 대조가 한결 절실

---

54) 『松江原集』 卷1

하게 드러나며, 서로 짝을 이루어 묘한 조화감을 이루고 있다. 맑고 차분한 제봉의 심성과 호방하고 격정적인 송강의 기질이 어우러져, 마치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한 곳에서 만나 평평잡한 소를 이루는 듯하다. 이같은 정감의 조화는 서로 긴밀한 교분이나 유대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송강과 제봉 사이의 정서적 교감과 친밀도를 넉넉히 헤아릴 수 있는 예라 하겠다.

白湖 林悌(1549~1587)는 호방한 기질을 가진 문인이요, 세속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탁월한 문학적 재질과 낭만적 일화들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10년 동안 벼슬살이를 했으나, 벼슬살이 기간 내내 휘몰아친 당쟁의 변화무쌍한 현실을 용납하기 어려운 성격이었기에, 그 자신 관직생활에 별다른 의의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백호는 관직생활에 대한 환멸과 실의로 유람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술한 일화를 남겼다. 세간에서는 그를 奇人이라고까지 하였으며, 법도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기에, 글은 취하되 사람은 사귀기 꺼려했다고도 한다. 칼과 피리를 좋아했고, 방랑하며 술과 여인과 친구를 사귀었다. 40살을 채 넘기지 못한 생애를 살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 간 시대의 풍류인이 바로 백호였다. 그가 西道兵馬使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 시조 한 수를 짓고 제사지냈다가, 임지에 부임하기도 전에 파직당한 일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또 남녀의 정을 속되지 않게 노래한 기생 寒雨와 주고 받은 시조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이같은 백호의 품성과 기질이 송강과 어울렸을 것은 당연하다. 나이는 송강이 13살이나 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나이 차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품성과 기질이 상통하는 바에야 10년 남짓한 나이야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別林子順悌作<sup>55)</sup>> <자순 임제와 이별하고 짓다>

55) 『松江原集』 卷1

曉起覓君君不在	새벽녘에 일어나 임 찾으니 임은 없고,
長河雲氣接頭流	은하수 구름 기운 두류산에 닿았구려.
也日竹林須見訪	다른 날 죽림으로 찾아줄 때면,
濁醪吾與老妻謀	아내 시켜 막걸리 마련하겠네.

7언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순’은 임제의 字다.

홀쩍 떠나간 임제와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 ‘두류산’(지리산)으로 방향을 잡아 떠났는지, 그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다시 마주보고 재회의 기쁨을 나눌 날이 오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리하여 그가 이곳 창평 ‘죽림’에 들르는 날, 술잔 나누며 그 동안 겪고 지내 온 얘기들로 회포를 풀리라 기약한다. 특히 ‘아내 시켜 막걸리 마련하겠네.’라는 마지막 구에서, 그들 사이의 텅텅한 우정과 정감어린 분위기를 십분 느낄 수 있다.

<戲贈林子順梯><sup>56)</sup> <지순 임제에게 장난삼아 주다>

百年長劔倚孤城	백 년을 긴 칼 차고 외로운 성에 기대어,
酒倒南溟鱗斫鯨	바다로 술을 삼고 고래 잡아 회를 치잖더니,
身世獨憐如倦翼	가련한 이 내 신세 날개 지친 새와 같아,
謀生不過一枝營	사는 것 기껏해야 한 가지에 깃을 드리웠네.

이 작품 역시 7언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호방·활달한 기개로 웅대한 포부를 펼치고자 다짐했건만, 겨우 ‘한 가지’에 깃을 드리운 ‘날개 지친 새’ 처럼 가련한 신세임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첫 구와 둘째 구, ‘백 년을 긴 칼 차고 외로운 성에 기대어 / 바다로 술을 삼고 고래 잡아 회를 치잖더니’의 호방·활달한 기개는 송강 자신이나 백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호는 자유분방한 삶을 통해 이를 다른 쪽에서 이루었을 성실은 반면, 송강 자신은 경국제민의 뜻을 버리지 못해

56) 『松江續集』 卷1

연연해하다 보니, 예의 ‘한 가지’에 깃을 드리운 ‘날개 지친 새’ 같은 신세가 되지 않았나 탄식하는 것이다. 송강이 이런 일들이 정작 이렇지만은 않을 터지만, 특히 백호를 염두에 둔 것이기에 그 심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호와 자신의 삶을 은연중 대조하는 송강의 심리가 미묘하게 얽혀 있는 작품이다.

송강의 호방·활달한 기질이나 낭만적 정서와 풍류 역시 남다른 바 있지만, 백호와의 교유를 통해 그 틀이 더욱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와 마주하고 정담을 나눌 때면 송강은 훨씬 더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기분을 느꼈을 터기 때문이다. 그가 백호와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거나,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재회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은 각별한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송강과 백호는 한 마디로 정서를 공유한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역한 교분을 나눈 것은 그래서 더욱 정겹고 아름답다.

그런가 하면, 송강이 남긴 동시대 문인들과의 교유시 가운데에는 그와 특별한 교분이 있었을 성싶지 않은 인물과의 교유시가 일화와 함께 전해 내려 오기도 한다. 그의 스승뻘되는 退溪 李滉(1501~1570)에 결부된 교유시가 바로 그것이다.

송강의 나이 34살 때인 1569년(선조 2년) 초, 퇴계가 휴가를 얻어 영남의 향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한강에 나와 퇴계를 송별했다. 송강은 때마침 일이 있어서 뒤늦게 쫓아가니, 배를 띄워 이미 강물 위에 있었다. 그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다음과 같은 5언절구 한 수를 퇴계에게 지어 보낸다.<sup>57)</sup>

<別退陶先生><sup>58)</sup> <도산의 퇴계 선생과 작별하며>

追到廣陵上      뒤 쫓아 광나루에 당도해 보니,

57) 『年譜』, 『松江別集』 卷2 참조.

58) 『松江原集』 卷1

仙舟已杳冥      신선 탄 배 이미 떠나 아득하구려.  
 秋風滿江思      가을 바람에 그리운 생각 온 강에 가득차서,  
 斜日獨登亭      지는 해 바라보며 외로이 정자에 오르네.

이 작품은 후대의 여러 문헌들<sup>59)</sup>에서도 ‘시에 조예가 깊은 자가 아니면 능히 내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는 평과 함께 크게 칭송되었다. 특히 셋째 구 ‘가을 바람에 그리운 생각 온 강에 가득 차서’와, 넷째 구 ‘지는 해 바라보며 외로이 정자에 오르네.’에서는, 작별의 아쉬운 정을 간곡하게 담아 내고 있다. 그 연연한 정이 어구들 사이에서 점점이 묻어나는 절창임을 실감케 한다.

마음에 담아 두고 있던 이를 떠나 보내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에 느끼는 ‘가을 강바람’과,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배경으로 정자에 오르는 시인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에 잡힐듯 선하다.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그 시공 속에 놓여,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움’에 젖어드는 느낌을 갖게 한다. 퇴계는 곧 화답하여 시를 부채에 쓰고, 송강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조정에서 함께 국사를 논하고 마음을 주고 받을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송강은 평소 퇴계를 존경하였다. 퇴계 또한 송강을 예사 벼슬아치로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퇴계는 송강을 가리켜 옛 諫臣, 즉 ‘임금의 잘못을 직언으로 간하는 신하’의 풍모가 있다고 호평한 바 있다.<sup>60)</sup> 군자의 품성은 군자가 알아보는 예에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위의 교유시에는 송강의 퇴계에 대한 존경심과 흠모의 정이 잘 배어 있다 하겠다.

이렇듯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에 있어서도 송강은 상대와의 긴밀한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절실한 감정을 펴 내는 면이 두드러진다. 특히 그와 기질이나 정서 면에서 공감대가 큰 문인들과의 교유 및 교유시에는, 서로 간에 쌓아온 남다른 교분과 두터운 情誼가 행간에 절절히 배어 있다. 송강이

59) 柳成龍, 『雜記』, 『雲岩雜錄』; 李睟光, 『東詩條』, 『芝峯類說』과 같은 문헌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60) 又退溪稿中有記 鄭某有古諫臣風云云: 『年譜』, 『松江別集』卷2

교유시를 남긴 문인들은 여기에서 거론한 인물들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의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품성과 기질,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아간 友人이자 생활인으로서의 인간미를 위의 문인들과의 교유 시편들에서 다채롭게 느낄 수 있다고 하겠다.

## 6. 맺음말

송강이 남긴 한시 가운데 교유시는 전체 작품수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의 층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송강의 교유시편들은 크게 스승들과의 교유와 감화를 담고 있는 작품들, 창평의 향리생활을 배경으로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들, 정치무대 동반자들과 쌓아간 유대와 정의를 주고받은 작품들, 당대 저명한 문인들과 나눈 우의와 정감이 투영된 작품들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송강이라는 우리 문학사를 빛낸 사대부 문인의 성장 과정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들과의 교유 내용이 담긴 시편들에는, 그들과의 각별한 인연과 감화가 연연한 존숭의 정과 함께 여실히 배어 있으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시적 풍격과 정조 또한 은은히 투영되어 있다. 송강의 학문과 문학은 그의 타고난 자질 탓도 있었겠지만, 당대를 풍미했던 쟁쟁한 학자요 문인들을 스승으로 섬긴 풍요로운 수학과 교유의 기반 위에서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열매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평의 향리생활을 배경으로 한 교유시편들에는, 식영정·서하당으로 대표되는 그곳 누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들과의 교분과 인간미 넘치는 유대감이 애뜻하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그곳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문학이 비롯된 터전이자 귀속처이기도 한 의식의 세계가 노래되고 있다. 송강의 문학은 특히 창평에 깃을 드리우고 지내던 시절에 더욱 비옥해지고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한

교유시편들에는 송강 평생의 정신과 정서가 깃든 마음의 고향인 사실이 잘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국제민의 사회현실에 나아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며 현실의 풍파를 헤쳐나간 이들과의 교유시편들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며 마음을 터놓고 사귀어 이들 사이의 정신적 유대감이 행간에 잘 배어 있으며, 평생의 지기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유다른 정의가 두드러진다. 품성이나 기질 면에서 원만하기보다는 강직하고 거침이 없는 송강으로서는, 평생의 지기이자 정치무대 동반자인 그들이 있었기에,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탄치 않은 벼슬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큰 위안을 얻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대 저명한 문인들과 교유한 시편들에는, 나이의 위 아래를 떠나 특히 자신과 기질이나 정서 면에서 공감대가 큰 인물들과 쌓아온 남다른 교분과 두터운 정의가 잘 나타나 있으며, 상대와의 긴밀한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절실한 감정을 퍼내는 면이 두드러진다. 송강의 학문적 식견과 문학적 자질은 이들과의 교유를 통해서도 보다 깊고 넓게 다져졌다고 하겠는데, 때로는 감각적이고 때로는 호방·활달하며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간절한 정감의 세계를 노래한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편들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아간 사대부 문인이자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다.

송강의 한시 가운데 교유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은 사실과 작품의 특징적 성격에 대해, “그의 생활폭이 그만큼 넓고 다양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것이 바로 시의 소재가 되어 많은 교유시를 낳았으니, 그의 시가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요 바로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가 되는 것이다.”·“송강의 교유시는 바로 그의 전 생애가 반영되어 나타난 생활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sup>61)</sup>라는 논의는 주목을 요한다. 송강의 교유시편 대부분이 그가 사회생활을 하며 인연을

---

61) 최태호, 앞의 『松江文學論考』, 61~72쪽.

맺은 인물들과의 교분과 정의를 다양한 일상사적 정서를 통해 詩化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송강이 헤쳐나간 삶의 역정과 생애적 궤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이는 송강의 개성에 결부된 인물됨됨이와 시적 지향의식에 말미암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 송강의 교유시편들에는 그의 품성과 기질에 바탕을 둔 인간적 풍모와 감정적 형상들이 여실히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우선 교유시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가 매사 적극적인 품성과 다정다감한 기질의 소유자였음을 잘 말해주며, 이러한 인물됨됨이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적인 풍모가 또한 역으로 것처럼 많은 교유시편들을 창작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의 교유시편들 대부분에는 그와 각별한 인연과 교분을 쌓은 이들에 대한 감정적 형상들이 절절히 배어 있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경험적 진실성에서 우러나는 표현의 긴절성과 의미의 곡진성을 언어로써 형상화하려는 그의 시적 지향의식에 말미암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송강의 교유시편들은 한 개인이 헤쳐나간 삶의 역정과 생애적 궤적을 반영하고 있는 생활시면서도, 이와 같은 개성에 결부된 인물됨됨이와 시적 지향의식으로 말미암아 읽는 이에게 보편적 공감의 세계를 열로 놓음으로써, 더욱 절실한 느낌을 갖게 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송강의 품성은 원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대체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그와 뜻이 맞거나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들과는 평생을 두고 변치 않은 친분을 유지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송강의 교유와 처세의 이면에는 당쟁이라는 당대 사회상황이 긴밀히 관여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른바 당파에 의한 정치적 이념이나 행동 노선에 따라 각기 교분을 달리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송강이라는 인물의 인물됨됨이와 그가 지향하는 가치의식에서 비롯되는 행동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래서 송강은 심성이 맑고 강직하며 의기넘치는 인물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성격이 편벽되고 화합하지 못하며 남을 잘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2)</sup>

그런 면에서 볼 때, 송강의 교유관계에도 나름의 한계는 있다. 그가 교유한 인물 개개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한 이들이라는 사실과, 거의가 호남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한 마디로 당쟁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정치상황과 사회현실이 긴밀히 관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교유한 이들 대부분이 당대 정치적 판도에 따라 진퇴를 함께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면적 사실도 간과하기 어려운 바지만, 송강이 교유한 인물들 대부분이 나라 전체를 통해 인품과 학덕, 식견과 능력, 시문이나 예술적 자질 등에 있어서 공인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송강의 한시 작품들은 그의 국문시가 작품들의 경우에서처럼 다채로운 성향을 띠고 있다. 그의 시세계를 작품의 제재적 특성과 주제적 양상에 따라 크게 일상의 감회, 연군의 정, 풍류의 흥취를 형상화한 세 부류로 나누고 할 때<sup>63)</sup>, 그의 교유시편들은 크게 보아 ‘일상의 감회’를 노래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송강 시세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연군의 정’이나 ‘풍류의 흥취’를 노래한 시편들과는 적잖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건 대부분 인정에 곡진하다는 특성만큼은 공통적으로 배어 있다는 사실과, 한 시대를 풍미한 정치인이자 詩才가 돋보이는 시인이요 감성이 풍부한 풍류인이기도 했던 그의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다채로운 모습을 그의 교유시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62) 이러한 평들에 대해서는 『松江別集』 卷2·3의 「年譜」 기록들을 참조.

6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박영주, 「송강시가의 정서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제5집(한국시가학회, 1999)을 참조.

## 참고문헌

### ■ 자료

- 奇大升, 『高峯集』  
金成遠, 『棲霞堂遺稿』  
白光勳, 『玉峯集』  
宋 純, 『企村集』  
梁應鼎, 『松川集』  
柳成龍, 『雲岩雜錄』  
李 珥, 『栗谷全書』  
李晬光, 『芝峯類說』  
林億齡, 『石川集』  
鄭 澈, 『松江全集』(原集續集別集拾遺)  
崔慶昌, 『孤竹集』  
洪萬宗, 『詩評補遺』

### ■ 저서 및 논문

- 김갑기, 『松江 鄭澈 研究』, 이우출판사, 1985.  
김진욱, 『松江 鄭澈 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박영주, 「西浦가 송강가사를 ‘我東之離騷’라고 한 것에 대하여」, 『泮橋語文研究』  
창간호, 반교어문학회, 1988.  
——, 「송강 시가의 정서적 특징」, 『韓國詩歌研究』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 『송강 정철 평전』, 중앙M&B, 1999.  
박준규, 「松江 鄭澈의 樓亭題詠攷」, 『古詩歌研究』2·3합집, 한국고시기문학회,  
1995.  
유예근, 「松江 鄭澈 文學 研究」,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이은봉, 「松江 文學의 傳記의 背景 研究」, 『松江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정익섭, 『改稿 湖南歌壇 研究』, 민문고, 1989.  
최태호,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 역락, 2000.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 A Study on Friendship Poetry of *Song Gang*

Park, Young-ju

Jeong Cheol (pen name : Song Gang, 1536~1593) is regarded one of the greatest poe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iterature. His works include four pieces of Gasa which is viewed as having the finest command of Korean in literature, more than 80 pieces of Sijo which is no less than Gasa in terms of literary merits and more than 700 pieces of Chinese poem which revealed his unique understanding of the images of life, society and nature.

This study examined his Chinese poems that have received relatively less attention than his Korean poetry,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ems that he exchanged with renowned literary men and scholars in his time. Friendship poetry in Song Gangs prime time has its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in that they allow us to look into the historical and literary circumstances of that time.

Song Gangs friendship poetry that he exchanged with prominent literary men and scholars in his time let us explore his relationships with his teachers who tremendously influenced his growing-up. The poems also imply his affection for friends with whom he associated with his heart open as well as acquaintance and honor with those whom he shared political lines with. Song Gangs friendship poetry reveals not only his inborn personality but also values and ideology that he lived for throughout his life. This study has its implications in that it brought to light the characteristic attributes of Song Gangs

literature by analyzing and examining his various works.

**Keywords** : Chinese poem, friendship poetry, relationships, affection, personality, ideology

K C I

к с і

# 新齋 崔山斗의 詩世界

白淑兒\*

## <차례>

- I. 머리말
- II. 新齋詩의 創作 背景
  - 1. 間接的인 영향
  - 2. 直接的인 영향
- III. 新齋의 詩世界
  - 1. 自然現象과의 親和的인 詩
  - 2.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認識
  - 3. 忠孝의 敎訓詩的 表現樣相
- IV. 맺음말

## I. 머리말

崔山斗(1482~1496)의 字는 景仰이요, 號는 新齋, 羅菴山人, 寵中子 등이다. 본관은 草溪로 전남 광양군 봉강면 부저리에서 漢城判尹에 贈함을 받았던 父親 漢榮과 母親 淸州韓氏와의 사이에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身骨이 빼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며 영특하여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다. 그리하여 늘 經書를 가까이 하고 성현의 삶을 법으로 받아들여 수행하기를 열심히 하였으니, 그가 지향하는 바가 일찍부터 남다른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9세 때에 벌써 <詠牛

---

\* 순천대학교

頭), <詠鳥> 등의 詩를 지었고 10세가 넘어서는 文章과 筆法이 뛰어나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여, 당시 光陽縣監이 그 소식을 듣고 文房四友를 갖추어 보내 치하하였다<sup>1)</sup>고 한다.

15세 되던 해에는 『資治通鑑綱目』 80권을 안고 석굴에 들어가 2년 동안 기거하며 이 책을 천 번이나 통독하고 해석한 후 글 문을 나왔다<sup>2)</sup>고 한다. 이 때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당시 사람의 종장으로 추앙받던 占畢齋 金宗直의 高足인 寒菴堂 金宏弼을 만난 때이기도 하다. 그는 이 때 순천 북문 근처에 유배되어 있었던 김굉필의 처소를 드나들며 학문연구를 심화<sup>2)</sup>했다. 그리고 명실공히 尹衢·柳成春과 더불어 湖南三傑로 일컬어졌으며, 己卯名賢이란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되기까지의 기틀을 잡아주는 학문적세계가 완성된 시기로 볼 수 있다.

37세 중종 14년 기묘년 9월에 司憲府 壯齡에 승직되고 이어 議政府 舍人에 올랐으나 이 해 11월 15일 홍경주, 남곤, 심정 등 勳舊勢力들의 構禍에 의한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 신진사류 8賢이 먼저 하를 입었고, 곧이어 최산두 등 23賢이 유배 또는 파직되는 화를 입게 되므로 최산두는 削奪官職되어 전남 동북현에 유배되었다.

14년 동안의 유배생활을 화순 동북에서 지내게 되는데, 최산두는 유배가 풀린 후에도 계속 동북에 머물며 많은 유림들을 배출시키고 河西 金麟厚, 石川 林億齡, 眉巖 柳希春 등의 그 시대에 쟁쟁한 학자나 문인들과 교유하며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 힘썼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신재는 호남이 문향으로서 자리매김 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 또한 출중하여 호남시단의 중추적인 인물이요, 호남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그가 남긴 작품이 戰禍로 인해 영성한 점과 후학들의 관심 소홀 및 문학인보다는 도학자로 평가되는 등의 입장 때문이라 하겠다.

1)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新齋集』, <序文>, 郎州印刷社, 1989, 24쪽.

2) 崔漢善,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11쪽.

본 연구는 新齋詩의 창작배경을 살펴본 뒤 그의 시를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그의 문학 전반에 대한 특징과 미학을 규명하고, 16세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재가 가지는 그만의 작품세계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新齋詩의 創作 背景

문학은 시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므로 그 시대를 떠나선 논할 수 없다. 아무리 개성이 뚜렷한 작가라 해도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 바, 신재 역시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편, 그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조의 격동기였던 만큼 그 시대적 배경이 작가의 세계관, 나아가 작품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작품과 정치적 관계는 따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관계는 작품이 간직한 총체적 체험의 일부이며, 정치적 의미가 작품의 전체 의미 속에 일체화 될 때 비로소 문학작품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처럼 시대적 배경이 작가의 일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현실과 관련시켜 접근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신재가 살아온 시대배경과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창작활동의 영향관계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 1. 間接的인 영향

조선왕조가 창업되면서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받아들여진 주자학은 조선

3)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文學과 歷史的 人間』(서울: 創作과批評社, 1980), 77쪽.

말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학논쟁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당시 문인들의 성향을 보면 金宗直을 필두로 하여 그의 제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어 성리학을 중히 여겼고, 그 중에서도 문장과 도학을 각기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기 시작했으며, 崔山斗는 성리학을 옹호한 쪽인 金宏弼의 제자로 당연히 성리학적 사상에 깊이 임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그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인 김굉필은 호남사람의 학맥을 전파한 인물로, 도학적 사상을 최산두에게 전수시켜 학풍을 계승·발전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호남의 巨儒로 불려지는 河西와 眉巖과 같은 유명한 제자들의 배출을 가능케 했다.

당시 중앙정계에 진출한 호남사람들의 선조들은 신왕조의 정치적 과동 때 節義를 지켰던가 혹은 초기의 정쟁에 연루되어 희생을 당한 사대부들로서 정치적 보복을 피하고자 가급적 중앙의 정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기후가 온화하고 인심이 좋으며 물산이 풍부한 호남지역을 隱遁의 장소로 적합한 곳이라 여겨 落南하여 왔다. 이렇게 入鄕한 호남사람의 도학적 학맥은 도학자 김굉필이 戊午士禍(1498) 때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다가 2년 후인 1500(연산군 6년)에 순천으로 이거되어 5년간 우거하면서 최산두를 비롯한 제자들을 배출한 데서 비롯된다.

한편, 최산두의 문학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화순 동북에서 14년간의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다. 그 곳에서 호남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知友들과 글을 주고받으며 심화된 창작활동을 펼쳤다.

신재는 시대적으로 불우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14년이란 세월을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제자들을 육성하고 창작하는 일로 시름을 달래고, 때로는 興趣하면서 경험의 확산을 통한 詩世界를 가꾸어나간 흔적을 느낄 수 있다.

## 2. 直接的인 영향

新齋는 일찍이 寒暄堂 金宏弼에게 사숙하였고, 趙光朝 등 당대 신진사류들과 道義之交를 맺는 등 그 학문적 淵源은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의 나이 18·9세 때 서울로 올라가 趙光朝, 韓忠, 金淨, 金安國, 金湜, 金正國, 朴世燾 등과 더불어 학문적 사귀어 깊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들을 일러 ‘洛中君子會’라 하였다. 그가 柳成春, 尹衢 등과 더불어 ‘湖南三傑 斗衢春’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 때를 즈음해서가 아닌가 싶다. 또한 學圃 梁彭孫의 문집에서는 崔山斗와 奇遵, 朴世燾, 梁彭孫을 일러 ‘史學士’라 일컬었다는 기록<sup>4)</sup>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經筵의 講官을 세상에서 史學士라 칭하는데 선생하고 服齋奇公遵 道源 齋朴公世燾 新齋崔公山斗가 바로 그분들이다. 모두 한 때의 학문과 행검이 있던 선비였는데 날을 번갈아 가면서 시강을 했다.

한편, 新齋는 화순 동북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늘 아버지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근심하였으며 知友인 思齋堂 安順之는 유배지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최산두는 물론이려니와 그의 부모님의 생활을 보살피주어 걱정을 없애주는 등 훌륭한 교유간계를 갖고 생활해 왔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늘 자상하였으며 가르치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이러한 그의 인품에 대한 글은 思齋堂 安順之에게 보낸 편지에 ‘책이며 울무 등의 제반 물건들을 굳이 너 너히 대어주고 또 주인의 仁賢함에 의지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나그네의 고초를 잊고 지내왔을 따름이오’<sup>5)</sup>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河西의 문집에는 그의 스승인 최산두를 위해 지은 祭文이 있는데, 여기

4) 『國譯學圃集』, 大盛出版社, 檀紀 4326, 121쪽, <家狀>.

5) 安順之, 『安思齋堂集』, 『韓國文集叢刊編纂人名錄』, 1990, <安順之에게>, 書燈薈苴諸物件君幸優之賴主之仁賢越至茲忘旅酸耳

에서 '옛날 내가 丁亥日을 받아 黔中으로 술을 싣고 가서 서로 만나면 쌓였던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 분이 안 계신 지금 이 상자를 열고 조심스레 그 분의 글을 펼쳐보고자 하니, 주위의 몇몇 친구들도 흔쾌히 호응해 주면서 궁금해 한다. 황혼의 나이에 한번 시험해보려 하면 그 분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함을 알고 있음이다.'<sup>6)</sup>라고 하여 최산두의 훌륭한 생애를 추모하고 있다.

河西는 18세 때에 신재 新齋를 만나게 되는데 기묘사회로 화순 동복에 유배된 신재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 <楚辭>와 <程朱>의 학설을 배운 사람이다. 이 때 하서는 스승 최산두로부터 학문의 깊이를 인정받았으며, 스승의 부음을 받고 달려가 道義를 다했다고 한다.

그리고 尾巖의 문집에서도 최산두를 향해 지은 제문에 '끌어주고 올려주어 날로 부지런히 단점 뺏고 장점 키워 조량말을 천리마로 내 성글고 오 활하여 그 숨씨 줄렬치만 남다르게 하여 쇠가 자석 만난 듯이 쌓인 의문 풀어 주니 무지한 몸 幸이었네'<sup>7)</sup>라고 한 부분에서 가르침에 소홀함이 없는 자상한 그의 자상하고 온유한 인간미를 느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新齋는 다양한 문인들과 가까이 하였으며, 성품 또한 자상하여 동료나 제자에게 깊은 정을 베풀어 존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년간의 유배생활 동안은 물론이며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도 화순에 머물며 여러 부류의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많은 유림들을 배출하였다. 동시에 世界와 自然現象과의 親和的인 詩와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認識, 그리고 忠孝의 教訓詩的 表現樣相 등 많은 창작활동으로 호남의 학맥을 이어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이렇듯 호남시단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훌륭한 그의 詩作品을 주제별로 나누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

6) 『新齋集』, 180쪽, <祭崔新齋先生文>, 昔余獲見丁干亥支載酒黔中相遇不疑快談千古襄篋疑披二三君子與相追隨黃昏一試賴此大醫

7) 위의 책, 192쪽.

### Ⅲ. 新齋의 詩世界

新齋는 상당 기간 동안 관직생활을 하고 유배생활을 했던 정치인이요, 문인으로 특히 화순 동북에 유배되어 은거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시작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작품들이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았다.

현재 『新齋集』에 실려있는 문학작품은 賦 1篇, 漢詩 18首, 書簡 1篇 등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의 명성이나 활동범위, 호남지역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작품량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교유인물들의 문집 등을 통하여 일실된 작품을 찾는 노력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겠다.

최산두의 詩에는 유가적 사상, 즉 성리학을 토대로 도학자적 입장에서 지향되는 세계와 자연현상과의 親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느껴오던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인식, 또한 시대적으로 격동기에 겪었던 많은 경험들로 얻어진 忠孝의 敎訓詩的 表現樣相, 끝으로 무엇보다도 그의 정신적 사상이 짙게 담겨져 있는 敘述詩의 形象美 등으로 대별된다. 대체로 그의 시편들은 자아와 세계 사이에 발생된 갈등과 조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유가적 입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충효와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도학자적 입장에서의 자연과 세계와의 조화와 절제미 등을 추구했음이 파악된다.

#### 1. 自然現象과의 親和的인 詩

여기서는 자연과의 친화적인 시들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작품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차지하며 내용면에서 자연세계의 질서, 조화, 이치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詩作品 속에 형상화된 자연미와, 인간과 세계와의 결합 양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다음의 <題勿染亭><sup>8)</sup>에서는 자연현상과의 비유에서 詩的 참신성과 기발함을 느낄 수 있다.

江含白玉窺魚鱉      강이 백옥을 머금으니 백로는 고기를 엿보고  
山吐黃金進蝶鷺      산이 석양을 토하니 피꼬리가 나비인줄 알고 쫓는다

이는 앞의 두 구를 잃어버린 詩이지만, 勿染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淸靜한 세계다. 이것을 마주한 강과 산, 그리고 그 속에 노니는 노란 피꼬리와 나비는 그대로 한 폭의 山水畵를 연상케 한다. 더욱이 ‘강이 백옥을 머금으니 백로는 고기를 엿본다’라고 한 표현과 ‘산이 석양을 토하니 피꼬리가 나비인줄 알고 쫓는다’라고 한 비유는 절묘하며 기발하다. 이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시적 구성과 절묘한 표현을 통해 俗態를 벗은 淸淨勿染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고 있다. 또한 이 시의 上下句缺 부분의 표현은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도학자로서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현상에 빗대어 이어진 듯 하다.

다음은 최산두가 8세 때에 지은 <詠牛頭><sup>9)</sup>를 살펴보았다.

爾從麟借尾      소야 너는 麒麟에서 꼬리를 빌리고  
炎帝與其頭      炎帝가 그 머리를 주었구나  
地關中寅子      땅은 寅時와 子時 사이에 열리고  
商正間夏周      商나라 正月은 하나라 주나라 사이로 하였더라  
夜奔燕將劫      밤중에 敵陣을 돌진하니 燕나라 장수가 겁을 내고  
春喘漢相憂      봄날에 숨 헐떡이니 漢나라 宰相이 걱정하는구나  
未賴齊王易      齊宣王이 羊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다면  
煙郊牧笛收      지금쯤 煙郊에서는 牧笛이 사라졌으리라

이 詩는 儒學의 경전과 중국 역사상의 사실들을 원용하여 시상화하였는데,

8) 『新齋集』, <題勿染亭>

9) 위의 책, <詠牛頭>

특히 『孟子』 〈梁惠王〉 章을 읽고 느낀 바를 시로써 형상화한 것이다. 소의 형상이 사람의 몸을 하고 머리는 소의 머리와 같았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神農氏라고 일컬었다<sup>10)</sup>는 中國 古代 전설상 帝王을 들어 ‘齊宣王이 양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표현하였다.

이 시에서는 性理學에서 宇宙의 生成을 說明하면서 ‘하늘은 子時에 열리고, 땅은 丑時에 열렸으며, 사람은 寅時에 났다’고 한데서 ‘地闢中寅子’라는 구절을 따와 ‘땅이 丑시에 열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소가 땅을 연 靈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최산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中國 齊나라 장수 田單이 燕나라와의 싸움에서, 천여 마리의 소에다 붉은 비단옷을 입히고 불을 붙여서 일제히 연 나라 진영으로 내몰아 꼬리에 불이 붙어 미친 듯이 날뛰는 성난소로 하여금 연나라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아 殺傷케 했던 故事와, 齊나라의 宣王이 소가 鑿鐘<sup>11)</sup>에 쓰일 祭物로 몸을 떨면서 죄 없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애처롭게 여겨 소를 놓아주고 대신 羊으로 바꾸어 쓰도록 한 故事를 원용하여 시상을 일으켰다. 소의 위대함이 鑿鐘하는데 쓰여 결국 소가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제선왕이 소의 곡송한 모습을 보고 양으로 바꾸라고 하여 간신히 멸종의 위기를 면했다고 하면서 그 속에 많은 내용을 함축시켰다.

최산두는 이미 조선조 사림들의 자연세계의 인식에 대한 유형인 以景入道의 성향으로 작품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연세계의 調和와 秩序와 理致를 體得하는 探理的 性向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題丑川亭><sup>12)</sup>은 최산두가 유배생활을 했던 동북에 있는 丑川亭을 노래한 것으로 上下句가 빠져 있다.

川上亭名曾揭丑 ‘川’위의 정자 이름에 ‘丑’자를 걸었으니

10) 위의 책, 84쪽.

11) 종이 새로 만들어지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새 종의 갈라진 틈을 바르던 일종의 종교의식.

12) 위의 책, <題丑川亭>

人間離別自生寅 인간 이별은 절로 寅時에서 생기겠네

이 詩에서 땅이 丑에서 열린다는 말은 ‘地開於丑’에서 따온 표현이며, ‘인간 이별이 寅에서 생기는 것’이란 말은 ‘人生於寅’에서 따온 표현이다. 이는 성리학에서 宇宙의 生成을 설명하면서 쓰이는 말이다. 또한, 이 詩의 제목을 <丑川亭>이라고 한 데에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현존에 보다 가깝게 접근시키려 함을 느낄 수 있다.

최산두의 詩는 道學者의 딱딱한 理念의 벽을 느낄 수 없는 순수한 감성을 드러낸다. 이 詩를 보면 비록 상하구가 빠져 있어 詩다운 면모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의 생애가 불우하지 않았던들 이와 같은 詩들은 더욱 격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고, 변뜩이는 靈感은 後學들에게 소중한 재산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모습은 다음의 <天子菴遊觀><sup>13)</sup>에서도 볼 수 있다.

同來白髮好風情	같이 온 늙은이 풍채도 좋을시고
筇履斜陽氣太清	지팡이 짚었다만 석양빛 같이 깨끗하구나
何處靑菴云別界	속세 떠난 靑菴은 어느 곳에 있는가
穿林故向暮鍾聲	숲을 헤쳐가며 저녁 종소릴 향해 걷는다

천자암을 보기 위하여 함께 동행한 백발이 성성한, 그렇지만 풍채가 당당한 인물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천자암’이 상징하는 것과 ‘백발’이 뜻하는 바를 음미해 보면 시인의 뜻함이 무엇인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白髮翁’은 己卯名賢을 빗대어 士林들의 불굴의 표상으로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의 진실을 지키려는 굳은 절개를, 그리고 청초하고 고고한 자세로 永遠性을 지향하는 自然의 세계를 士林에 빗대어 描寫하고 있다. 이는 自然景物을 통하여 性情을 도모하고 自然의 이치를 터득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3) 위의 책, <天子菴遊觀>

사람이 겪는 세상의 많은 苦痛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음 처럼 힘든 일은 없다. 삶과 죽음의 억울한 厄咎 닮은 당시의 정치현실이고 보니 그도 또한 사랑하는 知友 들과 헤어져 동복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고, 자신의 인간적 한계와 고통을 맛보는 순간에 자연을 빗대어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최산두의 개인적인 고독과 괴로움의 이면 에 질게 깔린 진실한 그리고 순수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다음 <司馬宴<sup>14)</sup>>은 자연과의 조화미가 한층 더 表出 되고 있는 詩로 河西의 ‘술 대하면 거나하고’<sup>15)</sup>라고 했던 신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되새기게 한다.

桑甚青红柿葉肥	뽕나무는 푸르고 오디는 붉고 감잎은 두툼하니
小園風物屬芳菲	작은 동산에 풍물들이 꽃답고 향기롭네
欲知司馬樽中盡	司馬所 술동이 빈 까닭을 알려거든
看取先生醉後歸	선생이 취해 돌아가는 모습에서 찾아보소

위의 詩는 『大東野乘』 所載 「海東雜錄」에 실려 있다. 그 詩作 유래를 보면 “일찍이 本縣 司馬所<sup>16)</sup>에 연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최산두가 먼지가 보았더니 다른 司馬들은 아직 모이지 않아 거기 마련해 둔 술을 다 마셔버리고 돌아왔다. 지키는 자가 죄를 쓸까봐 두려워하므로 그는 감나무 잎을 따서 詩를 적어 놓았다<sup>17)</sup>고 한다.

이 詩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취해서 뽕나무가 푸르고 오디가 붉으며 이파리들이 두툼하듯 자신도 그렇게 되고픈 심정을 노래하여 자연현상의 멋을 진하

14) 위의 책, <司馬宴>

15) 金麟厚, 『河西全集』 下, (株)寶晉齋, 1988, 99쪽~105쪽, <祭崔新齋文> 揚行草羽毛縹緗 豪橫縱酒跌宕闊某彎強發勁無適非宜

16) 위의 책, 88쪽. 사마소는 지방의 생원, 진사들의 사설기관으로 지방의 官衙 도처에다 별도로 건물을 갖추어 여기에 모여 지방정사를 논의하고 간섭하던 곳인데 폐해가 많아 조선 선조 때 혁파 시켰다.

17) 이동환, 「海東雜錄」, <崔山斗傳>, 『大東野乘』 所載, 財團法人民族文化推進會, 1971, 76~77쪽.

게 묘사했다.

일찍이 文人으로 호남사람의 맥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 河西 金麟厚의 문집에는 이러한 최산두의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시인다운 멋을 증명해 주는 글귀가 실려 있다. “생각하옵건대 靈은 높은 산 큰 龍虎의 모습이요, 늘씬한 몸 좋은 수염 神骨이 傀奇했네. 물들세라 닦일세라 웅장하고 호방하여 가슴속은 바람과 달 문장은 三峽을 쏘고 氣蓋는 세상 뒤엎네”<sup>18)</sup>라는 글을 보면, 그에게서 우리나라는 모든 성정이 자연현상과 현존하는 속에서 詩文 속에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그의 詩에서는 넉넉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자연의 정취를 맘껏 펼치고 있어 詩的 분위기를 한층 느낄 수 있는 그의 詩 <炊煙><sup>19)</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江南朝暮帶昇平	江南땅 아침 저녁이면 昇平을 띠고
細逐村娥若有情	촌 아낙 따르는 모양 정이 있는 듯 하구나
時時隨雨前山渡	때때로 비를 따라 앞산을 건널 때면
洗出塵埃氣太清	물은 티끌 씻어주어 기운이 더욱 맑구나

위의 詩에서는 자연과 인간사가 아울러 조화를 이루고 있는 敍景的 繪畫美를 표현하고 있다. 밥을 짓는 연기가 촌색시의 치맛자락을 싸고도는 모습이나 산자락을 타고 넘는 모습이 實景처럼 묘사되어 천지운행의 질서에 인간의 現存이 주는 조화로운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 또한 詩의 분위기가 대체로 평온하면서도 정겨운 景中情의 융합수법으로 시인의 意境이 함축되어 깊은 여운의 맛을 느끼게 한다.

아침저녁으로 일렁이는 농촌의 진경을 시인의 여유 있는 시각으로 설정한 후 산자락을 타고 넘을 때엔 塵埃까지도 씻겨낸다는 표현으로써 자연과 인간

18) 金麟厚, 『河西全集』 下, (주)보진제, 1988, 新齋崔先生地靈惟靈高山 大壑龍虎之姿長身美髯神骨魁奇

19) 『新齋集』, <炊煙>

의 천지운행의 질서를 조화롭게 합치시켜 한 편의 詩로 읊었다.

朝夕으로 느껴지는 눈앞에 펼쳐진 촌락의 풍경을 하나 하나 풀어서 서술하자면 한없이 길어지겠지만, 그는 단지 몇 개의 구절로 능숙하게 함축시킨 능력이 돋보이는데 그 아름다움을 자연스런 율조와 살아있는 리듬감으로 요약해 내는 솜씨 또한 일품이다. 그러면서도 촌락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멋진 勝景을 모두 묘사해 낼 수 있음은 그의 詩 창작성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짐작케 한다.

다음의 <漁網><sup>20)</sup>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현존이 융화하는 내용으로 詩想을 펼치고 있다.

鱗結義繩數可深	伏羲氏 <sup>21)</sup> 의리의 줄로 촘촘히 엮은 그물은
長江水盡積如林	長江 너른 물에 숲처럼 뻗어 들어섰네
設網以法無遺細	법으로 설치한 그물 빠져나갈 수 없나니
雖有吞舟不敢侵	배를 삼킬 大魚라도 감히 범치 못하겠네

위의 詩는 표면적으로 天理를 유지함으로써 사사로운 욕망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겠다는 성리학적 心性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옹지 않은 구속으로 여기고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연의 현상과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 서까지 私利私慾을 채우겠다는 인간사를 꼬집어 자연의 자연스런 질서 회복과 그에 대한 조화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최산두는 자연현상을 비롯해 비판적 사회의식을 표명하고자 했으며 당대의 정치현실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읊은 경우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士林派가 국정에 참여하자 勳舊派가 질시하고 모순하여 축출한 뒤 민정이 편하

20) 위의 책, <漁網>

21) 위의 책, 93쪽. 中國古代傳說上の 帝王, 三星五帝의 首位를 차지하여 8卦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국방에 대한 불만, 훈구파에 대한 적대의식과 사회이후의 稅政에 대한 답답함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附柳眉巖次韻><sup>22)</sup>은 眉巖이 신재의 시에 차운한 詩이다.

結得山燈水淺深	山燈을 매달으니 물빛이 환하고
風網星罟向楓林	바람일고 별빛 쏘는데 단풍 숲을 향하네
漁人乘月長江舉	漁夫들 달빛을 타고 長江에 배 띄우니
宿鷺驚飛去癩侵	잠자던 해오라기는 놀라 날고 수달은 도망하네

위는 마치 어촌의 한 때를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한 서정시로서 한가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가을날의 청량함과 상쾌함을 더해 주는 작품이다.

작품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이 묘사된 풍경화 같은데, 그 깔끔함이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이 詩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묘사와 아울러 ‘어부들은 달빛을 타고 長江에 배 띄우니’라는 구절에서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선 詩에서도 보았듯이, 최산두는 自然美라는 실체를 常道具現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민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詩, 시인의 정서와 생각이 자연현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詩世界를 구축했다.

다음 <更登天子菴><sup>23)</sup>은 초가을 山寺의 情景과 고요, 그리고 脫俗한 분위기를 그림처럼 잔잔하게 펼쳐며 묘사하고 있다.

菴云天子在高峯	天子라 하는 菴子가 높은 봉우리에 있으니
客帶江南故舊從	나그네는 강남 옛친구 따라 나서네
山意迎秋新染色	산은 가을을 맞아 물들려하고
鍾聲待曉默爲容	종소리는 새벽을 기다리느라 잠잠하네
無緣鶴髮閒眠枕	인연 없는 鶴髮은 한가로이 잠들고

22) 위의 책, <附柳眉巖次韻>

23) 위의 책, <更登天子菴>

自抱琴情靜聽松	거문고 안은 정으로 솔바람 소리를 듣네
風月清澹然後景	風月 이 맑은 뒤에 경치가 더욱 아름다워
虛勞遊杖劈千重	고생도 모르고 천 겹 벽을 오르네

작자는 이 작품에서 情景의 融會,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있는 융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산은 가을을 맞아 물들려하고 종소리는 새벽을 기다리느라 잠잠하네’라고 한데서 시인 자신의 유배생활을 조화로운 자연과 대비시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天子는 임금 즉 군왕을, 백발노옹은 사회로 인해 은둔한 士林들을 비유하고 있으며 종소리는 당시 정치적인 소용돌이의 상징으로 표현한 듯 싶다. 이는 실제의 자연을 통하여 성정을 陶冶하고 청렴한 기상과 고귀한 기상, 나아가 진실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시인 자신의 정신세계를 형상화 한 것이다.

최산두는 ‘고생도 모르고 천 겹 벽을 오르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미 한번 둘러진 임금의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뜻을 담아 초연히 俗世를 벗어나 청명한 기상을 지키려는 순수한 정신과 더불어 인간사의 고뇌를 고발하고 있다.

끝으로 <初秋會天子菴><sup>24)</sup>에 나타난 자연과의 조화를 염원한 시인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白髮青年匣一樓	백발과 청년이 누각에 둘러앉아
酒遊別境興難收	술잔을 나누는 자리가 한없이 즐거워라
兼嘗鷄麵嫌清佛	닭고기, 국수 다 맛보면 부처에게 혐의가 될까
宜啖菘肴送遠邱	의당 채소를 먹어야 遠邱에 보내지겠지
樹盡影斜紅日冑	나무 그림자 기울더니 해는 서산에 지고
峯皆塵滌白雲浮	봉우리마다 티끌 씻느라고 흰 구름은 떠도네
詩人遊浪逍遙跡	詩人 이 유랑하며 노닐던 흔적들
起把歸筇後約留	다시 막대 짚고 돌아가며 훗날을 기약하네

24) 위의 책, <初秋會天子菴>

위 詩는 酒興이 宴席의 情趣로 한껏 펼쳐져 있으며 자연미를 融會하면서 그 融和을 통하여 인륜의 도리를 나타내고 있다. ‘술잔을 나누는 자리가 한없이 즐거워 닭고기며 국수 다 맛보면 부처에게 혐의가 될까’라고 하여 내면 성정의 본연의 고요를 지켜 현존의 인륜의 도리를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봉우리마다 티끌 씻느라고 흰구름은 들 떠도네’라는 표현은 최산두의 초연한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詩人이 流浪하며 노닐던 흔적은 다시 막대 짚고 돌아가며 훗날을 기약하네’ 하는 대목 속에는 현실을 떨쳐버릴 수는 없되 한 잔 술과 자연 속에 묻혀있는 삶을 살수밖에 없는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허전한 뒤끝을 감출 길 없는 시인의 속마음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어떤 곳에서도 충족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시인의 內面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新齋의 자연과의 친화적인 詩에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풍류, 이것은 곧 시인자신의 가슴속에 시적 흥취를 나아내게 하는 좋은 매개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화로운 자연을 吟味하면서 시대의 倫理와 늘 변하지 않는 인간의 道理와의 조화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16년이란 긴 세월의 유배생활에서 얻어진 그의 淸明한 性情이 자연 현상과 맞물리면서 詩文 속에 자연히 표현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연을 빗대어 표현한 풍자적인 시선까지 섞어 놓을 정도로 그의 詩에서는 넉넉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

## 2.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認識

삶이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지만 사람의 사상과 의식은 환경과 연령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사람을 만나거나 서책을 통하여 느끼는 다른 환경은 일종의 충격으로 와 닿기 마련이다. 추사와 다산의 만남, 초의 선사와 다산의 만남 등이 그러하거나 신재의 경우에도 한훤당, 하서 등과의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적 개안과 삶에의 희망을 얻는다.

한편, 최산두가 교제를 나누었던 知友들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文集이 失傳되어 現傳하는 작품수도 적을 뿐 아니라, 교제의 범위도 명확히 알 수 없다. 우연히 한 번 만나 시를 지어 주고 헤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安順之의 문집에 보이는 그가 보낸 서신을 보면 ‘그동안 君이 松廣佛紙를 보내준 것이 무려 오백 여권이었는데 다만 두 책만 나누어 보냈으니 본래의 바람을 너무 크게 저바렸소이다.’<sup>25)</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知友들과 나누는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문학작품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전하는 문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그가 유배생활을 했던 전남 동북 화순에서 지은 작품들이다.

다음 <與柳眉巖同宴>(80)의 내용을 보면 제자인 柳眉巖과 酒興이 도도한 宴席의 情趣를 한껏 펼쳐 보이고 있다.

白髮文章放醉歌	백발 문장이 醉歌를 부른 것은
蓋由宴席酒盃多	宴席에 술잔이 분주했기 때문이라
雲樹深情猶未了	雲樹처럼 깊은 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落花啼鳥夕陽阿	저물녘에 꽃은 지고 새만 지저귀네

위에서 살펴본 바로, 한 詩人의 현실에 나타나는 葛藤은 自然生活에서 도 그대로 표출되어 문학으로 흐른다. 시비다툼을 하는 험악한 세상을 逸脫한 충족감에 늙은 문장의 체면도 아랑곳없이 술에 취한다. 그리고 現世를 逸脫하여 영원히 塵累를 술이란 冷徹한 지적 정신과 대립적인 陶醉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몸은 늙고 名譽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젊은 날에 못지않다는 것이다.

또한, 弟子를 만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술을 마시지만 잠도 오지 않는다는 表現으로 보아, 젊은 사람의 醉歌는 자연스럽지 만 늙은 문장의 지나친 飲酒는 단순히 현실생활의 逃避로서 혹은 아름다움의 피상적

25) 安順之, 앞의 책, <與安順之>, 君輪松廣佛紙無慮五百餘卷但分兩冊殊失本望

인 感想에 그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재에게 있어 眉巖은 사제기간이면서도 아끼는 知友로 서로의 흥취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허물없는 사이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털어놓아 위안을 얻고 있다. 또한 그런 그의 모습은 친교의 정담을 한층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附柳眉巖次韻><sup>26)</sup>에서도 사제간의 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有其嘯也有其歌	한 사람이 읊조리면 또 한 사람 노래하니
迎送情懷日夕多	보내고 맞는 정이 날로 더욱 두텁구나
未把東西分去袂	멀리 떠나가는 소매 붙들지 못하니
他年花發樂遊阿	훗날 꽃피거든 다시 찾아와 놀아보세

위 詩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산두와 유희춘의 師弟간의 情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잘 알 수 있다. 기다림이란 일반적으로 지루하고 안타까운 것이다. 對話를 나누고 그 동안의 그리웠던 情을 나누는 만남은 人間事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東西로 멀리 떠나가는 師弟間的 아쉬움을 ‘소매를 붙잡지 못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두터운 情을 나타내고 있다.

최산두와 유희춘은 또한 서로 그림고 정겨운 心情이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師弟間的 정이 두터워 ‘만날수록 情이 더욱 두텁다’고 표현하였고, ‘소매를 붙잡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표현으로 하여금 두터운 정을 아름다운 시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소매를 붙잡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점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는 표현은, 오래 머물기보다는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贈尹橋亭衢><sup>27)</sup>는 『大東野乘』 所載 <海東雜錄> 1卷 ‘崔山斗傳’에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이 詩는 최산두가 舍人벼슬로 있다가 同福으로 귀양을

26) 위의 책, <附柳眉巖次韻>

27) 위의 책, <贈尹橋亭衢>

가서 蘿山 아래 살면서 湖南三傑의 한사람인 橋亭 尹衢에게보낸 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江路尋春晚	봄 따라 나선 강둑 길 해가 저물어
思君步月詩	그대 생각하며 달빛에 詩를 읊는다
年年山澗曲	해마다 산모퉁이 시냇물 사이에서
隨分有生涯	분수 따라 나는 살아갈 뿐이네

湖南三傑로 이름을 떨쳤던 尹衢를 그리워한 詩인데, 봄의 길목에서 밤을 새워가며 친구 생각으로 詩를 읊고 있다. 시인의 마음과 시의 내용은 시냇물 소리에 실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가겠지만 현실의 처지, 곧 분수를 지키겠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비록 떨어져 사는 知友지만 글로나마 정담을 나누며 시름을 달래 보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鳳仙花><sup>28)</sup>에서 최산두는 세속적인 욕망을 훌훌 떨쳐버리고 있는데 단금과 적송, 봉선화는 다정한 신선세계의 표징이다.

丹禽飛下赤松從	丹禽 <sup>29)</sup> 은 내려오고 赤松 <sup>30)</sup> 은 따라가고
誤落人間今幾載	인간 세상에 잘못 내려 온지 몇 해이던가
別春富貴 <sup>31)</sup> 樂相逢	4월이면 모란과 서로 만나 和樂하고
一種名葩不妬容	한송이 <sup>32)</sup> 꽃이 되니 샘 날일이 없으랴

28) 위의 책, <鳳仙花>

29) 위의 책, 92쪽. 丹禽은 곧 丹鳥인데, 단조는 鳳凰새의 이칭이다. 이 봉황새는 경사스러움을 상징하는 상징상의 새로 몸과 날개엔 오색 빛이 찬란하고 五音에 맞는 소리를 내며, 오동나무에 깃들이고 대의 열매를 먹으며, 醴泉의 물을 마신다고 한다. 聖天子가 나타나면 이 새가 나타나는 데, 못 짐승들이 따라 모인다고 하며, 용·기린·거북과 함께 四靈物의 하나로 친다. 시에서 단금 곧 봉황은 鳳仙花의 첫 글자인 鳳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0) 위의 책, 92쪽. 赤松은 옛 선인 赤松子를 지칭하는 말로, 곧 神仙들이 사는 仙界를 뜻한다. 따라서 이 赤松 곧 仙界는 鳳仙花 가운데 글자인 仙자를 비유한 것이다.

31) 위의 책. 牡丹을 부귀화라 이르는데, 周敦頤의 「愛蓮說」 가운데 ‘牡丹은 꽃 중의 부귀한 꽃이다(牡丹花之富貴者也)’한 표현이 보인다.

32) 위의 책, 92쪽. 원문의 葩(꽃봉오리)는 곧 봉선화의 끝 글자인 花자를 비유한 표현, 따

丹禽은 丹鳥 곧 鳳凰의 이칭이며 봉선화의 첫 글자인 鳳자를 말한 것이다. 또 赤松은 옛 仙人赤松子를 말함이니, 곧 神仙들이 산다는 세계를 비유한 말로 봉선화의 가운데 글자인 仙자를 말한 것이며, 한 송이 꽃은 끝 글자인 花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丹禽은 내려오고 赤松은 따라가고 한송이 꽃이 피니’는 鳳仙花의 글자를 풀어 그 由來를 전설처럼 꾸며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비겨본 絶妙한 비유인 것이다.

그가 비록 草野에 묻혀 있지만 人間事에 미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世俗의 慾望을 많이 떨쳐 버린 상태이지만 아직 世俗人으로 ‘4월이면 모란과 서로 만나 화락하네’라는 구절에서 知友들과도 다시 만나 세속적인 욕망이라 하더라도 아름답게 昇華된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를 희망하는 詩心을 비추이고 있다.

또한 <輓安思齋堂> 二首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名聲藉甚冠群倫	명성이 높기로는 同輩 중에서 으뜸이지만
自愧孤蹤廁後塵	외로운 자취는 뒷전 티끌이라고 스스로 부끄러워했네
學行文章敢同日	학행과 문장은 감히 누가 따르리오
悲涼毀謗卽分身	슬픔과 훼방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오
青年地下君猶逝	청년인 그대가 지하로 갔으니
白髮人間我孰親	백발인 나는 인간 세상에서 누구와 벗할꼬
花鳥滿林春似海	꽃과 새들 가득한 숲 봄이 바다 같은데
一樽何計笑談新	술독 마주하며 談笑할 날을 언제나 기약할까 <sup>33)</sup>
早從師友便尋依	일찍이 師友로 따르며 서로 의지했더니
學行淵源世所推	학행의 연원은 세상이 推重하였네
紅紙題名連九葉	붉은 종이에 쓰인 이름은 9년을 이어왔고
丹心許國曠當時	속마음을 나라에 바쳐 당시에 빛났더라
鶴盤遠勢疑橫漢	학이 노는 모습은 은하를 건너는가 싶은데
蘭謝芳心竟怨誰	난초가 향기를 그쳤다고 마침내 누굴 원망할까

라서 이 詩의 ‘단금은 내려오고 적송은 따라가고 한송이 꽃이 피니’라고 한 구절은 봉선화의 글자를 풀어 쓴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3) 위의 책, <輓安思齋堂> 첫째 수.

一士邦榮亦難得    나라를 빛낸 선비는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니  
悲傷非獨爲吾和    슬퍼하는 것은 나의 감정만이 아니리라<sup>34)</sup>

위 詩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交友인 安順之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작품이다. 죽음에 대한 認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산두는 知友의 죽음에 대해 이별의 슬픔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安順之의 죽음을 대하고 쓴 二首의 詩는 이상현실의 단절과도 연결되는 듯하다. ‘꽃과 새들 가득한 숲이 바다와도 같은데’ 이 아름다운 현실을 뒤로 한 채 현실에서 멀어져 버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시에서 읊고 있다.

安順之는 官職에 있는 동안 자신의 경륜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政敵들과 많은 葛藤을 겪어야만 했고,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落鄉의 길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流配地에서 窮乏하게 살아가는 知友인 최산두를 위하여 文房四友며 主食으로 많은 위안을 주었다.

아래 두 번째 詩의 내용을 볼 때에 두 知友는 여러 벗 중에서도 애뜻한 友情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이며 燈·울무 등의 제반 물건들은 君이 넉넉히 대어주고 또 주인의 仁賢함에 의지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나그네의 고초를 잊고 지내왔을 따름이오”<sup>35)</sup> 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허물없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정을 나누던 知友의 죽음은 최산두에게 있어 한없는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했을 것이다.

두 번째 시에서 ‘나라를 빛낸 선비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니 슬퍼하는 것은 나의 감정만이 아니다’라고 하여 知友의 죽음을 애써 위로하고, 安順之의 죽음은 곧 나라의 슬픔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산두의 交遊詩에서는 사제지간의 허물없는 정과 친구간의 의리를 통해 나타난 그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도리와 인륜을 중시 여겨온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그의 생애의 전반에 있어 경험

34) 위의 책, <輓安思齋堂> 둘째 수.

35) 安順之, 앞의 책, <與安順之(三)>. 書燈薏苡諸物件君幸優之賴主之仁賢越至茲忘.

했던 훌륭한 교유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단정하고 엄격한 도학자였지만 지우와 문하생들에게 때로는 인자한 스승으로서 때로는 다정한 벗으로서 茫然之交를 맺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시편에서 두루 발견되었으며, 그의 인간미가 새삼 각박한 현세와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그의 시에 나타난 진솔한 삶의 인식은 학자로서의 신념과는 다른 또 하나의 그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 3. 忠孝의 敎訓詩的 表現樣相

朝鮮朝 士大夫 文學의 중요한 내용적 특성의 하나는 忠臣戀主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國家와 임금에 대한 忠은 孝와 함께 士大夫들의 가장 으뜸가는 德目이었다. 『說文解字』에 따르면, ‘忠은 敬이며, 마음을 다하는 것을 忠이라 한다(忠敬也 盡心曰忠)’ 그러므로 이 忠은 자신의 中인 精神을 충실하게 해서 行動하는 성실의 의미를 지닌다.

個人보다는 國家나 君主를 우선시하는 儒家 思想에서는 忠의 이러한 의미는 보다 확대되어 자신을 犧牲하고 國家나 君主를 위해 노력하는 忠義의 德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儒家思想이 어느 정도 확립된 泰·漢 이후의 國家체제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忠이 孝와 함께 가장 중요한 德목이 된 것이다.

최산두의 忠孝詩의 특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도리를 근본으로 새기며, 인간사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로 충효를 최고로 주장하되 큰 목소리가 아닌 잔잔한 미풍처럼 그윽하게 은근한 화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곧, 생경한 구호나 일방적인 교술이 아니라 마치 방안에 둔 유자 향처럼 숨어서 소리 내는 듯 暗香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다음 글의 내용은 최산두가 부모에게 行하는 孝에 대한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한다.

앞내에서 붉은 게며 은빛으로 놀다 파닥이는 고기들을 많이 잡거들랑 우리

늙으신 어머님께도 좀 보내 주오, 연세가 많아 살날이 많지 않으시도록 反哺의  
 孝를 이룰 길 없으니 하루가 天日 보다도 더욱 길기만 하오.<sup>36)</sup>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질서도 없이 권력이 橫行하는 시대에, 양심적인  
 젊은 지식인으로서 堂堂하게 스스로의 몸을 던져 자신의 삶에 대한의지를 분  
 명히 하였음에도, 부모에 대한 反哺의 효를 못 다함은 심히 어렵고 고통스러  
 운 일이다. 이에 최산두는 충효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詩로도 표현해 자신을  
 더욱 강인하게 표상시켰다.

그러므로 최산두의 詩文學에 나타난 또 하나의 美學은 곧 고고한 선비 본  
 연의 자세에서 그윽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일방적인 주장, 또는  
 주입이 될 주제의식을 자신의 내면에서 완전히 육화시켜 성숙한 道의 경지에  
 이르는 도학자답게 암향의 애민과 충효의식을 우리는 신재를 통하여 맛보게 된  
 다.

다음 <詠鳥><sup>37)</sup>는 自然美의 永遠性을 吟味하면서 人間의 도리를 제시하는  
 성향을 보여 주는 作品이다.

雌雄莫辨孝爲名	암수 가릴 것 없이 모두 孝鳥라 이름하니
可愛禽中反哺聲	새 중에서도 '反哺' 소리가 사랑스럽구나
天上人間靈物謂	天上에서나 人間에서나 靈物이라 이르니
雙星七月作橋迎	七夕이면 다리 놓아 두 별이 만나게 하더라

위의 詩에서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말을 상징하는 反哺라는 詩語로 자식이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비유하고 있다. 까마귀의 '반포'는 자연적인 것이며, 있어야 할 필연적  
 것이기에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인간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칠월  
 칠석이면 다리를 놓아 두 별을 만나게 해 주는 것 또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

36) 위의 책, <安順之에게>.

37) 위의 책, <詠鳥>.

아들여 사물의 이치와 삶을 조화롭게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 <天子菴霖雨吟>에서는 최산두의 애민에 대한 의리를 읽어낼 수 있다.

雲窓愁道九年天	雲窓에서 道學공리 아홉해가 되었는데
積日瀑鈴漢浦連	연일 쏟아지는 빗방울 은하수로 이어졌네
可使江山爲水國	만일 江山이 물에 잠겨 水國이 된다면
蒼生渡口欲扶船	蒼生들은 浦口에서 배를 붙들려 하리라

위 詩는 최산두의 道學 공부에 經世濟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소나기’는 매체역할을 하고 ‘강산이 수국이 된다면’ 라고 한 것은 道로 덮어 버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도가 蒼生에게 펼쳐진다면 蒼生들은 道를 찾기 위해 浦口로 나와서 배를 붙들려 할 것이다. 道學을 연구하는 者들이 태평을 꿈꾼다고 하면 그 道가 실현되는 것이 이러한 광경을 이룸이다. 자신의 도학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그 혜택이 가뭇의 비처럼 백성에게 내려가기를 희망하는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贈安順之歸養南原>(93)은 아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南原으로 돌아가는 安順之에게 보내는 詩이다.

公義私恩較重輕	公義와 私恩의 경중을 비교하지만
有時相奪兩難並	때로 여의치 않아 둘 다 온전키 어렵네
生逢以孝爲治日	평생 효로써 다스릴 기회를 만나
判得將親養一城	장차 부모봉양 할 곳으로 찾아 드네
白雲回首眼長明	흰 구름은 머리 돌려 긴 하늘에 잠들고
紫闕關心身漸遠	대궐에 마음만 맡기고 몸은 점차 멀어지네
東風暖日歌棠棣	봄 되어 따스해지면 棠棣歌를 부르리라
南返相依母子情	남원으로 돌아가 의지할 모자의 정을 나누소서

위에서 公義를 세움은 임금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私恩을 보답함은 부모에게 孝를 다하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둘 다 온전키 어렵네’라

고 표현 한 것은 안순지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임금의 곁을 떠나 下鄉 할 수밖에 없음을 비겨서 한 말로 충효가 兩全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흰구름은 머리 돌려 긴 하늘에 잠들고 대궐에 마음만 맡기고 몸은 점차 멀어지네’라고 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스런 마음을 乏盡하게 그려놓고 있다. 그렇지만 <思親歌>, <孝婦歌>등에서처럼 직접적이며 일방적인 주제 전달의 방식이 아니라, 매우 곡진하게 이른바 감춤의 美로써 드러내는 수법이 돋보인다. 『詩經』의 <당체> 시를 끌어와 고전에 빗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또한 선비풍의 기품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유배지에 있는 자신의 처지로서는 한없이 멀리만 느껴지는 일이지만 知友가 택한 그 길이 反哺의 행함과 임금을 생각하는 두 마음임을 曲盡하게 그리고 있다. 이에 최산두는 父母奉養을 이유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안순지에게 사기를 높여 주려했고, 자연에서의 安分知足 할 수 있는 모습을 자연과 대비시켜 표현했다.

다음 <贈安順之><sup>38)</sup>도 위와 같은 심정으로 父母奉養을 위해서 落鄉하는 安順之에게 보내는 詩이다.

萬里思君夢	만리 밖에서 임금을 생각하는 꿈과
三更念母心	三更에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
兩情俱不歇	두 그리는 마음 한 시도 그칠 새 없으니
送子一盃深	그대에게 한잔 술 가득 부어 보내오

16세기 신진사림의 이상은 유교의 실천성에 입각한 愛民民本의 공리실현에 있었고, 그들이 추구했던 道學理論도 이러한 범주 안에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民生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맛보아야 했던 뜻있는 젊은 선비들로서는 현실에 대한 갈등이 첨예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현실을 등지고 개인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대적 요정도 아니며, 사실을 형상화하여 당대 시대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8) 위의 책, <贈安順之>.

자신이 하지 못한 못내 아쉬운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것을 친한 벗 순지가 행하려 한다니 얼마나 기쁘고 부러웠을까? 신재의 그 마음은 어느 한곳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一盃深’ 곧 ‘한 잔 술 가득 부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부러움과 안타까움, 죄스러움과 부끄러움 등 불효자의 암울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최산두는 충과 효를 노래한 시를 통하여 국가와 민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직설적·교술적·설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대적 갈등과 개인적 갈등을 그윽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춤의 미학으로 암향의 아름다움으로 애민과 충효의식을 담아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 IV. 맺음말

崔山斗는 己卯名賢으로 조선중기 호남사림의 중요한 위치에 선 학자요, 문장가이지만 아직까지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연구는 그의 詩創作 배경과 詩世界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문학경향 및 문학 활동을 유기적이고 통일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의 詩에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의한 문제로 인하여 파생된 영향이 문학작품에 많이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자연의 질서에 대한 조화, 교유간의 두터운 우정과 의리, 그리고 유가적 입장에 입각한 충효와 애민의 정신 등을 추구함을 파악했다. 따라서 그의 詩世界에 대한 指向點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산두는 조화로운 자연을 吟味하면서 自然現象과 시대의 倫理와 늘 변하지 않는 인간의 道理와의 조화를 담고 있다는 天然的 靈感을 문학작품에 나타내려 했다. 또한, 실재의 자연을 통하여 性情을 陶冶하고 청렴한 기상과 고귀한 기상을, 그리고 진실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시인자신의 정신

세계를 자연과 융화시켜 형상화했음을 파악했다.

둘째, 계속되는 사회로 많은 동료들과 헤어지게 됨으로써 기다림을 소중한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타냈으며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교유관계의 안타까움을 승화시켰다. 여기서 그에게 따르는 苦惱와 孤獨感은 작품을 속에서 현세를 일탈하여 냉철한 지적 정신과 고결한 인간적 삶의 연속으로 표출되었다.

셋째, 조선조 사대부 문학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忠臣戀主라고 할 수 있는데, 최산두는 충효의 주체의식을 은근하고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부모에 대한 반포의 효를 못 다함을 고통스러움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국가나 군주를 우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적 갈등과 개인적 갈등을 담은 선비정신의 의지적 단면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그의 성실하고도 진실 된 삶의 원리는 당대 문장과 학행이 탁월하여 尹 衢·柳成春과 더불어 ‘湖南三傑’이란 칭호를 얻기에 이르렀는바, 그의 도학정신은 호남의 거유로 불리는 河西 金麟厚와 眉巖 柳希春에게 전수되어 호남의 학문적 전통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신재 최산두는 16세기 호남시단의 중추적 인물이요, 호남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남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우뚝 선 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은, 일차적으로 그가 남긴 작품이 전화로 영성한 점과, 후학들의 관심 소홀 및 문학 인보다는 도학자로서 평가되는 등의 입장 때문이라 하겠다.

최산두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는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라 하기에는 성급하지만 최산두의 詩文學 研究에 있어서 단초를 이루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실된 자료를 찾는 노력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올바르게 타당한 문학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文學과 歷史의 人間』, 서울 : 創作과 批評社, 1980.  
金麟厚, 『河西全集』下, (株)寶晉齋, 1988.  
安順之, 「安思齋堂集」, 『韓國文集叢刊編纂人名錄』, 1990.  
이동환, 「海東雜錄」, <崔山斗傳>, 『大東野乘』所載, 財團法人民族文化推進會, 1971.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新齋集』, <序文>, 郎州印刷社, 1989.  
崔漢善,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투고일 : 2006. 6. 27.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 Sin Jae Choi San Doo's, Chinese poem Appreciation

Baek, Suk-ah

This article purpose of viewing Sin Jae's chinese poem. Last 16th century at the Ho Nam's poetical circles. He was famous character and an outstanding achievement as a man of thought.

Nevertheless, we were indifference of the general research toward his poem and thought. That unsatisfactory results not only regarded as lacking interest in learned circles and a great loss his work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n in 1592, but also appreciated him as a man of virtue.

It is deplorable that Sin Jae's research should be in disregard. This article emphasis on San Doo's poetical background and a style of poetry. I searched all over his work and thought. Especially about his author mind poet's distinguishing mark etc.

We are now starting Sin Jae's research. I hope that he will settle down at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discovered his not-founded works including multiple interesting and various researches.

**Keywords** : Sin Jae's poet, background, thematic research.

к с і

# 松岩 羅緯素와 岫雲亭文學

유수양\*

## <차례>

- I. 머리말
- II. 松岩의 生涯와 岫雲亭 經營
  - 1. 松岩의 生涯
  - 2. 松岩의 岫雲亭 經營
- III. 岫雲亭의 樓亭漢詩
  - 1. 松岩의 岫雲亭題詠
  - 2. 文人들의 岫雲亭題詠
- IV. 岫雲亭의 樓亭時調
  - 1. 松岩의 <江湖九歌>
  - 2. <江湖九歌>와 <漁父四時詞>의 相關性
- V. 맺음말

## I. 머리말

나주는 전남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동으로 화순군, 서로는 함평군과 무안군, 남으로 영암군, 북으로는 광주광역시와 인접함으로써 교통과 지역의 특산품 물류 왕래가 활발한 지역이다. 나주의 鎭山인 금성산이 동쪽으로

\* 전남대학교

광주 무등산과 남쪽으로 영암 월출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담양에서 발원한 영산강의 중하류가 자리한 일대에는 비옥한 나주평야가 펼쳐져 넉넉한 자연환경 속에 강과 산야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도읍을 정한 역사적 중심지역으로서 유서 깊은 유물을 간직한 고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비옥한 나주평야와 풍부한 영산강의 水量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터전으로서 살기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어 나주는 일찍부터 삶 속에 문학적 여유가 깃들 수 있었다.

선조 때의 東人 領首인 李潑이 그의 시에서 “人物多賢 民心淳厚”라 나주를 표현하였으며 佔畢齋 金宗直이 나주를 읊은 十二詠詩를 통해 볼 때 어느 고장보다도 많은 누정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아름다운 산수 속에 풍류와 문학을 즐겼던 선인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sup>1)</sup> 이처럼 나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산과 평야, 강과 해안을 끼고 형성된 농경문화와 풍부한 산물을 기반으로 일찍부터 山紫水麗한 곳에 누정이 건립되어 문학과 풍류를 즐기는 문학창작의 공간으로 숨쉬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누정은 ‘~亭’의 명칭이 붙은 정자가 대부분이며 화순과 더불어 나주에는 많은 누정이 건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남지역의 누정 조사 보고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조사·집계된 통계를 살펴보면, 나주지역의 현존하는 樓亭數는 59棟이며, 현존하지 않은 누정이 106棟로 총수는 165棟이다. 여기에 羅壽線 등이 편한 『羅州郡誌』 등 여타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예전에 건립되었으나 현존하지 않는 누정으로 새롭게 추가될 누정의 수는 131에 이르러 이렇게 살펴볼 때 나주지방 누정 수는 약 300으로 파악된다.<sup>2)</sup>

松岩 羅緯素는 1582년(선조 15) 나주에서 출생하여 1666년(현종 7)에 향년 8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조선조 仁·孝宗代의 나주 인물로 후손이 撰한 『松巖遺集』<sup>3)</sup>에 생애와 문학작품이 전해진다. 송암은 35세인

1) 나주군지편찬위원회, 『羅州郡誌』, 1980, 682쪽.

2) 박준규, 「羅州地方樓亭文化的 綜合的 研究」, 『호남문화연구』 제18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104쪽.

1616년(광해 8)에 생원이 되고 1623년(인조 1) 42세 나이로 대과에 급제 함으로서 35세 이후부터 69세까지의 出仕期를 마치고 70세부터 마지막 下世하기까지 선산 밑에 있는 錦水湖 위에 岫雲亭을 짓고 岫雲亭文學 창작과 知人들과 교류하며 고향인 나주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생애 중 경주목사를 끝으로 致仕隱退期를 보냈던 수운정은 『全南道誌』에 의하면 榮山 三榮里 榮江 위에 있었던 정자로 현재 소실되었으나 그 위치는 지금의 羅州市 三榮洞 山 483 榮山江邊에 해당된다. 송암은 이곳에서 수운정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누정제영과 누정시조 9수의 <江湖九歌>를 창작하였다.

송암의 누정문학과 관련하여 필사본 『羅氏家乘』에 실린 송암의 시조 <江湖九歌>가 1976년 5월 29일 제17회 한국언어문학 학술연구 발표대회에서 박준규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松岩의 岫雲亭題詠과 江湖九歌」<sup>4)</sup>에서는 송암의 생애와 수운정 건립의 배경 및 누정제영, 국문 시조 강호구가 제작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아직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송암의 문학세계를 누정문학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였다.

본고에서는 17C 중엽에 활동한 나주의 인물 松岩 羅緯素의 생애와 함께 누정으로 인한 岫雲亭의 樓亭漢詩과 樓亭時調인 <江湖九歌>를 살펴봄으로써 서정적 공간과 감회를 조화롭게 표현하여 순수 서정시의 경지를 깊이 있게 그려낸 岫雲亭文學의 세계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3) 『羅氏家乘』을 토대로 1979년 후손 羅容均이 『松巖遺集』으로 편집 발행하였으며, 2卷 1冊의 目次는 다음과 같다.

卷之一：詩, 賦, 策, 書, 江湖曲

卷之二：附錄 詩, 書, 序, 記, 文, 行狀

4) 박준규, 「松岩의 岫雲亭題詠과 江湖九歌」, 『어문논총』 10·11,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1989.

## II. 松岩의 生涯와 岵雲亭 經營

### 1. 松岩의 生涯

송암 나위소는 1582년에 縣監 德峻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字는 季彬이며 號는 松岩 또는 南湖로 본관은 나주이다. 시조는 고려 때 正議大夫 監門衛上將軍이었던 富로 송암은 그의 15世孫이다.<sup>5)</sup> 그를 나주 나씨 중 直長公派라 함은 고려조에 司醜署直長을 역임한 源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直長公 源은 송암의 10代祖로 고려말에 정국의 혼란을 피하여 나주에 퇴거함으로써 자손이 번성하여 羅州派祖가 되었다. 9代祖부터 5代祖까지는 工曹典書子를 지낸 璉, 彦典農寺를 지낸 公彦, 式目都監을 지낸 諶, 務安縣監을 지낸 自康, 將仕를 지낸 繼祖이다.<sup>6)</sup>

松岩의 高祖인 羅逸孫은 靜菴 趙光祖가 己卯年의 土禍에 피해를 당하자 평소 뜻을 같이한 동문들과 호남의 사람들이 정암을 신원하는 상소를 올려 피해를 입은 己卯黨人의 인물이다.<sup>7)</sup>

羅逸孫은 巾服徒跣으로 하향한 후 榮山江邊 侍郎山 중턱의 승지를 찾아 茅亭을 짓고 산수를 즐기며 은거생활을 하였다. 송암이 榮山江邊에 岵雲亭을 짓고 강호생활을 즐겼던 것은 선조들의 이 같은 樓亭生活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sup>8)</sup>

松岩의 曾祖인 羅暉은 中宗朝에 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으며, 士愷, 士惇, 士忱, 士揚의 4男을 두었다. 羅暉의 제3子인 錦湖 羅士忱은 송암의 祖父가 되며 旌閭 復戶의 孝行之人으로 尼山縣監과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義禁府

5) “遂爲州之大姓 高麗有正議大夫監門衛上將軍諱富 是鼻祖也”(『松巖遺集』卷2, 行狀, <家狀>).

6) “後至諱璉工曹典書 子諱公彦典農寺正辛禡七年 克倭有工事蹟載麗史 子諱諶式目都監 子諱自康務安縣監 子諱繼祖將仕”(上揭書, 卷2, 行狀, <家狀>)

7)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70쪽.

8)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前揭書, 181쪽.

都事 등을 지냈으며, 슬하에 德明, 德峻, 德潤, 德顯, 德愼, 德憲의 6男을 두었다.

羅士忱의 장자인 羅德明과 제2子인 羅德峻은 2책으로 된 『錦城三稿』<sup>9)</sup>를 집필하였다. 羅德明은 字가 克之, 호는 龜菴으로 벼슬이 都事에 이르렀으나 1589년 己丑獄死에 연루되어 鏡城으로 귀양 갔으며 禦計策 수천언을 상소하여 1593년 풀려나 나주에 돌아와 정자를 짓고 살았다.<sup>10)</sup>

제2子인 德峻은 곧 송암의 父親으로 字는 大之, 호는 錦岩이며,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되 과거를 위한 학문은 하지 않았다. 鄭困齋 문하에서 유학하였으나, 1589년(선조 22) 鄭汝立事件으로 己丑士禍가 일어나자 피해를 입어 복천으로 귀양을 갔다가 斗岩 金應南의 천거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報恩縣監에 제수되기도 하였다.<sup>11)</sup>

錦岩 羅德峻에게는 纘素, 繼素, 緯素, 致素, 經素, 緘素의 여섯 아들이 있었으며 松岩 羅緯素는 이중 제3子이다. 松岩은 운화하고 인정이 있어 친족에 선하며 벼슬 사림에 속됨을 기뻐하지 않는 성품을 지녔으며, 부인은 領議政喜의 六世孫이며 掌隸院判決事를 제수받은 顯의 따님인 長水黃氏로 슬하에 衲, 欉, 衫의 세 아들과 세 딸을 두었으며, 父·子·孫 삼대에 내외 자손이 50여 인에 이르렀다.<sup>12)</sup>

『松巖遺集』에 수록된 外孫 鄭重元이 쓴 <事實記>, 松岩의 直孫 斗三,

9) 권1: 嘯浦遺稿(羅德明著)·錦巖拾稿(羅德峻著)·錦峯拾稿. 권2: 錦湖遺事(羅斗冬編), 1739(羅斗冬 等編).

10) 『나주문집목록』(나주시문화원, 1996), 29쪽.

11) “諱德峻自少志學不屑舉業遊鄭困齋門己丑禍作被逮北遷 有還以才行被金斗岩薦累除官至報恩縣監累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事五衛都府總副總管以先君之貴也”.(『松巖遺集』, 卷2, 行狀, <家狀>)

12) “有三男하니 衲은 戶曹正郎이요 欉은 麻田郡守요 衫은 義禁府都事라 又有三女壻하니 生員金晚壽 士人李萬鍾 縣監鄭岐壽요 衲이 生 斗三 斗章하니 斗三은 進士요 壻二人은 李暉 李潞壽요 欉이 生斗啓하니 通德郎이요 壻三人에 鄭德祥 睦昌遇 權頸라 衫이 生 斗春 斗夏 斗秋 斗冬하고 壻四人에 尹商績 李萬植 李龍徵 高可賓이요 又有庶出子三人하니 內外子孫이 三世五十餘人이라 公이 溫恭敦厚하야 善於宗族하며 交友에 不喜循俗壽善柔하고 通籍三十年에 不樂於朝하고 爲州縣二十餘年에 以壽考로 閑暇江湖八十五年이라 三男이 皆在仕列하야 衲欉이 連爲近邑奉養之備하니 鄉里가 稱之以德善之報라 허라”(上揭書, 卷2, 行狀, <神道碑銘>).

斗冬 등이 쓴 <家狀>, 曾孫 晩成이 쓴 <墓誌>, 白湖 林梯의 外孫 許穆이  
撰한 <神道碑銘> 등의 자료를 통해 松岩 羅緯素의 85세 生涯를 살필 수  
있다.

松岩의 一生은 크게 학문을 익혀 벼슬에 나아가기 전까지를 修學期, 宦  
路로 나아가 벼슬을 통해 조정에 몸담은 기간을 出仕期, 퇴임 이후를 致仕  
隱退期의 3期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송암의 修學期는 1582년(선조 15)의 출생에서부터 1616년(광해 8) 과  
거에 급제하기 전 34세까지로 볼 수 있다. 송암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  
어나 범상치 않았으며, 책읽기를 좋아하고 仲父 羅德潤으로부터 수업을 받  
았으며 나씨문중을 빛낼 인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sup>13)</sup> 그러나 1593년  
(선조 26) 일찍 12세에 모친상을 당하고 1609년(광해 1) 23세에 부친상  
을 겪었으며, 또 탈상도 하기 전에 계모의 상까지 이어졌다. 집안이 빈한  
해져 홀로 어렵게 학문을 하였으나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독실한 뜻을 세  
워 수학에 전념한 끝에 1616년(광해 8) 35세 生員試에 합격하여 國子生  
員이 되었다.<sup>14)</sup>

송암의 出仕期는 35세 이후 69세까지이다. 즉 35세인 1616년(광해 8)  
에 國子生員이 되고 1623년(인조 1) 42세 나이로 문과시험에 응시, 丙科  
에 합격하고 權知副正字를 거쳐 69세 1650년(효종 1) 慶州牧使에 제수되  
고 이듬해 季子에게 짓도록 명한 수운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이다.

43세 되던 봄에 李适의 亂이 있어 인조께서 공주로 행차하심으로 檢察  
使 趙存性이 從事할 때 察御供事平行이 되었으며 이어서 刑曹佐郎을 역임  
하고 玉果縣監을 제수 받았다.<sup>15)</sup> 1627년(인조 5)에 청나라의 침입으로 丁

13) “自幼穎異不羣稍長好讀書從 仲父諱德潤監察公受業日進 宗族鄉黨稱之曰他日振羅氏之門  
者此兒也(上揭書, 卷2, 記, <事實記>).

14) “先君以萬曆壬午十二月初一日生 自在髫髻穎脫不凡 稍長好讀書受業於仲父監察公 能致其  
才之成就宗門望其光大 鄉黨期其振耀莫不同舌稱之年十四丁內憂 二十三年外憂 居喪盡哀人  
益賢之服未闋 又遭繼母喪身世零丁家道蕩盡而篤志力學以立揚興復 爲期乃累占鄉解 萬曆丙  
辰中生員試天啓 辛酉光海遣重臣試士 湖南先君居魁直赴及第而昏朝政紊放榜遷 歷三年不行  
癸亥 仁祖政玉合丙科再試 先君又登丙科補權知校書館正字”(上揭書 卷2, 行狀, <家狀>).

卯胡亂이 일어나자 昭顯世子는 전주로 피란하고 體察使 完平 李相國이 양식을 기다릴 때에 松岩은 두루 다니며 募粟策을 강구하여 軍糧미를 모아 공급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sup>16)</sup> 이 때 상을 내리려고 하자 勤勞함은 당연한 직분인 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빌려 자기의 공으로 삼는 것은 사대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며 사양하였다.<sup>17)</sup> 임기가 만료되어 地官正郎兼記注官에 승진하였다.

또한 1641년(인조 19) 여름 原州牧使로 있을 때 원주와 여주 사이에 불한당들의 출몰이 심하여 백성들의 괴로움이 많아 심히 고초를 겪는 까닭에 그들을 搜捕殆盡하자 상을 주려 할 때에도 ‘내가 전에 募粟의 상을 거절하였는데 어찌 捕賊의 상을 받겠는가’라며 정성으로 아뢰어 공을 사양하기도 하였다.<sup>18)</sup> 이러한 행적을 통해 송암은 공을 내세우기보다 백성들의 안위와 관직자로서의 올바른 도리를 강조함으로써 義와 忠을 먼저 생각하는 爲人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 30년 동안 벼슬길에 머물면서 州府郡縣에 나아가 벼슬한 것은 20여 년으로 官事라면 정성껏 임하였고 裁決은 明敏하여 다스림에 칭송을 받았다<sup>19)</sup>고 하였으니 송암은 出仕 기간에 있어 위기 앞에서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나라를 먼저 위하는 先公後私의 정신과 충효와 의리를 중시하는 강직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5) <신도비> 또는 <유지비명> 등에서는 42세 때의 일로 전하지만, 나라에서 받은 교지 및 당시에 있었던 이괄의 난 등으로 미루어 43세 때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左參贊公 松岩 羅緯素先生 神道碑銘』, 羅州羅氏 松岩公宗中, 2006, 29쪽).

16) “世子南行全州 完平李相國以體察使 陪來念兵久糧之 以先君見居本道備諸物情 故召與計議 先君曰人情爲祖先欲榮爲子孫欲逸如給追 贈免講帖則不患不得 相國大喜授兩帖數百通使之遍 行募粟 先君隨便善措不煩括奪而得穀甚多 軍給以饒” (前揭書 卷2, 行狀, <家狀>).

17) “體相極加獎歎 將馳啓賞之公力辭以止之曰 王事勤勞職分固當藉人財 要己之功士大夫所耻也” (上揭書 卷2, 記, <事實記>).

18) “辛巳除原州牧使 明火賊出沒 原驢之境民甚苦之 先君設奇追捕就服者多 將有顯賞先君曰 吾昔辭募粟之賞 今豈受捕賊之賞乎 控懇于方伯 讓功于中軍終不居焉” (上揭書 卷2, 行狀, <家狀>).

19) “公在仕途三十年出爲州府郡縣二十二年 官事靡不恪勤 裁決明敏所在稱治” (上揭書 卷2, 記, <事實記>).

松岩의 치사은퇴기는 경주목사 벼슬에서 물러난 70세부터 마지막 別世하기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출사기간 중에도 48세(인조 7), 59세(인조 18), 63세(인조 22), 68세(인조 27) 등 5번의 還鄉이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歸鄉은 경주목사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때 70세(효종 2)이다.

1657년(효종 8) 76세에 僉正中樞府事로, 1663년(현종 4) 82세에 同知中樞府事に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1666년(현종 7) 7월 29일에 85세를 일기로 下世하였다. 임금께서 의식을 좇아 조문과 부의를 내리시고 좌참찬에 追爵하였으며, 선영이 있는 榮山의 동향한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sup>20)</sup>

송암의 본격적인 岫雲亭文學 창작의 생활은 경주목사 致仕 후 70세 退官하여 長松과 脩竹 가운데 錦水湖 위의 수운정을 경영하며 체영시와 국문시조 <강호구가>를 지으며 詩友와 交遊하던 치사은퇴기라고 할 수 있다.

## 2. 松岩의 岫雲亭 經營

전남지역 중 나주·화순에 많은 누정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연 환경 여건으로 화순에는 砥石川, 同福川, 化順川, 忠臣江의 하천이 화순 군내를 관통하고 있으며, 나주지역 역시 풍부한 영산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 누정의 분포지역이 하천 연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정은 선비들의 문학 창작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세워진 위치나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 첫째 누정은 游興賞景의 기능과 둘째 시단을 이루는 기능으로 俛仰亭詩壇이나 息影亭詩壇 등의 詩的

20) “癸卯拜同知中樞府事 凡歷仕首尾三朝也 丙午七月屬末疾篤夫人扶病出來執手問候 自多悲辭 憾容子弟宗族環侍者皆泣而先君卓然曰 汝等勿以吾於世百無一憾 當視死如歸 是月二十九日考終于外寢享年八十五計聞 上賜賻祭如儀以長子衲曾叅丙戌寧國原從一等故推 恩贈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是年十月十二日葬于榮山辛坐乙向之原距先塋數百步許相望之罔”(上揭書 卷2, 行狀, <家狀>).

交遊의 집단을 말하며, 셋째 학문으로 修養하고 講學하며 인륜의 도를 가르치던 구실 등이다.<sup>21)</sup>

수운정은 羅州郡誌, 全南大觀 등에 榮山面 三榮里에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의 羅州市 三榮洞 榮山江邊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府尹 羅緯素의 所構로 參判 李應蕃, 監司 李萬雄의 찬시가 있었다고 한다.<sup>22)</sup> 송암이 수운정을 경영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에는 金萬英의 <岫雲亭序>, 甥孫 八溪 鄭重元의 <岫雲亭重修記>, 崔瑞璧의 <岫雲亭上梁文>, 孫子 斗冬의 <岫雲亭重創上梁文> 외에 <岫雲亭完議> 등이 있다.

송암이 수운정을 짓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선친의 묘를 지키고 받들어 모시려는 효심에서 우러난 報本反始의 정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송암은 부모의 居喪을 잘 지냄으로써 마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1609년 (광해 1) 28세에야 장가를 들었으며<sup>23)</sup>, 또한 노쇠한 조부를 극진히 잘 모심<sup>24)</sup>으로써 효의 본을 다한 인물이다. 直孫 羅斗冬의 <岫雲亭重創上梁文>에서 ‘我祖考性本慈詳家傳孝反’이라 함은 효를 무엇보다 가장 중시했음을 짐작케 한다. 八溪 鄭重元이 쓴 <岫雲亭重修記> 서두에 ‘外祖父께서 晩年の業으로 나주 남쪽 십리 영산강 위 수운정을 짓고 강호생활과 선영의 丘墓를 지키는 일을 겸하였다’<sup>25)</sup>라고 함을 통해서도 수운정의 건립 배경을 알 수 있다.

송암은 早失父母하였으나 下世하기까지 묘를 떠나지 아니하고 新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선인의 묘 앞에 먼저 바치는 정성을 더함으로써<sup>26)</sup> 부모를

21) 박준규, 「한국의 樓亭攷」, 『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학교출판부, 1987, 17~19쪽.  
 22)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I)」, 『湖南文化研究』 第15輯, 248쪽(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5~1987).  
 23) “乙未失所恃 年甫十四甲辰服斬未及祥又有後母之喪 前後居喪觀者善之既 制除始乃授室 時年爲二十八矣”(『松巖遺集』, 卷2, 記, <事實記>).  
 24) “王考府君衰病 體重運動須人 公不離其側 坐臥起立輒扶持之 一唾一溺輒以器奉之 雖夜深睡熟呼即應之即起 惟命之聽之恭 王考府君 特愛重之別賜田以獎其誠孝”(上揭書 卷2, 記, <事實記>).  
 25) “岫雲亭子 吾外翁羅中樞公南湖晚業也 亭在羅州南十里榮山江上 先壙之下 管江湖守丘墓 盖兼之也”(上揭書 卷2, 記, <岫雲亭重修記>).

섬기는 효성이 종가와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사를 지내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였다.<sup>27)</sup> 또한 친척과 손님을 맞아 기뻐 즐겁게 지내며 제사 섬기는 일이 아니면 문 밖에 나아가지 않으니 고요함과 바른 성정을 얻으며<sup>28)</sup> 아들 衲와 欉이 가까운 고을 관리의 재상으로 봉양하니 항상 감동하였다<sup>29)</sup>고 하였다.

둘째는 바쁜 管路에서 물러나 노후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致仕 후 晩年の 業으로 고향의 강호에서 시적 교유를 맺으며 悠悠自適한 생활을 누리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막내아들 衲에게 명하여 錦水 위 선영의 묘 아래에 누정을 짓게 하였다. 고향에 돌아가기를 기다려 이미 알려진 완성된 한 편의 詩文에 따라 岫雲이라 하였다. 지내는 나날 동안 친척과 옛 친구와 더불어 자연을 완상하고 한가롭게 쉬니 세월로 즐거움을 삼겠노라.<sup>30)</sup>

이처럼 송암은 慶州牧使 임기 시절 1651년(효종 2) 70세 가을 이미 늙었음이고 벼슬 또한 쉬리라 결정하고 錦水湖 위 선인의 무덤 아래 정자를 짓게 하고 수운정이라 이름 하였으니, 우거진 소나무와 긴대나무가 있고 수운정 아래로 장강과 모래사장이 가득 차 있으며, 그밖에 들에는 오랜 고

26) “公이 既早失父母라 終其身토록 不去丘墓하고 每見新物이면 必薦慕하니 或言非禮之物 커늘 公曰寧失於厚나 得盡於心이라하다 疾病에 戒其家人曰時己七月이니 宜薦稻하라 吾薦新이 畢이라하더라”(上揭書 卷2, 行狀, <神道碑銘>)

27) “先之際誠敬恒篤遇忌辰則 凡羊裘之類多般求得送于宗家以助祭 雖迫九旬而猶素食三日子弟輩切諫而不聽以所居近墓 常行新物朔望之薦 或言其非禮則曰 寧失於厚小慰吾恨至於屬饋之時猶眷眷不置謂夫人曰 七月將晦新必登宜速薦獻畢矣 以茲夫人體其意終身”(上揭書 卷2, 行狀, <家狀>)

28) “退休之志 今吾年齡已頗儕流無在不欲與邈然 年少輩奔走風塵中於是浩然而歸築亭于錦水之上先塋之麓揭石曰 出岫雲日與親賓歡謔遊玩 非祀事不出門 既得靜便願養得而宜兩子衲欉等迭宰近邑官養備至 人皆以爲榮先君恒感”(上揭書 卷2, 行狀, <家狀>)

29) “兩子衲欉相繼宰近邑便養人皆榮之 公居恒感頌曰 君恩如天”(上揭書 卷2, 記, <事實記>)

30) 命少子衲築亭于錦水上先壟下以待之 及歸亭既告成扁以岫雲而居之日與親戚故舊玩愒歲月以爲娛(上揭書, 卷2, 記, <事實記>).

목과 빈터에 피어오르는 안개가 상하 백리의 경치 속에 游處自娛하는 강호생활을 시작하였다.<sup>31)</sup> 호를 송암이라 한 것은 집 뒤 바위 위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스스로 칭한 것이며, 이때부터 自號하여 南湖病叟라고도 했다.<sup>32)</sup>

영산강 주변의 그림 같은 산하를 배경으로 지어진 岫雲亭의 누정 이름은 중국 진나라 陶淵明이 지은 <歸去來辭>의 ‘雲無心而出岫’라 하는 詩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팡이를 짚고 한가하게 쉬며 때때로 머리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욕심 없는 구름이 산봉우리 위에서 솟아나고 새는 게을리 날아 돌아올 줄을 아노라. 해는 어스레하여 장차 넘어가려 하니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배회한다. 돌아감이어. 청컨대 사귀를 그침으로써 돌아다니는 것을 끊노라. 세상이 나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니 다시 수레에 올라 무엇을 구하리오.<sup>33)</sup>

또한 송암의 莫逆한 친우인 金萬英의 <岫雲亭序>의 기록에서도 ‘흰 백발의 송암이 靑山綠水에 기거’하니 ‘처마 위의 화려한 현판은 멀리 晋나라 선비의 아름다운 구절을 서술하고, 바위 사이에 지어진 누정의 터는 가까이 朴尙公의 遺墟를 襲踏한 것이요 三逕의 風味는 思庵이 二養亭을 지은 정신과 같도다.<sup>34)</sup>’라고 하여 누정의 명명이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연유했

31) “又明年에 爲慶州牧使하다 三年에 公이 已七年이라 嘆曰 年已老矣 官亦休矣라하고 遂決歸하고 築錦水湖上曰岫雲亭이라하니 在先壠之下라 有深松脩竹하고 長江沙渚가 瀾漫하고 其外郊原에 往往有古木墟烟이 上下百里라 公이 日游處自娛하다” (上揭書 卷2, 行狀, <神道碑銘>)

“孝宗二年辛卯秋公以慶州牧將引年歸老命季子經始築亭明年春亭成 公歸自東名其亭曰 岫雲而居之亭下一道 長江雙兩嶼 江外沙渚烟郊 上下百里 極浦遙岑雲霞出沒 朝焉暮焉四時焉 氣象萬千輪盡几席起居間 遠近冠蓋 過湖中 莫不登亭 動色曰 名勝甲湖中 公在亭上 心曠神怡 寵辱都忘 壽考康寧 優遊娛樂” (上揭書 卷2, 序, <岫雲亭重修記>).

32) “公嘗宅州之東郭下宅後石上有二松 自號松岩至是 又號南湖病叟” (上揭書, 卷2, 記, <事實記>)

33) 策扶老以流憩 時矯首而遐觀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景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 歸去來兮 請息交以絕游 世與我而相違 復駕言兮焉求 (陶潛, 『陶淵明集』).

음을 짐작케 한다.

교유를 나눈 岵雲亭題詠의 작가 중 翠竹 李應禧와는 1653(효종 4)과 1656(효종 7)에 왕래한 서신을 통해 정분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으며, 南浦 金萬英은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錦沙亭에 현액 되어 있는 <錦江重修禊序>를 쓴 인물로 <岵雲亭序>를 썼으며, 그 말미에 7언율시의 題詠詩가 덧붙여 전한다. 또한 李萬雄도 송암과 정의가 두터웠던 인물로 송암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에 곡진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셋째로 송암이 수운정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는 선인들의 누정생활을 흠모한 부분과 함께 나씨 집안 문중 어른들의 누정생활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안면 伏岩江上에 있다고 하는 凌虛亭에는 송암의 백부인 羅德明의 누정시가 전하는 바, 伏岩江 위 누정에서 밀려드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가하게 노니는 백구와 외로운 정회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龜菴(또는 嘯浦) 羅德明은 노년에 무안의 住龍山에 있는 赤壁에 은거하여 赤壁亭을 경영했고, 叔父인 羅德顯은 만년에 나주의 潘南 白羊洞에서 潘溪亭을 짓고 누정생활을 했다. 특히 潘溪가 潘溪上의 潘溪亭에서 <漁父歌>를 짓고 逍遙自適하였다 함은 송암이 榮山江邊에서 누정을 구축하고 江湖九歌를 제작하여 어부생활을 영위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송암의 동향간이 경영해 오던 누정에는 羅宗素의 凌虛亭외에도 羅允素의 茅亭, 羅重素의 小溪亭, 羅海崙의 大谷亭과 白蓮亭, 羅海龜의 石壕亭, 羅海鳳의 溪亭 등을 지적할 수 있다.<sup>35)</sup>

이외에도 羅德峻의 後孫인 羅壽采의 所築 錦溪亭 등을 통해 누정을 경영하며 삶의 여유를 누렸던 나씨문중에 내려오는 정신적 풍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나씨 문중에 흐르는 풍류적 기풍은 송암에게도 영향을 끼쳐 수운정에서 여러 편의 누정시가 창작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34) “公之白髮蒼顏翼然高閣 謝老之青山綠水爽乎明窓 楹上華扁 遠述晉徵士之佳句 岩間傑構 近襲朴相公之遺墟 雲鳥交飛 依然三逕之風味 水月相映 恍若二亭(朴思庵卜居永平嘗作二養亭)精神” (前掲書 卷2, 序, <岵雲亭序>)

35)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前掲書, 188~189쪽.

이다. 또한 수운정 주변의 빼어난 승경을 노래한 시에는 時俗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하나 되어 살고자 하는 작자의 풍류가 잘 표현되어 있다.

### Ⅲ. 岫雲亭의 樓亭漢詩

#### 1. 松岩의 岫雲亭題詠

누정은 문학 창작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있었다. 누정을 경영하는 주인은 물론, 이곳을 출입하며 교유하던 문인들에 의해 누정제영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누정문학에 대한 연구 중에서 송순의 <俛仰亭歌>나 정철의 <星山別曲>과 같은 작품을 樓亭歌辭, 張復謙의 <孤山別曲>이나 松岩의 <江湖九歌>와 같은 작품은 樓亭時調로 정리한 논저<sup>36)</sup>와 漢詩로 이루어진 樓亭詩를 樓亭漢詩로 분류하는 연구 흐름에 따라 松岩의 岫雲亭文學을 岫雲亭의 樓亭漢詩과 岫雲亭의 樓亭時調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송암유집』을 보면 송암의 시가로서 漢詩 57수와 국문의 연시조 9수가 전한다. 漢詩 중 23수는 挽歌이며 일반형의 漢詩는 34수이다. 그의 시작 능력으로 보면 더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하는 작품 수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송암의 詩歌 중, 岫雲亭文學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岫雲亭卽景> 3수, <岫雲亭卽事> 3수, 차운한 시로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 1수, <次溪亭韻> 1수가 있으며, 국문시조인 <江湖九歌> 9수 등이 있다.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은 송암이 伯父 羅德明의 원운<sup>37)</sup>에 次韻한 누정시로 詩題에서의 龜菴은 羅德明의 호이며 懸註에

36) 박준규, 上揭書, 203쪽.

37) 客來大江口 月滿秋天清 但見白鷗面 不聞環珮聲 飛雲山欲動 浪蹙石如輕 非子吾與麗 閑談箇箇情 (손은 큰 강 포구로 찾아오니 달은 가을 하늘에 가득하다 / 다만 백구의 모습만 보일 뿐 주위에 노리게 소리 들리지 않네. / 떠가는 구름 산을 움직이고자 하니 물결은 돌마져 가벼이 옮기려는 듯하다 / 나는 함께할 짝이 없으니 나누는 閑談에 箇箇의 정분이

‘亭在羅州伏岩’이라 기록되어 있다.

능허정은 羅州郡誌, 全南大觀 등에 나주 老安面의 伏岩江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누정으로 나주인 羅宗素의 所構로서 羅德明, 林愔, 金璇 등의 시가 전하고 있다.<sup>38)</sup> 백부 시의 ‘淸, 聲, 輕, 情’의 운자를 차용하여 제작한 5언율시의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sup>39)</sup> 은 삼공의 영화도 티끌처럼 여기고 오히려 미물인 모래밭의 새를 보며 무언의 한가한 정회를 나누다는 표현을 통해 백부의 청결한 삶의 자세를 기리고 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송암의 마음과도 통하는 것이기에 七貴과三公의 영화를 티끌처럼 여길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의 <次溪亭韻><sup>40)</sup>은 溪亭韻에 차운한 溪亭題詠으로 溪亭은 원래 송암과 동향간인 南潤 羅海鳳이 소요하던 곳으로 나주의 西水口에 있었다고 전하며, 송암의 시 외에 谿谷 張維와 細庵 元斗杓의 溪亭詩가 전한다.<sup>41)</sup>

<次溪亭韻>은 수운정의 날아갈 듯한 처마의 산뜻한 모습과 오르는 오솔길의 정겨운 서경을 松·竹의 소재를 빌어 표현한 작품으로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 주변의 승경이 어두워져 감을 깨닫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누정 주변 경관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잘 그려내고 있다.

송암의 岵雲亭題詠으로 누정의 자연 경관과 심상에 대해 떠오르는 서정

라).

38)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I)」, 『湖南文化研究』 第15輯, 1986, 244쪽.

39) 地爽身還爽 江淸心亦淸 山舍朝雨色 灘灘暮砧聲 七貴如果塵 三公視芥輕 莫言無與伴 沙鳥共閑情 (땅이 맑으니 몸 또한 시원해지고 강물이 푸르니 마음 또한 푸르네 / 산색은 아침비 색깔을 머금고 여울물은 저녁 다듬잇돌 소리와 섞였어라 / 七貴는 쌓여진 먼지와 같고 삼공의 영화는 티끌의 가벼움을 보도다 / 더불어 짝할 이 없다 말하지 말라 모래밭의 새와 함께 한가한 정회를 나누노라).

40) 城逼山疑壓 軒高地欲浮 霞分松路細 烟帝竹籬幽 嫩綠緣溪合 殘紅映水流 此時堪北望 無日不憑樓 (성 가까이 다가서니 산이 누르는 듯 처마는 높아 땅은 날고자 하는구나. / 노을은 소나무 오솔길을 가르고 연기는 대나무 울타리를 그윽하게 감싸 안아 / 옅은 초록빛 계곡의 가장자리에 모였도다. 붉은 빛갈 흩어지며 물을 비추는데 / 이 때 북쪽 하늘 바라보니 해가 저물어 누정을 기댈 수 없구나).

41)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前揭書, 196쪽.

을 卽興的으로 노래하고 있는 <岫雲亭卽景> 3수가 있다.

倦鷺眠沙嘴	쉬던 해오라기 모래 가에서 잠들고
鷺鷥護水紋	놀란 갈매기 물결 위에 오락가락
雁添奇一勝	기러기는 기이한 일승을 더한데
叫破半江雲	우짚는 소리에 강가의 구름도 날란다.

病久夜無寐	오랜 병에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披衾坐却頻	이불을 제치고 앉아 절박함을 물리치니
江中聞夜話	강 가운데 들리는 밤의 이야기
知是打魚人	이는 낚시꾼의 고기 잡는 소리인 줄 알겠네

雲留簷下宿	구름은 처마 끝에 머물러 있고
潮帝檻前流	밀려오는 조수는 정자 앞에 흐른다.
世事惟呼酒	세상일은 오직 술을 청하고
生涯釣一舟	생애는 한 척 배를 타고 낚시질 하도다.

수운정 주변의 승경을 담고 있는 1수에서는 영산강의 서경을 표현하는데 물가에서 접한 鷺, 鷥, 雁을 등장시켰으며, 잔잔하고 고요한 강가 위에 우짚는 기러기 소리만이 구름과 짝을 이루고 있는 한가로운 강가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신병 얘기를 언급한 2수에서는 지병으로 늦은 시간 잠들지 못하고 전전반측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낚시꾼의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만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공허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한가로운 삶의 노래로써 3수에서는 정자 앞에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을 바라보며 술을 벗 삼아 세상사는 즐거움을 더하는 가운데 인생을 낚시질하는 삶에 비유하고 있다.

다음의 <岫雲亭卽事> 3수 역시 수운정을 경영하면서 즉흥적으로 느낀 심정을 노래한 누정시이다.

水態山容各幻眞	물과 산의 모습 각각 환상적이며 변하지 않는데
---------	---------------------------

千奇萬像盡精神	기이한 만 가지 형상에 정신을 다 뺏기네.
釣罷烟簑猶未脫	낚시질 파하고 연기 속에 도롱이 미처 벗지도 못했는데
招招舟子換魚人	낚싯배 손짓하며 어부를 부른다.

강태공이 자신의 뜻을 알아줄 선비를 기다린 곳이 위수의 낚시터였듯 선비들의 시문 속에서는 낚시하는 사유의 모습을 통해 사사로운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또한 무위의 자연 속에서 순리에 따르는 조화로운 삶을 통해 인생의 흥취를 느끼고 안분지족의 태도를 노래하기도 했다. 이 누정시 또한 변함없는 산수의 절경 가운데 시절 따라 변모하는 갖가지 형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며 낚시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어부를 향해 손짓하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無慾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蝸角功名奈老何	하찮은 공명일랑 노인에게 무엇이 되겠는가.
藏修晚卜白丘鳥波	晩년에 도 닦을 곳은 백구 노는 물결이라
半脫烟簑紅蓼裡	紅蓼花 피어있는 안개 속에 도롱이 반쯤 벗고
一竿漁興月邊多	달빛 아래 낚시하는 어부의 흥이로다.

작가는 부질없는 부귀공명보다 마음 닦을 곳을 백구가 노니는 물결이라고 말하여 안개 속에 도롱이를 반쯤 걸치고 달빛아래 낚시에 몰입하는 흥취의 즐거움이 점점 더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紅蓼花의 꽃이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부귀공명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며 낚시를 통해 만년에 인생의 깨달음을 알아가는 정겨움을 더욱 깊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飛躍天淵自是真	鳶飛魚躍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非容爾力亦非人	그대의 힘도 아니요 남의 힘도 아니라네.
色色形形隨處在	형형색색 곳곳에 남아 있음을 느끼니
神神化化一般新	조물주의 조화가 새롭기만 하구나

사시에 따라 변모하는 자연의 변화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요 사람의 힘도 미치지 않는 조물주의 창조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는 자세와 형형색색 계절의 변화무쌍함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환상적인 자연의 멋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松岩의 岫雲亭題詠은 영산강변에 세워진 수운정 주변의 여유롭고 아름다운 승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넓은 자연의 품안에서 오직 한가롭고 편안한 어부로서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岫雲亭卽景> 2수에서 강에서 들리는 夜話를 ‘知是打魚人’라 하였으며, 3수에서는 세상일을 즐기며 술과 함께 어부로서 ‘生涯釣一舟’라고 하였다. <岫雲亭卽事>의 1수에서는 기이한 萬像에 정신을 뺏기며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釣罷烟籠猶未脫.’라 하였고, 2수에서도 세상의 부귀공명은 노인에게는 더 이상 하찮은 것으로 안개 낀 강가에서 ‘一竿漁興月邊多’라고 인생의 흥취를 노래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누리는 무욕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욕심 없는 삶과 함께 현재의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에서 七貴는 쌓인 먼지로, 三公은 한갓 티끌로 여김으로써 모래밭의 새와 함께 한가한 정회를 나누는 ‘沙鳥共閑情’ 표현 속에 청결한 삶의 자세, 안분지족의 마음가짐을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松岩의 岫雲亭題詠에서는 정치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수운정 주변의 아름다운 승경과 함께 안빈낙도의 삶을 누리는 어부로서의 생애에 만족하는 평화롭고 순수한 서정시의 극치를 잘 표현하였다.

## 2. 文人들의 岫雲亭題詠

나주 남쪽 십리 쯤 되는 영산강 위 나씨 선산 아래 세운 수운정은 경치도 관망하고 묘를 지키기 위해 경영한 것으로, 처음 思菴 朴相國이 세웠으며, 용강옹이 맡았다가 그의 손녀서인 송암이 뒤를 이어 맡게 된 누정임을

性孫인 八溪 鄭重元이 기록한 <岫雲亭重修記>에 서술되어 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정각이 일찍이 思菴 朴相國으로부터 李氏를 지나서 羅氏에 이르기까지 세 번 주인이 바꿨으니 박상국이 이 강산에 터를 잡았으나 늙도록 주관을 못했고 오래 조정에 있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고향 마을 친구 뜻으로써 龍江翁이 주인이 될 것을 허락했다. 용강옹이 이 강산을 얻어 능히 영원토록 주관하지 못하고 또 후손들이 그 대대로 그 집안을 잇지 못해서 한 구역 남은 땅이 공에게 돌아왔으니 공은 용강옹의 孫女壻이기 때문이다.<sup>42)</sup>

누정에는 함께 교류하며 출입하던 문사들의 누정제영이 현액 되어 있기 마련인데, 수운정에 당시 현액 되었을 누정제영을 찾을 수 없으나, 『송암유집』 卷之二 附錄 <岫雲亭韻>에 翠竹 李應著 3首, 鄭哲 1首, 李萬雄 1首 및 序 <岫雲亭序> 말미에 南浦 金萬英 1首의 수운정제영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송암과 깊은 친분을 맺고 교류를 나눴으며, 누정제영을 통해 수운정 주변의 아름다운 승경과 송암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가. 李應著의 岫雲亭題詠

이응시의 호는 翠竹이며 임녕대군의 후손으로 나주에서 살았다. 『송암유집』 往復書에 실린 參判의 벼슬로 官界에 나가 있던 취족이 수운정에 閑居하고 있는 송암과 주고받은 여러 편의 서신을 통해 서로의 정분이 매우 깊었음을 짐작케 한다. 1653년(효종 4) 5월의 15日 서신에는 ‘저번에 제가 시를 지어 애오라지 나의 회포를 풀어서 슬픈 생각을 쏘아 그칠 뿐입니다. 어찌 감히 원운을 짓겠습니까? 이것인즉 다시 작자에게 요구한 것이 어떠한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정자위에서 나의 한 몸을 다하지 못한

42) 余以所聞亭之嘗 自思菴朴相國 歷李氏至羅氏 更三主朴相國卜此江山不能 終老主之久于不復南還而以 鄉里故人之意 許龍江翁爲主也 龍江翁得此江山不能永年 主之又乏後孫世其家而一區餘地歸于公 公於龍江翁孫女壻故也 (前揭書. 卷2, 記, <岫雲亭重修記>).

것입니다.43)’ 라 하였으며, 1656년(효종 7) 6월 17일의 서신에는 ‘제는 겨우 옛 형상을 의지하니 다른 것은 족히 도가 없습니다. 능히 몸을 이루어 수운정 위에서 함께 십일간을 즐거이 지냈습니다. 당신께서 은혜롭게 고기 두 마리를 보내주셨으며, 멀리서 염려하는 은근한 정을 저에게 깊게 하였습니다. 어찌 이 같은 일에 감사하지 않으리오.44)’라 기록되었으니 송암과의 두터운 情을 잊지 못하여 그리워함을 느낄 수 있다.

취죽은 <岫雲亭韻>에서 송암과 더불어 수운정에서 나는 욕심 없는 삶과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듯 표현하고 있다. 제1수에서는 맑은 하늘과 영산강 수면 위에 비친 길푸른 산 그림자의 서경을 배경으로 높이 솟은 수운정 주변의 빼어난 승경을 표현하였다. 벗과 마주 앉아 술을 나누며 정답을 주고받는 정분은 더욱 깊어 그 곳이 바로 선경과도 같았을 것이다. 송암의 나이 80이 되어 호호백발의 호리호리한 모습을 깨끗한 학의 모습에 비유하였다.

飛亭三面散江湖	날 듯한 수운정 삼면엔 강물이 펼쳐 있어
勝地依然畫作圖	依然한 경치는 그림을 그려 놓은 듯하다
霧歛虹橋波上出	안개 속 홍예 다리 물결 위에 솟아있고
天晴螺黛鏡中孤	하늘은 맑고 수면 위에 검푸른 산은 외롭도다
常從酒戶爲賓主	항상 주막에 찾아가면 主賓이 마주앉아
欲向仙區問有無	선경을 향하고자 그 有無를 물어 본다
白髮蒼顏年八十	백발에 늙은 얼굴 나이 팔십이라
老君能似鶴清癯	老君은 학을 닮아 호리호리 하구나

제2수에서는 노년에 송암과 신선이 되어 즐기는 수운정에서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43) 弟重入脩門 僅支昔狀 他不足言 向奉拙製 聊以寄懷 以瀉吟悵之思而止耳 何敢作元韻此則更求於作者 如何但恨 不得致身於亭上 穩做一場軟語 奈何奈何.(上揭書, 卷2, 書, <往復書>).

44) 弟僅支舊狀 他無足道 何能致身岫雲亭上 共作十日歡也 令惠二魚非爲物也 深荷令遠念之 慙慙 何謝如斯.(上揭書, 卷2, 書, <往復書>).

亭子平臨萬里天	정자는 만리 하늘 아래 평평한 곳에 임해있고
暮年休隱二神仙	老年에 쉬면서 두 신선이 되니
一雙白鳥來窓外	한 쌍의 白鳥는 창밖에 날아들고
百尺靑龍落檻前	백 척의 푸른 용 정자 앞에 내린다.
雨過草光浮海岸	비 갠 뒤 풀빛이 해안에 떠오르니
月明人語在漁船	밝은 달과 사람의 말소리 어선에 남아있도다
憑欄恍若風生腋	난간에 기댄 황홀함에 겨드랑이에선 바람이 이는 듯
欲喚洪崖共拍肩	큰물을 부르고자 언덕에서 함께 어깨를 쳐본다.

푸른 바다와 흰 백조가 색채의 대응을 이루는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솟아있는 수운정 에서 주인인 송암과 知音의 취죽 모습은 신선이 된 듯하다. ‘창밖에 한 쌍의 白鳥가 날고 百尺의 靑龍이 정자 앞에 내린다.’라고 仙界와 같은 수운정의 勝致를 표현하였다. 고요히 어둠이 찾아와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있고 아련히 들리는 말소리만이 여운처럼 남아 있는데 마치 羽化登仙이 되어 하늘을 날 것만 같다.

또한 제3수에서는 ‘정자 아래 봄은 흘러 깊고 또 깊어 가는데 수운정 위의 흰구름 편안함에 뜻이 있도다’(亭下春流深復深 出岵白雲寧有意)라 하여 자연 속에 몸을 맡기니 시간은 말없이 흘러가고 세상 욕심엔 뜻이 전혀 없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승경을 안고 있는 수운정에서 우국치신의 뜻을 다 이룰 수 없지만 석양에 술자리를 펴니 마음속 번민이 다 날아간 듯하다’(安得致身圖畫裡 夕陽開酒豁煩襟)고 노래하고 있다.

#### 나. 鄭哲의 岵雲亭題詠

정절은 진주인으로 호는 竹西이며 학문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학자들의 질의응답에 능하였다.<sup>45)</sup> 『송암유집』 <岵雲亭韻>에 그가 제작한 7언율시의 題詠詩가 전한다.

45) 나주군지편찬위원회, 『나주군지』 제8편 인물, 1980, 749쪽.

逢迎石逕歸蒼苔	돌길에 마중 나가 푸른 이끼 사이로 돌아
携上高樓豁客懷	손을 끌며 높은 다락에 올라 쓸쓸한 회포를 씻어버리네
晴嶂巧當危檻擁	맑게 갠 산 이름답게 정자를 끌어안고
漁舟催趁暮潮回	고기잡이 배 재촉하여 나갔다 저무는 조수에 돌아온다
行人杳杳雙橋迥	행인은 아득하게 쌍다리에서 멀어지고
芳草萋萋兩岸開	향기로운 양 언덕에 풀 무성하게 피어있네
徙倚却忘歸路冥	배회하다 돌아가는 길 어두움도 잊어버렸으니
願將江水更添盃	원컨대 강가에서 한 잔 술 나누고자 하네.

누정으로 향하는 오솔길 사이로 바위에는 푸른 이끼가 덮여있고 수운정에 오르니 탁 트인 정경에 客懷도 활연해짐을 느낀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고기잡이배는 돌아오고 오가는 다리 위의 행인들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멀어지는데 오히려 양 언덕에 풀은 더욱 무성하게 자라있다. 이곳저곳 바라보며 자연을 음미하다보니 어두움이 밀려옴도 잊어버리고, 저녁 강가에서 벗과 더불어 한 잔 술을 더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다. 李萬雄의 岫雲亭題詠

수운정을 출입하였던 인물 중 監司 李萬雄 역시 송암에게 보낸 서신 중에 ‘둘째 조카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싶으나 천리 먼 땅에 모자가 나뉘어 떠나 있을 것에 또한 심히 걱정스러워 학문을 폐한지 오래 되었으나 과단을 내기지 못해 염려가 된다(又何望次姪切欲率來教誨而千里遠地母子之分離亦甚可愍以此尚不果焉廢學之久誠可慮也)<sup>46)</sup>’는 기록으로 가족간의 염려와 배려하는 마음을 간절히 전하고 있어 송암과 정 의가 두터운 인물임을 알 수 있다.

樓外湖江漾蒼苔	누각 바깥 호수에 푸른 이끼 출렁거리고
樓中爽氣滌煩懷	누각 가운데 시원한 바람 번뇌를 씻어버린다

46) 上揭書 卷2, 書, <往復書>.

孤雲出岵當窓見	외로운 구름 산봉우리에서 솟아 창밖을 보니
大野連天抱檻回	넓은 들 하늘에 닿을 듯 누정을 감싸 안았네
入浦商帆潮後落	포구에 들어선 장사배 조수 후에 정박하고
隔烟漁戶柳邊開	멀어지는 안개 사이 어부의 집 가에 버드나무 늘어서 있네
萍逢此地仍佳會	부평초 같은 이 땅을 만나니 거듭 아름다운 만남이여
投轄須教數喚盃	비너를 던져버리고 모름지기 술잔을 불러일으키네.

탁 트인 누정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세상사의 번뇌를 씻고, 눈을 들어 산봉우리에서 솟아오르는 구름을 보니 마음은 상쾌해진다. 멀리서 장사배는 포구로 들어와 정박한다. 부평초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 송암과의 만남을 佳會라고 여기며, 술 한 잔을 나누는 회포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라. 金萬英의 岵雲亭題詠

만영은 湖南人으로 호는 南浦이며, 학행이 현저하였고 숙종 때 洗馬벼슬을 내렸으나 부임하지 않았다.<sup>47)</sup> 김만영은 <수운정서>를 기록하고 그 말미에 7언율시의 시를 남기고 있다. 1665년(顯宗 6년)에 쓴 <錦江重修契書>는 나주군 왕곡면에 있는 錦沙亭에 현액되어 있는 것인데, 錦沙亭이 중수되고, 그 契會의 중수를 기록한 글이다. 금사정은 원래 중종·명종대에 송암의 고조인 나일손, 백호 임제의 조부인 임봉의 선비들이 중국 왕희지의 난정계 옛 일을 염두에 두고 금강에서 11인계를 조직하고 세운 정자이다. 임진란을 만나 소실되었다가 을사년에 永平에서 고향에 돌아온 南圃가 어른의 뜻을 받들어 11인의 옛 契券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이때 금사정도 중수되고 錦江之契를 회복하기 위해 중수를 기록한 내용이 <錦江重修契書>이다.

<수운정서> 말미에 덧붙여 전하는 남포의 수운정제영은 다음과 같다.

47) 『나주군지』, 상계서, 750쪽.

翼然高閣海山東	나는 듯한 높은 亭子 海山 동쪽을 향하고
迥壓蓬瀛氣勢雄	멀리 봉래와 영주의 仙山 누르는 기세 강하구나
鶴學西湖千古月	학은 千古의 달빛을 찾아 西湖를 찾아 날고
鵬傳南極九天風	봉새는 하늘 위 바람을 타고 南極에 이르도다
登臨抖擻心魂爽	누정에 올라 心魂이 시원해짐을 깨닫고
俯瞰還驚宇宙空	구부러 멀리 바라보니 우주의 空豁함에 놀라노라
攬舊不須興感慨	옛 것을 잡아 깊은 감흥 일지 않으려 해도
此身如寄此寰中	이 몸이 마치 仙界에 의지해 있는 듯하다

이 시는 두런부터 기세가 당당하다. ‘날 듯한 정자가 海山의 동쪽을 향해 나래를 펴고, 멀리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과 영주산의 기세를 압도하는 듯 하다’라고 하였으며, 함련의 鶴과 鵬은 수운정에서 孤高하게 살아가는 정자주인을 비유한 시어이다. 특히 학은 자연을 벗 삼아 살았던 西湖의 鶴去處土로 알려진 임포를 떠올리게 한다. 경련에서는 ‘心魂이 맑아지고 우주의 空豁함에 놀란다’고 하여 누정에 오른 소감을 시원스레 토로하였으며, 미련에서는 탁 트인 山水 속에 펼쳐진 만물을 내려다보니 마치 선계에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김만영의 수운정제영은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활달한 기개와 함께 주변의 승경을 仙界로 표현함으로써 세속의 티끌을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송암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송암과의 두터운 정분으로 송암이 세상을 떠날 때도 깊은 정의를 담아 쓴 挽章이 『송암 유집』에 전한다.

#### IV. 岫雲亭의 樓亭時調

##### 1. 松岩의 <江湖九歌>

송암의 누정시조인 <江湖九歌>는 경주목사를 마치고 만년에 고향인 나주의 榮江 위에 수운정을 세우고 강호한정을 즐기며 제작한 국문 시조 작

품이다. 제작 시기는 <江湖九歌> 第1首에 ‘倏然히 七十이 무니 홀일 업서  
호노라’ 와 第9首에 ‘食祿을 굿친 後로 漁釣로 生涯호니’ 의 詩句를 통해  
송암의 70세 이후의 제작임을 알 수 있다. 수운정의 건립이 송암의 나이  
70세이며, ‘경주목사 致仕 후 退官’하였다 하였으니 모든 번거로움을 떠나  
고향에 이른 이 무렵부터 강호구가를 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江湖九歌>는 송암의 후손 집에 소장된 『나씨가승』 및 1979년 후손 羅  
容均이 편집 발행한 『松巖遺集』에 수록된 9수의 연작시조로, 강호에서 누  
리는 안분지족의 생활을 표현한 누정시조이다.

<江湖九歌>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江湖九歌

其一

어버이 나호셔늘 님금이 먹이시니  
나흔德 먹인恩을 다 갑프라 호엿더니  
倏然히 七十이 무니 홀일 업서 호노라

其二

어의 聖恩이야 罔極홀슨 聖恩이다  
江湖安老도 分밧기 일이어든  
호딜며 두아들 專城榮養은 쏘 어인가 호노라

其三

烟霞의 김피곤 病藥이 效驗업서  
江湖에 브리연더 十年밧기 되여세라  
그러나 이제디 못 죽음도 聖恩인가 호노라

其四

전나귀 밧비모리다 점은날 오신손님  
보리피 구즌 패예 饌物이 아조 업다  
아희야 비내여 썩워라 그물 노하 보리라

其五

들끓고 바람자니 물결이 비단일다  
短艇을 빗기노하 오락가락 흥은 興을  
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世上알가 흥노라

其六

모래 우희 자는 白鷗 閑暇흥사  
江湖 風趣를 네 디닐씨 내 디닐씨  
夕陽의 半帆歸興은 너도 말만 못흥리라

其七

ㄹ눈비 빗긴브람 낮대 멘 더 하나바  
네生涯 언마치라 슈고롬도 슈롤샤  
生涯를 爲호미 아니라 漁興계위 하노라

其八

피燒酒 무우저리 우웁다 어룬 待接  
늪은 저닐은 말이 草草타 흥거마는  
두어라 니도 내分이니 分內事인가 흥노라

其九

食祿을 굶친 後로 漁釣로 生涯흥니  
험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흥건마는  
두어라 江湖閑適이 이내 分인가 흥노라<sup>48)</sup>

第1首는 아버지 은혜와 임금의 은덕을 다 갚을 길이 없음을, 第2首는 강호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함과 袖과 襟의 두 아들을 보살펴준 聖恩, 第8首는 생활의 분수에 맞게 손님을 대접하는 소박한 생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第1,2首는 공직자로서 받았던, 부모의 은혜와 다를 바 없는 임금은 은덕과 第8首에서는 안분지족의 소박한 생활을 표현하였다.

48) 上揭書, 江湖曲, <江湖九歌>.

특히 第1, 2首에서는 두 아들 衲과 攀이 나주의 근읍에 머물며 벼슬하도록 하여 養親에 도움을 주도록 한 감사함<sup>49)</sup>이 담긴 시조로, 이처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연군을 그리는 뜻에서 제작한 작품에 7언 절구로 된 戀闕<sup>50)</sup>의 시가 있다.

十載江湖抱病身	강호에 병든 몸이 십년이 되었는데
愛君丹悵老彌新	愛君의 충정은 늙도록 더욱 새롭다
應知窓外今宵月	오늘 밤 창밖의 달은 응당 알 것이니
分照西方美一人	西方의 임을 찾아 비취주소서

<강호구가> 9首 중 특히 第3首부터 第7首까지, 그리고 第9首는 강호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생활의 흥취를 주로 노래하고 있다. 즉, 9首 중 위의 3首를 제외한 6首는 수운정에서의 강호흥취를 표현하였다.

第3首는 10년이 넘도록 강호에 묻혀 성운을 생각하는 煙霞痼疾의 강호생활, 第4首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饌物이 없어 그물을 던지는 소박한 생활, 第5首는 달밤에 조각배를 띄우고 즐기는 物外自適의 흥취, 第6首는 석양에 歸船하는 배를 보며 갈매기와 함께하는 물아일체의 즐거움, 第7首는 가는 비바람 속에 낚싯대를 멘 漁翁의 흥취, 第9首는 벼슬길에서 退仕하여 한가롭게 낚시로 소일하는 강호한정 등을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 隱逸하는 즐거움을 모래 위의 白鷗와 함께 나눔으로써 物我一體의 경지를 한껏 표현하였으며, 석양의 半帆歸興과 생계에 얽매이지 않은 漁興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두 아들의 영화로운 봉양과 煙霞痼疾의 깊은 병에 강호에 묻혀 10년이 넘도록 무사하게 살아감을 성운으로 돌리고 있다. 날 저물어 찾아온 손을 대접한 찬이 없어 그물을 놓아보겠다는 표현은 벼슬에서 宦路하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9) 兩子衲攀相繼宰近邑便養人皆榮之公居恒感頌曰 君恩如天(上揭書 卷2, 記, <事實記>)

50) 上揭書 卷1, 詩, <戀闕>.

## 2. <江湖九歌>와 <漁父四時詞>의 相關性

송암의 <江湖九歌>는 9수의 연작시조이며 일종의 <漁父歌>인 樓亭時調이다. 국문학상 연작시조로는 맹사성의 <江湖四時歌> 4수를 비롯하여 이황의 <陶山十二曲> 12수, 이이의 <高山九曲歌> 10수, 張經世의 <江湖戀君歌> 12수, 윤선도의 <漁父四時詞> 40수, 송암의 <江湖九歌> 9수 등 여섯 편을 으뜸으로 손꼽는다. 아울러 이황의 작품을 제외한 다섯 편은 다 같은 계열의 강호가로서 시문학상 강호 한정류의 백미로 평가된다. 그중 송암의 시조는 조선 전기 강호시가의 흐름을 그대로 계승한 대표작으로 지적된다.<sup>51)</sup>

또한 <漁父歌>라 하면 「樂章歌詞」에 전하는 <漁父歌>와 농암 이현보의 <漁父長歌>,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漁父四時詞>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악장가사」의 <어부가>는 농암의 작품과 구별하여 흔히 <原漁父歌> 또는 <古漁父歌>라 한다. 고산은 <고어부가>와 농암의 <어부장가>를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集古詩의 구성을 벗어나, 내용의 뜻을 풍부하게 더 넓히고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새롭게 환골탈태하여 사시마다 각 1편 10章씩 총 40수의 연시조를 창작하였다.

조선조 대표적 연작시조인 고산의 <漁父四時詞>와 송암의 <江湖九歌>를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외형상 차이점으로는 먼저 <어부사시사>에 등장하는 ‘지국충, 어사와’ 등의 여음구가 <강호구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산의 <어부사시사>는 고려 때의 <고어부가>로부터 형성된 정격 어부가의 시형을 그대로 계승한 ‘지국충 노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고산의 <어부사시사> 40장 가운데 제1장을 보면, 뱃노래임을 표징하는 ‘배떠라, 지국충, 어사와’ 등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51) 『左參贊公 松岩 羅緯素先生 神道碑銘』, 前掲書, 54쪽.

압개에 안개 짓고 뒤희회 히 비친다  
비떠라 비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온다  
至지芻국松총 至지芻국松총 於어思사畝와  
江강村촌 온갓 고지 먼 빗취 더욱 도다<sup>52)</sup>

그러나 <어부사시사> 40장은 곧 40수의 작품으로 하나하나의 노래는 여음을 빼고 나면 초·중·종으로 나누어 거론할 수 있는 3행시이며, 2구 4보격의 시행으로 형성되어 이 노래가 시조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다음으로 내용과 구성면에서 <어부사시사>는 사계절의 승경을 각각 10수의 시행에 담되 치밀한 구성으로 아침에 배를 띄어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출범에서 귀범까지의 하루 일정을 담아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 각 작품마다 어부의 생활을 아름다운 우리말 시어로 노래하고 있으며, 시적 구성 또한 유기적이고 질서 있는 긴밀한 형태를 통하여 40수의 장편 연시조가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있다. 반면, <강호구가>는 강호에서 두 아들의 공양을 받으며 편히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임금의 은혜와 함께 계절과 시간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사계절의 자연스런 순환 속에서 느끼는 어부의 흥취와 유유자적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작품 탄생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고산이 부용동 일대에 구축한 조형자연 중 <어부사시사>의 주된 배경으로 등장하는 洞天石室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이곳에 귀환하는 것으로 끝맺음으로써 동천석실이 작자에게 현실에서의 이상적 회귀처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sup>54)</sup> 그러나 <강호구가>의 수운정은 1620년(광해 12) 2월 송암이 39세 되던 해 修義副尉에 제수된 이후 1651년(효종 2) 나이 70세 경주목사를

52) 박준규,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303~304쪽.

53) 박준규, 上揭書, 348~349쪽.

54) 김신중, 『韓國 四時歌의 研究』,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09쪽.

끝으로 고향에 돌아온 때까지 仕途에 머무른 30여 년을 마무리하고 치사 은퇴 후 유유자적하는 강호생활을 시작하는 안식처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외형상 여음구 유무와 내용 구성 외에 조선조 대표적 연시조이며 어부가라 칭할 수 있는 고산의 <漁父四時詞>와 송암의 <江湖九歌> 두 작품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어부사시사>가 갖는 뱃노래임을 뜻하는 여음구의 반복을 제외하면 두 작품이 아름다운 강촌에서 어부의 은일적 흥취를 표현한 어부가로서 연시조라는 공통점이 있다. 언급한 것처럼 고산의 <강호사시사>는 春·夏·秋·冬 四時에 각 1편이요, 각 편은 또 10장씩 총 40장의 연시조로 여음구를 갖는 어부가이며, 송암의 <강호구가>는 여음구는 없으나 유유자적한 강호의 생활을 노래한 9수의 연시조라는 점에서 형태상 공통점을 갖는다.

둘째, 작품이 창작된 공간적 배경이 명분과 실리를 앞세우는 세속과 거리를 둔 강과 바다라는 점이다. 고산이 보길도를 찾게 된 동기는 51세 때(인조 15) 병자호란 시 三田渡에서 ‘城下之盟’의 치욕스런 和議가 이루어졌음을 듣고 치욕을 잊고 은둔하고자 제주도를 향하던 중 佳境의 보길도를 발견하고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향년 85세 되던 1671년(현종 12) 부용동의 낙선재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십수 년 동안 보길도에서 생활하게 된다.

<어부사시사>는 고산이 65세(효종 2) 때 창작한 작품으로 보길도의 자연 환경을 그 배경으로 삼았으며, 송암은 영산강변에 수운정을 짓고 강호구가를 창작함으로써 두 작품이 현실을 벗어난 無慾의 공간으로서 강호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두 작품의 상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요소에는 같은 남인 계열로서 두 사람의 인간적 교유의 친밀성과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동일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암 나위소는 고산 윤선도와 조선 전기 같은 남인으로서 兩者의 믿음과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이러한 友誼는 『송암유집』에

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보길도와 수운정 사이에 서신으로 왕래한 여러 편의 <往復書>와 고산의 장자인 윤인미와 주고받은 서신에서도 양가 사이의 정의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송암의 별세에 고산과 윤인미는 만장을 써서 그의 죽음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병자년 12월 10일의 서신에서는 ‘인간의 만나고 합함은 운수일 따름이나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한가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 것이 인간사에 가히 기약하기가 어려움<sup>55)</sup>’을 통해 마음처럼 쉽게 만나지 못하고 단지 서신만을 주고받는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송암의 나이 76세 때 송강 정철을 받들던 사람들에 의해 己丑獄死가 다시 거론되었다. 羅氏側에서 건립한 困齋祠堂은 이때에 헐리었다. 錦湖 羅士沈은 송암의 祖父로 금호의 여섯 아들 중 羅德明, 羅德峻, 羅德潤 등은 困齋 鄭介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가 기축옥사 때 곤재와 함께 화를 입었다 풀려나기도 하였다. 남인들이 정개청 선생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를 올리자, 때에 정철의 당은 다시 권력을 부려 임금께 아뢰어 사당을 헐어 버리니, 고산은 이에 대해 상소를 올렸으며, 송암은 스스로 꾸짖어 이르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음이 심히 부끄럽다<sup>56)</sup>고 하였다.

이처럼 정유년 가을 곤재 정개청의 사당이 허물어져 수리하는 것에 정철이 반대하자 송암과 같은 남인 계열인 고산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상소를 통해 변론해 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잊지 못하였던 것이다.

송암은 고산보다 5세 年長이지만, 양자는 매우 가까운 知己之間이었는데, 고산이 보길도에서 어부생활을 영위하여 어부사시사를 제작한 1651년(효종 2)은 송암이 강호구가를 지은 때와 거의 같은 무렵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같은 풍류생활의 동일성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55) 人間會合 數也而會合之時與地 亦無非數也 況雲泥困忙 會合於湖山勝地 人事之可期乎 而兄與我累書復數還可笑也 諸餘伏枕忘言所祝行李萬相 伏惟心諒 謹拜謝狀 上丙子臘十日服人善道拜(上揭書 卷2, 記, <往復書>).

56) 困齋祠被毀 當路爲鄭澈傳法沙門又迫捏之也 尹參議善道上疏卜之不得入 公私自憤歎曰 今日隻手孤撐賴有尹約而耳 吾輩有生何愧也.(上揭書 卷2, 書, <往復書>)

다.57)

이처럼 송암이 <강호구가>를 제작한 것은 경주목사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나이 70세 이후로 고산이 보길도에서 <어부사시사>를 제작한 辛卯年과 비슷한 시기이다. 두 사람 모두 영산강과 남해 바다를 곁에 두고 현실 정치 세계에서 물러나 안식처를 경영하며 자연 속에서 어부의 흥취를 누리는 가운데 어부가라 할 수 있는 연시조를 창작한 것은 앞으로 두 작품의 상관성에 대해 깊은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 V. 맺음말

누정은 대부분 지적 교양인이 시문을 닦은 곳이자 講學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뜻을 같이하는 문인과의 교류를 통해 문단을 형성하고 시문학이 잉태된 문학 창작의 주요 공간이다. 선비들은 누정의 경영에 관심을 가졌으며, 現官에서 退官한 선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의 누정에서 학문과 시문을 담론하기도 하고, 管路에서 물러나 老年의 거처로 여겼던 것이다.

송암 나위소는 1582년(선조 15) 나주에서 출생하여 1666년(현종 7)에 향년 8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조선조 仁·孝宗代의 나주 인물이다. 수운정을 건립하고 누정제영을 창작한 그의 생애와 문학은 후손이 撰한 『松巖遺集』에 전해진다.

영산강변에 건립되었던 수운정은 현재 그 터만 남아 있으며, 건립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선산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다음으로는 致仕 후 노년의 생애를 보내기 위해 지은 것으로 교류를 나누며 주변의 승경을 노래함으로써 수운정제영을 창작하는 작품 산실의 역할을 하였으며, 세번째는 친척과 선조들의 누정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57)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전계서, 1989, 202쪽.

이처럼 송암은 1651년 나이 70세 경주목사를 끝으로 고향에 돌아와 선산 아래 榮山 三榮里 榮江 위에 수운정을 경영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수운정제영과 국문 시조인 9수의 연시조 <江湖九歌>를 창작하였다.

누정에는 이를 경영하는 누정의 주인은 물론 함께 교유하며 출입하던 문사들의 누정제영이 현역 되어 있기 마련인데, 『송암유집』에는 翠竹 李應蓍, <錦江重修禊序>를 쓴 南浦 金萬英, 李萬雄, 鄭哲 등의 수운정제영이 기록되어 전한다.

송암의 詩歌 중 누정제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 1수, <次溪亭韻> 1수, <岫雲亭即景> 3수, <岫雲亭即事> 3수, 국문시조인 <江湖九歌> 9수 등이다.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은 伯父 龜菴公의 능허정시에 차운한 시로 삼공의 영화를 버리고 자연과 벗하는 물외한정의 즐거움을 표현하였으며, <次溪亭韻> 역시 소나무와 대나무로 둘러싸인 계정 주변의 선경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岫雲亭即景> 3수, <岫雲亭即事> 3수의 수운정제영은 나주 영산강을 배경으로 산수의 아름다움 속에 江湖勝致를 즐기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넉넉한 자연관을 그림으로써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룬 순수 서정시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江湖九歌>는 9수로 된 누정시조로 고산 윤선도의 <漁父四時詞>와 같은 계열의 어부가로 생각되며, 자연과 벗하며 無慾의 어부 삶을 살아가는 강호생활의 유유자적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송암과 고산은 같은 남인 계열로서 『송암유고』에 실린 <왕복서>와 <사실기>를 통해 兩者의 돈독한 우의를 짐작할 수 있는데, <강호구가>는 <어부사시사>와 함께 연시조의 형태가 같으며, <어부사시사>가 제작된 1651년에 <강호구가> 역시 이 무렵에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어 강호에서 누리는 풍류생활의 동일성에서 잉태된 두 작품의 상관성을 더 깊이 연구해 볼 과제를 앞으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松岩公宗中, 『松巖遺集』, 1979.
- 나주군지 편찬위원회, 『羅州郡誌』, 1980.
- 나주나씨문집목록, 나주시문화원, 1996.
- 羅州羅氏 松岩公宗中, 「左參贊公 松岩 羅緯素先生 神道碑銘」, 2006.
- 學民文化社, 『詳說 古文眞寶大全 後集』, 1992.
- 김신중, 「韓國 四時歌의 研究」,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박준규, 「한국의 樓亭放」, 『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7.
- \_\_\_\_\_,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 \_\_\_\_\_,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어문논총』 10·11,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 \_\_\_\_\_,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羅州地方樓亭文化의 綜合的 研究」, 1988.
- \_\_\_\_\_,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 『湖南文化研究』 第14輯, 1985.
- \_\_\_\_\_,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I)」, 『湖南文化研究』 第15輯, 1986.
- \_\_\_\_\_,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II)」, 『湖南文化研究』 第16輯, 1987.
- \_\_\_\_\_,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V)」, 『湖南文化研究』 第17輯, 1987.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 Song-am, Na Wi-so and The Literature of Soowoonjung

Yu, Soo-yang

Naju which is surrounded by mountains, plains, and rivers has abundant products and its unique agricultural culture. So, many writers in Naju lived a poetical life based upon this excellent environment. These features after all have made Naju the space of creative literature.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Jeonnam(from 1985 to 1987), the existing Nujungs in Naju are 59 dong. On the other side, the total figures of Nujung, said *Najugunji* made by Na Do-sun, etc., are about 300 dong.

Song-am, Na Wi-so(1582~1667) had lived from Sun-jo dynasty to In-jo dynasty and we can learn his life and works through *Songamyugip* compiled by his posterity. It is said that there were two pine trees behind his house. So he made his pen name Song-am and after that, he would use a self-made one. He was also called Namhobyongsoo.

In Accordance with *Jeonnamdoji*, Soowoonjung where Song-am had spent his retired life was located in Yongsan riverside, although it is now nonexistent. Here Song-am wrote Nujungjeyoung which praises the beauty of Soowoonjung and *Ganghoguga* which is Nujung Si-jo 10 pieces.

In general there are a lot of Nujungjeyoungs written by the owner of Nujung as well as its visitors in Nujung. In *Songamyugip*, there is *Soowoonjungjeyoung* by Chi-juk Lee Ung-si, Nam-po Kim Man-young, Lee Man-ung, and Jeong Jeol.

Nujungjeyoungs in Song-am's Si-ga are as follows. *Gyongchanungherjun-gbaekbuguiamgongwoon* 1 piece, *Chagyejungwoon* 1 piece, *Soowoonjungj-ukgyong* 3 pieces, *Soowoonjungjuksa* 3 pieces, and *Gangjoguga* 9 pieces which are Korean Si-jo.

*Gyongchanungherjungbaekbuguiamgongwoon* which chants happiness out of riches and honors rhymes with Baek-bu Guiamgong's *Nungherjungsi* and *Chagyeyungwoon* praises beautiful scenery of Gyejung surrounded by pines and bamboos. And *Soowoonjungjaeyoung* describes generous view of nature which can enjoy the beauty of nature out of the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It is a lyric poem with Youngsang river as its setting. *Ganghoguga* is a Nujung Si-jo made by 9 pieces. It is considered to belong to a kind of fisherman's song like Go-san Yun Sun-do's *Euhbusasiga* and shows us the life free from worldly cares.

Song-am and Go-san are both the school of Namin. We can guess their friendly relationship through *Wangbokseo* and *Sasilgi* in *Songamyogo*. Moreover *Euhbusasiga* and *Ganghoguga* had same form and also wrote same period. So it is thought that both works come from the same environment where their writers enjoy their life as well as write on a similar subject.

**Keywords** : Song-am, Na Wi-so, Soowoonjungjukgyong, The Literature of Soowoonjung, Ganghoguga, Nujungjeyoungs

K C I

к с і

# 禪茶一如의 詩境

-梅月堂의 茶詩를 중심으로-

林俊成\*

## <차 례>

1. 머리말
2. 禪과 茶의 관계
3. 梅月堂의 茶詩
  - 1) 僧侶와의 交遊
  - 2) 相卽相入의 禪味
4. 맺음말

## 1. 머리말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詩 2,200여 수 가운데 茶를 소재로 또는 주제로 삼은 작품이 『梅月堂全集』<sup>1)</sup>에 67편 73수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우리나라에 茶가 전래<sup>2)</sup>된 이래 僧俗을 통틀어 가장 많은 茶詩<sup>3)</sup>를

\* 한양대학교

1) 본 연구는 宣祖 16년에 李山海가 序文을 붙여 예문관에서 갑인자로 간행한 『梅月堂集』(甲寅字本 23권 11책, 新活字本)과 原集, 續集, 別集, 外集, 附錄으로 새로 영인한 『梅月堂全集』(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년)을 주자료로 삼았다. 詩文의 翻譯은 『國譯 梅月堂集』(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을 참고하여 필자 나름대로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2) 茶가 문헌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 金富軾의 『三國史記』에 전한다. 신라 興德

남겼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는 단순히 茶를 마시고 이에 대한 느낌만을 詩化시킨 것만은 아니다. 직접 몸소 차를 재배하기도 하고 만들면서 그 자신 또한 茶의 性品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한 점은 그의 삶에 茶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그의 茶詩를 살피는 것은 茶를 飲用차원에서 벗어나 禪的으로 수용했다는 점은 그의 시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2. 禪과 茶의 관계

佛家에서 茶를 수행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趙州從諗(778~897)의 ‘喫茶去’라는 公案이 대두된 것에서 비롯된다. 趙州의 ‘茶 한 잔’의 공안은 茶 한 잔을 통해 서로가 分離되지 않는 緣起實相의 세계가 온전하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모든 존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선가의 수행법인 것이다. 이는 한 잔의 차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진실되게 지켜보는 직접적인 체험이기에 선가에서 자주 애용되는 공안이기도 하다.

趙州가 두 사람의 새로 온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가?”

한 스님이 대답했다.

“와 본 적이 없습니다.”

王 828년의 기록을 보면 “唐에서 돌아온 사신 大廉이 茶의 種子를 가지고 오니, 왕은 그것을 地理山(오늘날의 智異山)에 심게 하였다. 차는 善德王 때부터 있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 성하게 되었다. 入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하여 이 시기에 우리의 차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는 신빙성이 약하다. 『삼국유사』 駕洛國記에 보면 首露王妃 許黃玉에 의해 인도로부터 전래되었다는 기록과 차씨의 화석조사 결과 이 땅에도 원래 자생하고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여기서 茶詩는 일정한 양식적 틀을 지닌 한시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茶를 소재 또는 주제로 삼은 일반적인 시를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한다.

“茶 한 잔 드시게.”  
 또 한 스님에게 물었다.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와본 적이 있습니다.”  
 “茶 한 잔 드시게.”  
 院主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께서 와보지 않는 스님에게 차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그만두고라도 무엇 때문에 와본 적이 있는 스님에게도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하십니까?”  
 스님께서 “원주야!”하고 부르니 원주가 대답하자.  
 “茶 한 잔 드시게.”<sup>4)</sup>

이 공안은 茶 한 잔을 마실 때 ‘있는 그대로의 차맛’을 안다면 그 마음은 바깥의 갖가지 대상이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여의기에 흔들리지 않는 빈마음의 평상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주스님께서 觀音院에 처음 온 스님이나 한 번 와본 적이 있는 스님에 대해서 똑같이 ‘茶 한 잔 드시게’라 한 것은 참선을 하기 위해 온 스님들에게 ‘무엇인가 얻고자 들고 온 마음’을 놓게 하려는 방편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차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대들의 마음 또한 욕심이다. 따라서 그 마음을 놓지 않고서는 禪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을 놓고 부처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차를 마시듯이 禪을 참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주스님은 ‘茶 한 잔 드시게’라는 말 한 마디에 갖가지 망상을 제거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것을 차를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원주는 오는 손님마다 똑같이 대접하는 조주스님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다. 그 물음에 대해 조주스님의 답은 역시 ‘茶 한 잔 드시게’로 끝을 맺는다. 이는 사사건건 분별하고 의미 붙이기를 좋아하

4) 趙州從諗, 『趙州錄』, 藏經閣, 1991 : 師問二新到 上座曾到此間否 云不曾到 師云喫茶去 又問那一人 曾到此間否 云曾到 師云喫茶去 院主問和尚 不曾到教伊喫茶去即且置 曾到爲什麼教伊喫茶去 師云院主 院主應諾 師云喫茶去.

는 마음작용에 대한 경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相을 취하지 않는 조주스님의 평상심을 엿볼 수도 있다. 마치 달빛이 연못 속을 꿰뚫지만 물에 흔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선가에서 茶는 禪으로 가는 전제 조건으로서 방편이며, 언어기호<sup>5)</sup>로서 公案인 것이다. 흔히 선과 차는 같은 것이라 하여 禪茶一如라는 말을 애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엄연히 선과 차는 동일한 대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禪은 直觀하여 깨닫는 것을 본질로 하듯이 茶 한 잔을 통해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지 않고 맛보는 주체와 맛이라는 대상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인드라마의 그물처럼 상호의존의 관계에서 一切가 空함을 깨닫는 것을 말하기에 禪茶一如라 한 것이다. 여기서 一如를 바닷물로 비유할 수 있다. 바닷물은 어디서나 짠맛을 낸다. 마찬가지로 차수행을 하거나 선수행을 하게 되면, 마치 여러 줄기의 강물이 모두 바다에 이르러 하나의 짠맛이 되는 것처럼 차와 선은 서로 相即相入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禪茶一如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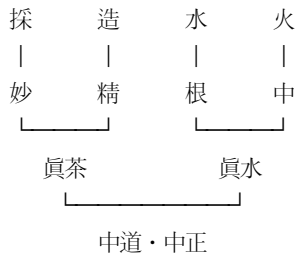
禪茶一如의 茶 한 잔을 내는 과정에는 中道の 특성과 맞닿아 있다. 茶를 지시적인 의미로 보면 禪家에서 飲用하는 기호품이다. 그러나 茶라는 언어기호의 경계를 넘어서면 깨달음의 直觀이라는 禪의 뜻을 함유한다. 直觀을 연기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며, 연기적 존재라는 것은 일체제법이 모두 연기에 의해 실현되고 따라서 空하다는 中道の 세계를 말한다. 茶 또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茶에는 四門이 있는 데, 첫째는 찻잎 따는 문이다. 찻잎을 딸 때에는 시기를 가려 이른 아침에 따야 하며, 따는 순간 玄妙<sup>6)</sup>함을 느껴야만 차의

5) 이도흠, 「화두와 선시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백련불교논집』 제11집, 2001, 84~94쪽 참조.

6)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찻잎을 딸 때 느끼는 깊고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이 때 힘들이지 않고 살짝 건드려만 쥐도 따는 느낌은 차와 나, 곧 주객의 일체가 되는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는 차만드는 문이다. 갖따온 차잎으로 차를 만들 때에는 오로지 精誠 一念으로 해야만 제대로 된 차가 된다. 여기까지는 眞茶, 곧 차의 완성 단계이다. 셋째는 물을 선택하는 문이다. 물은 茶의 體라 하여 根本에서 비롯된 것을 사용해야만 眞茶를 보일 수 있다. 넷째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문이다. 불은 文武火候<sup>7)</sup>를 조절하여 中和를 이뤄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眞水, 곧 물의 완성 단계이다.



이 四門은 艸衣禪師가 中國의 『萬寶全書』를 참조하여 엮은 『茶神傳』의 내용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艸衣禪師는 이를 제대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中正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中正은 中道와 같은 뜻으로, 곧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평형상태가 깨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알맞은 상태를 유지해야만 茶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보았으며, 이는 선수행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禪茶一如라 한 것이다.

### 3. 梅月堂의 茶詩

梅月堂이 茶에 심취하게 된 이유는 조선후기의 茶僧이었던 艸衣禪師

7) 불을 다루는데 文은 불기운이 약한 것을 말하고, 武는 불기운이 강한 것을 말한다. 불기운은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알맞아야 하는 것으로, 알맞고 적절한 불기운을 잘 조절하는 것을 文武火候라고 한다.

(1786~1866)가 ‘옛부터 聖賢들이 모두 차를 사랑한 것은 君子와 같이 사됨이 없는 성품 때문일세 古來賢聖俱愛茶 茶如君子性無邪<sup>8)</sup>’라고 노래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梅月堂과 艸衣禪師는 약 300여 년간의 시간차가 있으나 옛부터 성현들이 차를 좋아했다고 했으니 어려서부터 儒家的 삶을 지향했던 梅月堂에게는 차의 성품에서 사됨이 없다는 점은 곧 인간의 性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道의 길과 상통한다고 보아 일찍부터 茶生活을 즐겼으리라고 짐작하는 것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매월당의 문집 卷三에서 <釋老>라 하여 따로 편집될 만큼 승려들과 교류를 나누는 시가 여러 편 전한다. 방외인적 삶을 지향했던 그에게 승려들과의 만남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자신을 추스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차를 통해 그의 삶의 자세가 승려들과의 교류 속에서 어떠한 지향점을 찾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의 소박한 삶이 차 한 잔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시세계가 相卽相入의 禪味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승려들과의 교류

매월당은 젊은 적 품었던 꿈이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자, 세상에 대해 단념하고 전국을 주유하며 방외인적인 삶으로 일관했다.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은 그의 시문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승려들과의 교류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차 한 잔을 매개로 하여 佛道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점이 그 특색이라 하겠다.

參透禪關話葛藤    선의 관문 뚫으려고 갈등을 말하는데  
列峰如戟碧層層    창처럼 늘어선 봉우리가 층층이 푸르는데

8) 艸衣意恂, <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 『艸衣詩藁』.

尋根拔蔕君知否	뿌리 찾아 꼭지 뽑음을 그대는 아는가
摘葉尋枝我不能	잎새 따고 가지 찾는 걸 나는 할 수 있네
藥杵聲中敲翠竹	약 뿜아 방아 소리가 푸른 대를 울리고
茶鑪影裏點紅燈	다관 그림자 속에 붉은 등을 켜놓았네
自然會得禪家趣	자연히 禪家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므로
肯向傍人說上乘	즐겁게 옆 사람 향해 큰 법을 얘기하네 <sup>9)</sup>

위 시는 준상인에게 주는 시 연작 20수 가운데 17번째에 해당된다. 시 전면에서 禪關을 뚫기 위해 갈등을 말한다고 했다. 선관이란 깨침이자 해탈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갈등은 번뇌에 둘러싸인 迷妄이자 妄執이다. 창처럼 늘어선 봉우리가 층층이 푸르다고 한 것은 끊임없는 갈등에 고뇌하고 있는 시인의 맑은 마음의 상태이다. 곧 번뇌망상에 갈등하지만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시인의 마음 상태가 푸른 색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을 캐내기 위해서는 뿌리채 뽑아야 하는 법, 잎새 따고 가지 찾는 것으로는 임시방편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妄執의 실체를 일시에 거둬야만 하는 것이다. 후반부에서 시상은 전환된다. 방아로 약 뿜는 소리가 푸른 대나무 소리에 어울리고 다관 그림자 속에 붉은 등을 켜놓았다는 것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迷妄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관을 뚫는데 갈등은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러나 차 한 잔을 통해 자연스레 禪家의 정취와 깨달음의 실체를 얻었으니 즐겁게 옆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차 한 잔이 중요한 매개가 되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梅月堂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는 모친의 별세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5세 되던 해인 1449년에 모친을 여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인간적인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는 18세(1452년) 되던 해 송광사에서 모친상을 끝내고 그곳에 주석하고 계시는 峻上人과의 만남을 통해 불법을 논하게 되면서 점차 불도에 침잠하게 된다. 그는

9) <贈峻上人> 其十七, 『梅月堂集』 卷三.

뒷날 峻上人을 생각하여 「贈峻上人」 20수의 시를 연작하였다. 당시 그에게서 불교의 禪理 등 정신적 감화를 받은 사실을 序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峻上인은 禪門의 高僧이다. 처음에는 湖南의 은둔할 만한 곳에서 서너 해 동안 錫杖을 머물다가, 道力이 이루어지자 景勝地를 두루 여행하였다. 그러다가 홀연 한양을 방문하니 선비들과 부녀자들이 바퀴살 모이듯 하여 風聲을 바라만 보고서도 휩쓸려 教化하는 바가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없었다. 마침내 이름난 재상과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 거사들이 한사코 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늘 큰 發願을 다 맞추어주었다. 그것이 다 끝나자 다시 湖南으로 여행을 떠났으니, 용모와 풍채에 道骨이 있었다. 나는 壬申年(1452년) 여름에 상기를 마쳤는 데, 峻上인은 曹溪에 錫杖을 머무르고 있었다. 마침내 함께 上社臺에 머물면서 보니, 과연 평소에 듣던 바 그대로였다. 峻上인은 道理를 흠모하여 세속을 초탈하려는 마음이 말하는 표면에 뚜렷이 드러났다. 그래서 매일같이 禪道의 오묘한 關門에 대하여 여쭙었더니, 말씀이 낭랑하였다. 지난 날 찾아 구경한 경물을 인하여 문득 몇 편을 지어, 푸른 뽕 맑은 시내에서 먹고 자는 한 맛의 거리로 삼고 붓을 내달렸다.<sup>10)</sup>

위 序에서 알 수 있듯이 梅月堂은 모친상을 끝내고 송광사에서 머무르면서 당대의 고승대덕인 峻上人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다. 梅月堂은 예전부터 峻上인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왔으나 직접 대면하고 보니 과연 깨달음의 경지가 걸림없이 시원하였다고 칭송하고 있으며, 上求菩提 下化衆生을 濟度하는 실천수행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峻上인은 道理를 흠모하여 세속을 초탈하려는 마음이 言辭의 바깥에 뚜렷이 드러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禪理의 깊은 뜻을 바로 깨치고 眞俗不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梅月堂은 송광사에서 머무르는 동안 매일

10) <贈峻上人二十首> 序, 『梅月堂集』 卷三: 峻上人 禪門老宿 初於湖南 有可隱之處 住錫數年 道力既成 歷遍雲水 忽過京洛 士女輻湊 望風而靡 所化無同 乃因名宰及善信居士固請 因雅適大願 訖復遊湖南 容儀有道骨焉 僕於壬申夏 制弭 錫曹溪 遂同住上社臺 果如素聞 其慕道超脫之心 著於語辭之表 每日扣問禪關 語琅琅然 因其曩日探翫景 却掃數聯 以資碧峯清澗眠食之一味 拈翰走爾。

같이 峻上人을 찾아 禪門의 오묘함과 종교적 영향을 몸소 체험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碧山深處結茅菴	푸른 산 깊은 곳에 띠풀 암자 지으니
菴下澄澄萬丈潭	암자 아래 맑고 맑은 만길 깊은 못이로세
行處懶從雲共去	가는 곳 되는대로 구름따라 같이 가고
住時閑與月同龕	머물 때도 한가로이 달 아래 절방에 함께 드네
煎茶小室烟生廚	차 달이는 작은 방엔 부엌인 양 연기나고
采藥遠峯雲滿籃	먼 산에서 약캐는 데 들바구니엔 구름만 가득하네
不二法門怎麼認	둘이 아닌 법문을 어찌 아리
前三三與後三三	이것 저것 모두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sup>11)</sup>

위 시는 심은스님을 산으로 보내면서 그의 詩冊에 쓴 시 5수 가운데 두 번째이다. 푸른 산 깊은 곳에 소박하게나마 텃집을 지어놓고 보니 맑고 맑은 못물에는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자태가 푸른 산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정처없이 떠도는 구름은 자유자재롭고, 스님과 함께 머무는 방은 달빛아래서도 정겹기만 하다. 차달이는 작은 방에선 마치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친숙하다.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정신없이 캐는데, 고개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사방이 온통 구름 속이다. 頸聯 부분이 이 시의 詩眼이다.

불교에서 茶는 음료이면서도 깨달음의 方便으로 쓰인다. 半陰半陽의 생태적 특성에서 차는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다면 이를 가라앉혀주고, 마음자리를 곧게 해준다. 마음자리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림도 없는 본래 청정한 자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로 인해 분별심을 갖게 되면서 佛性에서 멀어진 것뿐이다. 불가에서 이를 회복하는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茶인 것이다.

위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頭聯부터 頸聯까지 서경으로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尾聯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시인은 이미 경련에서 심은스님과 더불어 차 한 잔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11) <送尋隱上人歸故山詩卷> 其二, 『梅月堂集』 卷三.

眞俗不二를 깨닫는다. 尾聯에 와서는 ‘둘이 아니다’란 화두를 어떻게 깨칠 것인가 하고 참구하는 중에 앞에서 셋이요, 뒤에서 셋이라는 말에서 단박에 깨친다.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집착하고 분별하면 깨달음에서 더욱 멀어진다. 이를 위해서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 분별을 넘어선 자리에서 自性の 戒, 定, 慧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根本佛敎<sup>12)</sup>의 참뜻인 中道인 것이다.

一見淸標似舊知	언뜻 보아 깨끗한 儀表 옛 친구 같은데
羨牆面目已多時	面目を 사모한 지는 벌써 오래 되었소
節操落落松筠態	節操 크고 높은 모양 소나무와 대나무요
容止昂昂鸞鶴儀	몸가짐 밝고 높아 난새와 학의 의표로세
禪榻靜看滄海月	고요히 참선 의자에서 창해의 달을 보며
茶泉閑擾碧澗螭	다친에서 한가로이 푸른 못의 교룡을 길들이는 듯
從師問道他時去	어느 땐가 대사에게 도 물으러 가면
積習玄眸肯刮鑿	검은 눈동자에 쌓인 백태를 금칼 긁어주시오 <sup>13)</sup>

위 시는 매월당이 수락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낙산사 선상인에게 주는 시 3수 중 첫 번째이다. 첫구에서 시인은 선상인의 인물됨을 한 눈에 알아본다. 시인은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깨끗한 의표가 옛 친구와 같다는 것은 자신이 품었던 청운의 꿈에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의 이름은 익히 들어왔지만 막상 만나고보니 과연 그 명성 그대로임을 인정한 것이다. 계속해서 시인은 스님의 풍모를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학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다.

경련에 이르러 스님은 선정에 든다. 시인은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창해의 달을 보듯이, 차달이는 푸른 샘물에는 교룡이 춤추듯이 한다고 하여 마음

12) 지금까지 원시불교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초기와 원시는 불교를 단순히 시기적으로 분류한 개념으로 적절치 못하다. 근본불교는 석가세존의 깨달음이 모든 불교의 근원이 되며, 그 가르침이 모든 불교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이름이라고 본다. 이종표, 『근본불교』, 민족사, 2003, 5~6쪽 참조.

13) <洛山寺贈禪上人>, 『梅月堂集』 卷三.

속 깊이 스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내 어느 때엔가 佛道를 물으러 가거들랑 내 검은 눈동장에 낀 백태를 금 칼로 긁어내어달라’고 가르침을 청한다. 여기서도 매월당과 선상인을 이어 주는 매개체로 茶가 등장한다. 비록 이 시에서는 소재이지만 차 한 잔을 올리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 교감은 나누게 된다. 불가에서 차를 올리는 것은 가르침을 청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불가의 禮佛儀式 중 부처상에 올리는 茶偈가 중요한 참고가 된다.

我今清淨水	제 이제 청정수를 올리
變爲甘露茶	감로차로 변하여지이다
奉獻三寶前	삼보전에 바치오니
願垂哀納受	원컨대 받아주옵소서 <sup>14)</sup>

위 다게에서 보듯이 불가에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은 곧 불도를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매월당 또한 법력이 높은 선상인에게 가르침을 청하는데 茶가 중요한 매개가 되었음을 위 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매월당은 峻上人, 尋隱上人, 禪上人 이외에도 敏上人<sup>15)</sup>, 昇義道人<sup>16)</sup>, 山上人<sup>17)</sup> 등과 교유를 통한 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茶라고 하는 것은 茶 한 잔을 통해 이들과 교유하는 데 적잖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相卽相入의 禪味

한시의 미학에서 情景論은 중요한 과제이다. 정과 경의 표현은 한시의

14) 안진호, 『釋門儀梵』 상권, 174쪽.

15) <贈敏上人>, 『梅月堂集』 卷三.

16) <題昇義道人詩卷>, 『梅月堂集』 卷三.

17) <醉次四佳韻贈山上人>, 『梅月堂集』 卷三.

고전적인 기법이면서 한시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梅月堂의 詩에서 情과 景은 相即相入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이 점은 그가 詩는 天機의 자연스런 노출이기 때문에 억지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며, 聲律의 구속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詩語를 구사하여 性情의 자연스러운 發露를 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禪은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직관적 깨달음과 證得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성이 있다. 中國 明末清初代の 詩論家인 王夫之(1619~1692)는 情과 景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情과 景은 이름은 둘이지만, 실제로는 나눌 수 없다. 시를 묘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양자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수 있어 가장자리가 없다. 빼어난 시는 情 가운데 景이 있고, 景 가운데 情이 있다. … 情과 景이 비록 한 가지는 마음에 있고, 한 가지는 사물에 있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그것들은 서로 생겨나는 것이다.<sup>18)</sup>

시는 뜻을 말하는 것[詩言志]이다. 뜻은 景에 情을 의지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情에 景을 의지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어느 것이 먼저이며, 어느 것이 나중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정과 경이 서로 어우러져 시인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佛敎詩에서도 이와 같다. 정과 경은 의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정과 경이 상즉상입할 때 言外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적 깨달음의 표현이며, 禪心의 표현인 것이다.

坐久不能寐	오래도록 앉아 있어도 잠 못 이루어
手剪一寸燭	한 치 남은 촛불 심지 베어 내었네
霜楓聒我耳	서릿바람 소리 내 귀에 들려오더니

18) 王夫之, <夕堂永日緒論>, 『王船山遺書』: 情景名爲二 而實不可離 神於詩者 妙合無垠 巧者則有情中景 景中情 … 情景雖有在心 在物之分 而景生情 情生景. (劉若愚 著/李章佑 驛, 『中國詩學』, 明文堂, 1994, 150쪽에서 재인용)

微霰落床額	싸락눈 침상머리에 떨어졌네
心地淨如水	마음이 물처럼 깨끗하니
翛然無礙隔	자유자재하여 막히고 걸림이 없네
正是忘物我	이것이 바로 사물과 나를 잊은 것이니
茗椀宜自酌	혼자서 잔에 차를 따라 마신다네 <sup>19)</sup>

茶 한 잔을 통해 마음의 평상심이 담담하게 표현된 시이다. 시 앞 부분에서는 번뇌에 고민하는 시인의 심사가 담겨 있다. 깊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시인은 어둠을 사르기 위해 촛불의 심지마저 베어버린다. 한기 머금은 바람이 귀를 어지럽히고 싸락눈이 침상머리에 떨어졌다고 했으니 시인은 번뇌망상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뒷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시인은 순간 마음이 물처럼 깨끗하다 하여 妄念을 여인 本覺을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모습에 物我가 일체된 경지를 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에서 혼자 차를 잔에 따라 마신다고 한 표현은 시인이 茶 한 잔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닌 깨달음을 茶 한 잔에 담았다는 평상심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이 시에는 茶는 깨달음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며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차를 시에 假託한 것이다.

불교에서 평상심은 一心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래 구축되어 있는 본성을 유지하고, 모든 차별상과 주객의 분별의식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렀기에 이를 一心이라 한 것이다. 元曉는 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심이란 무엇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됨과 거짓됨의 두 문은 다름이 없으므로 一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둘이 아닌 곳에서 모든 법은 가장 진실되어 허공과 같지 않으며, 그 성품은 스스로 신령스레 알아차리므로 마음이라 이름한다.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一이 될 수 있는가. 一도 있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心이라 말하는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

19) <古風> 其十六, 『梅月堂集』 卷一.

고 생각을 끊은 것이니 무엇이라고 지목할 지는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 붙여 一心이라고 하는 것이다.<sup>20)</sup>

一心은 글자 그대로 한 마음을 말한다. 원효에게 일심은 染과 淨, 眞과 俗 등 대립적이고 분별적인 사유체계에서 여의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一心에 直觀한다는 것을 見性이라 하여 불법의 궁극적 실체로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선과 차의 관계에서 一如라 함은 일심의 함의와 같은 것이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과정을 통해 분별하는 마음을 여의고, 서로를 수용하기에 相入하며, 수용하여 주객의 구별이 여의기에 相卽이라 할 수 있다. 곧 茶 한 잔을 통해 相卽相入의 연기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閑中經數卷      한가하면 경전 두어 권 읽고  
渴來茶七椀      목마르면 일곱 사발의 茶를 마시네<sup>21)</sup>

위 시에서 그는 七椀茶를 마신다고 했다. 七椀이라고 한 것은 中國 唐代의 시인인 盧仝(775~835)의 「走筆謝孟諫議寄新茶」<sup>22)</sup>에서 따온 것으로 차를 마실 때 느껴지는 일곱가지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첫째 잔은 입술과 목을 적셔주고, 둘째 잔은 고민을 씻어주고, 셋째 잔은 무더진 붓끝이 풀리고, 넷째 잔은 가벼운 땀이 솟아 평생의 불만이 사라지고, 다섯째 잔은 살과 뼈를 맑게 하고, 여섯째 잔은 신선의 영과 통하게 하고, 일곱째 잔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두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여 茶 한 잔의 정신적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元曉, 『大乘起信論疏』, 『韓國佛教全書』 卷一, 1979 : 何爲一心謂染淨諸法其性無二 眞妄二門不得有二 故名爲一 此無二處 諸法中實 不同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何得有一 一無所有 就誰曰心 如是道理 離言絕慮 不知何以目之 強號爲一心也.

21) <放言> 其六 5~6句, 『梅月堂集』 卷一.

22) 김길자 譯註, 『中國茶詩』, 현암사, 1999, 217~222쪽.

剗竹引寒泉    대 쪼개어 찬 샘물 끌어다 놓고  
 琅琅終夜鳴    줄줄 밤새도록 울린다네  
 細聲和夢咽    잔잔한 소리 꿈과 섞여 목메이고  
 清韻入茶烹    맑은 운치 차끓이는데 들어간다네<sup>23)</sup>

이 시는 전체적으로 생동하는 느낌을 준다. 대나무를 쪼개 그 사이로 흘러가는 샘물소리로 시작하여 차끓이는 소리로 끝맺고 있어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차를 내주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듯 그는 茶 한 잔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겨 마시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대나무 가운데를 갈라 물을 길어오니 그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싫증이 나지 않는 표정이다. 물이 가물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소리가 마치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는 그 소리마저 차끓이는 소리에 동화시키고 있는 데, 이는 차를 통해 삼매경에 빠진 자신을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선적 수행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兩耳聊聊獨坐時    두 귀에 아무런 들림 없이 홀로 앉아 있을 때  
 半簾斜日映花枝    반쯤 걸은 발에 비긴 해는 꽃가지를 비치네  
 年來漸覺無拘束    요사이 점점 구속없음을 깨달으니  
 滿肚幽懷卽是詩    배속에 가득 품은 마음 그것이 시라네<sup>24)</sup>

홀로 앉아 있다가 사람을 만나 茶 한 잔 하며 지은 시이다. 두 귀에 아무런 들림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시비에 구속됨이 없다는 뜻이다. 반쯤 걸 어올린 발 너머로 바라보는 해는 누엿해졌고, 길게 늘인 그림자가 꽃가지를 비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3句에서 시인의 자유로움은 자신이 스스로를 아는 正念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념은 物我忘形이라 할 수 있는데, 시비를 떠나고 물아의 사이를 없앨 수 있다면 서로 잊는 相忘의 경

23) <竹筧>, 『梅月堂集』 卷四.

24) <獨坐逢人茶賦詩>, 『梅月堂集』 卷一.

지<sup>25)</sup>를 말한다. 정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를 주관적 시각으로 고정시키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등의 번뇌는 일체 용납이 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4句에서 시인은 정념의 상태에서 선적으로 총만된 정신을 시로써 표현하여, 茶 한 잔으로 시인과 相即相入하는 禪茶一如의 경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松風輕拂煮茶烟	솔바람 불어 차달이는 연기 몰아
裊裊斜橫落澗邊	하늘하늘 흘날리며 시냇가에 떨어지네
月上東窓猶未睡	동창에 달 떠도 잠 못 이루고
挈瓶歸去汲寒泉	병들고 돌아가 차디찬 샘물 길네 <sup>26)</sup>

‘차를 달이며’라는 시 첫 번째이다. 차를 달이는데 마침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바람에 실려간 연기는 마침 하늘하늘 춤을 추는 듯 가로로 길게 날아가면서 시냇가에 떨어져 사라진다. 시인과 연기가 하나가 되는 相即相入의 詩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차를 달이는 시인의 시선은 시원스럽기만 한데 시인의 표정은 어둡다. 근심은 끊이지 않았던 탓인지 달이 휘영청 떠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갑자기 차 한 잔 생각이 나서 달빛을 받으며 병들고 나아가 샘물을 길으러 간다. 무엇이 시인을 근심으로 몰아넣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自怪生來厭俗塵	원래 티끌세상 싫어함을 스스로 괴이여기니
入門題鳳已經春	들어올 적 鳳자 쓴 게 <sup>27)</sup> 좋은 날 다 지나갔네

25) 李鍾殷, 『韓國의 道敎文學』, 태학사, 1999, 187쪽.

26) <煮茶> 其一, 『梅月堂集』 卷五.

27) ‘題鳳’은 중국 진나라 죽림칠현의 한 분인 嵇康이 呂安이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생각이 날 때마다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갈 정도였다. 어느 날 여안이 혜강을 찾아왔는데, 마침 혜강은 부재중이었다. 이에 여안은 문 위에 ‘鳳’이란 글자만 남기고 떠났다. ‘鳳’이란 破字하면 凡과 鳥가 된다. 곧 평범한 새란 뜻으로 혜강이 뛰어난 인물로만 알았다가 알고보니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煮茶黃葉君知否      차달이는 누런 잎새 그대는 아는지  
却恐題詩洩隱淪      시 쓰다 숨어 삶이 누설될까 두렵네<sup>28)</sup>

매월당의 삶은 늘 불안했다. 일정한 거처없이 전국을 주유하며 지내야만 했던 그의 불행은 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울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어릴 적부터 티끌세상과 멀리한 것이 괴이하다고 했다. 문에다가 ‘鳳’를 썼다는 것은 자신을 받아줄 세상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한 한탄이 담겨있다. 이미 나이는 들었으니 좋은 시절이 아쉽기만 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차 한 잔으로 위로를 얻기 위해 차를 달이려는데 누런 잎을 보자 두렵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시인은 누런 잎에다가 시를 썼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차마 종이에 쓰지 못하고 대신 누런 잎에다 쓴 것이다. 행여 자신이 썼던 누런 잎에 시냇물에 흘러가 누가 볼세라 서둘러 태워야만 했던 매월당의 신산스런 삶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한다.

年年茶樹長新枝      해마다 차나무에 새 가지 자라는데  
蔭養編籬謹護持      그늘에 키우느라 울을 엮어 보호한다  
陸羽經中論色味      육우의 다경에는 빛깔과 맛 논했는데  
官家榷處取槍旗      관가에서는 어린 찻잎만을 바치라고 하네  
春風未展芽先抽      봄바람 불기 전에 싹이 먼저 피고  
穀雨初回葉半披      곡우절 돌아오면 잎이 반쯤 피어나네  
好向小園閑暖地      조용하고 따뜻한 작은 동산을 좋아하니  
不妨因雨着瓊豨      비에 옥같은 꽃 드리워도 무방하리라<sup>29)</sup>

梅月堂은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직접 재배까지 하였다. 그는 차의 성품을 진정으로 이해했던 茶人이었다. 그는 경주 금오산이 차를 재배하기에는 알맞지 않음을 알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밭 둘레에 울을 엮어 세

28) <煮茶> 其二, 『梅月堂集』 卷五.

29) <養茶>, 『梅月堂集』 卷十二.

운다. 차나무는 半陰半陽性 식물이라 그늘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半陰半陽은 곧 梅月堂의 처지와 닮은 꼴이다. 이 시의 제목이 「養茶」을 고려해 볼 때, 기른다는 의미는 자신을 두고 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뿌리가 땅속으로 곧게 내리듯 그의 심지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이는 茶가 자연의 일부로서 항상성을 지향한다면, 차를 재배하고 만들고 마시는 자신은 유연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질서와 조화를 적극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차 만드는 수고로움을 모르고 오로지 세금만 걷으려고만 하는 관리 때문에 백성들의 고충만 늘어가는 현실에서도 그는 침묵으로 저항한다. 때는 茶의 새순이 처음으로 올라오는 곡우 무렵이다. 梅月堂은 햇차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비에 옥같은 꽃’은 아침이슬을 비유한 것으로, 아침 이슬을 맞은 찻잎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永日撰詩史	하루내내 詩史를 다듬고
燈下修茶經	등불 밝혀 다경을 읽네
好古漸知趣	옛것 좋아 취미 더해지니
博學無所成	박학해도 이룬 것 없다네
分座與山人	자리를 산사람에게 나눠주니
頽醉同田更	취해 누운 것이 농가의 늙은이일세
霜芋收後園	서리맞은 토란을 뒤뜰에서 거두고
秋菊盈前庭	가을 국화는 앞뜰에 가득차네
人以紛雜喧	사람들은 어수선히 지껄이는데
我以堅白鳴	나만 견백 <sup>30)</sup> 선생 때문에 운다네
唯有麴先生	오직 국선생만 있으니
千古知我情	천고에 내 뜻을 알아주네 <sup>31)</sup>

30) 전국시대 公孫龍의 퀘변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눈으로 돌을 볼 때는 빛이 흰 것은 알지만 굳은 것은 모르고, 손으로 돌을 만질 때는 그 굳은 것은 알지만 흰 것은 모른다. 따라서 堅白石의 존재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是非, 同異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말하는 것이다.

31) <和陶> 其十六, 『梅月堂集』 卷八.

위 시는 매월당이 무묘한 산사생활을 달래기 위해 옛시를 읊으면서 도연명의 시에 화답하는 시 20수 중 열여섯번째이다. 하루종일 옛시권을 벗삼아서 시의 역사를 살펴보고, 해저물면 中國 唐代 陸羽(727?~803?)<sup>32)</sup>가 저술한 『茶經』을 닦는다고 했다. 옥우가 제시한 대로 법도에 맞게 차 한 잔을 우려내어 禪茶三昧에 든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론 것은 없으니 농사짓는 늙은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서리 맞은 토란을 거둬들이고 가을 국화는 뜰에 가득한데, 사람들은 어수선히 지껄인다. 오직 나만은 皜白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은 매월당 당대의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기, 질투, 모함,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매월당은 차와 술로 자신의 울분을 다독거린다. 오직 국선생만이 자신을 알아주니 천년 뒤에 누군가를 나를 알아주리라 하는 호기가 시의 끝에서 강한 여운을 남겨준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梅月堂의 茶詩를 중심으로 禪茶一如의 詩境을 살펴보았다. 梅月堂은 옥우의 『茶經』처럼 茶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성현의 도와 유학적 이상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불도를 이루기 위해 茶를 詩化한 것이다. 비록 그가 젊은 시절 꿈꾸었던 이상은 현실과의 불화로 인한 方外人的 삶의 처지에 놓여 좌절되고 말았지만, 茶가 지니는

32) 唐나라 復州 竟陵에서 태어났으며, 최초로 茶 전문서인 『茶經』을 펴내 茶聖으로 불린다. 號는 竟陵子, 桑苧翁, 東岡子 이다. 차의 명산지인 湖州에 정착한 옥우는 어린 시절 龍蓋寺에서 터득한 차에 관한 지식을 심분 활용하여 차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는 한편, 당대의 시인이자 차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비구승 皎然과 교분을 갖는다. 皎然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옥우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차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28세 때 『茶經』의 草稿를 쓰고, 41세에 『茶經』을 완성하였다. 옥우의 『茶經』은 中國 茶道의 지침이 되었으며 茶文化를 보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金明培 譯, 『茶經』, 太平洋博物館, 1982, 96~100쪽 참조.).

성품을 시 속에 투영시킴으로써 그의 문학은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곧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이보다 더 나은 최선의 상태를 이뤄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茶를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金時習, 『梅月堂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 『國譯 梅月堂集』,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艸衣意恂, 『艸衣全集』, 아세아문화사, 1985.

元曉, 「大乘起信論疏」, 『韓國佛教全書』 卷一, 1979.

金明培 譯, 『茶經』, 太平洋博物館, 1982.

김길자 譯註, 『中國茶詩』, 현암사, 1999.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劉若愚 著/李章佑 驛, 『中國詩學』, 明文堂, 1994.

이도흠, 「화두와 선시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백련불교논집』 제11집, 2001.

李鍾殷, 『韓國의 道敎文學』, 태학사, 1999.

이중표, 『근본불교』, 민족사, 2003.

임준성, 『매월당 불교시의 미학』, 고봉학술원, 2004.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 The nature of tea is identical to that of the way of Buddhist meditation

Lim, Jun-sung

Among about 2,200 poems of Maewoldang Kim, Si-seup(1435~1493), 73 poems, the number of his works which was written based on tea, is bequeathed to us now. This fact is significant especially when we consider that he left the most tea-poems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tea in Korea. He didn't just drink tea and write tea-poems based on the feeling he had when he had tea. He grew tea plants and made tea, and he tried to make his own life fit into the nature of tea. This indicates that tea had relatively great importance in his life.

To study his poems means that he thought of tea not just as a drink but as a way of Buddhist meditation. Maewoldang didn't leave any systematic documents. He just wanted to realize his Confucian ideals and the sages' instructions. Also he wrote tea-poems to learn the teachings of Buddha. Though he lost sight of the ideal because he was in discord with the actual life, his literature came to further maturity by making the nature of tea reflected into his tea-poems.

In other words, he didn't take a conciliatory attitude toward the actual life, but tried to express his positive attitude to do his best in everything through tea-poems.

**Keywords** : Maewoldang(梅月堂), Kim Si-seup(金時習), Buddhist meditation, tea-poems

к с і

# 涵虛堂의 경기체가 고찰

-<안양찬>과 <미타경찬>을 중심으로-

조연숙\*

## <차례>

- |               |                |
|---------------|----------------|
| I. 서론         | III. 불경의 변용 양상 |
| II. 불경의 수용 양상 | 1. 찬양적 변용      |
| 1. 구체적 수용     | 2. 교화적 변용      |
| 2. 요약적 수용     | IV. 맺음말        |

## I. 서론

涵虛堂 己和는 고려 우왕 2년(1376)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함허당은 그의 堂號이며, 기화는 諱, 호는 得通이다. 俗姓은 劉氏이며, 아버지의 諱는 聽으로 벼슬이 典客寺事에 이르렀으며, 어머니는 方氏였다.

21세(1369) 때 성균관에서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여 관악산 의상암에서 머리를 깎고, 이듬해인 이태조 6년(1397) 이른 봄에 檜岩寺에 이르러 처음으로 王師 無學의 法要를 들었다. 그 후 여러 산을 遊歷하다가 태종 4년(1404) 봄에 다시 회암사로 돌아와 방한칸에 獨居하며 보고 듣는 것을 일체 끊고 밤새워 經行 정진하였다. 이후 功德山 大乘寺, 천마산 관음굴, 佛禧寺에서 교화와 宗風 수립에 힘썼으며, 태종 14년(1414)에는 慈母山 烟峯寺에 이르러 작은 방을 정하여 涵虛堂이라

\* 숙명여자대학교

하고 3년간 經行 勤修하였다.

세종 2년(1420) 강릉 오대산 靈鑑菴에 들어가 懶翁의 眞影에 공양하고 머물렀는데, 꿈에 한 神僧이 나타나 대사에게 이름을 己和, 호를 得通이라 하라고 이르므로 절하며 공손히 받았다. 다음날 월정사에 내려와 一室을 宴處로 하여 평생을 마치려 하였으나, 이듬해 세종의 명에 의하여 개성 大慈寺에 살면서 先妣大妃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王臣들을 위한 설법을 하였다. 세종 6년 상서하여 사퇴한 후 길상산, 공덕산, 운암산 등 여러 산에 노닐다가 영남 회양산 鳳巖寺로 들어가 퇴락한 사찰을 중수하고, 세종 15년(1433) 입적하니 世壽 58세, 法臘 38세였다.<sup>1)</sup>

그는 일생동안 많은 經論의 註疏와 詩文을 남겼다. 저서로는 『涵虛堂得通和尚語錄』을 비롯하여 『圓覺經疏』 3권, 『般若五家解說誼』 1권, 『永嘉集說誼』, 『顯正論』 1권, 『繪貫』 1권, 『儒釋質疑論』 등이 있다. 그는 조선 초기 척불정책의 와중에서 불교를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顯正論』을 통하여 당시 척불론의 기수였던 정도전의 「佛氏雜辨」의 배불론에 대항해서 불교의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sup>2)</sup>

조선 초기의 불교는 건국이념에 따라 승유억불책이 강화됨으로써 위축된 것만은 사실이나 궁중의 信佛과 그 외호에 힘입어 불교는 민중신앙으로 면면히 이어졌으며, 특히 세종, 세조 대에 선초 불교계는 일대 성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세종, 세조 때에 불교가 궁중의 적극적인 외호와 지원을 받게 되자 이에 편승하여 불교의 포교활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이 불교가 적극적인 궁중의 비호를 받던 시기에 포교의 강화수단으로 자연히 나타난 것이 바로 불교계 경기체가라 할 수 있다. 포교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시 궁중이나 민중들에게 유행하는 시가 형태가 그 수단으로 이용되기 마련인데, 조선 초기에는 경기체가 단연 시가의 주류를 이루었던만큼 이 시대의 불교계 경기체가가 창

1) 불교학연구회편, 『한국고승집』, 이조시대 1, 경인문화사, 1974, 1~2쪽.

「함허당등통화상행장」, 16~21쪽 참조.

2) 임기중 외, 『경기체가 연구』, 태학사, 1997, 161쪽.

작, 향유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함허당 역시 경기체가를 지었는데 <彌陀讚>, <安養讚>, <彌陀經讚>이 바로 그것이다. <미타찬>은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불을 찬양한 노래로서 『정토삼부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 재편성한 작품이다. <안양찬>은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세계를 『아미타경』에 묘사된 것을 바탕으로 찬양한 것이며,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공덕을 찬양한 노래이다. 이 중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약간 변용시켜 그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경의 내용을 쉽게 풀어 포교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함허당의 경기체가 중 <안양찬>과 <미타경찬>을 『아미타경』 원문과 대비해 봄으로써 그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 이를 어떻게 변용시켜 작품화했는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불경의 수용 양상

### 1. 구체적 수용

#### (1) <안양찬>

<안양찬>은 『아미타경』에 묘사된 극락 세계의 모습을 바탕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을 찬양한 노래로,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사를 제외한 나머지 9장이 모두 『아미타경』의 내용을 좀더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김문기, 「불교계 경기체가 연구」, 『성곡논총』 22, 성곡학술문화재단, 1991, 6~7쪽.

第二 依正俱勝	제2 의(依)와 정(正)이 함께 훌륭하다
曰極樂 曰安養 名彼佛土	극락이요, 안양이라 함은 저 불국토를 말함이요
無量光 無量壽 名彼如來	무량광, 무량수는 저 여래를 말함이라
但聞其名 其中活計 一念便知	그 이름만 듣고 그 가운데 살 계책을, 일념으로 알았으니
欣彼往生 亦希有	극락 왕생을 기꺼워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佛於彼國 現住說法 (再唱)	극락세계 부처님, 지금 머물며 설법하시니(재창)
海會照然	성회(聖會)가 바다처럼 밝도다! <sup>4)</sup>

제2장은 이 노래의 본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먼저 정토를 제시하고, 그곳에서 무량광, 무량수로 일컫는 아미타불이 지금도 설법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아미타경』 본론의 시작 부분과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아미타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십만 억 불국토를 지나서 극락이라 이름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 데 아미타불이라 하며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sup>5)</sup>

『아미타경』에는 석가모니가 사리불을 설법 상대로 하여 정토의 소재와 그곳의 主佛인 아미타불이 현재도 설법하고 있음을 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안양찬>에서는 극락과 더불어 안양을 말하고, 아미타불을 무량광, 무량수라고 하여 이를 좀더 친근하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이름만 듣고도 그 가운데 살 계책을 일념으로 알라는 불법의 뜻을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 임기중외, 앞의 책. 178쪽. 이하 경기체가의 해석은 모두 이 책을 따랐다.

5) 평정준영, 이태원역, 『정토삼부경개설』(보국사, 1988), 528쪽.

從是西方 過十萬億佛土有世界 名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第三 純樂無憂	제3 : 즐거움만 있고 근심이 없다
彼佛國 無三惡 亦無八苦	저 부처님 나라, 삼악이 없고, 팔고도 없다.
往生人 身金色 皆具妙相	왕생하는 사람, 몸은 금색이요, 모두 묘상을 갖추었다.
宮殿隨身 衣食自然 一切具足	궁전이 몸을 따르고, 의식이 자연적이니, 모두가 갖추어졌다.
常享無極 亦希有	늘 누림이 끝없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寶衣寶具 香饌珍羞 (再唱)	보배 옷과 보배 가구, 향기로운 음식과 진귀한 음식 (재창)
隨念現前	엄원에 따라 앞에 나타나도다!

제3장은 극락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저 부처님 나라인 극락에는 삼악이 없고 팔고도 없으며 왕생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처럼 묘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衣食이 족하고, 모두 갖추어져 모든 것이 생각에 따라 자재한다는 것이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그 나라를 어떤 이유로 극락이라 이름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하느니라.<sup>6)</sup>

이 부분은 서방 국도를 극락이라 부르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즉 불국토에는 四苦八苦의 괴로움이 조금도 없고 다만 즐거운 복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도 <안양찬>에서는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의 형상을 ‘몸은 금색이요, 모두가 묘상을 갖추었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도 더 세세히 실감나게 전달해 주고 있다.

6) 위의 책, 529쪽.

舍利弗 彼土何故 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 故名極樂

第四 備體莊嚴	제4 : 몸에 장엄을 갖추다
七重欄 七重網 七重行樹	일곱 겹의 난간, 일곱 겹의 그물, 일곱 겹으로 심은 나무
七寶池 七寶臺 七寶樓閣	일곱 보배 연못, 일곱 보배 누대, 일곱 보배 누각
一一華麗 瑩徹無礙 交影重重	모두 화려하고, 빛은 끝없이 사무치고, 그림자는 겹겹이 교차하니
清淨嚴飾 亦希有	청정 장엄한 장식, 또한 드문 일이로다!
寶臺寶閣 寶樹寶網 (再唱)	보배 누대와 보배 누각, 보배 나무와 보배 그물 (재창)
莊嚴妙好	장엄하고 절묘하게 좋다!

제4장은 극락에 있는 七寶行樹의 장엄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극락에는 일곱 겹의 난간과 그물, 일곱 겹으로 심은 나무가 있고, 칠보로 이루어진 연못과 누대, 누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그 형상이 매우 장엄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칠보행수의 장엄은 『아미타경』에도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사리불이여, 또 극락국토에는 일곱 겹의 난간과 일곱 겹의 그물이 있는 칠중(七重)으로 된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써 이루어져, 온 나라에 두루 하는 까닭에 그 나라를 극락이라 이름하느니라.<sup>7)</sup>

이 부분 역시 서방정토의 칠보행수를 묘사한 것으로, 먼저 나무의 장중함을 설하고 있다. 즉 극락정토에는 밑으로는 일곱 겹의 난간으로 둘러져 있고, 위로는 일곱 겹의 구슬 그물이 나무를 덮고 있는데, 그 나무는 뿌리, 줄기, 큰 가지, 작은 가지, 잎, 꽃, 열매[七重]를 갖추고 있는 나무로서 뒤섞이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다. 이들은 모두 금, 은, 유리, 파려

7) 위의 책, 529쪽.

又舍利弗 極樂國土 七重欄楯 七重羅網 七重行樹 皆是四寶 周匝圍繞 是故彼國 名曰極樂

등 네 가지 보배로 만들어져 있고, 그 나라에 잘 우거져 궁전과 보배 연못을 둘러싸고 있다<sup>8)</sup>는 것이다. <안양찬>에서는 이런 칠보행수가 ‘모두 화려하고 빛은 끝없이 사무치며, 그림자는 겹겹이 교차한다’고 하여 좀더 현장감 있고 실감나게 그 뜻을 전하고 있다.

第五 花池受生	제5 : 꽃연못에 왕생을 받다
七寶池 八德水 充滿其中	칠보 연못, 팔덕의 물, 그 가운데가 충만하고
池邊有 四階道 衆寶合成	연못가의 네 계단 길, 못보배가 이루어지다.
池中蓮花 大如車輪 開敷水面	못에 핀 연꽃, 수레 바퀴만하여 수면을 덮고
於中受生 亦希有	그 가운데에서 왕생 받는 것, 또한 드문 일이 도다!
九品花臺 次第碁布 (再唱)	구품화대가 차례로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으니 (재창)
隨分受生	분수를 따라 왕생을 받다!

제5장은 극락의 연못과 연꽃의 장엄에 대한 노래이다. 극락에는 칠보로 된 연못에 팔덕수가 충만하고, 못에 핀 연꽃은 수레바퀴만 하여 수면을 덮고 있다. 그리고 구품연화대가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 구품들이 분수에 따라 왕생함을 언급하고 있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또 극락국토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물로 가득하며, 연못 바닥에는 순수한 금모래가 땅에 깔려 있고, 사방에 있는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려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금, 은, 유리, 파려, 자거, 산호, 마노로써 장식되어 있느니라. 연못 가운데 큰 것은 수레바퀴만한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흰 꽃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로우니라.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sup>9)</sup>

8) 위의 책, 529쪽.

9) 위의 책, 530쪽.

又舍利弗 極樂國土 有七寶池 八功德水 充滿其中 池底純以 金沙布地 四邊階道 金銀琉璃

극락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물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 사방의 계단은 보배로 되어 있고, 언덕 위에는 누각이 칠보로 장중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아미타경』에서는 연꽃과 연못의 장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안양찬」에서는 연꽃·연못과 관련된 구품연화대를 언급하고 각자의 분수에 따라 왕생한다고 함으로써 못 중생들로 하여금 좀더 현실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며, 극락을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第六 十方遊行	제6 : 우주를 유람하여 행하다
黃金地 碧虛空 常作天樂	황금땅, 푸른 허공, 늘 하늘 풍악 울리고
雨天花 香芬馥 晝夜六時	하늘꽃이 비로 내리고, 향기가 주야로 내다.
其中衆生 身乘寶殿 寶衆妙花	중생들에게 보배 궁전 타게 하고, 많은 묘화를 주니
供養他方 亦希有	타방까지 공양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十方佛土 飯食頃行 (再唱)	시방 불토에 밥먹는 것이 잠깐만이니 (재창)
往返無碍	가고오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

제6장은 극락 세계의 모습 중 황금의 땅과 천악, 꽃의 장엄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극락에는 땅이 황금으로 되어있고 푸른 하늘에는 늘 음악이 울리고 있으며 주야로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내린다. 그리고 극락에 사는 중생들은 그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타방의 부처에게 가서 공양을 한다는 것이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저 국토에는 항상 하늘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황금으로 된 땅 위에는 밤낮 여섯 때에 만다라 꽃이 휘날리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새벽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의 십만 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곧 식사 전에 본국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느

玻瓈合成 上有樓閣 亦以金銀琉璃玻瓈磔磔 赤珠瑪瑙 而嚴飾之 池中蓮花 大如車輪 青色青光 黃色黃光 赤色赤光 白色白光 微妙香潔 舍利弗 極樂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나라.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sup>10)</sup>

극락 국토에는 미묘한 천악이 연주되고 있고,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또 밤낮 여섯 때에 하늘의 만다라 꽃이 휘날리며, 그곳 중생들은 새벽마다 그 꽃을 바구니에 담아 아미타불을 비롯해 다른 세계의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 그리고 식사 전에 극락정토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한다. 이 대목도 <안양찬>에서는 ‘중생들에게 보배 궁전 타게 하고, 많은 묘화를 준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第七 聞音進修	제7 : 설법을 듣고 나아가 닦다
白鶴與 孔雀等 出和雅音	백학과 공작 등, 화락하고 청아한 소리 내고
微風吹 動諸樹 出微妙聲	미풍은 여러 나무를 움직여, 미묘한 소리를 내다.
聞是音者 自然皆生 念佛法心	이 소리를 들은 자, 모두 자연히 불법의 마음을 내어
增進修行 亦希有	증진하여 수행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寶樹寶臺 放光說法 (再唱)	보배 나무, 보배 누대, 빛을 내며 설법하니 (재창)
宣流法化	불법의 교화를 베풀어 전하도다!

제7장은 극락의 새와 바람, 나무의 장엄을 노래하고 있다. 극락에는 백학과 공작 등 여러 종류의 새들이 화기롭고 청아하게 노래 부르고, 미풍은 나무를 움직여 미묘한 음악 소리를 낸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불법의 마음을 내어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위의 책, 531쪽.

又舍利弗 彼佛國土 常作天樂 黃金爲地 晝夜六時 天雨曼陀羅華 其國衆生 常以清旦 各以衣祴 盛衆妙華 供養他方十萬億佛 卽以食時 還到本國 飯食經行 舍利弗 極樂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사리불이여, 저 나라에는 항상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의 새들이 있는데 백조, 공작, 앵무새, 사리, 가릉빈가, 공명의 새 등 여러 가지 새들이 밤낮, 여섯 때에 우아한 소리를 내느니라. 이 소리는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보리분(七菩提分), 팔성도분(八聖道分) 등, 이와 같은 법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로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국토에는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 나라에는 삼악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삼악도가 실지로 있겠는가!

이 모든 여러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널리 베풀고자 화현으로 나타낸 것이니라.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는 미풍이 불어 모든 보배 나무 및 보배 그물을 움직이면 미묘한 소리를 내느니라. 비유하면, 백천 가지 음악을 동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자연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을 내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sup>11)</sup>

이 대목은 화신의 새와 바람, 나무의 장엄을 설하고 있다. 앞부분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밤낮 여섯 때에 우아한 소리를 내며, 이 소리를 들은 그 나라 중생들은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은혜와 법의 심오한 공덕과 스님의 큰 덕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는 죄악의 과보에 의해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정도의 교주인 아미타불이 정법을 널리 알리고자 하여神通력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내용이다. 뒷부분은 바람에 관한 것으로, 극락에는 미풍이 불어 모든 보배나무와 그물을 움직여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이는 법음으로 이 소리를 들은 그 나

11) 위의 책, 532쪽.

復次舍利弗 彼國常有 種種奇妙 雜色之鳥 白鵠孔雀 鸚鵡舍利 迦陵頻伽 共命之鳥 是諸衆鳥 晝夜六時 出和雅音 其音演暢 五根五力 七菩提分 八聖道分 如是等法 其土衆生 聞是音已 皆悉念佛念法念僧 舍利弗 汝勿謂此鳥實是罪報所生 所以者何 彼佛國土 無三惡趣 舍利弗 其佛國土尚無三惡道之名 何況有實 是諸衆鳥 皆是阿彌陀佛 欲令法音宣流 變化所作 舍利弗 彼佛國土 微風吹動 諸寶行樹及寶羅網 出微妙音 譬如百千種樂同時俱作 聞是音者 皆自然生念佛念法念僧之心 舍利弗 其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라 중생들은 또 자연히 부처님과 불법, 스님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안양찬>에서는 보배 나무와 보배 누대가 빛을 내며 설법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모든 것이 불법의 교화를 베풀어 전하는 것이라고 교도자적인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八 長壽等佛	제8 : 긴 수명이 부처님과 같다
阿彌陀 成正覺 於今十劫	아미타불, 정각을 이루신 지, 열 겁이 되셨고
往生人 無高下 與佛齊壽	왕생인, 위아래 없이, 부처님과 더불어 수명이 길다.
十念成就 承佛願力 自然往生	십념(十念)하여 성취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저절로 왕생하리니
永斷生死 亦希有	영원히 생사를 여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承佛願力 十念往生 (再唱)	부처님의 원력 받아, 십념으로 왕생 염원 (재창)
壽命長遠	수명이 길고 멀리라.

제8장은 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에 관한 노래이다. 즉 아미타불은 십 겁 전에 성불하였으며, 왕생인들도 모두 아미타불같이 길고 먼 수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저 부처님을 무슨 이유로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하여 시방 세계를 비추어도 결핍이 없는 까닭에 아미타불이라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수명 및 사람들의 수명도 무량수변 아승지 겁인 까닭에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지는 이미 십겁이 되느니라.<sup>12)</sup>

12) 위의 책, 533~534쪽.

舍利弗 於汝意云何 彼佛何故號阿彌陀 舍利弗 彼佛光明無量 照十方國 無所障礙 是故號爲阿彌陀 又舍利弗 彼佛壽命及其人民 無量無邊阿僧祇劫 故名阿彌陀 舍利弗 阿彌陀佛成佛已來 於今十劫

여기서는 아미타불의 성불과 이름의 뜻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아미타불은 십 겁 전에 성불하였으며, 아미타불의 광명과 수명이 무량하여 무량광, 무량수의 아미타불임을 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안양찬>에서는 뜻 중생이 십념하여 성취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저절로 왕생하게 되며, 그 수명이 장원할 것이라고 하여 중생이 그 뜻을 좀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전달하고 있다.

第九 因友進道 觀世音 大勢至 無量海衆	제9 : 벗으로 인하여 도에 나아가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具善根 有福德 諸上善人 於中坐臥 見聞熏習 精進修行	선근을 갖추고, 복덕있는 여러 상선인들 그 가운데 앉고 눕고 듣고 보고熏습하여 정진수행하니
同趣菩提 亦希有 諸上善人 以爲法侶 (再唱) 熏習增進	같이 보리에 나가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여러 상선인을 법의 동반자로 삼아 (재창) 熏습하여 더욱 나아가리다!

제9장은 극락에 있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상선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불도를熏습하고 정진 수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 제자가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다. 이들은 산수와 비유로써 알 수 없느니라. 또 모든 보살들도 이와 같느니라.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나라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아비발치이며, 그 가운데 많은 중생들이 일생보처에 오른 이들로, 그 수효는 매우 많아 셈으로도 능히 알 수 없어 무량무변 이승지 겁이라 말할 뿐이니라.<sup>13)</sup>

13) 위의 책, 534쪽.

이 대목은 극락 세계에 있는 성문과 보살들에 대해 설한 내용이다. 즉 아미타불께는 무수한 성문 제자와 보살이 있으며 극락에 있는 많은 중생들이 등각을 이루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안양찬>에서는 정도에 있는 보살 중 대중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상선인들에 대해서도 ‘선근을 갖추고 복덕 있는’ 사람들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범의 동반자로 삼아 혼습 정진해야 하는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第十 念佛蒙化	제10 : 부처님을 염원하여 교화를 입다
若一日 若二日 乃至七日	이렇게 하루 이틀, 내지 칠 일간을
一心念 阿彌陀 諸罪消滅	한마음으로 아미타불 염원, 모든 죄가 소멸한다.
臨命終時 蒙佛菩薩 放光接引	목숨을 마칠 때, 빛을 내는 불보살의 인도 입으니
九蓮花往 亦希有	구품연대 화하여 왕생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已發今發 當發願王 (再唱)	과거 발원, 현재 발원, 미래도 발원의 왕이리니 (재창)
皆得往生	모두 왕생을 얻으리라!

제10장은 염불왕생에 관한 내용으로 누구나 하루 이틀 내지 칠일간을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외면 모든 죄가 소멸하고, 극락에 왕생함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답게 모든 중생이 불법을 수행하고 염불하여 극락 왕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지니어 혹은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사흘, 혹은 나흘, 혹은 닷새, 혹은 엿새, 혹은 이레 동안 일심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모든 성종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 사람은 임종시에 마음이

又舍利弗 彼佛有無量無邊聲聞弟子 皆阿羅漢 非是算數之所能知 諸菩薩衆 亦復如是 舍利弗 彼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又舍利弗 極樂國土 衆生生者 皆是阿鞞跋致 其中多有一生補處 其數甚多 非是算數所能知之 但可以無量無邊阿僧祇劫說

변하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니라.<sup>14)</sup>

위 글은 극락 세계에 대해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하며, 극락 왕생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불러 일심으로 염불수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찬』에서는 이렇게 아미타불을 염원하면 모든 죄가 소멸한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그 분수에 따라 구품연대에 왕생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여 불경의 궁극적인 내용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쉽게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2) <미타경찬>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공덕을 찬양한 노래이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을 상대로 먼저 극락 세계의 갖가지 장엄에 대해 설하고, 六方의 다른 부처님 증명으로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다.

第一 開示捷徑	제1 : 지름길을 열어 보이다
大矣哉 大導師 釋迦文佛	위대하다, 대도사 석가모니불
應群機 開三乘 無法不說	수많은 근기에 따라, 삼승을 열고 설법하지 않음이 없다.
更於其間 別開方便 演說是經	다시 그 사이, 따로 방편을 열어, 아미타경을 말씀하시네.
令修淨土 最希有	정토를 닦게한 것, 매우 드문 일이도대!
大悲世尊 說示此經 (再唱)	대비세존, 이 경을 저자에서 설하시니 (재창)
如暗得證	마치 어두운 데서 등불을 얻는 것 같다!

14) 위의 책, 535쪽.

舍利弗 若有善男子善女人 聞說阿彌陀佛 執持名號 若一日 若二日 若三日 若四日 若五日 若六日 若七日 一心不亂 其人臨命終時 阿彌陀佛 與諸聖衆 現在其前 是人終時 心不顛倒 卽得往生 阿彌陀佛極樂國土

第二 指途迷倫	제2 : 중생에게 길을 가리키다
可憐生 可憐愍 我等衆生	가련한 삶,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 가련한 우리 중생들
生復死 死復生 苦無盡期	태어나서 죽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니, 이 고통이 끝이 없다.
惟我世尊 善權方便 開示勸進	오직 우리 세존, 좋은 방편으로, 열어보여 나가기를 권하시니
舍不退墮 亦希有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惟我本師 導生大悲 (再唱)	오직 우리 본사 중생을 큰 자비로 이끄시니 (재창)
如保赤子	마치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도다!

제1장과 2장은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있을 때 대비구 1250명 가운데 사리불을 상대로 『아미타경』을 설하신 은덕을 노래하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부처님이 수많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불법을 설할 때 이 『아미타경』을 설하니 이는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등불을 얻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다. 제2장은 생사를 거듭하는 가련한 중생에게 여러 가지 좋은 방편을 권유하여 한 명도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대자비가 마치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애증함을 읊고 있다. 이는 『아미타경』의 序分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대비구 천이백오십인이 함께 모였는데 모두 대아라한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들이었다. 장로 사리불, 마하 목건련, ……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등 이와 같은 대보살 및 석제환인 등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하늘의 대중들이 함께 모였다.

그 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십만 억 불국토를 지나서 극락이라 이름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불이라 하며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sup>15)</sup>

15) 위의 책, 527~528쪽.

一時佛 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僧 千二百五十人俱 皆是大阿羅漢 衆所知識 長老

위 내용을 <미타경찬>의 제1장과 2장에서는 석가모니가 『아미타경』을 설하는 상황과 그 방법의 우수함,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비를 못 중생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四 讚佛勸念 彼佛號 無量光 亦無量壽 我本師 示人天 所以無量	제4 : 부처님을 찬양하여 염원을 권하다 저 부처님 이름, 무량광이며 또한 무량수니 우리 본사 인간계와 천상계에 보이신 것 헤아릴 바 없다.
不可思議 功德之利 滿口稱揚 勸令勤念 亦希有 我大導師 衆聖中尊 (再唱) 讚彼彌陀	불가사의한 공덕의 이로움 입 모아 찬탄하노니 권하여 염원케 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대! 우리 대도사, 못신성 중에 존귀하시니 (재창) 저 아미타불을 찬양하는도대!

제4장은 정토의 교주에 관한 내용이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라고도 하며 그 공덕이 신이하고 헤아릴 수 없다고 찬탄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아미타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아미타경』에서는 단순히 아미타불이란 이름의 뜻과 그가 십 겁 전에 성불한 사실에 대해서만 설하고 있다(주 11 참조). 그러나 <미타경찬>에서는 단순히 아미타불이란 이름의 뜻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의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음과 그 힘의 불가사의함을 칭양하여 중생이 이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진지하고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第六 此彼相接 如本師 釋迦尊 讚佛功德 彼諸佛 亦稱讚 我佛如來	제6 : 두 부처가 서로 접하다 본 스승 석가세존처럼 부처님 공덕을 찬양하노니 저 모든 부처님도 우리 부처 여래를 찬양하시다.
---	--

---

舍利弗 摩訶目乾連 …… 乾陀訶提菩薩 常精進菩薩 與 如是等諸大菩薩 及釋提桓因等 無量諸天 大衆俱 爾時佛告 長老舍利弗 舍利弗 過十萬億佛土有世界 名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能於五濁 成大菩提 說難信法	능히 오탁에서 큰 보리를 이루어, 믿기 어려운 법을 베푸시니
如是相讚 亦希有	이같이 서로 찬양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彼此如來 皆因極樂 (再唱)	두 여래가 서로 말미암아 극락이니 (재창)
互相稱讚	서로 칭송하여 찬양하도다!

제6장은 모든 부처님은 석가여래의 공덕을, 석가모니불은 여러 부처의 공덕을 서로 찬탄하며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다. 석가모니불과 모든 부처가 찬양하며 권하는 믿음을 잘 지키면 모두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믿음을 적극 권하는 실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아미타경』에서는 마지막 일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 단원을 맺는 말이다. 『아미타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으로 어렵고 드문 일을 하시고 능히 사바세계의 오탁악세 즉 겁탁, 건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가운데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세간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느니라.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이 오탁악세에서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일체 세간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라.<sup>16)</sup>

第七 人天共遵	제7 : 사람과 하늘이 모두 법도를 따르다
讚淨土 讚彌陀 說此經已	정토 찬양, 아미타불 찬양하여, 이 경 설
	법을 마치니

16) 위의 책, 543쪽.

舍利弗 如我今者稱讚諸佛不可思議功德 彼諸佛等 亦稱說我不可思議功德 而作是言 釋迦牟尼佛 能為甚難希有之事 能於娑婆國土五濁惡世 劫濁見濁煩惱濁衆生濁命濁中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為諸衆生 說是一切世間難信之法 舍利弗 當知 我於五濁惡世 行此難事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為一切世間說此難信之法 是為甚難

舍利佛 諸比丘 八部龍天	사리불, 모든 비구, 팔부용천이
聞佛所說 歡喜踴躍 信受奉行	부처께서 설한 바 듣고, 기뻐 뛰면서 믿음 받아 행하도록
流通法化 亦希有	법화를 유통시키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聞經受持 發願往生 (再唱)	경을 듣고 계율 지켜 왕생을 발원하니 (재창)
其數無量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도다!

제7장은 석가모니가 극락 세계와 아미타불을 찬양하는 설법을 마치니 사리불과 모든 비구, 팔부용천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왕생을 발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아미타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심에 사리불 및 모든 비구, 일체 세간의 천인, 이수라 등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 기뻐하여 받아 지니고 예배하고 나서 물러갔다.<sup>17)</sup>

이 부분 역시 <미타경찬>에서는 설법의 내용을 정토 찬양, 아미타불 찬양이라고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부처께서 설한 바를 듣고 기뻐 뛰면서 믿음 받아 행하고, 많은 이들이 계율을 지키며 왕생을 발원한다고 하여 그 믿음의 본보기를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2. 요약적 수용

### (1) <안양찬>

17) 위의 책, 545쪽.

佛說此經已 舍利弗及諸比丘 一切世間天人阿修羅等 聞佛所說 歡喜信受 作禮而去

第一 彼此同化	제1 : 두 부처가 함께 교화하시다
大導師 阿彌陀 現彼接引	대도사이신 아미타불, 극락에서 중생교화하시고
我本師 釋迦文 勸令往生	우리 본스승 석가모니, 권면하여 극락 왕생케 하다.
彼此如來 同以大悲 各設方便	두 부처 여래, 함께 큰 자비로써 각각 방편을 설하시니
共度迷倫 寂希有	두 분의 중생 제도, 가장 드문 일이도다!
彼佛此佛 大悲大化 (再唱)	저 부처님과 이 부처님의 큰 자비, 큰 교화. (재창)
恩踰父母	은혜가 부모님보다 낫도다!

제1장은 서사로서, 대도사인 아미타불과 본스승이신 석가모니가 중생의 극락왕생을 위해 교화하는 은혜가 부모보다 크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즉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석가모니는 미혹한 중생을 권면하여 극락왕생케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미타경』의 전체적인 틀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자비로운 은혜가 자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의 은혜보다 낫다고 함으로써 두 부처님의 교화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2) <미타경찬>

第三 讚土合祈	제3 : 불국토를 찬양하여 기쁘게 하다
彼佛國 名極樂 安養淨土	저 부처님 나라, 이름하여 극락이니 안양정토라.
我本師 示人天 所以爲樂	우리 본사, 인간계와 천상계에 보여주니 기쁘도다.
其中莊嚴 種種殊勝 滿口稱揚	그 장엄한 가운데, 갖가지로 수승하니, 입모아 찬탄하노니
勸令往生 亦希有	권하여 왕생케 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我大導師 無上法王 (再唱)	우리 대도사, 이상없는 법왕이시니 (재창)
讚彼淨土	저 극락 정토를 찬양하는도다!

제3장에서는 먼저 극락을 소개하고 그곳의 수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 이 대목은 『아미타경』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미타경』에는 극락이란 이름의 뜻을 설하고, 이어 정토의 수승한 모습을 칠보행수와 연꽃, 누각, 연꽃의 장엄, 황금의 땅과 음악, 꽃의 장엄, 그리고 화신의 새, 바람, 나무의 장엄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미타경찬>에서는 이런 내용을 ‘그 장엄한 가운데 갖가지로 수승하니’라고 하여 아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양찬>의 제2, 3, 4, 5, 6, 7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아미타경』의 원문은 <안양찬>의 각 장에 인용한 것과 같다.

第五 六方同讚	제5 육방을 함께 찬양하다
東南方 西北方 上下諸佛	동남방, 서북방, 상하의 여러 부처님.
廣長舌 遍大千 說誠實言	장광설로大千세계를 편력, 정성으로 설법하시다.
汝等衆生 當身諸佛 所護念經	중생들 마땅히 부처님들을 믿고 경전을 지키리니
如是同讚 亦希有	이처럼 함께 찬양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佛佛皆以 廣長舌相 (再唱)	부처님마다 모두 장광설이시니 (재창)
同讚勸持	함께 찬양하여 지키기를 권하도다!

제5장은 동방, 남방, 서방, 북방, 하방, 상방에 있는 다른 부처님의 증명으로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다. 『아미타경』에서는 먼저 동방 세계에는 아촉비불, 수비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이, 남방 세계에는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이, 서방 세계에는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이, 북방 세계에는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이, 하방 세계에는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이, 상방 세계에는 범음불, 속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이 있음을 말하고, 여섯 항목 각각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향하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모든 부처님들이 제각기 그 나라에서 넓고 긴 혀를 내밀어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어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신 이 경을 믿

으라고 하시느니라.”<sup>18)</sup>란 문구를 달아 육방의 모든 부처님도 석존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하여 믿음을 권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런 장황한 내용을 <미타경찬>에서는 상당히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말씀을 모두 찬양하며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

第八 現未俱益	제8 : 현세와 미래가 함께 유익하다
正像法 各千年 已成過去	정법 상법, 각각 천 년, 이미 과거를 이루었고
往生人 不可計 皆承經力	왕생인 계책할 수 없어, 모두 이 경전의 힘을 받들다.
奇歎此經 群經滅後 獨留於世	기특하다, 아미타경! 많은 경이 사라진 뒤, 홀로 세상에 남았다.
度盡有緣 亦希有	모든 인연있는 중생 제도, 또한 드문 일이도대!
凡有見聞 皆得往生 (再唱)	무릇 건문이 있어, 모두 왕생을 얻으리니 (재창)
同登彼岸	함께 극락에 오르도대!

제8장은 세상에 모든 경전이 사라진 뒤에도 『아미타경』만이 홀로 남아 중생을 극락 왕생케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즉 『아미타경』을 보고 듣는 사람은 모두 왕생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 『아미타경』에서 주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대의를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第九 已發機感	제9 : 좋은 근기를 쉽게 감응시키다
過去與 現在世 無量諸佛	과거와 현재의 무량제불
莫不爲 度衆生 出現於世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지 않음이 없다.
我等佛子 於彼諸佛 早當廻機	우리 불제자, 저 부처님들께 일찌감치 우리의 근기를 돌이키니
到此知非 亦希有	여기에 이르러서 그른 것을 알게 되니, 또한

18) 위의 책, 537쪽.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드문 일이로다!

奇哉妙哉 我佛風化 (再唱)  
忽然回頭

기이하고 묘하다, 우리 부처님의 교화여.(재창)  
문득 머리를 돌려 우러르다!

제9장은 무량수, 무량광으로 불리는 아미타불에 대한 칭송이다. 즉 과거와 현재의 아미타불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출현하여 중생의 근기를 돌이켜 교화하니 모든 사람은 이 교화를 받들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아미타경』에 나오는 내용을 포괄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아미타불의 자비와 교화의 덕을 받아 모든 중생이 함께 왕생의 길로 들어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第十 普念回向  
離生死 大方便 無教佛說

指徑路 度群迷 此尤深切  
無始至今 長沉愛河 不知出要

因此知歸 亦希有  
廣矣大矣 此經威德 (再唱)  
靡然趨化

제10 : 널리 회향을 염원하다  
생사를 여의는 큰 방편 가르쳐서 설법하지 않음  
이 없으니  
지름길 가르쳐 미혹된 중생 구제, 더욱 간절하다.  
지금까지 길이 애육의 물을 빠져나오는 법을 몰랐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 매우 드문 일이로다!  
넓고도 크도다, 이 경의 위덕 (재창)  
미연히 교화에 나가리다!

제10장은 생사를 떠나는 큰 방편과 지름길을 가르쳐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아미타경』의 위대한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는 『아미타경』의 전체적 내용과 그 덕을 포괄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미혹한 중생들이 이 경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길을 벗어나 회향하여 교화의 길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 Ⅲ. 불경의 변용 양상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더 구체적이거나 요약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경기체가의 시가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아미타경』의 문구는 <안양찬>과 <미타경찬> 각 장의 1~3행에 대개 인용되어 있으며, 나머지 행은 이 내용을 포괄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체가의 작품적 질서를 이루는 원리로서 개별화의 원리 외에 포괄화의 원리도 있음을 알게 해준다. 포괄화의 원리는 일단 개별적인 것으로 제시된 사물들을 하나의 종합적 개념으로 묶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개별적인 사물들은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서로 관련을 맺는 집약점을 가지게 된다”<sup>19)</sup>는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두 작품을 살펴보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아미타경』의 내용을 수용하되,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이를 약간 변용시켜 작가의 창작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 주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찬양적 변용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우선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讚’의 성격을 지닌 노래이다. 각 작품이 안양을 찬양하고, 『아미타경』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아미타경』의 문구를 근거로 이를 수용한 후 이에 대한 찬양의 뜻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안양찬>서 보면, 『아미타경』에는 극락 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이

19) 조동일,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 김학성·권두환, 『고전시가론』(새문사, 1992), 248쪽.

현재도 설법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해 그 성회가 바다처럼 밝음을 찬양하고 있으며(제2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대해 극락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염원에 따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제3장).

또한 『아미타경』에는 극락에 칠보행수가 있다고만 설하고 있는데 대해 극락의 칠보행수와 누대와 누각들이 장엄하고 절묘하게 좋음을(제4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에 칠보로 된 연못과 연꽃이 있다고만 한 것에 대해 구품연화대가 펼쳐져 있어 모두 각자의 분수에 따라 왕생을 받을 수 있음을(제5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에는 아름다운 새와 바람, 나무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보배 나무와 보배 누대가 빛을 내며 설법하니 이는 불법의 교화를 베풀어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제7장) 찬양하고 있다.

이어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불이 십 겁 전에 성불하였다고만 한 데 대해 왕생인들도 심념하여 성취하면 아미타불같이 장원한 수명을 누릴 수 있음을(제8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이야기한 데 대해 그들이 모두 불도를 훈습하여 정진 수행하는 모습을(제9장) 높여 찬양하고 있다.

<미타경찬>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장의 후반부에 찬양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아미타경』에는 석가모니불이 못 중생에게 『아미타경』을 설한다고 한 것에 대해 그것은 마치 어두운 데서 등불을 얻는 것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으며(제1장), 『아미타경』에는 석가모니불이 여러 가지 좋은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 그것이 마치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음을(제2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의 여러 가지가 수승함만을 이야기한 데 대해 아미타불이 못 중생을 권하여 왕생케 하는 이상 없는 법왕임을(제3장),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불이 십 겁 전에 성불했다고만 한 것에 대해 그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드러내고 그가 못 신성 중에 존귀함을(제4장) 찬양하고 있다.

또한 『아미타경』에는 육방 부처님의 증명으로 믿음을 권한 데 대해 부

처님마다 모두 장광설이며, 함께 찬양하여 지키기를 권함(제5장), 『아미타경』에는 모든 부처님과 석가모니불이 서로 찬탄하여 믿음을 권한다고만 한 것에 대해 두 여래가 서로 말미암아 극락임을(제6장), 『아미타경』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모든 이들이 기뻐 예배하며 물러갔다고 한 것에 대해 경을 듣고 계율지켜 왕생을 발원하는 이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음을(제7장)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두 작품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되, 이를 약간 변용하여 찬양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찬양적 변용은 이 글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우선 대상을 우러르게 하며, 나아가서는 이를 흠모하게 함으로써 불교를 포교하려는 작가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교화적 변용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수용하여 이를 찬양함과 동시에 못 중생을 교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두 작품에서 『아미타경』을 인용한 부분 외에 그 뜻이 교화적으로 변용된 대목을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안양찬>

- ① 寶衣寶具 香饌珍羞 (再唱)  
隨念現前 (제3장)
- ② 九品花臺 次第碁布 (再唱)  
隨分受生 (제5장)
- ③ 承佛願力 十念往生 (再唱)  
壽命長遠 (제8장)
- ④ 諸上善人 以爲法侶 (再唱)  
熏習增進 (제9장)
- ⑤ 已發今發 當發願王 (再唱)

皆得往生

(제10장)

■ <미타경찬>

⑥ 諸上善人 以爲法侶 (再唱)

熏習增進

(제7장)

①의 경우 『아미타경』에는 극락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해 <안양찬>에서는 중생을 교화하고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화려하고 좋은 모든 것이 생각에 따라 자재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의 경우도 『아미타경』에는 극락에 있는 연못, 누각, 연꽃의 장엄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대해 그곳에 구품연화대가 차례로 벌려 있어 각자 분수에 따라 왕생한다고 함으로써 못 중생도 왕생을 하게 하고자 교화하려는 교화적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③의 경우도 『아미타경』에는 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이 무량광, 무량수임을 밝히고, 성불한 지 십겁이 넘었다고만 하였는데, <안양찬>에서는 부처님의 원력을 받아 십념으로 왕생을 염원하면 모두 아미타불처럼 수명이 길고 멀리라는 교화, 포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의 내용도 『아미타경』에는 극락에 있는 여러 성문과 보살들이 등각을 이루었다는 내용만을 전하고 있는데 대해, <안양찬>에서는 이 글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여러 상선인을 본받아 훈습하여 더욱 불도에 정진 수행할 것을 권유하는 교화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⑤의 경우도 『아미타경』에서는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고 염하면 모두 극락 왕생하게 된다는 내용만을 전하고 있는데, <안양찬>에서는 아미타불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발원의 왕이라고 하여 그의 위덕으로 모든 중생이 왕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대상을 높여 찬양하고 모든 이들이 이를 흠모하고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⑥의 경우도 『아미타경』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리불과 모든 성문, 비구들이 모두 기뻐하며 말씀을

받아 지니고 예배에서 물러갔다고만 되어 있는데, <미타경찬>에서는 이 경을 듣고 계율을 지켜 왕생을 발원하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여 지도자적 입장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불교를 포교하려는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타경찬>의 제8, 9, 10장에는 『아미타경』의 문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아미타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각 장에서 아미타불과 『아미타경』의 위력을 예시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흠모하여 불법의 길에 오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경이 사라진 뒤에도 홀로 남아있는 『아미타경』의 위력을 설하고, 무릇 이를 보고 듣는 자는 모두 왕생을 얻어 극락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포교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출현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교화를 머리 돌려 우러르며 다같이 따르자는 교화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 제10장에서는 미혹된 중생들이 이 『아미타경』의 위덕을 받아 교화에 나가게 되는 것을 찬양하며 이 노래를 보는 모든 이들도 교화되기를 염원하는 뜻을 간곡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작품에서는 『아미타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되 이를 약간 변용하여 작품 전반에 교화적 성격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경의 내용을 수용하되 교화적으로 변용시키는 것은 두 작품이 포교에 목적을 둔 포교문학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함허당은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 사회에서 당시 시가의 주류를 이루었던 경기체가를 세 작품이나 지었는데, <미타찬>과 <안양찬>, <미타경찬>이 그것이다. 이 중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그 뜻을 드러냈는데, 그 수용 양상은 구체적 수용과 요약적 수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체적 수용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수용하되 보

는 이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좀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다. <안양찬>의 경우 제1장을 제외한 나머지 9장에서, <미타경찬>은 제1, 2, 4, 6, 7장에서 볼 수 있다. 요약적 수용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수용하되 각 장의 주된 뜻을 전달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불경의 많은 양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불경의 대의를 간추려 그 뜻만 전한 것이다. 이는 <안양찬>의 제1장과 <미타경찬>의 제3, 5, 8, 9, 10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구체적 수용과 요약적 수용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불경의 뜻을 더욱 쉽게 풀이하여 전달하는 한편 불경을 생활 속에서 생생하고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두 작품에서는 『아미타경』의 내용을 약간 변용시켜 그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찬양적 변용과 교화적 변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찬양적 변용은 『아미타경』의 전체적 요지와 세부 내용은 물론 아미타불을 받들어 찬양하는 뜻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교화적 변용은 불경의 사실에 작가가 개입하여 지도자적 입장에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뜻을 첨가한 것이다. 이런 창의적 변용으로 두 작품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체가의 교술적 성격을 잘 살려 포교문학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임기중 외, 『경기체가 연구』, 태학사, 1997.  
평정준영, 이태원 역, 『정토삼부경개설』, 보국사, 1988.  
김문기, 「불교계 경기체가 연구」, 『성곡논총』 22, 성곡학술문화재단, 1991.  
김창규, 「합허당고」, 『동양문화』, 제6·7집, 영남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68.  
불교학연구회편, 『한국고승집』, 이조시대 1, 경인문화사, 1974.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 A Study of Ham Heo-dang's Kyunggiche-ga

Cho, Yeon-suk

"Anyang-chan" and "Mitakyung-chan", among the Kyunggiche-ga of Ham Heo-dang, expressed the meanings through the reception of *Amita-gyeong*. The reception can be divided into two styles: concrete reception and condensed reception. Both styles help people understand the sutra by putting it into easier words and making people to experience it in daily lives.

On the other hand, those two works initiate *Amita-gyeong* with two types of modification with different purposes. One is to praise and the other is to enlighten. By those two distinctive types of modification, not only do the works clearly convey the author's purposes of writing, but also carry out the roles of missionary literature.

**Keywords** : Ham Heo-dang, Anyang-chan, Mitakyung-chan,  
Amita-gyeong, reception, modification



к с і

# 漆室 李德一의 <憂國歌> 28장에 나타난 憂國의 양상\*

趙泰晟\*\*

## <차 례>

- I. 서언
- II. 당대 작품에 나타난 憂國의 양상
- III. 漆室 <憂國歌>에 나타난 憂國의 양상
  - 1. '傷朋黨'으로서의 憂國
  - 2. 忠의 한 방식으로서의 憂國
  - 3. 盡心報國으로서의 憂國
  - 4. 현실적 대안 제시로서의 憂國
- IV. 결어 - 칠실 <우국가>의 시조사적 의의

## I. 서언

<憂國歌> 28장은 漆室 李德一<sup>1)</sup>이 광해군의 혼정을 보고 고향에 돌아와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A020106-AM0003).

\*\* 전남대학교

1) 1561 : 명종 16~1622 : 광해군 14. 함평 출신의 충절인물로, 字는 敬而, 號는 漆室이며, 본관은 함평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열심히 닦아 이름을 떨쳤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학문을 그만두고 무예를 닦아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정유재란을 당하여서는 함평민과 피난민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여 함평의 孤山과 東幕 등지에서 왜적을 무찌르며 당시 해전에서 고군분투하던 충무공 이순신을 도왔다.

서 나라의 장래를 근심하며 지은 작품으로, 그 내용은 우국의 정과 아울러 현실에 대한 개탄이 주류를 이룬다. 이덕일의 <우국가>에는 李起渤의 한역 시와 李廷煥(1604~1673)의 화답가인 <悲歌>가 함께 전하는데, 이것은 곧 그의 작품이 당시의 우국지사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우선 조운제와 유창순이 가장 먼저 주목하면서 그 감상을 시도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강전섭<sup>2)</sup>은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와 더불어 작자의 면모까지 고찰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양순필<sup>3)</sup>, 최한선<sup>4)</sup> 등에 의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송종관<sup>5)</sup>, 이상원<sup>6)</sup> 등은 조선 중기 시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시조에 나타난 ‘憂國’ 혹은 ‘忠’을 이야기하는 과정<sup>7)</sup>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시조의 형식적 미학을 살피는 과정<sup>8)</sup>에서도 논의되기도 하였다. 최근에 이르러는 박길남<sup>9)</sup>이 <우국가>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을 중심으로 세밀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본고는 이렇듯 당시에 널리 유포되었다고 판단되는 이덕일의 <우국가>에서, ‘우국’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양상에 따라 살펴보고, 이어 그러한 ‘우국’의 의미가 오늘날에는 어떠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

---

이덕일과 이충무공의 인연은 전일 충무공이 함평에 머물렀을 때 당시의 폐단과 군사전략을 지어 바친 것으로 시작되어, 이후 충무공의 신임이 두터웠고, 그의 막하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한 바가 많았다고 한다. 그 후 공은 절충장군이 되고, 곧이어 병조좌랑, 통제영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광해군의 난정이 계속되자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인목대비의 폐출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1622년 병으로 사망하였다(李德一, 『漆室遺稿』).

- 2) 강전섭,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첩>」,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1966.
- 3) 양순필, 「이덕일론」, 『고시조작가론』, 서울 : 백산출판사, 1986.
- 4) 최한선, 「병란 후의 시대상황과 우국시조」,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1996.
- 5) 송종관, 「조선중기시조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6) 이상원, 「17세기 시조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7)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 서울 : 태학사, 1999.
- 8) 김열규, 「고산작품론 -반복법과 그 연장관계를 중심으로-」, 『고산연구』 창간호, 1987.
- 9) 박길남,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 28장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 『시조학논총』 제15집, 한국시조학회, 1999.

설 것인지 논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의 주 대본은 『漆室遺稿』<sup>10)</sup>이며, 그밖에 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韓國時調大事典』<sup>11)</sup>을 대본으로 삼았다. 한편, 본고의 논의 중 칠실의 傳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한선(1996)에 자세하다.

## II. 당대 작품에 나타난 憂國의 양상

현재 전해지는 『漆室遺稿』 내 <우국가> 28장은 각 장마다 제목이 없이 단순히 ‘右第一章, 右第二章……’ 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林象德의 <憂國歌後叙>나 羅以樟의 <題漆室憂國歌後><sup>12)</sup>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당시까지만 해도 노래의 각 장마다 그 제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들의 글에서 살필 수 있는 각각의 노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제4장 : 無城歎歌
- 제7장 : 慟哭關山月歌
- 제8장 : 夢聖教歌
- 제9장 : 莫移都歌
- 제10장 : 得民心歌
- 제13장 ~ 제15장 / 제17장 ~ 제22장 : 傷朋黨歌 9장
- 제24장 : 順天命歌

이들 노래의 제목 외에 문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노래들에 대해

10) 李德一, 『漆室遺稿』, 漆室李德一將軍記念事業會, 대전 : 譜田出版社, 1985.

본문의 인용은 모두 위의 책에 따름을 미리 밝힌다.

11) 朴乙洙 編著, 『韓國時調大事典』,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92.

12) 이 글들은 모두 『漆室遺稿』에 그 원본과 번역본이 실려 있으며, 이 번역본을 연구의 주된 참고자료로 삼고 인용함을 미리 밝힌다.

서도 분명히 제목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에 더해 강전섭은 노래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여 누락된 노래의 제목에 대한 재구를 시도한 바 있다. 즉, 나머지 13수에 대하여 제1장은 ‘盡心報國歌’, 제2장은 ‘大駕西巡歌’, 제3장은 ‘報復怨讐歌’, 제5장은 ‘慨嘆人心歌’, 제6장은 ‘艱危國事歌’, 제11장은 ‘均等宣惠歌’, 제12장은 ‘盡心國事歌’, 제16장은 ‘蕩蕩平平歌’, 제23장은 ‘王問有辭歌’, 제25장은 ‘公道是非歌’, 제26장은 ‘不顧國事歌’, 제27장은 ‘金銀玉帛歌’, 마지막으로 제28장은 ‘憂國傷時歌’라고 각각 명명한 것이다.

이렇듯 ‘憂國’이라는 주제 아래 제작된 28수의 노래에 각각 그 제목이 있다는 것은 당대의 ‘우국’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물론 누락된 13수에 대한 제목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노래의 내용과 제작에 사용된 시어에 의해 재구되었으므로 당대의 ‘우국’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선 칠실의 <우국가>가 제작되기 이전에 ‘우국’의 의미가 내포된, 즉 흔히 ‘우국시조’<sup>13)</sup>라고 평가되었던 대표적인 시조를 몇 수 통람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우국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송강 정철의 시조이다.

어와 버힐시고 落落長松 버힐시고  
저근덧 두던들 棟(東)樑材 되리러니  
어즈버 明堂이 기울거든 므서스로 바티려노<sup>14)</sup>  
(한국시조대사전 2747)

이 시조는 명종 2년(1547)에 일어났던 良才驛 壁書 事件을 배경으로 하

13) 서원섭(『時調文學研究』, 1979)은 역대 시조 작품에 대해 약 33가지의 주제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중에 ‘憂國慨世’라는 주제로 107수의 시조를 우국시조로 보았다.

14) 이 시조는 『河西集』續篇 卷首에 <悼土滲寃死作短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 하서 김인후의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그 한역시는 다음과 같다. “昨日伐了木 百尺長松非也歟 若使至今在 可作棟樑材 嗚呼明堂傾矣 于何以支之”.

고 있다. 당시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며 후에 나라의 棟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林亨秀가 윤원형에 의해 윤임의 일파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송강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송강은 장차 나라를 이끌만한 젊은 동량이 붕당간의 알력으로 희생양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나라일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 작품을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시조의 행간에서는 직접 읽혀지는 바가 없지만,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곧 ‘朋黨’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폐해로 나라의 젊은 인재가 죽어야 하는 당세를 개탄하는 작품이니, 우국시조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음은 위의 시조와 거의 동시대에 제작된 張晩<sup>15)</sup>(1566~1629)의 시조이다.

風波에 놀난 沙工 비파라 말을 사니  
 九折 羊腸이 물에서 어려웨라  
 이후란 비도 물도 말고 밧갈기를 흐리라  
 (한국시조대사전 4436)

이 시조는 우선 뛰어난 은유로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물론 이 작품의 작자가 이러한 탁월한 은유의 기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현실’에 기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장만은 大北의 亂政을 왕에게 상소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병을 이유로 낙향한다. 이후 인조반정으로 다시

15) 본관은 仁同이고, 자는 好古 호는 洛西이다. 선조 22년(1589년)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591년에는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승문원의 벼슬을 거쳐 艮嶽·典牲寺 주부를 역임하였다. 1601년 도승지에 오르고 이듬해 왕후의 誥命奏請부사로, 이어 세자책봉 주청부사로 두 차례 명나라에 다녀왔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적을 막지 못한 죄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扶餘에 유배되었다가 전날에 세운 공으로 용서받고, 복관되었다. 문무를 겸비하고 재량이 뛰어났다. 영의정이 추증되고, 通津의 鄉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洛西集』이 있다.

조정에게 발을 들여 놓았으나 정묘호란 때 적을 막지 못한 죄를 쓰고 귀향을 가기도 하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만이 더 이상 조정의 일에 뜻을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심사를 시조로 표현해 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칠실의 <우국가>가 제작되기 이전의 시조에서는 ‘우국’의 양상이 대개 봉당으로 인한 당쟁에서 비롯된 나라의 어지러움을 개탄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의 칠실의 ‘傷朋黨歌’類 역시 그러한 면모를 계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칠실의 작품에는 이를 비롯한 우국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진다. 조선을 변모하게 하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병자호란’과 ‘임진·정유 양란’이라는 일대 전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우국’의 양상은 보다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류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칠실의 <우국가>인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칠실 <우국가>에 나타난 우국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 Ⅲ. 漆室 <憂國歌>에 나타난 우국의 양상

#### 1. ‘傷朋黨’으로서의 우국

칠실의 <우국가>에도 이전에 살폈던 시조들처럼 봉당과 당쟁으로 인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난 작품이 몇 수 존재한다. 나라의 현실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우국’이라는 말조차도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우국’은 현실의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칠실의 <우국가> 28장 중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모두 9장이나 된다. 지면상 이들 작품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傷朋黨’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만을 골라 그 원문을 보고 전체적인 모습을

논하고자 한다.

힘써 흥는 싸흠 나라 爲흥 싸흠인가  
옷밥의 못터이서 흥 일 업서 싸오놋다  
아마도 근티디 아니흥니 다시 어히흥리(제13장)  
辭曰 彼鬪者子爲公乎些 食飽安居無事爾些 嗟嗟乎莫之能止復何爲些

이논 저 외다 흥고 저논 이 외다 흥너  
每日의 흥논 일이 이 싸흠 썬이로다  
이 흥의 孤立無助는 님이신가 흥노라(제14장)  
辭曰 彼烏之雌雄知之些 霄晝所爭惟是焉些 哀哀乎孤立無助莫我君些

칠실이 살았던 시기는 명종, 선조, 광해군대이다. 이 시기는 전란과 더불어 당쟁이 극에 달한 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시기 칠실의 눈에 비친 당쟁은 쓸데없는 싸움에 불과했다. 이 작품은 임금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의 당을 위해 ‘힘써’ 싸우는 그들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다. 또한 그 싸움을 말릴 길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 자책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서로 옳다 그르다만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조정 대신들의 모습을 보며 칠실은 임금을 생각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 보여 고립무원인 임금이 칠실에게는 오히려 당쟁의 희생인 양 여겨지는 것이다.

마를디여 마를디여 이 싸흠 마를디여  
尙可 更東西를 생각하야 마를디여  
眞實로 말기웃 말면 穆穆濟濟 흥리라(제15장)  
辭曰 已而兮已而兮些 彼東兮此西已而兮些 苟能乎已而已而穆穆濟濟些

칠실은 이제 싸움을 그칠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동인이니 서인이니 그런 것들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

네들이 싸움을 그치기만 한다면 세상은 다시 온화하고 또한 엄숙해질 것이 자명한데, 그렇지 못한 조정의 현실이 안타까운 칠실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수 더 살펴보도록 한다.

이라 다 울흥며 제라 다 글을라  
두 편이 곱트여 이 싸흠 아니마니  
聖君이 準則이 되시면 절노 말가 흐노라(제19장)  
辭曰 彼一是此一是些 俱日予是曷有已些 聖上兮苟建其極自爾止些

이 사람이 모두 옳고 저 사람이라고 모두 그를 것이냐, 어차피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모두 임금 아래 신하인데 왜 싸움을 그치지 않는지, 당시 당쟁을 보고 작자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칠실은 또한 단순히 현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때 임금이 해야 할 일을 거론한다는 데 노래 제작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당쟁이 심할 때 성군이라면 마땅히 준칙이 되어 아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었을 텐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임금이 한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 2. 충의 한 방식으로서의 우국

‘忠’이란 문자가 뜻하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中心이란 뜻으로 자기의 참된 마음을 뜻한다. 논어에서 ‘吾道一以貫之’를 ‘忠恕’로 표현하고 주자가 충을 註하여 ‘盡己之心謂忠’이라 풀이한 것이 그 예다. 다른 하나는 신하로서 군주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춘추좌씨전에서 ‘公家之利 知無不爲忠也’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sup>16)</sup>

다음 작품을 보자.

16)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서울 : 태학사, 1999), 207쪽. 재인용.

비나하 貢賦 對答 쓸지허 徭役 對答  
 옷버슨 赤子들이 비굶과 설위허너  
 願컨덴 이 뜻 아랴사 宣惠 고로 亨쇼셔(제11장)  
 辭曰 女貢絲男貢米些 哀我赤子寒兮饑些 願吾君念茲在茲均宣惠些

칠실은 우선 베를 짜서 賦稅를 내야하고, 쌀을 찢어 徭稅를 내야 하는 등 각종 세금과 착취로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매우 서러워하고 있는 실정을 알리려 하고 있다<sup>17)</sup>.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임금께 諫하고 있다. 가난은 임금 혹은 국가가 구제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직접 말하는 ‘忠諫’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노래에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리쇼셔 마리쇼셔 이 빠흠 마리쇼셔  
 至公 無私히 마리쇼셔 마리쇼셔  
 眞實로 마리웃 마리시면 蕩蕩平平 亨리이다(제16장)  
 辭曰 戒止之戒止之些 至公兮無私戒止之些 能夫戒止戒止蕩蕩平平些

이 작품에서도 역시 칠실은 임금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 여 기저기서 싸움이 그치지 않는데도 방관만 하는 임금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17)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는 그가 올린 <大同江都疏>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오늘날의 허다한 貢賦와 徭役을 모두 田結에다 매기니 일 년을 통하여 田畝 一結에서 供納해야 할 것이 쌀로 계산하면 많아서 십여 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일결의 전답에서 산출되는 곡식이 일결에 대한 각 항목의 부역의 공납에도 부족하게 되니,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끓는 물 속에 있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리하여 전답을 원수로 생각하고 부역을 괴로운 병처럼 생각하여 시름이 끊이지 않고 집을 떠나 방랑하는 것이 계속되어 田野는 점점 황폐해지고 마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름을 짜고 살을 깎듯 함과 혹독하게 채촉함과 각박하고 독하게 하는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꾸로 매달린 듯 설자리를 잃음과 추위와 굶주림에 울부짖음과 초췌하고 고생스러운 형편을 또한 形言할 수가 없습니다(……今夫許多貢賦徭役皆責於田結通一年田畝一結之所供而以米計之則多至十有餘石也故一結田畝所出之穀不足以供一結各項賦役刑邑之民如在沸湯中以田畝爲響怨以賦役爲疾苦呻吟不絕流亡相繼田野漸荒閭里稍踈凌膏剝肉斜侵橫斂嚴急刻毒之弊不可勝言……. 李德一, <大同江都疏>, 『漆室遺稿』).

서 말리라고 고통하는 것이다. 임금의 직접 나서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이 말리기만 한다면 당쟁은 이내 그치고 평온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칠실의 마음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작품을 보자.

무르쇼셔 술올이다 이 말슴 무르쇼셔  
仔詳히 무르시면 歷歷히 술올이다  
하늘이 높고 먼 들노 술올 길 업스이다(제23장)  
辭曰 王問于茲吾有辭些 苟諄諄問請嘗試些 彼蒼兮既高且遠莫能叫些

이 작품은 바로 앞서의 시조와 함께 살펴보자. 칠실에게는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임금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조정은 당쟁에 휩싸여 있고,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이 때 당쟁을 두고 그저 방관만 하는 임금이 너무 원망스러운 것이다. 오죽 했으면 몸소 물어보라고 외치겠는가. 무엇이든 자세히 물어보는 대로 모두 또렷이 대답하겠다고 하겠는가. 한 마디로 이 시조는 임금의 방관을 한하고 탓하며, 그 임금에게 가는 길이 당쟁으로 인해 너무나 높고 멀지만, 자신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폈던 정철이나 장만 등 기존의 시조들이 현실을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주로 읊었다면 칠실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타과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대안의 일환이 바로 ‘忠諫’임은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3. 盡心報國으로서의 우국

칠실의 작품에서 盡心報國의 면모를 보이는 작품은 이십 팔 수 중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의 위급한 때를 맞아 인심을 개탄하고, 國事를 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통곡하고, 말리는 것까지 모두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칠실이 상소했던 <大同江都疏>는 이러한 작품군에 대한 해설서처럼 보일 정도로 칠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제목부터 <盡心報國歌>라 칭한 제1장과 <大駕西巡歌>라 칭한 제2장을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學文을 후리티오 反武을 호은 뜻은  
三尺劍 들너메오 盡心報國 호려터니  
호 일도 호음이 업스니 눈물계워 호노라(제1장)  
辭曰 投筆而起此何爲些 提三尺劍報吾君些 吁嗟乎事無所遂不覺淚潛潛些

壬辰年 淸和月の 大駕西巡 호실 날의  
郭子儀 李光弼 되오려 盟誓러니  
이 몸이 不才론들도 알 니 업서 호노라(제2장)  
辭曰 黑龍之暑王在野些 慕昔賢忠矢不移些 噫呼乎才非可用國無人我知些

이 작품들은 칠실이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 몽진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했던 당시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林象德의 <李漆室憂國歌後叙><sup>18)</sup>에도 당시 칠실의 심정을 잘 드러나 있다. 문관으로서 출세를 버리고, 나라의 위기에 처해 과감히 무관의 길을 택한 칠실의 의기가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려니와, 국가의 간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려는 칠실의 결기가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의 뜻은 무과에 급제한 뒤 당나라 때 곽자의나 이광필 등이 安史義 난(安史義 : 安史의, 필자 주)

18) 일찍이 선비의 業을 하여 문장으로도 이름을 낼 만했으나 만력 임진년에 입금이 서쪽으로 행차하시고 팔도에 싸움이 벌어지자 탄식하며 “나라의 치욕이 이와 같으니 남아라면 살아서는 칼로 풍신수길의 목을 베고 죽을 때는 마땅히 군사의 대오에서 죽어가야 하는 것이니, 어찌 글 짓는 일이나 하고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이 때에 지난 날 공부하던 詩文을 모두 버리고 낮에는 말을 달려 갈쓰기를 시험하고, 밤에는 돌아와 병서를 골똘히 읽었다(……嘗爲士子業能以文翰自名及萬曆壬辰主上西幸兵戈遍于八路乃喟曰國之羞辱如此男兒生不劍劍斬平秀吉死當橫屍行陳何以文墨爲於是盡棄他日所爲詩文書則馳馬試劍夜歸究觀兵書……. 林象德, <李漆室憂國歌後叙>, 『漆室遺稿』).

을 평정하였던 것처럼 용맹을 떨치려고 하였으나 修己기 未完인 까닭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한탄 등이 드러  
나지 않은 것은 남이 알아주지 못한 까닭을 修己의 미완에 두고 있음<sup>19)</sup>  
이며, 그러한 이유로 나라를 위하는 칠실의 진심이 이 작품에 그대로 나타  
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칠실의 뜻은 진정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  
복하려는 여러 방안을 내세우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실행되었다는 점에  
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國事와 관련한 칠실의 생각이 담겨진 작품들이다.

어와 설운디오 싱각거든 설운디오  
國家 艱危를 알 니 업서 설운디오  
아모나 이 艱危 알아 九重天의 슬오쇼셔(제6장)  
辭曰 心之悲矣思之愈悲些 國家艱危知無人些 夫孰能知此艱危奏吾君些

功名과 富貴란 餘事로 하여두고  
廊廟上 大臣네 盡心國事 하시거나  
이렇성 저렇성하다가 내중 어히 흐실고(제12장)  
辭曰 貴莫要名貴營些 惟我縉紳勤于邦些 吁嗟兮悠悠泛終奈何些

나라히 굿드면 딛이조차 구드리라  
딛만 도라보고 나라일 아니흐니  
흐다가 明堂이 기울면 어니 딛이 굿들이요(제26장)  
辭曰 邦之固矣家以安些 不顧于國彼何爲些 倘使夫大厦既傾終無奈些

우선 첫 번째 작품에서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서도 그 위태로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서러운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나 위  
정자들이라면 더욱 그러한 艱危를 알아 대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  
는 위정자들의 행태에 칠실 자신이라도 직접 임금께 알리고자 하는 바람

---

19) 최한선, 앞의 논문, 70쪽.

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작품은 국사를 위해서라면 공명과 부귀도 모두 짓혀 두고 조정에서 힘써 나랏일을 보살피야 함에도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정 대신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 한 수만을 놓고 본다면 단순히 초야에 묻힌 선비가 조정 대신의 정치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칠실의 <우국가>가 제작된 시기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여기에 보이는 조정 대신에 대한 불만은 국사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져 국가의 간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국 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든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을 보면 이와 같은 우국 의식은 더욱 극명해진다. <不顧國事歌>라 불리는 작품으로, 나라가 굳세면 그대들, 즉 대신들의 집도 굳세질 것인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의 집만 돌아보며 나랏일은 하지 않는 대신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상황이 표현된 작품이다. 明堂 즉, 나라가 기울면 어느 집이 남아 있겠는가 하는 따끔한 충고를 작품에 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우국가> 28장 중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憂國傷時歌>라고 불리는 작품이다.

功名을 願찬커든 富貴인들 비알소냐  
 一間 茅屋의 苦楚히 혼자 안자  
 밤낮의 憂國傷時를 못내 설워호노라(제28장)  
 辭曰 富貴非願功名難期些 感時撫事增余悲些 嗚呼兮歌已至此于以洩平生不平思些

칠실은 공명도 원한 적 없고 부귀도 바란 적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오직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밤낮으로 괴로이 나랏일만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나랏일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두 번에 걸친 병란과 여전히 극성하는 당쟁이 칠실의 우국상시를 지속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 ‘一間 茅屋의 棼楚히 혼자 안자’라는 구절은 칠실의 시조가 오늘날 시조사에 커다란 가치를 갖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 이 구절은 흔히 ‘江湖歌道’로 대변되는 조선 중기의 시조 작품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지는 구절이다. ‘江湖歌道’를 추구하는 삶을 노래한 작품들에서 ‘一間 茅屋’은 隱逸者의 처소로써 아주 맞춤형에 비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길남<sup>20)</sup>의 논의가 매우 자세한 편이다. 그에 의하면 ‘<우국가>의 경우는 강호계열의 시조처럼 현실에서 갈등은 겪지만, 강호계열처럼 회피하지 않고, 갈등요소를 들추어내고 맞선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갈등 대상과 주체에서 또 다른 차별성이 보이는, 강호계열은 작가들 그 개인과 정치현실과의 갈등이지만, <우국가>의 경우는 표피적으로 칠실 개인으로 드러나지만, 심층적으로 혈벗은 赤子이고, 배를 굶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칠실의 <우국가>가 가지는 시조사적 의의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 4. 현실적 대안 제시로서의 우국

이 절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칠실이 제시한 방안 등을 노래한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林象德도 이에 대해 ‘莫移都, 無城歎, 得民心, 順天命 등의 장은 채택하여 시행한다면 세상을 다스릴 격언이 된<sup>21)</sup>’다고 평한 작품들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노래의 순서에 따라 <無城歎歌>, <莫移都歌>, <得民心歌>, <順天命歌>라 불리는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城 잇사되 막으랴 네와도 홀 일 업다  
三百二十洲의 엇디 엇디 덕길게오  
아모리 蠱臣精卒인들 의거 업시 어이흐리(제4장)

20) 박길남, 앞의 논문, 196쪽.

21) ……其中莫移都無城歎得民心順天命等章採而陳之經世之格言……(林象德, 앞의 글, 앞의 책.).

辭曰城不高何以禦敵些大都分名洲蹂而躍些縱有夫蓋臣精卒無奈于國些

마르쇼서 마르쇼서 移都 뜻 마르쇼서  
一百 積 勸호여도 마르쇼서 마르쇼서  
享千年 不拔鞏基를 더져 어히 호시릿가(제9장)  
辭曰莫移都莫移都些邇言兮不可信莫移都些享千年不拔鞏基不可等擲些

마르쇼서 마르쇼서 하 疑心 마르쇼서  
得民心外에는 호을 일 업느이다  
享千年 夢中傳教는 귀예 錚錚호여이다(제10장)  
辭曰莫疑心莫疑心些民心兮不可失莫疑心些享千年夢中傳教不可忘忽些

我聖祖 積德으로 餘慶千世 호옵시니  
先王도 效則호샤 順天命 호시니다  
聖主는 이 뜻 알랴샤 千萬疑心 말르쇼서(제24장)  
辭曰聖祖懋德積餘慶些先王是則順天命些聖上兮其鑑于茲不愆忘些

우선 위에 든 첫 번째 작품은 성이 있어도 적을 막지 못할 상황인데, 성도 없이 어찌 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한탄하며 지은 노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성이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전국 방방곡곡의 상황이 모두 똑같으니 그야말로 蠱臣精卒이라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칠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어적으로나마 우선 성을 만들어 지키자는 계책을 노래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계책에 대해서는 그가 올린 <大同江都疏>에도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신이 올린 경술년 상소 중에 팔도에서 형세를 가려서 옮겨할 수 있는 곳을 혹 2~3읍을 합하여 한 성으로 만들고, 혹 4~5읍을 합하여 한 성으로 만들어 한결같이 변방을 진압하고 일례적으로 모두 첨사와 만호를 두어 평상시 적주하며 수비하게 하고, 변을 만나면 모든 읍의 사람이 가족을 거느리고 재물을 거두어 각기 소속 산성으로 들어가 땅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sup>22)</sup>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는 지세의 험함만을 믿고 함부로 천도할 생각을 한다거나, 민생을 소홀히 하여 민심을 잃게 하는 등의 일들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성조인 이태조의 몽중전교에 따라, 즉 하늘의 명을 따르면 굳건한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의 내용 역시 <大同江都疏>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앞에서 말했던 쌀과 포를 거두는 것은 바로 민심을 얻을 급선무이며 뒤에서 말했던 형세를 가려서 응거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의 터전을 굳건하게 하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민심을 얻음은 인화를 말하니 본이며 나라의 터를 견고하게 함은 지리를 말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본이 있고 말이 없으면 수비가 견고하지 못할 것이며 말이 있고 본이 없다면 지켜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본과 말을 함께 들어 국가의 기틀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곳에 올려놓기를 오늘날 간절히 바랍니다.<sup>23)</sup>

이상의 작품들을 종합해 보면, 칠실은 당세에 대한 현실적 대안에 대해 이미 상소문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와 현실이 극심한 괴리를 보였던 광해군대에 낙향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 생활을 끝을 맺는다.

칠실 <우국가> 28장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종 상소를 통하여 자신의 계책을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우국’을 노래로나마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의 작품들과 작품의 제작 동기에서도 확인되듯이 칠실의 ‘우국’은 단순한 울분과 비분강개함의 표출이 아님은 이제 분명하다고 하겠다.

22) ……臣於庚戌年上疏中以爲於八道擇諸刑勢可據之地或合二三邑而作一城或合四五邑而作一城一如邊鎮例皆置僉使萬戶平居以守之臨變則列邑之人率家屬收財物各入所屬山城以守內地也……(李德一, 앞의 글, 앞의 책).

23) ……前所謂米布之收卽得民心之急務也後所謂形勢之據乃固邦基之遠謀也得民心者人和之謂本也固邦基者之利之謂末也有本無末則守不固矣有末無本則守不久矣本末兼舉奠基業於不拔深有望於今日也……(李德一, 위의 글, 위의 책).

#### IV. 결어 - 칠실 <우국가>의 시조사적 의의

지금까지 칠실의 <우국가> 28장을 살펴보면서 우선 그의 시조에 나타난 우국의 양상이 매우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양상을 크게 네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 ‘傷朋黨으로서의 우국’, 둘째, ‘忠의 한 방식으로서의 우국’, 셋째, ‘盡心報國으로서의 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 대안 제시로서의 우국’이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칠실이 처했던 시기, 그리고 병란을 맞이하여 그에 대처했던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칠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선조대에서 광해군대까지이다. 이 시기는 당쟁이 극에 달했던 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당쟁으로 인해 피폐해져 가는 나라일에 대한 걱정이 그의 노래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병란을 맞이해서는 몸소 의병을 모집해 저항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나라의 기틀을 더욱 다지기 위한 각종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 역시도 모두 그의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앞서의 진술들에서 확인한 바 있다.

게다가 칠실은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현실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忠諫, 대안의 제시 등을 시조라는 형식을 통하여 내보임으로써 우리 시조사에 있어서도 그 내용적 영역을 넓히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전 시기까지 주로 제작되었던 ‘江湖歌道’와 ‘訓民’, ‘修己와 德治’의 기초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진보된 기초-박길남(1999)에 의하면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칠실 <우국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까닭이다.

칠실의 시조는 후대에까지 우국의 절창으로 평가되어 수많은 지식인들이 돌려 읽으며 눈물 흘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대 가장 가까이 는 松岩 李廷煥의 우국시조<sup>24)</sup>로 그 전통이 이어지며, 후대에 이르러는 일

24) 이거사 어린 거사 잡말 마라스라 / 漆室의 悲歌를 杼라서 슬퍼하리 / 어디서 濁酒 한 잔

제 강점기를 당하여 대구여사의 <血竹歌>를 비롯한 작자미상의 <愛國調>, <丈夫詞> 등으로 그 전통이 이어진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우국가>의 가치는 외세와 일제의 침략에 맞서 문화운동으로 다가섰던 시조부흥운동과 그 과정에서 실린 여러 우국·독립 시조로 그 전통이 이어진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의 시조 장르는 서정문학의 진수라고 일컫는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칠실의 <우국가>에 나타난 제 양상들은 이러한 기존의 견해에 재고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칠실 우국시의 전통이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점에 대한 연구 역시 재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국’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漆室遺稿』, 漆室李德一將軍記念事業會, 대전 : 譜田出版社, 1985.

朴乙洙 編著, 『韓國時調大事典』,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92.

서원섭, 『時調文學研究』, 서울 : 형설출판사, 1979.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 서울 : 태학사, 1999.

강전섭,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첩>」,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1966.

김열규, 「고산작품론 -반복법과 그 연장관계를 중심으로-」, 『고산연구』 창간호, 1987.

박길남,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 28장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 『시조학논총』 제15집, 한국시조학회, 1999.

송종관, 「조선중기시조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양순필, 「이덕일론」, 『고시조작가론』, 서울 : 백산출판사, 1986.

---

언어 이 실람 풀가 하노라 寄語癡孩者 慎莫且多談 漆室悲歌意 不知悼者誰 須把一盃酒 聊以解窮愁(自譯)(한국시조대사전 3212)<悲歌> 10수 중 열 번째 노래.

이상원, 「17세기 시조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최한선, 「병란 후의 시대상황과 우국시조」,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1996.

<투고일 : 2006. 6. 1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Wooguk[憂國] in Chilsil's works  
named <woogukga[憂國歌]>

Jo, Tae-seong

This study aims to make sure that Wookuk[憂國] in Chilsil[漆室]'s works has many kinds of aspects. Broadly speaking, it is divided four aspects. Wooguk[憂國] as a Sanbungdang[傷朋黨] is in the first place. Secondly, we can see Wooguk[憂國] as a kind of loyalty[忠]. Wooguk[憂國] as Jinsimboguk[盡心輔國] is next. The last aspect is Wooguk[憂國] as an alternative propose in the actual. These various aspects are caused by Chilsil's period, wars and acts which was facing with wars.

More than that, the tradition of Wooguk-Sijo[憂國時調] is from Lee, Jeong-hwan's to Madam Daegu's <Hyeoljukga[血竹歌]> and anonymous <Aegukjo[愛國調]>, <Janbusa[丈夫詞]>, etc.

**Keywords** : Wookuk[憂國], Chilsil[漆室], Sanbungdang[傷朋黨], Jinsimboguk  
[盡心輔國], loyalty[忠], Wooguk-Sijo[憂國時調]

# <동동>의 지역 축제 연출 가능성과 그 개발 방안

최정삼\*

<차 례>

1. 머리말
2. <동동>과 지역축제
3. <동동>의 축제 연출 가능성
4. 개발 방안 - 개발 모형 예시

## 1. 머리말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도산업사회 외형의 구비와 추종을 사회전반에 요구하고, 그 사회 각 분야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거기에 적극 부응하거나 최소한 적응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잠시나마 힘겨운 노동과 메마른 일상으로부터의 방작(放着)과 일탈을 통하여 삶의 근원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축제조차도 경쟁적 상업논리에 휩쓸려 그 본질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축제의 본래적 인간생활에의 의미를 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지역사회 행사로서 생태적 의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면서, 동시에 그러한 축제가 '지금 여기'에 견실히 현전(現前)할 수 있는 시대적 자생력의 확보를 모색하는 일은 이제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 전남대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1,000여개를 훨씬 넘긴 우리나라 전반의 지역축제의 상황은 축제의 본질이 부수적 효과에 전복되어 있는 현실이며<sup>1)</sup>, 이에 어긋날세라 작금의 우리 지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축제의 현주소와 그 풍경은 오히려 한술 더 떠 답보적인 정체성(停滯性)을 넘어서 자괴적인 씩씩함마저 금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축제의 중심으로 살아 있어야 할 민속적 원형이 축소 왜곡되거나 도외 시된 끝에 복원조차 해볼 길이 없게 된 지경인가하면, 지역적 정체성과 아무 상관이 없이 수익만을 목적으로 전국을 특징 없이 순회하는 난장상혼의 행사 현장 범람은<sup>2)</sup> 그 분양수입을 위해 지역축제를 팔아먹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축제 자체를 매몰시키고 있는 형국에 다르지 않다. 게다가 지역민의 참여와 합의 속에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지역축제가 일부 고정적 유력인사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한 행사로 전횡되고 있는 것도 축제가 진정한 지역민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을 빙자한 행사 관련자들의 이권 축제가 되고 있다는 의구를 금할 수 없게 한다.

---

1) 김기형, 「춘향제의 축제적 성격과 변모과정」, 『춘향과 21세기 한국문화』(춘향제 7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관소리학회·춘향제전위원회, 2005.1, 43쪽.

1996년까지 조사된 축제만도 412개에 달하여 전국에 축제가 열리지 않는 지자체가 없는데, 이 중약 75%가 1980년대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역사성 기반이나 전통성 기반이 없으며, 지역단위 경제활성화 요구에 몰린 지자체가 축제를 관광상품화 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고필, 「지역축제의 속내와 무심한 관객」, 광주 문화의집 블로그, 2006.

축제의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은 언제나 몽골형 대형부스를 만들어 풍물장터 먹거리 터를 만든 이들이다. 이들의 태반은 축제의 주최측과 관련이 없는 이들 이지만 어느 경우는 주최측에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다. 그 누구보다 지역축제 소식에 민감하며 축제에 대한 반응을 잘 감지하고 있는 이들은 이제 조직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는 처지이다. 축제를 찾아다니며 축제의 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축제의 주제를 흐리게 하고 축제 공간의 동선을 파괴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아 마치 축제 주최측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행정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사실 힘겨운 일이다. 몇년전 진도에서는 축제 행사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행정력에 맞서 가스통으로 화염을 분사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 또한 축제에 그들의 밥순가락을 의탁하고 있는 이 땅의 처연한 백성이기도 한 것이다.

축제의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천편일률적이고 진부한 가장행렬로부터, 조악하고 조잡한 부대행사들이며, 저급한 싸구려의 공연행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축제가 반드시 지니고 살려야 할 지역적 정체성 및 주제의 선명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그나마 연예공연 따위를 비롯한 그런 행사에 축제 예산의 반 가까이가 소모되는 현실은<sup>3)</sup> 아무리 무감하려 노력해도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기층 지역민들의 행사 주체로서의 선도적 역할 담당은 물론 기본적 참여와 향수(享受)조차도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의문시하지 않기 어려운 것이 기왕의 모습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편린들만으로도 심분 노정할 수 있는 것은 지역민들이 그 축제의 전후 과정에서 그저 구경꾼 내지는 국외자 정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별달리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역축제가 본질에서 벗어나 질곡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역과 지역민에게 단순한 불행 이전에 지역에너지와 재화의 투도적(偷盜的) 낭비와 누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급히 밀도 있고 정치(精緻)한 기존 축제 실태의 재검토와 함께, 축제의 안팎을 본질로 돌릴 수 있는 획기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선 여러 가지

### 3) 전고필, 앞의 글

전남에서 치르는 군 단위의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도 3억에서 7억 사이를 오가는 액수이다.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치러지는 축제일수록 비용이 높다고 여기면 되고, 다수의 연예인이 오는 공연행사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은 대개 1억 아래 위 사이로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3억의 돈을 들여 치르는 축제에서 1억 정도가 이렇게 연예인 초청 비용으로 한 두 시간에 쓰여 진다면 이제 남은 돈은 2억 정도 일터이다. 그 남은 돈으로 몽골부스를 비롯하여 매 축제 때마다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 인쇄비용, 홍보비용, 음향, 조명, 서틀버스 비용 등이 포함된다.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 또 들어간다. 이제 1억도 남지 않은 돈은 출연자 및 참여자들과의 힘겨운 겨루기에 쓰인다. 때에 따라서는 돈맛을 알아버린 이들이 이러저러한 압박을 가해오며 더 많은 돈을 그들의 프로그램에 투여해 주길 바라지만 없는 돈을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그저 최소한의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문화부분이나 관광개발 부분, 청소년 부분 등에 들어있는 재원을 축제에 활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종합적인 축제이고 지역민이 함께하는 마당이니 뭐라 달리 할 말은 없지만 그럼 축제가 끝나면 지역문화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말인지 궁색하기만 하다.

방안이 상고되어질 수 있을 것인즉, 그 중에는 전적으로 지역축제의 새판을 짜는 방법이나, 또는 외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지역 축제와는 별도로 잠재적 가능성이 큰 새로운 축제를 발굴 기획하여 시연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회복된 본질과 건강한 자생력을 아울러 갖춘 새로운 전범적 모형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의 기존 축제가, 지역 테마축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즉 확고한 정체성 제고와 선명한 주제 부각의 적절한 시기를 선취하지 못한 나머지 같은 주제를 이미 타지역 여러 곳에 선점당하고 후발주자 아닌 후발주자처럼 되어버려서, 기존 주제의 축제로는 구태의연함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심분 고려할 때에, 이 새로운 지역축제의 전형 모색은 더욱 유용한 대안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 2. <동동>과 지역축제

축제에 고려가요 <동동>(장생포곡)의 ‘여수의 노래’로서의 발전<sup>4)</sup>은 그 안에 내재하는 문예적 성격과 역사적 성격, 그리고 지역적 성격을 하나의 컴비네이션으로 엮어 새로운 지역축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획기적 전기의 신경지를 열었다 할 것이다. 더구나 동동의 가요적 성격에 더하여 여음의 북소리 의성(擬聲)이라는 테마는 그 음악적, 집체적 체험적 원초적 성격을 제대로 살려낸다면 예컨대 ‘세계 북소리 축제’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까지 겨냥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다.

대체로 이상적 지역 축제로서 구비해야 할 선수적(先修的) 조건으로 첫

4) 김준옥, 「장생포의 창작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연구』 제44호, 한국언어문학회, 2000.

김준옥, 「동동은 여수의 노래」, 국어국문학회 제42회 전국학술대회, 연세대학교, 1999.

김준옥, 「장생포와 동동」,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문학회, 1995.

째 지역적 연고성, 둘째 역사적 사실성, 셋째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감응력을 기본적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축제 자체 및 그 배경의 역사성과 전통성 확보’를 통한 「지역 축제로서의 자체적 정체성」과 ‘내재적 문예 콘텐츠의 가치와 잠재적 가능성 발현’을 통한 「테마 축제로서의 주제적 선명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동동축제’가 이러한 선행적 구비 조건을 이미 이상적으로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의 것만으로도 이 동동축제는 이미 축제의 네 가지 유형 중 전통문화축제, 지역문화축제, 예술문화축제의 세 가지 유형적 성격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 할 터이다. 거기에 축제의 실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민들의 참여를 더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첨가하게 되면, 곧 이 ‘동동축제’는 대중문화축제로서의 성격까지 획득하게 될 것인즉, 그렇게 될 때 이 ‘동동축제’는 명실상부하게 축제의 네 가지 유형을 구유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예컨대 ‘동동북축제’라고 할 때, 그 ‘북’이라는 소재는 다른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접근과 체험이 용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손쉽게 격의 없는 기층 지역민들의 대중문화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작금의 대부분 지역 축제가 지역민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만들고, 심지어 행사의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마침내는 국적 없는 상흔의 피해자로까지 희생시키는 편모가 없지 않음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은 그 자체로서는 자칫 작게 여겨질지 모르나, 그 의의는 장차 축제의 본질을 회복해나가는 대장정의 진일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작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사실, 축제에 관한 개념의 문제에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5)</sup>

5) 김성중, 「한국축제의 개념과 범위」, 『소규모 저예산 동별 지역축제론 시론』, 향토축제문화연구소.

축제에 관한 개념의 문제는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한국전통축제가 가지고 있는 ‘제의적 성격’과 외국의 ‘festival’이나 ‘카니발’의 개념이 혼합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가중

그러나 그러한 논란 이전에, 축제는 그 발생사적 양상이 동서양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겠으나, 본디 제의와 놀이가 굳이 구분되지 않은 융합적 측면이 강했다.<sup>6)</sup> 고대 제천의식 행사의 원시무요(Ballade Dance)가 그러한 것의 방증이며, 근래까지의 우리 민속에 관혼상제의 의식(Ceremony)의 외형이 그 내적 성격의 현저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히 공동체적 축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또한 그 유흔(遺痕)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축제는 본래 어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고축’과 ‘제전’을 아우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 안에는 종교성과 예술성이, 그리고 유희성과 일탈성이 혼재되어 있었던 바, 그것은 성격적 기능적으로는 ‘미분(未分)’의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총체적 통합의 상태’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현대인이 이해하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종교성과 예술성 유희성과 일탈성은 기본적 기능적으로 둘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실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분화된 시스템으로 이성과 감성을 조절하며 기계적으로 심리와 행동을 결정하는 존재일 수 있는가 의심스럽지 않은 바가 아니며, 오히려 현대인들의 고난과 질곡은 통합해야 할 것을 분화하려 하는 데서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런 면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특히 신생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대 공연학(Performance Study)에서도 제의(祭儀)를 응답한 주요 공연행위로 보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sup>7)</sup>

---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제의’와 ‘축제’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축제’는 그 구분 자체가 명확치 않고 양자의 기계적인 ‘접맥’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축제(祝祭)’의 사전적 의미는 ‘1)축하하여 제사지냄. 2)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전통축제의 경우 1)의 의미에 가깝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축제는 2)의 의미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축제의 목적과 형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한가지의 목적과 형식에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없다면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한 일이다.

6) J. 호이징가, 『호모루덴스』, 김윤수 역, 까치 1981 : 놀이와 축제의 관계

7) Richard Schechner,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Routledge, 2002, 45~77쪽.

과거의 동제(洞祭)는 철저하게 동민(지역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종교성과 예술성과 유희성과 일탈성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힘겨운 농업노동과 궁핍한 삶의 여건, 메마르고 거친 일상생활과 출구 없는 관계적 속박 속에서도 이 동제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예컨대 비탄의 삶을 신의 위로와 경책을 통해 정화하고, 정한의 정서를 전통 예술의 미학을 통해 신명으로 승화하며,<sup>8)</sup> 노고와 속박의 삶을 전통 연회의 놀이와 그 잠정적 일탈을 통해 일시 해소함으로써,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안에는 그 민족,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민 특유의 독자적이고 변별적인 제의 내지 축제의 방식이 인간의 문화적 삶의 형적으로 담겨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축제의 문화적 의의이자 변별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해방공간의 혼란, 6·25의 참사, 1·2공화국 정권의 무지와 3공·유신 정권의 민속 탄압 내지는 왜곡적 근대화정책으로, 한국의 축제는 그 원형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예컨대 조잡하고 조악한 얼치기 ‘가장행렬’과 저급하고 무질서한 ‘난장’으로 대표되는, 천편일률적이고 진부(陳腐) 의연(依然)한 무국적적 행사가 되고 만 것이다.

외국 관광객과 외국 학자들의 심방 여부 그 자체가 축제의 가치를 가름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의 경우 강릉 단오제를 비롯한 한 두 축제 외에는 철저하게 한국의 축제를 외면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통 동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본의 소위 ‘마쯔리’를 무수히 찾는 현상<sup>9)</sup>과 비교할 때, 그것의 가치 잣대로서의 효용을 마냥 부정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당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 주된 이유의 하나가 축제의 원형과 순수성의 담지(擔持) 여부가 갖는 변별적 가치의 유무라는 데 이르면 한국의 지역축제 현실에 대한 진

8)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서울, 1993.

9) 이보형, 「춘향전과 남원춘향제에 대한 토론」, 판소리학회 제52차 학술대회, 전주대, 2006.5.13.

정한 반성과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한국의 지역축제는 대부분의 그것이 시작된 3공시대의 포메이션과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오히려 그것이 실력자들의 기득권으로 이권화 되면서 더욱 고착되거나 강화된 현상마저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수렴된 축제의 새판 짜기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출된 지역민의 새로운 합의이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본고의 성격상 다음 기회로 미루거니와, 여기에서 굳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축제의 본래적 성격에 비추어 ‘동동축제’가 가질 수 있는 지역축제 본연에 대한 함목적적 함본질적 가능성은 상기한 한국지역축제의 현주소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고 올곧은 방향성을 가진 것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변이나 기득권자들의 손이 아닌, 지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통로를 통해, 예컨대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나 연구 및 교육기관을 범용적(汎用的)으로 포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연 및 지역민의 참여와 반응을 통해 검증하고, 다시 이 ‘여론수렴에서부터 검증까지의 과정’의 반복하면서, 그 모든 과정마다에서 절장보단을 누적해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이 ‘동동축제’를 가장 이상적인 이 지역의 축제로 다듬어갈 수 있을 것이다.

관광 상품 만능주의와 그에 영합한 싸구려 문화축제의 범람으로 지역축제의 고유하고 변별적인 순수가치가 망실되고, 지역민의 축제에 대한 건강한 기대와 생태적 여망이 유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축제의 모색은 이제 시급한 목전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본질에 충실한 지역축제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체험이 되어야함은 물론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해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금 생기 있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하늘과 지역의 땅과 지역의 인간이 행복하게 만나서 아름답게 어우러져 이 지

역의 생명력을 튼튼히 이어내는 일이야말로 지역 축제의 축제 그 자체를 넘어서는 기능이라 할 것이다. ‘동동축제’는 바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할 좋은 등가물로서 지역민에게 축제적 시간과 축제적 공간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소명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동동>의 축제 연출 가능성

<동동>이라는 고려가요는 그 자체 내에 역사와 문학과 음악을 내재하고 있고,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그에 결부한 사회적, 군사적 의의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동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다채로운 분야에서 충분한 소재와 방법을 잠재적으로 구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동동을 축제로 연출한다면 고민해야 할 주된 화두는 어떤 소재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일견 고통스러운 모색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소재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낼 것인가 하는 보다 행복한 취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그 취택의 대상들을 먼저 점검해보고, 다음으로 그것이 지역축제의 본질을 가장 잘 표상해낼 수 있도록 유효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순서가 되겠다.

#### 1) 북축제

먼저, 첫째로 특징적 측면의 부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요즘처럼 각기 지역마다 온갖 ‘축제’가 급조되고 난무하는 혼조상황에서 변별적 특징이야말로 축제의 존립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기선적(機先的) 명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동동의 경우, ‘북소리’와 ‘북’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동은 그것이 현재는 문자기록 형태의 시가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본래 음향과 선율을 가진 노래로서의 음악이었던 바, 이에 더하여 후렴귀의 여음에는 북소리 반주의 모사가 확연한 의성어(擬聲語)로 명백히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그 북소리 의성은 이 시가의 제목(명칭)이기도하다. 동동축제를 북소리축제 내지는 북축제로 연출하는데에 아무런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없는 직접적 이유가 될 것이다.

북소리는 오랜 옛날부터 심장의 고동소리에 비견했을 만큼, 모든 생명의 리듬이 내는 근원적 음향이자 태초로부터 무한히 이어지는 우주적 공간과 시간 운행의 상징적 음향이며, 지적 존재로서 표현욕구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원초적인 음악 충동의 표상이다. 북소리에는 모든 생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북소리는 그만큼 인간에게 친근하고 본능적이며 자극적인 음악적 질료이다. 축제의 기제(機制)로서 손색이 없을뿐더러, 여타 다양한 음악매체와의 결합력도 매우 강한 터이므로 연출 여하에 따라서는 가장 매력있는 문화적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이자 가장 간단한 악기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필수적인 악기인 동시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각지 그 어디든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김없이 존재하는 악기이다. 종류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그 주법(奏法)도 단순 소박한 것으로부터 상당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큰 범위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판소리 장단인 소리북의 주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데,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名鼓)는 없다’는 사계(斯界)의 전언(傳言)이 있을 정도로, 소위 무궁무진을 참칭할 만큼 그 주법이 다양하고 절묘한 바가 있다. 이처럼 가장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렵기까지 한 악기가 바로 이 북이라 할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고차(高次)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이라도 염권(厭倦) 없이 추구할 수 있는 악기가 북임을 뜻한다. 즉 북은 가장 소박한 악기이면서 동시에 음악으로서의 높은 기교적 완성도와 정신적 심오함까지 겸비하고 있

는 그런 악기인 것이다.

게다가 북은 사회적 성격도 강해서, 고래로부터 공동체의 행동 신호로 또 행사 음악으로 쓰였음은 물론, 또 군대와 전투에서의 진형의 형성과 이동 및 진퇴의 시그널로도 쓰였다. 전 세계에 걸쳐 종족집단의 제의 및 유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이자 수단이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집단과 개인 간 사회적 행동의 약속에 쓰이는 사회생활 방편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북은 더욱 발달된 형태의 결합으로 풍물 음악을 형성해서, 때로는 농악으로 때로는 군악으로 때로는 무악으로 때로는 주악(奏樂;반주음악)으로 매우 다양한 탄력적 활용으로 민속과 전통음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북이 역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집체적 성격과 대중적 성격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은 대중에 대한 흡인력과 미적 매체로서의 중량감, 그리고 사회적 집체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만큼, 북을 주제로 동동축제를 연출해 낸다면 바람직한 지역 축제가 도모하는바 문화적 의의 고양(高揚)과 지역민의 참여 및 향수(享受)라는 안팎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시가(詩歌)축제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가적 측면의 부각을 들 수 있다. 동동은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의 속요이고, 이는 동동이 과거 노래로서 존재했으며, 오늘날 노래의 기록적 형태인 시로서 남아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금에 우리가 이것을 축제의 형태로 되살린다고 한다면 동동의 노래로서의 정체성을 조명하고 노래축제로서, 가요축제나 시가축제를 포괄하는 형태가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는 오늘날도 대중성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장르이고, 국내외 동서고금을 망라한 주요 음악은 모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면밀하고 경륜 있는 기획력과 연출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상업적으로

도 전망이 있는 축제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는 그 발원이 인류의 언어와 같이 했다고 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이고, 갖가지 형태로 언제나 인간생활과 더불어 있었던 것인 데다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이기까지 하다.

더욱이 노래는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전통음악, 서양고전음악, 대중음악의 각 분야에서 수많은 하위 장르를 가지고 있다. 그 수많은 모든 장르를 모든 대중들이 모두 향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오버크로스(over-close)의 기회와 실험을 노래의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다 시도해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장르마다 모두 일정한 종사자와 애호가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인지도가 높은 종목에서는 대중의 참여 유도과 향유 기회를, 인지도가 낮은 종목에서는 그 미적 가치의 고지(告知)와 접촉 및 학습의 기회를 각각 공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기회에 시가 노래로서 기능할 수 있고 노래가 시로서 더불어 존재할 수 있도록 시와 노래가 행복하게 만나는 그러한 시가축제의 새로운 패턴을 모색하고 창안할 수 있다면 그 의의는 더욱 큰 것이 될 것이다. 다양한 뮤지션들과 시인들이 만나서 다양한 노래를 유통 창출하고, 지역민들이 뮤지션 및 시인들과 또한 지역민 상호간에, 노래 또는 시가를 통해 교류할 수 있다면 이 동동축제는 축제의 본질이 도모하는바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역사축제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역사적 측면의 부각을 간과할 수 없다. 동동은 그 노래의 유래가 고려말 유탕장군이 이 지역 장성지구(장성마을;장성포,장생포) 앞 바다에서 왜구를 격퇴하고 이를 군관민이 함께 자축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sup>10)</sup>, 이에 상응하는 형태의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도 합당한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동동의 유래

가 되는 이 사건의 축제적 부각은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반추에 머무르지 않고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 생산적 교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기까지 하다.

유탁장군의 역사적 업적과 캐릭터를 재조명하여 부각시키고, 충무공을 통해서 이미 상당부분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지만 수군의 활약과 해전의 중요성을 이에 연계시키며, 군관과 민의 협력과 화합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것 등은 동동축제가 결합할 수 없는 필수적인 역사 콘텐츠의 기본항이 될 것이다. 유탁장군의 생애와 역사 행적, 특히 그 환로(宦路) 역정 등은 자못 드라마틱한 면이 많은 만큼,<sup>11)</sup>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생애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매체로 작품화하고<sup>12)</sup> 그 캐릭터를 살린 여러 이벤트나 브랜드가 가능할 것이며, 수군과 해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이 또한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 체험 프로그램 분야는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의 ‘축제의 본질 회복’을 위한 핵심적 분야이므로, 꼭 장성마을 또는 여수지역의 전래놀이 여부를 떠나서 ‘고싸움놀이’나 ‘차전놀이’ ‘용줄다리기’ ‘노젓기’ 등을 차용해서 시도하는 것도 고려

10) 김준욱, 전계 논문.

11) 유탁(柳灌/1311~1371) 고려 말기의 대신. 본관 고흥(高興). 자 춘경(春卿). 시호 충정(忠靖). 일찍이 음보로 조정에 나가, 원나라에 가서 숙위(宿衛)하고 돌아왔다. 감문위대호군(監門衛大護軍)이 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고흥군(高興君)에 봉해졌다. 원나라로부터 합포만호(合浦萬戶)로 임명되었고, 충정왕 때 찬성사를 지냈다. 공민왕 초에는 전라도만호가 되었으며, 《장생포곡(長生浦曲)》을 지어 악부(樂府)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서 찬성사를 거쳐 좌승상이 되고 1354년 고흥부원군에 봉해졌다. 원나라가 홍건적(紅巾賊)을 정벌할 때 공을 세우고 돌아와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를 거쳐 경상도도순문사 겸 병마사, 좌정승이 되었다. 69년 노국공주(魯國公主)의 영전(影殿) 신축을 반대하다가 투옥되어, 이색(李穡)의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나, 71년 신돈(辛旽)이 주살되자 그와 관련되었다는 무고를 받아 교수형을 당하였다. 조선 태조 때 고흥백(高興伯)에 추증되었다. 『두산세계대백과』

12) 예컨대, 유탁장군의 생애를 이왕의 지명도 높은 역사인물인 공민왕 및 신돈 등의 행보와 관련하여 삼각 조명으로 양각시켜내면서, 이를 통해 유탁장군의 존재를 고려 말의 격동기에 고난의 행보를 이어가다 마침내는 좌절되고 마는 민중의 여망으로 그려낸다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세 유형 외에도 이 동동축제를 연출해 내는 주제와 방법은 다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다른 주제와 방법을 통하든 또는 이 세 유형중의 하나나 둘 내지는 다를 통하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바, 그것은 전술했던 지역축제로서의 본모습 제자리 찾기 이다. 이것이 회복될 때만이 지역축제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것’으로부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체성이 확실하고 주제가 분명한 축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축제에 반드시 변별적 특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태여 특정지역까지 특정축제를 보러 갈 때는 그 특정축제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변별적이 특징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그 특정지역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수의 특정 기득권자나 유력자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축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진행단계 결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민주적 채널을 통해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축제 집행 조직은 개방적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전체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확인하게 하며 그 인드라망(Indra網)과 같은 유기적 관계의 연대감이 주는 감격 속에 다시금 삶의 힘을 얻게 해야 할 지역축제가 결코 몇몇 인사들의 독점적 배타적 ‘대목 맞이’ 행사일 수는 없는 것이며 구태의연한 난장 상흔의 범람 지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보는 축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축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축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축제,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추종적 축제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창발성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선도적 축제, 질서정연한 안정적 축제이기보다는 에너지틱(energetic)한 역동적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기구와 조직이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충분히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수용적이라면, 거기에 주체적 관

단과 선택의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패러다임을 본래적 면목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축제의 제자리 찾기를 가능하게 할 ‘전환적 프로그램’의 모색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문화적 중량감이 있는 축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의 연고와 그로 인한 역사적 의의, 문학적 또는 예술적 유산으로서의 문학사·예술사적 가치와 미학적 효용, 이와 같은 것들이 빚어내는 문화적 중량감이야말로 축제의 당위성과 가치를 공고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문학·예술 등의 각 분야 공히, 예컨대 학술대회 및 논문공모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와 그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성과들의 간단없는 누적이 그 부피와 중량을 더해가서 축제의 깊이와 무게를 더해 가는 데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축제는 본질적으로 문화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개발 방안-개발 모형 예시

동동축제 연출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취택의 문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이 축제가 특화된 문화예술축제 역사축제 대중축제 체험축제로서의 여러 측면들을 지역축제의 본질 회복과 담지(擔持)라는 전제 위에 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차제에 그러한 축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개발 방안으로서의 다양한 축제 모형 예시와 가능한 이벤트 및 그 디테일의 탐색과 제시는 보다 실용적이고 가시적인 목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기실, 이러한 과제는 이 분야의 관계 전문 업체나 기관의 전문가들이 훨씬 실효적이며 가용성이 높은 현실적 모형들을 안출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나 국외자의 객관적 착상 피력을 통하여 소재의 영역을 넓게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탐색하고 제시하는 개발 방안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축제를 바라보는 문화일반 대중의 여망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단편적 견해와 아이디어의 제시라는 형태로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엄격한 전제나 실무적 조건 없이 엮어낸 착상들은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구현이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진부하거나 피상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다면, 즉 축제 생산자에서 축제 소비자로서의 역지사지와 타산지석의 미덕 발휘가 가능하다면, 이 역시 활용의 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용한 취재로 이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축제 모형을 향한 신선한 발상 전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감히 가져본다.

동동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축제 관념이 가지는 규범적 사항이나 관행 또는 현실성문제를 잠정적으로 미루어 두고 그 개최 형태를 상정해본다면, 예컨대 그 개최 시기나 패턴 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일견 흥미로운 일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동은 그 시가의 형태가 월령(月令; 달거리)체이므로 그 특징을 살려 축제의 개최 시기를 년 중 1회에서 월 중 1회로 월례화 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시험해 볼만한 아이템(item)이라고 생각된다.

동동의 월령에 맞추어 정월부터 선달까지 하위 주제를 각기 다르게 세분해서<sup>13)</sup> 시리즈 축제로 정례화하면, 레저와 관광이 중시되고 문화 향수

---

13) 동동 시가에 있어 그 월령의 바탕이 음력이므로, 우선 음력 달로 짝지을 때, 정월에는 서사의 '덕과 복'을 신는 선박축제와 정월사의 시냇물 하천축제, 이월에는 이월사의 등불 축제, 삼월에는 삼월사의 오얏꽃축제, 사월에는 사월사의 피꼬리축제, 오월에는 오월사의 단오약초축제, 유월에는 유월사의 물가축제, 또는 빗축제, 칠월은 칠월사의 백중축제, 팔월은 팔월사의 가배(한가위)축제, 구월은 구월사의 황화(국화)축제, 시월은 시월사의 열매(과일)축제, 동짓달은 십일월사의 한삼(내의)축제, 선달은 십이월사의 반상(飯床)축제 및 그와 결합된 관련 축제(예컨대 북축제 또는 시가축제, 역사축제와의 결합 등)를 생각해볼 수 있는 바, 월별로 1월은 학술제, 2월은 북축제, 3월은 (시가)문학제, 4월은 국악

가 일상화되는 현시대에 보다 인상적이고 실효적인 이미지로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매월 어느 날 어디에 가면 어김 없이 무엇이 있다’라는 안정적이고 확고한 이미지는 그들 기억의 바탕화면에 하나의 아이콘(icon)으로 기능할 수 있다. 더구나 과거 어느 때보다 기억과 재생 및 그 실행의 주기가 짧고 스피디해진 오늘날 이것은 그 축제의 콘텐츠만 충실하다면 관광객 및 지역민의 여가 프로그램 속에 준비된 ‘바로가기 클릭’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축제가 연간 1회로 (그것도 상당수가 5월 5일 전후로 집중되어있다) 고착된 상태에서 상호 연계 없이 산만하고 잡다한 행사를 며칠간에 집중해서 백화점식 내지 잡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지역민에게는 행사의 선별과 향유에 대한 ‘충분한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고, 예산 및 소재 면에서는 ‘주최 역량’의 낭비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축제의 ‘뭉’을 조성한다든지 전체적 ‘볼륨’을 부풀리고자한다든지 하는 의도,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역량으로 최대의 모양새를 갖추고자하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공포탄 효과’라도 도모해야하는 집행 주체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방식은 도리어 축제 주체나 객체 양자에게 모두 그 ‘선택과 집중’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여하튼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착상 가능한 그 개발 모형들을 제시한다고 할 때, 그 외적 유형과 내적 성격에 따라 이것들을 몇 가지로 가름하여 예시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이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북축제 관련

북축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종 북치기 및 배우기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물박치기, 소고치기’ 등에서 부터 ‘풍물북, 소리북

---

제, 5월은 음악제, 6월은 장승(미술)제, 7월은 연극(영화)제, 8월은 가요제, 9월은 (곰배림배)선박제, 10월은 유탁장군(역사)축제, 11월은 동동(장생포)수군축제, 12월은 동동대동놀이축제 등의 형식 등도 상정(想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우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는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및 세계의 각종 북전시회<sup>14)</sup>와 각종 북공연 및 북춤 장고춤 등의 북 관련 공연을, 그리고 셋째는 참여 및 경연 프로그램으로 소리북(고수)경연 대회를 비롯한 각종 북 경연대회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율레축제가 된다면 체험과 공연 및 경연 프로그램을 매월 단위로 상설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시가(詩歌)축제 관련

시가축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이론적 기반을 위한 학문적 성과의 누적과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축제 자체의 당위와 품격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학술대회가 정착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동동학회' 같은 것이 있어 주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매회 관련 학계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거나 '시가문학회'나 '구비문학회' 등의 관련 학회를 활용하는 것도 현단계에서는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동은 국문학, 국사학, 국악학 분야를 비롯해서 한국무용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두루 관련된 시가인 만큼 그를 포괄한 학술대회가 학제적 성과를 낸다면 자못 그 의의는 광범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시가비(문학비) 건립도 자체적 의의는 물론 부대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비의 전후면에 각기 동동의 노랫말과 유래를 새긴다면, 이는 문학사적 비중을 지닌 시가 작품의 기념물로서, 그리고 곡진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물로서 그 가치가 유형화되는 첫 번째 가시적 성과가 될 것이다. 역사 여행 및 관광 소개서나 기행문 도록 등에 사진과 글 등으로 소개되고 그렇게 해서 널리

14) 우리 전통 북만 해도 '소리북, 풍물북, 소고'를 비롯해서 '뽕고, 장고, 영고, 뇌고, 삭고, 응고, 건고, 교방고, 중고, 좌고, 용고, 절고, 진고, 갈고, 노고, 노도, 도, 영도, 뇌도' 등이 있다.

알려진다면, 관련 답사 및 투어 코스에 포함되고 사진촬영 및 시가 감상 또는 역사 반추의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부차적으로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동동을 비롯해 고려가요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며, 동동의 유래와 관련 역사적 사실 등을 재구성해서 전시하고, 소강당 등에서는 학술대회나 소규모 북 관련 공연 등을 열 수 있게하되, 유탁 장군의 사우(祠宇)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가령 축제 시 제의적 세레모니의 일환으로 유탁 장군 및 군사와 당시의 장생포 주민들에 대한 제향 같은 행사를 하는 해당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셋째로 동동문학상 제도를 만들어 신작 시가를 공모하거나 또는 당해연도에 발표된 시가 작품 중에서 그 취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수상작품집 같은 것을 엮어내는 것도 안으로 동동축제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밖으로 이 축제를 널리 알려 확산시키는데 다소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와 마찬가지로 국악상 제정이나 국악 경연대회 및 창작국악곡 공모, 창작관소리와 창작 창극 공모 및 경연, 연극 대본이나 영화시나리오 공모, 뮤지컬 및 영화 제작 모색, 창작 성악곡 및 관현악곡 공모 등도 관련 낙수(落穗)로 생각이 미쳐 볼 수는 있겠다.

넷째로 노래자랑 및 신곡 경연 같은 것도 대중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부대 행사로 고려해 볼 수 있을 터이며, 동동 노랫말의 주제가 사랑인고로 미혼 남녀 대상 동동 짝 맺어주기, 커플 단위 참여 행사 및 미스 동동 또는 미스터 동동 선발대회, 사진촬영대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도 연출 여하에 따라서는 흥미로운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동동회호대회는 동동의 노랫말을 여러 다양한 서체로 각기 잘 쓴 작품을 공모도 하고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직접 써보는 체험도 하게함으로써, 동동 노랫말의 내용도 알고 그 노랫말에 실린 옛 정서와 표현의 아름다움도 알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등 시립단체들을 활용한 행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해당단체 및 시 당국과의 별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 3) 역사축제 관련

역사축제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동동이 유탁장군의 왜구 격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탁장군축제 내지는 왜구격퇴축제, 수군전승축제, 장생포주민축제의 성격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관련 축제의 포맷을 빌리자면, 가장행렬이라든지 불꽃놀이, 기념대중공연 등이 있겠으나, 그대로 차용한다면 구태의연하지 않은 축제가 될 수 있을 지 다소 의문스럽다. 따라서 가장행렬은 고려해보되, 동동 및 장생포와 유탁 장군 관련 역사 사실에 대한 ‘이야기 그림 전시회’나 ‘고싸움놀이, 차전놀이, 용줄다리기’ 등의 차용, 도보와 선박을 이용한 ‘전적지 순례’ 등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불꽃놀이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장성지구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들, 예컨대 안심산, 무선산, 망마산, 고락산, 전봉산 등 주위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리는 것도 역사 축제의 분위기를 돋구는 데에 다소 그럴 듯 해보이는 면이 있을 것 같다.

둘째로 동동은 장생포의 장승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동장승각기’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도 ‘의의와 재미’, 그리고 ‘참관과 참여’ 양면을 다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의 장승제작자나 연구자, 민속학자, 관련 미술인들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흥미로운 행사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승과 관련해서 특히 동동의 구지(舊址)인 장성지구 해변 주위에 ‘동동장승(벽수)공원’ 및 ‘동동장승거리’를 조성하고 매회 제작된 장승들을 전시한 뒤 공원 내 또는 가로변에 기념물로 설치하는 것도 문학적 역사적 정취가 살아 숨 쉬는 동동의 고장으로서 캐릭터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로 동동은 노랫말 서사(序詞)에 선박(곰배, 림배)<sup>15)</sup>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 데다 유탁장군이 왜구를 물리친 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장성지구 앞 만(灣)을 ‘동동바다공원’으로 지정하고 ‘동동선(곰배, 림배)’을 조성하여 ‘동동 노 짓기 대회, 동동 항해 체험, 동동 뱃놀이’ 등을 운영하면서 해양레저 관광의 가능성도 시험해보는 동시에 동동해양축제로서의 가능성도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능하다면 전통문루식의 기념 조형물로서의 ‘여수의 문(門)’<sup>16)</sup> 축소판 시제품을 ‘동동문’ 등으로 명명하여 여기 세워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 같다.

넷째로 동동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은 문학비라도 세워진다면 먼저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이 동동 옛터의 문학비 소재지를 필수 방문지로 편입하여 가동해볼 수 있겠다. 만약 상기한 문학관, 사우, 장승공원 및 장승거리, 동동바다공원 및 동동선, 동동문 등이 하나라도 실현된다면 그것을 바로 이 투어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먼저 동동관련 장편소설을 공모한 다음 좋은 작품이 나오면 시나리오나 텔레비전극본으로 각색해서 영화 또는 텔레비전드라마로 만들고 그 세트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 테마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여행사나 답사단체들을 통한 동동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만큼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시에서 확고한 비전과 정책적 의지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닐 터이다.

이상으로 시간에 쫓기면서 줄속으로 글을 마무리하게 되어 문득 다시 되돌아보니, 주도면밀하거나 체계적인 개발 방안 제시라기보다는, 그저 생각이 미치는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 없이 매우 거칠고 조악한 채로 나열한

15) 김준욱, ‘동동은 여수의 노래’, 여수문화 제14집, 여수문화원, 2000, 86쪽.

16) 김준욱, ‘여수의 문 건립을 제안하며’, 여수아오동동다리, 민속원, 2004, 202~203쪽.

채 손을 터는 것이 되고 말았다. 좋은 아이디어와 실용적 방안을 기다리는 각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다만 관련 주제에 대한 좋은 착상으로 가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방안들이 무실(無實) 무용(無用)의 폐기지물이 되든, 또는 반면교사의 타산지석이 되든, 혹시 좋은 축제의 디테일을 위한 아이디어의 풀(pool)에 다소의 도움이 되든 간에, 그것이 보다 다각적인 각도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들이 다채롭게 반영된 결과였다면 축제기획의 첫 단계로서 소재의 민주적 수렴이라는 더욱 의미 있는 절차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취합으로 결과 되지 못하고 개인적 단견의 노출에 그치고 말게 된 것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선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기형, 「춘향제의 축제적 성격과 변모과정」, 『춘향과 21세기 한국문화』(춘향제 7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판소리학회·춘향제전위원회, 2005.
- 김성중, 「한국축제의 개념과 범위」, 『소규모 저예산 동별 지역축제론 시론』, 향토 축제문화연구소. 전고필, 「지역축제의 속내와 무심한 관객」, 광주 문화의 집 블로그, 2006.
- 김준옥, 「장생포의 창작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연구』 제44호, 한국언어 문학회, 2000.
- 김준옥, 「동동은 여수의 노래」, 국어국문학회 제42회 전국학술대회, 연세대학교, 1999.
- 김준옥, 「장생포와 동동」,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문학회, 1995.
- 김준옥, 「여수의 문 건립을 제안하며」, 여수아오동동다리, 민속원, 2004.
- 이보형, 「춘향전과 남원춘향제」에 대한 토론」, 판소리학회 제52차 학술대회, 전주 대, 2006.5.13.
- 전고필, 「지역축제의 속내와 무심한 관객」, 광주 문화의집 블로그, 2006.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서울, 1993.

J. 호이징가, 『호모루덴스』, 김윤수 역, 까치 1981 : 놀이와 축제의 관계

Richard Schechner,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Routledge, 2002,  
45~77쪽.

<투고일 : 2006. 6. 15.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 The Development Device And The Production Possibility Of 'Dong-Dong' To The Successful Local Festival

Choi, Jeong-sam

In now a days, The festival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ing in human life. Because the festival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exit from hard labour and dried everyday life. But the present state of local festival in our country is not efficient in that function. So, in this time,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new local festival is becoming urgent task in our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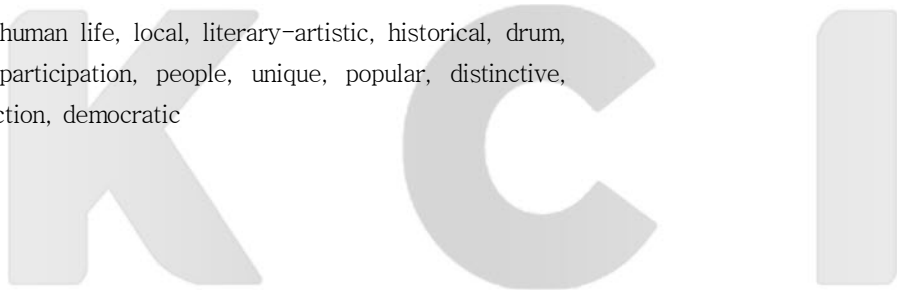
By the time, the discovery of 'Dong-Dong(Jang-Saeng-Po Gok)' as the song of 'Yeo-Soo' open the door of new territory that we can produce new local festival from the combination with the literary-artistic character and historical character and local character that is immanent in 'Dong-Dong' itself. Futhermore, the theme of the 'drum sound' as onomatopoeia(imitating sounds) in 'Dong-Dong' have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to worldwide festival in that case of we may rise up the musical and experiencial and mass and primitive character in added to its character of poems and songs. In principle, the ideal local festival must have the elements of local connection and historical reality and cultural worth and artistic sensibility, in fact 'Dong-Dong' have all these elements in sufficient. So, if we can development 'Dong-Dong' festival, it could be the 'traditional culture festival' and 'local society festival' and 'literary artistic festival'. Moreover, if we add th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Dong-Dong' drum festival could be the most valuable local festival. Actually,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festival is most important thing

for all ages and in all places.

'Dong-Dong' have literature and music and history in itself and historical fact of that is immanent in military significance, so the task of 'Dong-Dong' festival in front of us will be the task of selection among the various pattern of festival. For example, we can choose the 'drum festival' and 'poem & song festival' and 'historical commemoration festival' and so on. In those example, especially 'drum festival' is very unique and popular and distinctive and flexible and various and primitive. In addition to that, the playing the drum (especially 'Pansori-drum') in Korea (an accompaniment with drum in Korean traditional vocal music 'Pansori') have fertile artistic depth and various colorful method in its accompaniment. And drum is easy object to approach in all the people. After all, it has all aspect from popularity to artistic dept. Therefore 'Dong-Dong' drum festival is most suitable to ideal festival of local society.

In this stage, if we can forecast the possibility of reflection of all over the people of this local society with democratic method, it could be most valuable and successful local festival.

**Keywords** : festival, human life, local, literary-artistic, historical, drum, sensibility, traditional, participation, people, unique, popular, distinctive, flexible, primitive, reflection, democratic



к с і

## 彙報

### 沿革

- 1990. 2. 9. 全南古詩歌研究會 創立總會
- 1990. 2. 9~2. 10. 第1回 古詩歌研究發表會
- 1990. 8. 17~8. 18. 第2回 古詩歌研究發表會
- 1992. 2. 25. 光州古典國譯叢書(文學1) 『漢詩文 I』 발행
- 1993. 2. 25. 『古詩歌研究』 第1輯 발행
- 1993. 8. 19. 第3回 古詩歌研究發表會
- 1993. 8. 19. 韓國古詩歌研究會로 會名 改稱
- 1994. 8. 20. 第4回 古詩歌研究發表會
- 1994. 11. 5. 第5回 古詩歌研究發表會  
(松江鄭澈研究 全國學術大會)
- 1995. 2. 15. 光州古典國譯叢書(文學2) 『漢詩文 II』 발행
- 1995. 6. 3 石川の 文學과 思想 學術大會 후원
- 1995. 9. 18. 韓國古詩歌文學會로 會名 改稱
- 1995. 9. 30. 『古詩歌研究』 第2·3合輯 발행
- 1995. 11. 11. 第6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俛仰亭宋純研究)
- 1996. 7. 12. 第7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 1997. 2. 22. 第8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 1997. 2. 28. 『古詩歌研究』 第4輯 발행
- 1997. 8. 8. 第9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 1998. 2. 28. 『古詩歌研究』 第5輯 발행
- 1999. 1. 23. 第10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 1999. 8. 31. 『古詩歌研究』 第6輯 발행

- 2000. 8. 31. 『古詩歌研究』 第7輯 발행
- 2000. 11. 22. 第12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 2001. 8. 30. 第13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湖南詩歌의 實狀)
- 2001. 8. 31. 『古詩歌研究』 第8輯 발행
- 2001. 11. 3. 第14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士大夫歌辭의 傳統과 美學)
- 2002. 2. 28. 『古詩歌研究』 第9輯 발행
- 2002. 8. 31. 第15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古詩歌의 正體性과 美學)
- 2002. 8. 31. 『古詩歌研究』 第10輯 발행
- 2003. 2. 28. 『古詩歌研究』 第11輯 발행
- 2003. 8. 30. 第16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古詩歌의 情趣와 美學)
- 2003. 8. 31. 『古詩歌研究』 第12輯 발행
- 2004. 2. 28. 『古詩歌研究』 第13輯 발행
- 2004. 8. 27. 第17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 2004. 8. 31. 『古詩歌研究』 第14輯 발행
- 2005. 2. 28. 『古詩歌研究』 第15輯 발행
- 2005. 8. 20. 第18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고시가연구방법론의 검토와 모색)
- 2005. 8. 31. 『古詩歌研究』 第16輯 발행
- 2006. 2. 28. 『古詩歌研究』 第17輯 발행
- 2006. 6. 8. 고려가요 <動動> 학술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공동 주최)
- 2006. 8. 18. 第19回 韓國古詩歌文學會 전국학술대회
- 2006. 8. 31. 『古詩歌研究』 第18輯 발행

## 학회 소식

### ◎ 2006년도 제1차 이사회

- 일시 : 2006년 4월 1일(토) 11:00
-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양리조트
- 안건 : 1. 한국학술진흥재단 관련 업무 보고  
2. 『고시가연구』 제17집 발간 경위 보고  
3. 『고시가연구』 제18집 원고 모집 안내  
4. 제19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논의  
5. 일부 임원 보완 선임  
6. 평의원제 신설에 대한 회칙 수정(안) 의결

### ◎ 『고시가연구』 편집위원회

- 일시 : 2006년 7월 15일 (토) 10:00
- 장소 : 전남대학교 김신중 교수 연구실
- 안건 : 『고시가연구』 제18집 투고 논문 심사  
1. 1차 심사(적부심사) 실시  
- 투고 논문 19편 모두 적격으로 판정  
2. 2차 심사(전공심사) 위원 선정

### ◎ 제19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 일시 : 2006년 8월 18일(금) 14:00
-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대세미나실
- 후원 :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발표내용

- \* 김석태(전남대) : 兪菴 惠藏의 사상적 지향과 시문학의 양상  
지정토론 : 김은수(광주대)
- \* 김동하(서강정보대) : 李後白의 七言古詩에 드러난 儒敎思想의 詩的 形象化  
지정토론 : 권순열(조선대)
- \* 유수양(전남대) : 松岩 羅緯素와 岫雲亭文學  
지정토론 : 최한선(남도대)
- \* 류연석·양동식(순천대) : 새로 발굴한 金炳淵의 科體詩 검토  
지정토론 : 박옥규(서강정보대)
- \* 사회자 : 조태성(전남대)

· 총회 의결 사항 :

1. 경과 보고
2. 감사 결과 보고
3. 규정 개정
  - ① 회칙 제17조에 평의원제 신설에 대한 근거 마련
  - ② 논문심사규정 제4조에 표절 및 중복 게재 논문 취소 조항 삽입

## 韓國古詩歌文學會 會則

제1조 이회는 韓國古詩歌文學會라 칭한다.

제2조 이회는 韓國古詩歌文學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調査·整理·研究함으로써 韓國傳統文化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밝히며, 나아가 韓國學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目的을 둔다.

제3조 이회는 本部를 光州廣域市에 두고, 필요한 경우 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 이회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古詩歌의 調査 整理 研究
2. 古詩歌 詩人の 調査 研究
3. 古詩歌 詩人の 漢詩文 翻譯
4. 古詩歌의 現代譯 및 國語學的 解析
5. 古詩歌의 遺蹟地 調査 發掘
6. 古詩歌 관계의 口碑文學
7. 研究論文集 및 研究資料의 간행
8. 研究發表會, 公開講座 및 學術討論會의 개최
9. 기타 이 회의 目的에 수반되는 일

제5조 이 회의 회원은 一般會員과 特別會員으로 구분한다.

1. 一般會員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다시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구분한다. 正會員은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正會員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研究論文集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이 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特別會員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은 理事會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會費納入과 會則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이 회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 1인
2. 副會長 : 3인
3. 理事 : 총무이사, 홍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지역이사 포함 10인 이상
4. 監事 : 2인

제8조 이 회의 임원은 總會에서 선임하며, 理事의 업무 분장은 理事會에서 정한다.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補闕任員의 임기는 전임자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임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0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 議長 이 된다. 회장의 不在時에는 理事 중 最年長者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理事는 理事會를 구성하며,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監事는 이 회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監査하며, 그 결과를 理事會와 總會에 보고한다.

제11조 이 회의는 회의로 總會(定期 및 臨時)와 理事會를 둔다.

1. 定期總會는 매년 8월에, 臨時總會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任員選出, 會則改定, 기타 중요 사업을 의결한다.
2. 理事會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在籍理事 반수 이상으로 개최하며, 주요 業務計劃의 심의, 豫·決算의 의결 및 회원의 入·退會, 任員理事(총무, 홍보, 연구, 편집, 지역), 名譽理事(재정적 도움을 준 사람)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12조 이 회의 會計年度는 9월에서 다음해 8월까지로 한다.

제13조 이 회의 財政은 회원의 會費와 贊助金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4조 이 회의 회지 『古詩歌研究』의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10명 이내)과

투고논문 심사위원(10인 이내)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이 회에서 간행하는 『古詩歌研究』는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로 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1회 더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 논문투고, 심사, 편집위원 등의 구성은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의 구성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으로 위촉하며, 평의원은 회무에 관해 회장이 요구하는 각종 자문에 응한다.

제18조 이 회의 會則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理事會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9조 이 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1차 심사를 하고, 2차 논문 심사를 위촉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20조 (부칙)

1. 이 회칙은 199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2년 1월 2일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3. 이 회칙은 2003년 12월 13일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4. 이 회칙은 2006년 8월 18일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K C I

# 한국고시기문학회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학회에 게재할 논문과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게재를 위한 심사 및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범위와 대상) 이 학회의 학술범위는 한국고시기와 한시문을 중심으로 하고, 대상은 『古詩歌研究』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한 논문이다. 다만 전국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은 제외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은 이 학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절차)

1. 원고가 접수되면 회장은 편집위원회를 결성하고,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2. 1차 심사가 완료되면 전공별로 심사위원단을 결성하고, 해당 분야

에 학술 활동이 뛰어난 자로서 3인을 선정한다.

3. 학회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심사 의견서, 심사기준표 양식, 논문목록표, 심사료영수증 등을 보낸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와 심사기준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평가란에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의견을 상술하고 심사 기준표에 평점을 표시하여 학회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기일 안에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6.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위원 1	위원 2	위원 3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다른위원에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수정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8. 회장은 ‘수정’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내용 또는 반려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9.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게재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할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호에 게재토록 한다.
10.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기준) 접수된 논문은 적절한 논문심사 위원에게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토록 하여 그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1. 주제의 독창성 - 주제가 새롭고 독창적인가?
2. 연구방법의 적합성 - 연구방법이 적합한가?
3. 논리전개의 타당성 - 논증과정이 타당하고 논거제시가 설득력을 가졌는가?
4. 자료의 적절성 - 풍부한 자료를 적절하게 구사하였는가?
5. 학계 기여도 - 논문의 수준이 학계를 선도할 만한가?

※ 평가항목당 20점 - 총점 100점 만점

항 목	점 수	비 고
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계 기여도		
총 점		

제6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기준)

1. 편집위원 선정 기준 : 편집위원은 이 학회 회칙 14조에 따라 한국 고시가에 대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2/3는 최근 2년 간 연구논문(저서포함)실적이 200%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 선정 기준 :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별로 연구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영역별 3명씩 10인 이내로 편집위원이 선정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심사위원은 최근 2년 간 연구실적이 200% 이상인 자로 한다.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

원과 편집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심사료 및 연구비)

1. 논문 투고자는 논문접수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3만원)를 납부해야 하고, 심사 결과 '게재불가'되어도 심사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연구과제의 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지정 연구과제에 대하여 후원자로부터의 특별 조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예산 외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1.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2년 2월 20일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4.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5. 이 규정은 2003년 8월 9일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6. 이 규정은 2004년 2월 14일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7. 이 규정은 2006년 8월 18일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古詩歌研究』 논문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이 학회 회원
  - ② 이 학회의 초청 투고자
  - ③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를 허용한 자
2. 논문의 범위 및 자격 : 한국고시가와 한시문을 중심으로 하며,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서, 전공분야의 독창성 있는 연구 논문에 한한다.
3. 게재료 및 심사료
  - (1) 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자는 논문심사료 3만원을 납부한다.
  - (2) 논문 게재가 확정된 회원은 5만원, 학술지원비 수혜논문은 15만원을 게재료로 납부한다. 다만 20쪽을 초과한 경우는 5쪽을 초과할 때마다 5만원을 더 납부한다.
  - (3) 심사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문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원고 작성 및 제출요령
  - (1) 국문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나, 외국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 (2) 논문초록을 영문(1쪽 이내)으로 작성하되, 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Abstract>10pt

**영문제목**(12pt)

영문이름(10pt)

내용(9.5pt) - 줄간격 150%  
(기타 글꼴 등의 사항은 본문과 동일)

**Keywords :**

- (3) 제출 논문은 프린터 출력물 원본 1부와 사본 3부(심사용) 및 디스켓

(아래아 한글 2002 이상 버전 작성본)을 제출해야 한다.

- (4) 원본의 논문 제목 및 필자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 (5) 원고 분량은 A4용지(80열×32행) 20매 내외로 한다.
- (6) 원본에는 소속, 직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7)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예 : ○○○(제1저자) · ○○○(연결저자)],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 ○○○ · ○○○(연결저자)]
- (8) 논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용지 설정 : 사용자 정의(130×205), 여백주기 : 위쪽(20), 아래쪽(7), 왼쪽(10), 오른쪽(10), 머리말(10), 꼬리말(9)
  - ② 글자 크기 : 모든 글자적용 (장평98%, 자간-10)
    - ㉠ 바탕글(글자크기 : 10.3, 줄간격 : 160, 정렬방식 : 혼합)
    - ㉡ 각주(글자크기 : 8.5, 줄간격 : 140, 문단여백 : 왼쪽(2) 오른쪽 (0), 내어쓰기(10))
    - ㉢ 인용글(글자크기 : 9.3, 줄간격 : 150, 문단여백 : 왼쪽(10) 오른쪽(10), 들여쓰기(10))
    - ㉣ 제목(글자크기 : 15, 가운데 정렬)
    - ㉤ 저자이름(글자크기 : 10.5, 오른쪽 정렬)
    - ㉥ 章(글자크기 : 13, 혼합 정렬 )
    - ㉦ 節(글자크기 : 11.5, 혼합 정렬)
  - ③ 표는 표짜기를 이용하되 선 그리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표의 글자 크기는 9.5 포인트로 한다.
  - ④ 기호
    - ㉧ 단행본 - 『 』

- ㉠ 논문(석·박사학위논문 포함), 작품(시, 소설명), 단행본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 ㉡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 ㉢ 원문 인용(단, 별도의 인용문 처리 항목 속에서는 기호를 생략함), 대화 -“ ”
- ㉣ 기타 단체나 모임 등 강조사항 - 고딕, 밑줄, 방점, 짙은 명조(태명조)

⑤ 각주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게재 형태는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한다.

- ㉠ 이병기, 「시조의 발생과 가곡과의 구분」, 『시조문학연구』(국문학 연구총서 4권), 정음사, 1980, 13쪽.
- ㉡ 홍길동(1997), 「국어사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어사연구』, 태학사.
- ㉢ 외국 원서인 경우 텍스트 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 ㉣ 참고문헌은 한·중·일 기타 순으로 하고, 자료, 논저 순으로 배열한다.
- ㉤ G. 루카치, 반성완 역, 『영혼의 형식』, 심설당, 1990.

5. 인쇄 및 교정 : 채택된 논문의 인쇄는 첫 교정을 위해 교정쇄를 저자에게 보내며 저자는 2일 이내에 교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정 중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6. 원고마감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7. 발행보류 : 발행 예정 면수로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에 우선하여 게재한다.
8. 별쇄본 : 저자에게는 게재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9. 논문제출 및 게재료 납부처 : 한국고시기문학회

## 심사경위

『고시가연구』에 투고된 총 논문은 19편이었습니다. 이들 논문에 대하여 학회 논문심사규정 제4조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주관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3편이 제18집의 게재논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투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의 게재율은 72.2%(13/19)입니다.

K C I

# 한국고시가문학회 가입 안내

한국고시가문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가입 양식을 기재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내) 한국고시가문학회

## 한국고시가문학회 입회 신청서

### (1) 입회 신청

본인은 한국고시가문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합니다.

성명 (인)

### (2) 한국고시가문학회 회원 카드 (200 년 월 일 작성)

성명	(한글)
	(영문)
	(한자)
근무처	(직위: ) (전화: )
집주소	(전화: ) (휴대폰: )
E-mail	
최종 학력	대학교 대학원 학과 과정(재학, 수료, 졸업) 학위:
전공 분야	큰분류( ) 작은분류( )
주요 논저	

※ 우편물을 받으실 곳에 ○표를 하시오. (근무처, 집주소)

## 『古詩歌研究』 제19집 수록논문원고모집 안내

본 학회에서는 학회지 『古詩歌研究』 제19집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한국고시가 및 한시문 관련 연구
2. 자격 : 본 학회 회원 또는 학회의 초청 투고자
3.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4. 원고 제출 마감 : 2006. 12. 31(일)
5. 투고 형식 :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6. 심사 및 게재 결정 : 심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름.
7. 필자 대우 : 학회지 1권 및 별쇄본 10부를 제공함
8.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8만원(심사료 3만원, 게재료 5만원)
  - 투고한 논문이 반려될 경우 게재료 5만원은 환급함.
  -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의 경우는 편당 10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지정 계좌 : 광주은행 074-107-164646 (예금주 : 김신중)
9. 원고 제출처 : 한국고시가문학회 앞 (학회 연락처 참조)

### ★ 학회 연락처

<회장> 김신중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062) 530-3134 sckim@chonnam.ac.kr

<간사> 조태성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016-614-3830 sijogasa@hanmail.net

◇ 평의원 ◇

박준규(전남대) 김성기(조선대) 류연석(순천대) 권순열(조선대)

◇ 임 원 ◇

회 장	김신중(전남대)	지역이사	정병현(서울 경기: 숙명여대)
부 회 장	김준옥(전남대)		이성주(강원: 관동대)
	박영주(강릉대)		김선기(대전 충남: 충남대)
	고순희(부경대)		박연호(충북: 충북대)
편집이사	류연석(순천대)		박규홍(영남: 경일대)
	권순열(조선대)		전일환(전북: 전주대)
총무이사	김은수(광주대)		김종규(전남: 대불대)
	안동주(호남대)		장선희(광주: 광주보건대)
연구이사	최한선(남도대)	감 사	박옥규(서강정보대)
	서영숙(청주대)		김동하(서강정보대)
홍보이사	김대현(전남대)	간 사	조태성(전남대)
	이현주(동아인재대)		박세인(전남대)

◇ 편집위원 ◇

고순희(부경대)	권순열(조선대)	김신중(전남대)
김준옥(전남대)	박규홍(경일대)	박영주(강릉대)
서영숙(청주대)	장선희(광주보건대)	정병현(숙명여대)

古詩歌研究

第18輯

---

---

2006년 8월 21일 인쇄

2006년 8월 31일 발행

발행처 : 韓國古詩歌文學會

인쇄처 : 도서출판 卍印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252-9

전화: 02-912-5000

팩스: 02-900-5036

---

---

ISSN 1229-6007

값 13,000원

к с і